

조선 후기 한중군사관계사

| 상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선후기 한중군사관계사

| 상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선 후기 한중군사관계사

상권



발간사

오랜 전란을 겪은 유럽 여러 나라는 공동의 역사서술을 통해 역사적인 갈등을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중·일 동아시아 각국도 일국사를 탈피한 역사서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동의 역사서술뿐만 아니라 역사서술의 시선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군사사 영역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군사편찬 연구소는 조선과 중국을 주제로 한 연구서를 편찬해 왔습니다.

조선 왕조는 중국의 명·청 왕조와 500년의 시기를 같이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 시기를 조선초기, 조선중기, 조선후기로 나누어 연구편찬을 진행하여왔고, 마침내 지난 2017년과 2022년에 출간된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와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에 이어 이번에 『조선후기 한중군사관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총 5개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배경과 결과, 시대별 한중 국경갈등과 무기체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았습니다. 새로운 시도인 만큼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군사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군사사 연구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자료수집과 연구, 집필에 수고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군사편찬연구소는 올바른 군사사 개념 정립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군사연구 편찬 및 성과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오 성 대



발 간 사 • 4

일러두기 • 8

서 론 • 17

제 1 장 16세기 한중 군사관계의 새로운 변화

제 1 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조선·명·여진의 군사관계 • 39

제 2 절 누르하치의 여진 통일과 조선·여진관계 변화 • 71

제 3 절 국경을 둘러싼 조선·여진의 군사갈등 • 107

제 2 장 17세기 전반기 명청 교체와 정묘·병자호란

제 1 절 후금의 정명전쟁과 조선의 인조반정 • 151

제 2 절 정묘·병자호란과 정축약조 • 189

제 3 절 조선의 전쟁경험과 심양관의 군사외교 • 235

제 3 장 17세기 후반기 변화와 갈등의 한중 군사관계

제 1 절 청의 중국통일과 조선의 왜정외교 • 263

제 2 절 효종대 전후 인식과 나선정벌의 군사적 의미 • 295

제 3 절 숙종대 정세변화와 군사외교제도 • 343



제 4 장 18세기 긴장과 우호의 조청 군사관계 모색

- 제 1 절 옹정·건륭시대와 조청관계 정립 • 385
- 제 2 절 조선의 통치체제와 군사상황 변화 • 417
- 제 3 절 조선의 군사사상과 군사지리 인식 • 459

제 5 장 19세기 격동의 국제정세와 한중 군사관계

- 제 1 절 서구의 진출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 507
- 제 2 절 세도정치의 시대문제와 조선의 군사변화 • 537
- 제 3 절 조선의 군사위기 인식과 미완의 국방개혁 • 569

결 론 • 613

부 록

- 조선후기 대중국 사행 일람표 • 645
- 조선후기 한중군사관계사 연표 • 658
- 참고문헌 • 678

일러두기

1. 이 책의 장, 절, 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항 : 1), 2), 3), 4)
2. 이 책은 서론, 1장~4장까지를 상권으로, 5장~6장, 부록을 하권으로 구분하여 발간했다.
3.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전문연구서로서 고유명사,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는 원어를 병기했다.
4. 한자 및 외국어로 표기하는 인명, 지명, 직명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표기하였다.
 - (1) 각 절과 각 항에 처음 나올 경우에 한자병기하였다.
 - (2) 내용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인용문은 본문에 번역문을 기재하고, 각주에 출처와 원문을 표기하였다.
 - (3) 외국인명, 지명, 직명은 한자병기하였다.
5. 주기(주기)는 전기 위주로 페이지 하단에 실었으며,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실었다.
 - (1) 논문은 필자명, 「논문제목」, 『개제지명』권수(호수), 발표연대, 쪽수 순으로 하였다.
 - (2) 단행본은 필자명, 『서명』, 출판사, 발표연대, 쪽수 순으로 하였다.
6. 본 책은 조선시대 한중군사관계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도 표기에 있어 서기를 우선 표기하고, 해당 연호 및 재위년을 (00 1)으로 표기하였다.
7.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 완결된 문장 인용
 -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부분 인용
 - 『 』 : 단행본, 사료
 - 「 」 : 단행본 및 사료의 항목
 - : 동일 사항의 나열
 - ； : 동일한 수준의 사료
 - ： : 간결한 설명
8. 이 책의 부록으로 연표, 참고문헌을 책 뒤에 실었다.



그림목차

〈그림 1〉 여진이 발생지로 인식한 백두산	48
〈그림 2〉 누르하치와 9부 연합군 전투	72
〈그림 3〉 사르후전투의 첫 교전	74
〈그림 4〉 경원부의 주요 군사진보 현황	84
〈그림 5〉 『건주기정도기』 수록 조선에서 건주여진 거주지까지 노정	97
〈그림 6〉 『무비지』	112
〈그림 7〉 조선초기 조선·명·여진의 국경인식	118
〈그림 8〉 『삼경통의三經通義』 「선후천극생배합도先後天克生配合圖」	123
〈그림 9〉 『직예장성험요관구형세도直隸長城險要關口形勢圖』	125
〈그림 10〉 『천하고금대총편람도』	131
〈그림 11〉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135
〈그림 12〉 조선후기의 세충통	139
〈그림 13〉 후금군의 요양성 공격	149
〈그림 14〉 누르하치의 영원성전투 장면	152
〈그림 15〉 유정의 사르후전투 장면	163
〈그림 16〉 『화기도감의궤』	182
〈그림 17〉 『고지도첩』 남한산성	197
〈그림 18〉 조선후기 광주부의 남한산성	198
〈그림 19〉 조선후기 각궁	217
〈그림 20〉 조총 발사장치	222
〈그림 21〉 수석식 소총의 발사장치	223
〈그림 22〉 『국조오례의서례』 「병기도설」	225
〈그림 23〉 『화포식언해』 「제약식」	226
〈그림 24〉 조선후기 제작된 불랑기	227
〈그림 25〉 조선후기 지승화약통	229

〈그림 26〉 청의 외변	242
〈그림 27〉 『심양장계』	254
〈그림 28〉 청 북경점령 직후 전황도	270
〈그림 29〉 러시아 예르마크의 시베리아 진출과정에서 전투장면	301
〈그림 30〉 청 초기 러시아의 남진과 충돌	306
〈그림 31〉 조선군의 나선정벌 여정	318
〈그림 32〉 알바진요새 스케치	319
〈그림 33〉 『천하여지도天下輿地圖』	326
〈그림 34〉 『동국여지도』 「천하도」	327
〈그림 35〉 『요계관방지도』	328
〈그림 36〉 『요계관방지도』 북경과 서북지역 부분	330
〈그림 37〉 『요계관방지도』의 조청 국경지대	332
〈그림 38〉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백두산 부분	334
〈그림 39〉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338
〈그림 40〉 『북관지도北關地圖』	341
〈그림 41〉 청 사신 아극돈	376
〈그림 42〉 모화관에서 청 사행을 맞이하는 조선국왕	377
〈그림 43〉 전통적인 서울의 외교공간	379
〈그림 44〉 건륭 연간 제작된 『만국래조도萬國來朝圖』	397
〈그림 45〉 건륭제의 십전무공 공신 중 한 명인 얼치어鄂齊爾	398
〈그림 46〉 1739년 청군을 열병하는 건륭제	400
〈그림 47〉 건륭제의 서역정벌 전쟁 장면	401
〈그림 48〉 영조 어진	431
〈그림 49〉 『속광국지경록』	437
〈그림 50〉 『신묘증광록』	438
〈그림 51〉 『훈련도감중기』	465
〈그림 52〉 『무비지武備志』 서문	469
〈그림 53〉 조선후기 세충통북일영도	471

〈그림 54〉 『관북지방 ^{關北地方} 병풍』	488
〈그림 55〉 『화성성역의궤 ^{華城城役儀軌} 』의 화성전도	492
〈그림 56〉 한나라의 미양궁 ^{未央宮}	494
〈그림 57〉 서구 열강 연합군과 태평천국군의 전투장면	510
〈그림 58〉 1856~1873년 사이에 귀주에서 일어난 회족의 반란을 진압하는 청군	511
〈그림 59〉 1854년 남경성에서 태평천국군과 청군의 전투	514
〈그림 60〉 영국과 프랑스군에 의해 파괴되는 북경의 이화원	516
〈그림 61〉 북양해군의 정원호 평면도	520
〈그림 62〉 『홍경래진도』	551
〈그림 63〉 척화비	576



표 목차

〈표 1〉 만력 전반기(1573~1593) 여진의 대명사행 현황	52
〈표 2〉 선조 연간 조명사행 현황(선조즉위~선조 26년)	80
〈표 3〉 명-후금전쟁 전후 주요 사건	106
〈표 4〉 홍무 연간 명의 부정지국 不征之國	110
〈표 5〉 명대 요동도사 휘하 위소현황	114
〈표 6〉 『환우통구』의 육행 陸行 과 수륙겸행 水陸兼行 현황	115
〈표 7〉 청 황위 계승도	157
〈표 8〉 누르하치가 정명전쟁을 시작하며 공포한 칠대한 七大恨	160
〈표 9〉 정묘호란으로 인한 강도약서	193
〈표 10〉 청 태종의 조유에서 제시된 정축약조	206
〈표 11〉 병자호란~효종초 대청사행 현황	238
〈표 12〉 청의 대명정벌전 당시 전체 병력현황	268
〈표 13〉 효종 즉위년 청사의 대조선사행	287
〈표 14〉 효종 즉위년 대청사행	287
〈표 15〉 제1차 나선정벌관련 조청 왕래 외교문서 현황	311
〈표 16〉 2차 나선정벌관련 조청간 왕래한 외교문서	317
〈표 17〉 조선시대 주요 관서지의 편찬 현황	350
〈표 18〉 조선후기 『통문관지』 출판 및 소장현황	355
〈표 19〉 조선후기 청의 대조선사행	369
〈표 20〉 조선후기 영접도감의궤 목록	375
〈표 21〉 조선후기 『무예제보』, 『무예신보』, 『무예도보통지』의 수록 무예비교	484
〈표 22〉 정조대 화성행행 華城幸行 시 당보군 塘報軍 배치현황	498
〈표 23〉 조선후기 『용원필비』에 소개된 무기현황	556
〈표 24〉 조선시대 군사고전 현황	556
〈표 25〉 조선후기 수군 지휘체계 및 주요 전력	602



서론



외교사와 군사관계사

조선은 왕조국가이다.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층이 천명^{天命}에 따른 다스림을 펼친다는 명분으로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 왕조의 발전을 지향했다. 이때 천명을 받은 다스림이란 전통적인 유교의 지배이념에 따라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예적^{禮的} 질서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런 예적 질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적용된다. 천명의 대리자를 자부하는 중심국은 국제질서의 안정을 추구하며, 주변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영역을 준수하며 계서적^{階序的}인 상호관계를 중심국과 맺는다.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사회는 이런 국가 사이의 관계를 예적 질서라 인식했다.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일원이었던 조선은 국제관계를 단순히 국력만을

고려하지 않았다. 사상, 문화적 우월성이 확보된 중심국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있는 국제사회를 지향했다. 이때 중심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국력, 사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월성이 존재해야 가능했다. 이를 위해 명은 원元 말기에 강력한 국력을 가졌음에도 원말 혼란한 시대상황을 개혁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명은 비록 원의 정통성을 인정하였지만, 말기에 이른 원이 스스로 정통성을 상실하였다 주장했다. 명은 정통성을 상실한 원을 대신하여 중심국임을 천하에 천명闡明했다.

조선은 이에 호응했다. 조선은 대외적으로 명을 중심국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고려의 혼란상과 부도덕함을 일신하는 국가로 건국되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고려의 개혁군주 공민왕恭愍王이 명과 봉전封典 관계를 맺었던 방식을 복구한다는 명분으로 조명관계를 맺고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임을 인정받고자 했다. 중심국 명의 홍무제洪武帝에 의해 국가로 인정받은 조선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안정적인 국가로 성장, 발전하였다.

조선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대외적인 침략을 방어하고자 우호적인 대명관계를 전개했다. 즉,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여 직접 군사활동을 전개하기보다 명이 대여진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여 조선과 여진의 군사충돌을 최소화했다. 이는 많은 부분에서 효과를 가져왔다. 일본이 침입하면 조선은 국제질서에서 명의 역할을 주장하여 명군이 참전하도록 했다. 물론 조선의 국력으로 충분히 일본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다면 명군 참전의 요구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의 역할론을 주장하여 수 만명의 명군이 참전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을 때, 조선이 명군의 파견을 요구하여 조명연합군이 임진왜란을 극복한 국제전쟁이 있다. 임진왜란은 조선이 인식한 국제질서의 성격이 반영된 국제전쟁으로 그 결과 조선에 재조지은再造之恩의 영향이 깊게 남겨졌다.

후금(後金)의 성장과 청(淸)의 건국은 조선의 입장에서 국제질서의 대변동이였다. 명청교체는 조선이 건국이후 직면한 최대의 국제정세 불안이였다. 연이은 후금과 청의 침입으로 발생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국제정세에 조선이 국제질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였는가 그 결과물이였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여진의 변화과정에 주목했다. 임진왜란이란 국제전쟁을 치루면서 지속적으로 여진의 흥기(興起)상황을 주목했다. 조선은 조명관계를 강화하여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다. 그러나 후금의 강력한 정명(征明)전쟁은 조선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결국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국가위기에 직면한 조선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청 중심 국제질서로 전환되는 혼란의 시기에 빠아픈 전쟁을 경험했다.

역사에서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국사는 전쟁을 통해 변화를 맞이하고, 변화의 안정화로 평화를 지속하였다. 평화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역사는 또 다른 전쟁을 방지하고자 군사적 역사행위를 필요로 한다. 이런 특징으로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정의가 가능하다.

현재시점에 이해하는 한국사는 반만년의 역사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인식된다. 전대미문의 양난을 경험한 조선은 전후복구를 넘어 새로운 국가질서를 정립하고자 했다. 조선은 임진왜란을 통해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고, 국왕이 도성을 버리고 파천(播遷)하여 요동으로 넘어가는 문제를 두고 논쟁할 정도로 절대절명의 국가위기를 경험했다. 임진왜란의 전후복구를 위해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대외정책을 유연하게 전개하고자 하였지만, 인조반정이란 큰 정세변화를 경험했다. 인조반정의 선명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전에 이괄의 난을 경험하고 많은 군사적 손실이 초래되었다.

대륙에서 정명전쟁을 강력하게 펼치던 후금은 군사적 고려에 따라 조선에 정묘, 병자호란의 빠아픈 전쟁 경험을 남겼다. 조선은 병자호란으로 국왕이 삼전도에서 청 황제에게 패배를 선언하고,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었다.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된 조선은 병자호란의 후유증을 청산하

고 붕괴된 통치질서를 정립하고, 청의 강압적인 대조선 군사정책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군사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가 안정된 시점은 청의 통일전쟁 완료 이후였다. 청은 삼번의 난, 대만정벌, 서역정벌 등 군사적 위기에 조선의 군사외교를 확인한 뒤 강압적인 군사관계를 완화시켰다.

청 제국이 안정화되면서 조청 군사관계는 전쟁이 아닌 평화 속에서 긴장과 갈등으로 전개되었다. 양국 사이에 수시로 발생하는 범월犯越사건은 점차 국경문제로 확대되어 기존에 국경지대로 설정되었던 공간이 국경선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결국 양국 사이에 백두산 정계를 실시하여 국경선을 획정하였다. 국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조선의 국경을 비롯한 국토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단순히 조선의 국토에 대한 이해보다 조청 군사관계 측면에서 양국의 관방시설에 대한 군사지리 인식으로 이어졌다. 조선은 사행을 통해 다양한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군사지도를 제작하여 국토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제고했다.

전쟁이 아닌 평화의 조청 군사관계는 자연스럽게 통상적인 외교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은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청이 제시한 외교절차를 준수하며 필요한 군사정보, 외교정보를 수집하여 국방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관련한 정보수집, 수시로 발생하는 국경 관련 사건, 표류인 사건, 황당선 출몰, 군사문헌과 지도 수입, 병자호란 이후 지속된 세폐歲幣의 삭감,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변무사건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군사외교 절차를 정립하고자 했다. 군사외교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실무 외교관 역할을 담당하는 역관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본 책자는 16세기 이전부터 조선, 명, 여진이 관련된 군사관계의 역사적 흐름을 정리하고, 병자호란과 그 이후 국제정세, 조청관계, 조선의 군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16세기 조·명·여진의 동

북아시아 정세변화, 임진왜란 이후 국제정세, 전후 복구의 다양한 노력, 만주족 후금의 흥기, 광해군의 대외 군사정책과 인조반정, 정묘호란과 조·후금관계, 병자호란의 과정과 정축약조의 강제, 병자호란 이후 왜정외교와 나선정벌의 역사적 의미, 조선후기 정치·사회적 전개와 경제·문화·사상적 흐름, 대륙정세의 변화와 조청관계의 정립,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발생하는 국경문제 등 각종 사건, 사행과 사신접대를 통한 조선의 군사외교와 군사지리 정보 수집, 이양선 異樣船의 등장과 해방론 海防論 대두 등을 중심에 두고, 군사관계를 상세히 살펴 조선후기 한중군사관계사를 정리한다.

이러한 정리를 위해 먼저 개념 정의부터 제시하고자 한다. 조선후기 한중군사관계라는 개념을 머리에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역사사건은 병자호란이다. 그리고 병자호란 이외 또 다른 전쟁은 기존 연구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약 250년의 조선후기 군사관계사를 전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한중군사관계를 전쟁의 관점으로 보면, 조선후기 군사관계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광해군대(1600년대)부터 개항기(1868년)에 이르기까지 250여 년의 역사 동안에 조선과 중국(청)은 병자호란 이외에 아무런 군사관계를 맺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 기간, 조청 양국 사이에 매년 포괄적인 의미의 군사관계가 없었던 해가 없다. 이런 점에서 한중 군사관계를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① 출발점과 ② 또 다른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조선후기 한중 군사관계의 출발점은 전쟁과 평화이다. 한 국가의 역사에서 전쟁이란 가장 험난한 역사경험으로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지만, 국가의 역사는 전시와 다른 평시가 존재한다. 평시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국가방위를 위해 다양한 군사활동을 한다. 국제정세에 관련된 방대한 군사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군사동원, 군수체계, 군사제도, 군사사상,

훈련체계 등을 정비한다. 국제정세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그 국가의 제반 여건에 부합하는 군사정책을 수립하고 외침과 내란에 대비하는 군사력을 양성한다.

이런 조선의 군사정책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백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군사동원과 훈련, 군수체계, 군사편제, 관방체제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분야도 다양하다. 조선의 국가방위는 현실적으로 육로로 이어진 국경 방어와 해로와 연결된 해양방어 등이다. 조선은 타국의 침입에 대비하여 상시 방어체제를 정비하고, 군사훈련을 병행하는데, 대체로 한반도는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 집중되어 시행되었다.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국경은 험준한 산악지대와 수로로 연결되어 일반인의 거주환경이 열악했다.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국경지대는 군사요충지 설치가 역시 열악하여 조선은 군진을 설치했다. 거주와 군진 설치가 열악한 국경지대는 산림과 수로가 겹쳐 각종 삼림자원이 풍부한 점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국경침입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조선후기 국경침입은 조선인과 청국인이 상호 넘어와 불법을 자행하였다. 조선은 국경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지대의 지리정보가 세밀하게 필요했다. 그래서 국경을 중심으로 한 국토의 군사지리 즉, 군사지도에 관심을 가진다. 군사지도는 전시에 활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평시에 준비해 둔다.

몇몇 사례만 고려해도 조선후기 한중군사관계는 단순히 전쟁사의 범주로 한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이 없는 오랜 기간 조선과 청은 상호 치열하게 군사관계를 형성하여 갈등하고 충돌하며 일정하게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이렇듯 조선후기 한중 군사관계는 직접적인 군사충돌 이외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영역에서 관계를 맺었다. 역사에서 국가 사이의 군사관계는 식별, 인식, 정책결정, 정책시행 등 제반 분야를 주도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므로 한중 군사관계는 최종적으로 정치 분야에서 처리된다.

또한, 역사의 시작과 끝은 경계문제로 귀결된다. 군사관계사에서 전쟁은 군사로, 평화는 외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국가관계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국익 추구의 과정에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라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국가 사이의 관계가 외교의 영역을 벗어나면 결국 군사충돌 즉 전쟁으로 표출된다. 이런 점에서 군사관계는 파병요구, 군량조달 등 군사외교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범위의 외교를 제외하고 논할 수 없다.

포괄적 범위의 외교는 조선후기 조청관계에서 군사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조선이 대청 외교절차에 따라 시행한 군사외교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조청관계에서 외교사건이 발생하면, 조선은 이 외교사건이 어떠한 사안에 해당되는가 식별한다. 외교사안을 식별한 조선은 해당 외교사안의 해결을 위해 특정 외교목표를 설정하고, 사행파견과 사신접대 가운데 가장 적합한 외교방식을 선정한다. 사행의 구체적인 목적, 사신, 사행규모, 파견시기, 파견경로 등은 국제정세와 조선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병자호란 이후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된 조선은 외교사건에서 시작된 군사외교 해결을 위해 국왕 명의를 외교문서를 규정된 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행을 통해 청에 전달한다. 또한, 사행은 청의 반응을 담은 황제 명의를 외교문서를 받아 국왕에게 보고했다. 조선은 조청관계에서 발생하는 외교사건을 군무(軍務), 범월(犯越), 강계(疆界), 진주(陳奏) 등 군사관련 외교사안으로 분류하고 전례를 살펴 군사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조선후기 한중 군사관계는 한중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 조선은 청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국내외 각종 군사상황에 대응했다. 조선은 무엇보다 군사환경 변화의 각종 군사정보, 외교정보를 수집하여 군사상황 변화로 인식하고 군사정책 전반에 걸쳐 대응책을 마련했다. 조선이 수집하는 각종 군사정보, 외교정보는 조선에서 수시로 청에 파견하는 사행을 통해 수집되었다. 조선의 군사외교 역시 통상적인 사행에

의해 청에 전달되고 북경에서 외교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조청관계에서 군사문제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국가 차원에서 국가안위에 관련된 범위라 할 것이다. 왕조국가였던 조선에 있어 최대의 외교문제는 왕실의 정통성 관련 사건이었다. 일례로 명에서 조선이 일본과 함부로 왕래하였음을 지적하는 외교사건이 발생하면 조선은 적극적으로 변무하는 외교활동을 펼쳤다. 조선은 명의 외교적 압력에 대응하여 일본이 사행파견을 요구하여 일본인의 침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통신사행을 파견하였다고 변무했다. 이러한 변무외교가 성공하지 못하면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을 때, 명이 조선과 일본의 연계를 의심하며 명군 파견을 주저하였던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은 조청관계에서 공식적으로 적용되었던 외교제도를 준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군사외교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다. 조선후기 외교제도는 사행파견과 청 사신접대로 구분되는데, 조선은 외교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적합한 외교제도를 선택하여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외교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사행을 파견하거나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여 조선의 의도대로 군사관계를 맺고자 했다.

조선시대 왕위계승은 국가의 정통성과 관련된 국가안보의 핵심사안이었다. 국제정세의 군사정보 수집은 조선의 국방정책 수립 및 변화의 기초였다. 국내외에 발생하는 각종 재변(災變)에 정보수집과 보고는 조선의 군수정책에 직접 관련된다. 청으로부터 받아오는 책자와 지도 등은 군사내용과 연관되어 조선에서 새롭게 군사문헌을 편찬하고 관방(關防)지도를 제작하는 기본이 된다. 사행을 오고가며 문견(聞見)한 내용은 조선의 국경문제, 화포개발, 군사제도 변화 등 국방정책 전반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즉, 조선은 조청관계에서 외교 전반에 걸쳐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외 정세변화에 민감하게 국방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 수립하여 대응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후기 조청관계에서 외교는 군사관계라 표현할 정도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사는 해당 시대의 최첨단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군사관계는 조선과 청의 무기체계, 화약과 화약무기 제조기술, 전선戰船 제조기술, 성곽축조 기술 등을 포함한다. 군사기술과 연관된 중요 외교사안으로 지리정보 및 지도유통 문제가 있다. 군사문제는 군사지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에서 양국은 군사기술 및 군사정보의 유출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고, 상대국의 정보와 기술을 수집하고자 노력했다.

국가의 경영에 있어 시대별 주된 사상의 흐름이 있다. 조선이 지향하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주는 사상의 흐름이다. 병자호란 이후 반청의식은 대명의리론大明義理論에 기반하여 조선의 군사정책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청이 제국으로 안정화되고 조청관계가 정상화되자 조선 지식인들은 문명의 중화를 조선이라 자부하는 소중화小中華의식을 가졌다. 대명의리론의 사상 흐름 속에서 조선은 북벌론에 따라 군사정책을 펼쳤으며, 소중화의식 속에서 조선은 국방개혁을 펼쳤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군사와 관련된 사상적 흐름 역시 중요한 군사관계사의 한 영역이다. 군사사상은 국내외 정세와 사회경제적 여건이 고려된 군사정책으로 시행된다.

조선후기 조선의 군사관련 정책과 제도 등은 모두 정보를 토대로 한다. 군사문제와 관련한 군사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군사정보는 직접적인 군사변화 및 군사활동 이외에 정치, 경제, 외교, 무기기술, 지리, 사상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수집된 군사정보를 국가 수준에서 가장 체계화하면, 종원, 군수, 군사지리, 군사편제, 훈련, 무기체계 등으로 반영된다. 요약하면 비록 전쟁이 없는 2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후기에 조선은 동아시아 중심국 청과 정치, 경제, 외교, 기술, 지리, 사상, 정보, 제도와 훈련 영역에서 상호 치열한 군사관계를 맺으며 갈등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또 다른 관점을 전제한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역사의 저변에 큰 영향을 미친 전쟁이라면 병자호란을 떠올린다. 병자호란의 전쟁경험과 결과, 기억은 이후 조선의 역사전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조선은 병자호란의 경험과 기억으로 시대정신으로 반청의식이 면면히 존재했으며, 병자호란의 경험을 극복하고 발전시켜 소중화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 조선은 다양한 층위의 역사과정을 경험했다.

조선후기 역사인식에서 문제는 병자호란을 단순한 전쟁사로 보는 시각이다. 병자호란은 발발 이전에 이미 100여 년간 여진을 대하는 조선과 명의 인식과 정책이 누적되어 발생한 역사사건이다. 그 층위가 너무 확고하여 병자호란 이후 200여 년간 그 경험과 기억의 테두리에서 역사가 전개되었다.

병자호란을 바라보는 관점을 단 3개월간 전쟁에 집중하면 조선후기 한중 군사관계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방해된다. 포괄적으로 여말선초에서 조선중기까지 여진의 통합이 어려웠던 이유와 누르하치에 의해 통합되고, 약소한 후금이 중심국 명을 대신하여 동아시아 중심국으로 등장한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병자호란의 경험과 기억을 조선은 200여 년간 어떻게 되새김하고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그 성공과 한계는 무엇인가를 살펴 봐야 한다.

조선후기 한중 군사^{軍事}의 역사

본 『조선후기 한중군사관계사』는 몇 년 전 발간된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2017년),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2022년)의 최종 연구결과물이다. 역사학은 시대구분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까지 이해되는 한국사의 주된 대상시기로 조선시대는 매우 중요한 시대이다. 조선시대의 역사전개를 군사사의 관점에서 집중 조망하고, 명에서 청으로 이어지는 중국사의

전개과정에서 조선이 국가안보 및 국가발전을 위해 어떻게 중국과 군사관계를 형성하였는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조선시대를 시대구분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기준점이 있겠지만, 정치, 군사, 외교사적 관점에서 건국에서 연산군대까지 14세기말 ~ 15세기, 중종반정 이후 임진왜란까지, 임진왜란 이후 개항기에 이르기까지 시대구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조선초기, 조선중기, 조선후기 조선과 명·청과 군사관계를 단순히 전쟁사의 관점을 뛰어넘어 정치·사회적 전개와 경제·문화·사상적 흐름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으로 확장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한 연구성과로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가 출판되었다. 본 『조선후기 한중군사관계사』는 앞의 두 연구성과물을 종합하는 결과물로 정리되었다.

본서는 연구대상 시기를 17세기 ~ 19세기초에 해당하는 광해군대에서 세도정치기로 설정했다. 물론 이는 일반 한국사학계에서 공감하는 시대구분인 조선초기, 중기, 후기의 3시대 구분 및 조선전기, 후기의 2시대 구분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중 군사관계의 관점에서 임진왜란 전후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에서 제시한 바, 조선시대 한중 군사관계사는 기존의 전쟁사 중심 연구경향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차별화를 위해 기존 연구경향의 한계와 문제점을 식별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에서 군사관계사라는 범주는 보편적이지 않았다. 많은 연구에서 한중관계사를 정리하면 대체로 정치·외교·교역 분야에 집중했다. 정치·외교 분야라 하더라도 사행을 중심에 두고 특정 인물의 대명인식, 대청인식 등을 분석했다. 반면, 군사관계사는 일반적으로 전쟁사라 인식한다. 그러나 전쟁사는 전쟁 자체에 한정된다면, 군사관계사는 군사 전반에 관련된 역사이다.

전쟁사는 전쟁의 발발 원인, 전개과정, 주요전투, 전투인물, 전쟁결과

및 영향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본서의 연구대상 시기인 광해군대에서 세도정치기까지 약 200년의 역사에서 군사관계사를 전쟁사로 전제한다면 명청전쟁과 관련된 전쟁으로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198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선은 아무런 군사관련 대중국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한 국가의 대외관계는 직·간접적으로 군사관계와 연관된다. 조선이 명·청과 대외관계를 맺는 국가목표는 왕실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조선의 안위를 보장받는 것이다. 이 자체가 군사관계이다. 주변국 일본, 여진의 정세 변화에 따라 조선은 명·청과 밀접한 군사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전쟁사의 범주를 넘어 국제정세, 군사외교, 의례, 무기체계, 전략·전술, 병법서, 국경문제, 군역체계, 군제변화, 국방정책 등 포함하는 포괄적인 군사관계사를 살펴본다.

본 책자는 이상과 같은 조선후기 한중 군사관계사를 병자호란 등 전쟁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분야를 정리한다. 또한, 한중 군사관계의 정리는 조선과 청의 군사를 2대 1의 비중으로 다룬다. 전체 구성체계는 서론, 결론을 제외하고 5장 체제이다. 개별 장은 16세기 이전, 16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순차적인 시대흐름에 따라 편성하여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장은 1절에 국제정세 및 중국의 군사상황을 분석하고, 2절과 3절은 조선의 정세와 군사상황 및 한중관계에서 변화양상을 정리한다.

제 1장은 “한중 군사관계의 새로운 변화”란 제목으로 16세기 이전 조선, 명, 여진의 군사관계와 여진통일로 인한 조선의 대여진관계 변화, 동북아시아 주요 세력이 군사관계의 핵심 갈등사안이었던 국경문제를 점검하였다. 조선후기 한중 군사관계의 배경에 해당하는 장이다. 16세기 이전 동북아시아는 명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 명, 여진이 삼각관계를 형성하였다. 조선은 여진과의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피하고자 명을 통해 여진을 제어하도록 했다. 명의 전통적인 기미정책으로 분열되었던 여진은 누

르하치에 의해 통일되었다. 누르하치에 의한 여진 통일이 가지는 한중 군사관계의 변화 의미를 살펴보고, 특히, 임진왜란이란 국제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조선과 명, 여진의 군사관계를 정리한다. 조명관계에서 실질적인 국경을 압록강 하류의 제한된 접경이라면, 조선과 여진관계는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향후 조청관계로 전환되며 군사관계의 핵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조선의 대청 군사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제 2장은 “명청교체의 국제질서 변화와 조선의 정묘·병자호란”이란 제목으로 후금의 대명전쟁과 국제정세 변화, 인조반정과 조선의 군사상황, 정묘·병자호란과 정축약조 등 광해군대에서 인조대까지 한중 군사관계로 구성된다.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는 대명전쟁을 선포하고, 몽골과 조선에 대해 군사압박을 가했다. 후금의 공세에 명은 조선군 파병을 강요하고, 광해군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제한된 병력을 파병했다. 후금은 파죽지세로 명군을 격파했지만, 영원성전투에서 패배하자 홍타이지가 즉위하여 전열을 재정비하고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과 명의 군사관계를 차단했다. 조선은 유화적인 대외관계와 폐모살제(廢母殺弟)를 명분으로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인조는 후금군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하였지만, 이괄의 난으로 많은 전력의 손실을 보았다. 후금의 침입으로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조선군은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홍타이지는 청을 건국하고 본격적인 명청 전쟁에 앞서 정묘호란 이후 조명관계를 유지하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침입하여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병자호란에서 조선과 명은 군사대응의 차이를 보였다. 조선은 항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삼전도의 치욕으로 정축약조를 맺고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었다.

제 3장은 “변화와 갈등의 17세기 한중 군사관계”란 제목으로 병자호란 이후 청의 중국통일 과정과 남명정벌, 삼변의 난, 대만정벌, 러시아의 남진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한다. 순치제에서 강희제까지 청이 국제정세 변화와 군사상황에 따라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대조선 군사관계를 맺었는가

살펴본다.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고, 병자호란의 경험과 기억으로 반청의식이 팽배하여 효종대 강력한 북벌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성한 청의 군사적 위상을 인정하고, 정축약조(丁丑約條)라 불리는 청의 군사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활동을 펼쳤다. 심양관을 중심으로 조청 군사관계의 현안을 처리했으며, 왜정(倭情)을 활용하여 일본의 침입에 대비한 조선의 국방강화를 요구하고, 나선정벌군을 파병하여 청에 우호적인 군사관계를 보였다. 청 강희 연간 대외관계가 점차 안정되고 조선의 대청 군사외교의 결과로 인조대 정축약조의 군사적 제약은 다소 완화되었다.

제 4장은 “18세기 청의 변성과 조선의 새로운 한중군사관계 모색”이란 제목으로 강희제 후반부터 18세기에 강희·옹정·건륭으로 이어지는 청의 전성기에 준가르 정벌, 소수민족 정벌 등 청 중심 국제질서를 확립했다. 이 시기 청은 조선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거의 해소하고 원만한 조청 군사관계를 맺고자 했다. 조선은 내부적으로 숙종대 이후 영장제(營將制)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속오군(束伍軍)체제를 갖추었으며, 산성을 보강하여 관방체제를 정비했다. 조선은 대외적으로 조청 군사관계가 안정되자 적극적으로 군사외교를 펼치고자 다양한 사행 파견과 청나라 사신접대를 제도화했다. 사행파견과 사신접대를 통해 대륙의 정세와 청의 정세변화에 대한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방정책에 반영했다. 이런 군사외교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역관을 양성하고 활용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으로부터 화약제조 서적을 수집하고, 백두산 정계비 획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김지남(金指南)과 같은 역관이 있다. 15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북방 국경지대의 범월(犯越)사건이 이 시기에 조청 군사관계에 핵심사안으로 부각되었다. 전통적으로 국경지대에 인구유입을 막아 상호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월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했다. 조선은 청에 강력하게 범월사건을 항의하고, 재

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채삼^{採參}과 경작의 경제적 이익이 컸던 이유로 없어지지 않고 더욱 발생했다. 점차 조청 군사관계에서 범월은 단순 월경^{越境}에서 강계^{疆界}사건으로 확대되고, 결국 양국이 백두산 정계비를 획정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망우초^{莽牛哨}를 비롯한 압록강의 각지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에서 시작된 백두산 정계비는 세워졌을 때부터 논쟁되었으며,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에 주요 군사현안이었다. 조선은 범월을 계기로 국경과 국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국경과 연결된 청의 주요 관방시설을 파악하고, 국경지대에 대한 군사지리적 정보를 수집했다. 그 결과 조선은 다양한 북방지도, 관방지도를 제작하여 국토와 국경에 대한 방어정책을 강화했다. 또한, 조선은 조청 군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외교사건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관련 외교문서를 정리하여 정조대 『동문휘고^{同文彙考}』를 편찬하고, 향후 발생할 군사외교 문제에 참고하고자 했다. 청은 화약 제조기술 및 화포 제작기술의 대외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했지만, 조선은 실무 역관을 사행에 파견하여 화약 제조기술을 도입하여 화약제조의 문헌을 편찬했다. 이를 각 군진^{軍鎭}에 배포하여 화약무기체계를 정비하고 발전시켰다. 조선은 조선후기 화약무기체제로 전환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화약 제조 기술을 내재화하고, 각종 무기를 정비했다.

제 5장은 “격동의 19세기 국제질서와 한중 군사관계”란 제목으로 19세기에 접어들며, 누적된 사회모순과 통치체제의 이완, 서양의 접근과 이에 대한 동양사회의 대응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 원인이 되어 청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조청관계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에 이를 국제정세, 군사상황, 국방정책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19세기 국제정세 변화와 조선의 국방정책을 정리하는데, 군사지리, 무기체계, 군사동원, 군제 변화 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청과 조선의 정세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무엇보다 조선의 경우, 민란과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대표되는 세도시기의 역사성을 살펴 구체적인 국방정책의 현안을 정리한다. 또

한, 서구의 진출과 조청관계의 변화를 통해 서구의 진출이 가져온 조선의 세계관 변화 및 과학기술, 군사문헌을 통한 군사사상의 변화 등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서구와 이양선의 출몰 및 군사정보로 수집되는 서구의 침입양상에 대해 조선에서 대두되는 해양인식 변화 및 해방론을 19세기 조선의 군사변화 측면에서 살펴본다.

결론은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 『조선후기 한중군사관계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구작업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조선시대 한중군사관계사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향후 한국군사사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덧붙인다.



韓中軍事



— 1장 —

16세기 한중 군사관계의 새로운 변화



제1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조선·명·여진의 군사관계

제2절 누르하치의 여진 통일과 조선·여진관계 변화

제3절 국경을 둘러싼 조선·여진의 군사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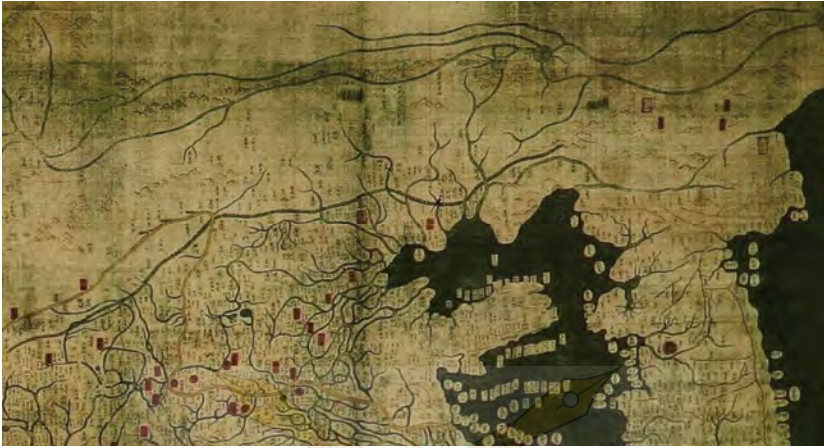
제1장

16세기 한중 군사관계의 새로운 변화

16세기 이전 동아시아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 조선, 여진은 상호 긴박한 군사관계를 맺었다. 명은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위해 여진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조선은 국제정세에 따라 군사정책을 수립하고 여진의 침입에 대비했다. 여진은 명의 기미정책을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으로 거듭나고자 했다.

명은 만력 연간에 정세가 불안하여 통치질서가 이완되자 여진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누르하치는 건주여진을 통합한 뒤 여진 통합을 위한 군사 팽창을 주도했다. 명은 누르하치의 건주여진 통합까지 방임했지만, 여진 통합에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 대응하고자 했지만 군사역량이 부족했다. 국제전쟁 임진왜란이 발발한 상황에서 누르하치가 두만강 유역으로 진출하자 조선은 조명 군사관계를 강화하고, 변호^{藩胡} 여진의 이탈을 방지했다. 이 과정에 조선과 여진은 군사문제로 갈등했다.

제 1 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조선·명·여진의 군사관계



“천하의 일은 미세한 데에서 일어나지 않음이 없다. 天下之事，莫不起於微”

누르하치의 흥기에 대해 선조가 내린 비망기
『선조실록』 권70, 선조 28년 12월 6일(갑진)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 개념

16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격동의 시대로 몰아간 임진왜란은 조선에 큰 충격을 주었다. 조선은 초전에 크게 패배하자 국왕이 파천하고 명군의 참전을 요구하는 등 통치 권위를 상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군을 재정비하고, 의병과 수군의 활약으로 조선은 전쟁을 극복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 이후에 노출되었다. 조선은 전후 복구에 몰두하여 붕괴된 통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처럼 조선이 전후 복구에 전념할 때,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새로운 거대한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요동지역 전반에 걸쳐 명의 통제력은 매우 약화되었으며, 건주여진을 중심으로 여진 통합의 움직임이 요동과 한반도 북부까지 영향을 주었다. 조선, 명, 여진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변화는 이미 임진왜란 이전에 전조를 보였다.

조선은 건국 이후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통치의 권위와 국가안보를 확보하고자 했다. 조선은 전통적인 유학의 왕도정치를 추구하며, 대외관계에 중화를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존중했다. 조선은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국제질서의 불안은 대외관계와 국내 통치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국제전쟁은 조선에 국가적 명운을 건 대외정책의 변화를 강요한다. 전쟁 자체도 큰 부담이지만, 전쟁의 배경이 되는 국제정세에 조선이 선택하는 대외인식과 정책에 따라 조선은 정치, 군사, 사회적 부담에 직면하기도 한다.

조선후기는 국제적으로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청 중심 국제질서로 전환점에서 시작된다. 국제질서의 전환은 단순한 중심국의 교체를 넘어 조선의 세계관, 대외관계, 통치질서 등의 변화를 수반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즉, 명청 교체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의미하며, 조선은 기존 명에서 청으로 교체된 중심국과 어떻게 대외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¹⁾

조선후기 한중 군사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조선시대 국제질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조선이 천명(天命), 중화(中華), 문명, 정통성, 예의(禮儀), 사대, 교린 등을 고집스럽게 대외관계에 적용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선의 입장에서 시간, 공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조선의 고민이 이해된다. 조선이 고민한 점은 대상의 변화가 아닌 국제질서의 원리에 대한 고민이었다. 조선의 세계관에서 국제질서는 순리와 이치의 문제였다. 대외관계에 적용되는 개념은 인간으로 구성된 국가, 국가로 구성된 국제질서, 국제질서가 보편성을 가지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자연의 순리(順理), 이치(理致)가 정당해야 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특정 국가와 외교를 종결하고 새롭게 타 국가와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면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선시대 새로운 대외관계 정립은 별개의 문제이다. 현대 만국체제와 달

1 김경록,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朝·明關係」, 『세계 속의 한국사』 문화로 보는 한국사 5, 이태진교수정년기념논총, 태학사, 2009, 158~163쪽;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한중관계의 전개 양상」, 『중국학보』 60, 2009, 287~316쪽; 「홍무제의 대외인식과 조공제도의 정비」, 『명청사연구』 37, 2012, 1~31쪽; 「홍무연간 명의 봉전 정비와 조명관계」, 『중국사연구』 106, 2017, 59~94쪽. 조선시대 외교에 해당하는 역사용어는 事大이다. 조선이 중화에 해당하는 명, 청에 대해 외교관계를 맺으면 이를 사대라 하고, 주변국인 일본에 대해 외교관계를 맺으면 交隣이다. 사대와 교린은 사료에서 “명과의 사대에 있어, 왜와의 교린은” 등과 같이 중국, 일본과 외교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만국체제가 아닌 階序의인 국제질서가 보편적이었던 전통시대 조선은 대외관계를 맺는 국가별로 사대, 교린으로 표현했다. 동등한 국가간 질서가 아닌 1개 중심국가를 중심으로 동급의 주변국이 국가관계를 맺은 형태였으며, 상호간에는 의무와 권리가 명확했던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사대는 현재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대가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또한, 조선의 대외관계, 외교관계의 용어로 적합하지만, 이 용어에 추가적인 용어를 결합하면 현재의 관점에서 역사에 맞지 않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대주의’이다. 일정한 사상적 경향을 의미하는 주의를 조선시대 외교에 해당하는 용어에 덧붙여 현재의 목적에 맞는 용어를 역사용어인 듯이 사용하는 것이다. 굳이 ‘사대’와 ‘주의’를 결합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외교주의’의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조선의 대명·대청 외교인식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대인식이란 용어는 사용가능하다. 이때도 강대국에 약소국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종속적인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대중국인식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조명관계에서 조선은 명을 上國으로 인식하며 명 황제 내지 관료들의 부정적인 정국운영에 대해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정덕제의 잘못된 정치, 가제제의 대례의문제 등에 대해 조선 국왕과 신하들은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명에 대한 인식마저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때 조선의 대명인식은 중화의 계승국가로 상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비판하는 외교인식 즉 사대인식을 가졌다.

리 계서적階序的인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국력과 예적禮的 질서를 중시하였다.² 전통시대 국제질서의 개별 국가는 신분제 사회에서 통치명분을 하늘의 순리 즉 천명天命에서 찾았다.

또한,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 개념은 오랜 역사를 가진다. 이는 동아시아 구성원들이 오랜 기간 사고하고 경험한 가장 합리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국가와 국제질서의 범주가 확립된 시점은 춘추전국시대이다. 이 시기 중화는 주변부 이적夷狄과 대비되는 제하諸夏의 종족을 의미했다. 중화는 지리적 중심지 이외에 도덕과 문화의 우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가족관계와 동일하게 국가 사이의 관계를 중화개념으로 설정하는 발전이며, 당시 가족관계가 확대된 국가 사이의 관계를 종반관계宗藩關係로 인식하였다.³

이렇게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가관계는 지리에서 시작되어 문화·도덕이 추가되어, 가족관계의 예적 질서가 국가관계로 확장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천하의 모든 나라는 천하일가天下一家를 형성하여 상호 존중과 보살핌이 전제된 예적禮的관계의 국제질서였다.⁴ 물론,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

2 那波利貞, 『中華思想』, 『東洋思潮』, 岩波書店, 1936, 7~20쪽; 박충석·유근호, 『조선조의 정치사상』, 평화출판사, 1980, 99쪽; 王曾才, 『中國對西方外交制度的反應』, 『清季外交史論集』, 臺灣商務印書館, 1972, 27쪽; 이춘식, 『중화사상』, 교보문고, 1998, 143~148쪽; 김경록,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朝·明關係』, 『세계 속의 한국사』 문화로 보는 한국사5, 이태진교수정년기념논총, 태학사, 2009, 158~163쪽.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中華'와 '事大'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중화는 고대 중국인들이 스스로를 지리적으로 주변부와 달리 부르던 夏·華·華夏·諸夏·諸華·中州·中夏·中原·中土·中國 등 용어에서 시작되었다가 점차 문화·역사적으로 개념으로 형상화되었다. 세계의 중심이란 의미의 中과 문명국가로 夏나라가 결합된 중화는 초기엔 천자의 나라와 제후의 나라까지 포괄하는 용어이다.

3 김한규, 『古代中國の世界秩序研究』, 일조각, 1982, 10~32쪽; 陳潮, 『傳統的華夷國際秩序與中韓宗藩關係』, 『韓國研究論叢』2, 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 1996, 220쪽; 邢義田, 『天下一家: 中國人的天下觀』劉岱(編), 1981, 459~460쪽; 高明士, 『從天下秩序看古代的中韓關係』, 『中韓關係史論文集』,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1983, 144~145쪽; 陳潮, 『傳統的華夷國際秩序與中韓宗藩關係』, 『韓國研究論叢』2, 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 1996, 215쪽; 陳連開, 『中國民族研究初探』, 知識出版社, 1994, 76~80쪽.

4 권선홍,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4, 26쪽; 박인수, 「화이지변과 중국민족주의」, 『퇴계학논총』3, 1997, 209쪽; 徐杰舜, 韋日科(編), 『中國民族政策史鑑』, 廣西人民出版社, 1992, 42~43쪽; 何芳川, 「華夷秩序論」,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서에서 모든 나라가 가족관계의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가족관계의 기본은 안과 밖이다. 중앙의 중화와 차별되는 동서남북의 이적(夷狄) 국가는 분명하게 화이분별(華夷分別)되었다. 이러한 화이관념(華夷觀念)은 자연스럽게 안의 가족국가를 존중하고, 밖의 이질적인 국가를 구분하는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성질을 가진다.

고대 중국은 한족(漢族) 국가의 단결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이민족과 구별하여 점진적으로 민족의식을 형성했다. 중화를 중시하는 화이분별론은 오랜 기간이 지나자 단순한 종족의식에서 문화의식으로 확장되었다. 화이분별론은 이민족도 문화적 우월성을 가지면 중화가 되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중심국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주로 중국 대륙에 들어와 통치하였던 이민족이 주장했다. 즉, 동아시아사에서 고대를 벗어나며 중화개념은 종족의식보다 문화의식으로 공유되어 시대별 국제질서의 기준으로 정착되었다.⁵ 중화의 범주가 주변부로 확대되는 결정적 계기는 몽골의 원이었다. 전대미문의 세계제국을 건설한 몽골은 동아시아에 원나라를 건국하고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했다. 원명 교체기에 명이 원을 대신하며 중화를 주장했다. 문제는 국제질서에 포함된 주변국이 중화를 자처하는 국가에 대해 중화로 인정 여부이다. 비록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으로 주변국으로 존재하더라도 중심국을 중화로 인정하지 않고 강대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중화를 자처하는 국가가 현실적으로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이하면 중화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중화개념은 국내 통치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화(華)는 화이질서에서 덕치(德治)와 예치(禮治)를 통해 현실 세계에 구현된다. 즉, 화는 다스림의 정치를 윤리차원으로 승격시켜 다스림의 주체가 문명스러움을 의미한다. 전통시대 모든 국가는 국내의 다스림이 덕치이자 예치라 주장

1998-6(35권), 1998, 30~32쪽.

⁵ 이성규,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정문길 외 엮음,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학지성사, 1995, 132~134쪽.

했다. 국내 통치에 덕치, 예치를 시행하는 국가가 국제적으로 화이질서를 주관하는 중화로 인정받았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왕은 하늘에서 부여 받은 천리에 부합하는 명령 즉, 천명을 정치로 구현하여 국가를 중화의 문명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문화적 우월성과 국력을 바탕으로 중심국으로 인정받게 된다.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화로써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기준이 문화적 우월성이었기에 문화융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많은 국가들이 주변에서 중국 대륙에 들어와 스스로 중화임을 천명하기 위해 문화정책을 폈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결론적으로 국제질서는 중심국이 예禮에 기반한 왕도, 덕치를 펼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적용하여 중화로 존중받아야 형성된다. 국제규율로 예는 수준 높은 국가를 수준 낮은 국가가 공경하는 형태이다. 예 규범으로 국제도덕을 규정하는 신信, 국제의모國制儀貌를 규정하는 경敬, 국제공리는 의義 개념이 작용된다.⁶ 국내에서 최고 통치자의 다스림이 왕도와 덕치에 기반하면 다스려지는 시대 즉, 치세治世라 하고, 다스림이 무력과 강압에 기반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어지러운 시대 즉, 난세亂世라 한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중심국이 중화로 국제질서를 경영하면 질서있는 국제사회라 하고, 중심국이 중화가 아닌 강국으로 국제질서 경영하면 무질서한 국제사회라 한다.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명을 중화로 인식하고, 명 중심 국제질서를 질서있는 국제사회로 여겼다. 반면에 여진은 오랑캐로 인식하고, 청 중심 국제질서를 전쟁으로 편입시킨 폭압적인 국제사회로 인식하였다.

동아시아 전통적인 천하관은 중화를 중심으로 국토개념이 적용되었다. 중심에 중화가 존재하고, 주변부로 나아가며 핵심지역에 진복甸服, 제후가 위임받은 후복侯服, 중화의 영향력이 미치는 최종지역에 수복綏服, 중화 문명이 이완된 요복要服, 독자적인 세력이 존재하는 황복荒服으로 구성되었다. 중심국과 주변국은 사대자소事大字小의 조근朝覲과 빙문聘問을 통한 관계라면,

6 陳顧遠, 『中國國際法溯源』 (상무인서관, 1967).

주변국 간에는 상빙^{相聘}, 교린^{交隣}, 수신^{修信}의 방교^{邦交}관계였다.⁷ 문제는 중심국의 위계에 의해 주변국 간에 관계가 통제된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전통시대 국제질서는 천하관에 기반한 각 국가의 개별 국토개념을 가졌다. 근대 이전까지 동아시아는 자연에 따라 형성된 산과 하천을 경계로 하는 국경을 상정했다. 고대는 거주형태와 거주지역에 따라 명확한 국경선보다 국경지대를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점차 시대가 발전하며 국가와 세력 사이에 상호 경계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경을 두고 갈등하였다. 국제정세가 급변하며 동아시아 각국은 영역을 확대하고자 치열하게 충돌했다.

조선은 1392년 건국과 동시에 이런 중화 관념에 따라 명 중심 국제질서를 인정하고 왕실의 정통성과 국가안보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선의 대외인식 및 대외관계를 부정하고 오랫동안 오랑캐로 천시하던 여진이 후금과 청을 건국하고 정묘호란, 병자호란의 전쟁을 통해 중심국임을 강요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조선의 입장에서 외교정책 및 외교인식의 쉬운 전환이 아니었다. 조선의 천하관, 세계관, 통치이념 등의 일대 전환을 전제로 하는 변혁이었다.

이렇게 조선이 명 중심에서 청 중심의 국제질서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쟁하였던 것은 국왕이 전대미문의 치욕스러운 패전의식을 치르는 전쟁경험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살펴봐야 설명된다. 조선 광해군에서 인조 전반까지 대외적으로 명과 후금은 전쟁으로 충돌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이 시기까지 명은 여전히 동아시아 중심국이자 최대 강대국이었다. 조선은 중화이자 강대국이었던 명을 버리고 상대적으로 오랑캐이자 세력이 약한 후금을 선택할 수 없었다. 요동에서 발생한 전투에서

⁷ 김홍철, 『외교제도사』 (민음사, 1985), 54쪽.

후금이 비록 연전연승하였다는 정보는 조선이 분명 파악하였지만, 전체 국제정세를 종합하면 최종적으로 후금이 명을 이길 가능성은 여전히 낮았다.

이 과정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발생했다. 기습적인 후금의 침입으로 조선이 패전하고, 정묘호란의 뼈아픈 결과가 있었지만, 조선은 변함없이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후금과 현실적인 우호를 맺었다. 병자호란은 전혀 다른 시대조건과 결과를 초래했다.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을 비교하면, 임진왜란은 결사 항전하여 결코 조선이 패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병자호란은 국왕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나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밝히고 청의 신하로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될 것을 맹세하고, 더불어 명을 적대시할 것을 약속한 전쟁이었다.

조선의 입장에서 임진왜란은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병자호란은 명백히 패전한 전쟁이었다. 임진왜란은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려고 한 침략전쟁이라면, 병자호란은 청의 조선 점령보다 정명(證明)전쟁에 앞서 명에 우호적인 조선을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전쟁이다. 임진왜란은 조선 자체가 목표였던 전쟁이라면, 병자호란은 명이 목표였던 전쟁에 조선이 대외관계 선택에 따라 휩쓸린 전쟁이었다. 조선은 정작 자국이 목표였던 전쟁에서는 침략군을 격퇴하였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 치른 전쟁에서 패배했다. 7년간의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3개월의 전쟁은 패배했다. 전국토가 전쟁터였던 전쟁에서 승리한 반면,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선이 인식한 여진(만주족), 조선과 여진관계를 좀 더 역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이 절대 강국으로 등장하여 중국 대륙을 통일하였음에도 조선은 반청의식으로 북벌론을 추진하고, 조선후기 전체에 걸쳐 청을 중화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관계는 국경, 채심(採參), 외교관계, 전쟁 등 시대별 다양한 사건이 국

내외 정세변화와 연관되어 전개되는 국가 존망의 문제이다. 조선후기 한중 군사관계의 서막은 16세기에 시작된다.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은 여진을 북방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오랑캐로 인식하고 직접적인 전쟁보다 중심국 명의 통제를 통해 견제하고자 했다.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여진의 역사전개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과 여진의 관계는 건주여진의 통합, 조선의 국경침입에 대한 강경 대응, 국제전쟁 임진왜란의 발발과 여진의 통합, 조선에서 여진에 대한 명의 통제 강화 요구, 명의 여진 통제 강화, 명·여진 갈등 고조, 후금 건국과 전쟁 선포, 명의 조선군 파병 강요, 사르후전투, 인조반정과 조선·후금 갈등과 정묘호란, 청 건국과 병자호란, 명청전쟁, 입관入關과 명청 교체 등 오랜 역사의 격변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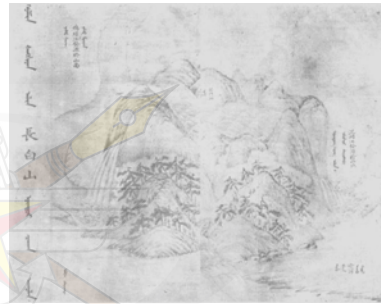
조선이 건국되는 시기, 대륙에 신흥국가 명이 건국되어 몽골의 남겨진 흔적을 일소하고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통치체제를 갖추었다. 명은 이러한 대내적인 통치방식을 대외적으로 확장하여 명 중심 국제질서를 확립하였다.⁸ 명의 중국통일을 확인한 조선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신흥국으로 정통성을 인정받고 통치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했다. 당시 여진은 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존재하다가 명에 의해 기미위소羈縻衛所로 편입되거나 반독립적 형태로 거주했다. 명은 가장 위협적이었던 몽골을 견제하면서 여진은 동북지역의 위협적이지 않은 세력으로 인식했다.⁹

⁸ 김경록,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 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 35, 명청사학회, 2011; 「명초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 『군사』 99, 군사편찬연구소, 2016; 「홍무연간 명의 요동경략과 조명관계」, 『군사』 102, 군사편찬연구소, 2017; 「명 홍무연간 요동인식과 군정체제」, 『명청사연구』 51, 명청사학회, 2019.

⁹ 남익현, 「명과 여진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29, 고구려발해학회, 2007, 401~426쪽; 김경록, 「조선전기 동북아의 정세와 전쟁」, 『군사』 110, 군사편찬연구소, 2019, 203~239쪽.

조선·여진관계는 명·여진관계에 큰 영향을 받았다. 명·여진관계는 명이 처한 정세변화와 여진의 교역요구에 대한 명의 반응에 따라 긴장과 충돌의 변화를 보였다. 홍무제는 적극적으로 요동경략(遼東經略)을 추진하여 요동의 몽골, 여진 등 여러 세력을 통제하고자 했다. 요동경략을 달성한 홍무제는 요동의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요동도사(遼東都司)를 설치하고 군정(軍政)을 실시했다. 영락제(永樂帝)는 연왕(燕王)으로 정난지역(靖難之役)을 일으켜 조카 건문제(建文帝)를 몰아내고 등극했다. 영락제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위기간 지속적으로 몽골은 정벌을 단행하였지만, 여진은 초무(招撫)하여 내조(來朝)하도록 했다.¹⁰

당시 요동은 여진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이 주로 수렵, 유목생활을 하며 거주한 지역으로 명의 국방정책에 중요한 지역이었다. 지리적으로 명의 직접 통치가 가능한 곳은 요동도사 등을 설치하여 통치했지만, 직접 통치를 벗어난 지역은 세력화를 방지하고자 했다. 명은 요동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 민족의 흥망성쇠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이이제



〈그림 1〉 여진이 발생지로 인식한 백두산

(출처 : 『만주실록』 권1)

건주여진에서 후금으로, 청으로 발전한 여진은 백두산을 발생지로 중시하여 강희 연간 조선과 국경문제의 핵심으로 백두산정계를 교섭했다.

¹⁰ 전해중, 「귀화에 대한 소고-동양고대사에 있어서의 그 의의」, 『백산학보』 13, 1972, 6쪽; 이원택, 「조선전기의 귀화와 그 성격」, 『서울국제법연구』 8-2, 2001, 225쪽; 한문종, 『조선전기 향화수직왜인 연구』, 국학자료원, 2001; 김경록, 「조선초기 귀화정책과 조명관계」, 『역사와 현실』 83, 한국역사연구회, 2012, 214~217쪽.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귀화는 현대와 다른 의미였다. 현대의 귀화는 특정 국적취득을 통한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 활동함을 의미하지만, 전통시대에는 귀화가 국적개념으로 해명되지 않는다. 국적 취득의 귀화(naturalization)와 달리 전통시대 귀화는 聖王의 教化를 호모하여 그 교화를 받기 위한 歸服, 歸附였다. 물론 공간적으로 특정 국가의 영역에 들어와 거주하고, 관작과 관직을 하사받아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 권리를 가진다. 귀화와 유사한 형태가 이민이다. 전통시대 국적의 변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중심 국가가 주변세력을 초모하면 교화를 명분으로 귀화, 향화하는 경우는 있다.

이以夷制夷 정책을 활용했다. 특히 명은 여진을 건주여진建州女眞, 해서여진海西女眞, 야인여진野人女眞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 분산되고 갈등하도록 정책을 펼쳤다.

명은 국가통치에 있어 북경과 인접한 요동이 중요했다. 이에 적극적인 요동정책을 펼쳤지만, 여진은 직접 간섭하기보다 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기미정책을 폈다. 명은 여진을 고대부터 숙신肅慎 세력으로 인식했다. 명은 요동을 지리적으로 혼동강混同江 동쪽과 개원성開原城 북동까지를 직접 지배지역으로 인식하고, 이곳에서 동해까지 많은 부족들이 거주하였다고 보았다. 이들 가운데 북쪽에 몽골계열의 올랑합兀良哈이 거주하고, 조선은 요동의 동남쪽에 존재했다. 명의 요동 밖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배정책은 영락제에 의해 시도되었다. 영락제는 요동 밖에 노아간도사奴兒干都司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 거주 여진추장을 도독都督, 도지휘都指揮, 지휘指揮, 천호千戶, 백호百戶, 진무鎭撫 등 관직에 임명하고 황제 명의의 칙인敕印을 하사했다.

명의 정책에 대해 여진은 대체적으로 순응하였다. 명의 기미위소에 편입되며 여진은 관직을 받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구체적인 물질적 보상을 요구했다. 마시馬市로 대표되는 교역을 요구했다. 이에 명은 건주위, 건주좌위, 건주우위, 모린위毛憐衛 등 여러 여진에게 매년 100여 명 규모의 사행을 허락하여 이들이 명에 와서 황제를 조공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했다.¹¹

여진과 몽골이 공존하던 요동은 경작에 적합하지 않고, 식량의 자체 조달이 어려웠다. 험한 지리 때문에 명은 산동에서 해로로 각종 물산을 조달했다. 요동에서 자생적인 경작이 어렵다는 말은 인구가 적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여진을 포함한 여러 부족은 제한된 농업과 목축을 병행한 수렵생활을 했다.¹²

11 『만력회전』 권107, 예부, 조공3, 東北夷. 명대 대외정책과 대외인식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동북세력으로 海西, 建州을 인식한 점에서 확인된다.

12 桑凡, 「明后期辽東军人群体的生存状态研究-以粮饷为中心」, 『東北史地』 2012-3.

개략적인 여진의 변화를 살펴보면, 영락 연간에 원대부터 내려오던 군사체제가 붕괴되자 요동의 중부지역에 거주하던 홀라온^{忽剌溫}이 요동 남부로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은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다. 몽골의 아스토^{阿蘇特} 부족장 아르구타이^{阿魯台}가 벤야시리^{本雅失里}를 내세워 대원^{大元}을 자칭하였다. 명은 몽골이 통합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 불화를 조장하기 위해 오이라트 마라무토^{馬哈木}를 순령왕^{順寧王}에, 타이빈^{太平}을 현의왕^{賢義王}에, 바호 호로도^{把禿字羅}를 안락왕^{安樂王}에 책봉했다. 이후 아르구타이를 화녕왕^{和寧王}으로 책봉하여 명이 통제하고자 했다. 이후 선덕 연간에 오이라트가 세력을 확장하여 아르구타이를 압박하자 아르구타이가 동북쪽으로 이동했다. 그 여파로 요동 북쪽의 올랑합^{兀良哈} 3위^衛가 위협을 받고, 이들이 남하하자 홀라온 여진이 순차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하였다.¹³

1434년(선덕 9) 몽골을 통일한 오이라트 토곤^{脫歡}은 아르구타이를 제압하고, 몽골 칸 후손이었던 톡토부키^{脫脫不花}를 칸으로 추대했다. 오이라트의 강성은 요동에 큰 영향을 주어 건주여진이 위협을 느끼고 남하하였다. 1438년(정통 3), 건주위가 파저강^{婆猪江}까지 이동하자, 별도의 부족이었던 건주좌위는 두만강 유역으로 이동했다. 1439년(정통 4), 토곤을 계승한 에센^{也先}이 명 황제를 사로잡는 승리를 거두었다. 에센은 그 여세를 몰아 요동으로 진출하여 해서여진을 압박했다. 몽골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해서여진은 명의 회유책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요동으로 이동하였다.

이때부터 명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은 해서여진은 명 가정^{嘉靖} 연간(1522~1566년)에 사자전위^{死者前衛}의 하다^{哈達}와 우라^{烏拉}, 탑로목위^{塔魯木衛}의 예허^{葉赫}, 비하위^{肥河衛}와 한하위^{罕河衛}의 후이파^{輝發} 등 호륜^{扈倫} 4부^部로 통합되었다.¹⁴ 앞에서 설명한 홀라온은 호륜 4부에 속했다. 명은 1575년(만력 3)에 해서여진을 친명세력으로 포섭하고자 하다 부족장을 용호장군^{龍虎將軍}

¹³ 魏清彩, 「明前期的辽東边政及其社会效应」, 『商丘师范学院学报』 2009-2.

¹⁴ 김윤순, 「누르하치의 扈倫4部 통합과 후금의 건국」, 『강원사학』 26, 강원사학회, 2014, 147~172쪽.

에 책봉하여 하다를 통해 전체 여진을 통제하고자 했다.

명의 여진정책은 기미羈縻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진의 여러 부족들의 상호 갈등을 조장하고, 명이 통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여진 각 부족에게 차별적인 관직 수여 및 사행의 기회를 부여해야 했다. 즉, 여진 각 부족장을 기미위소羈縻衛所의 무관으로 임명하고 이들 부족장이 명의 무관으로 황제에게 조공하는 사행을 허락하는 것이다. 사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명은 기미위소의 무관 정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한정된 숫자의 무관임명 및 사행을 허락하여 여진 제 부족 사이의 갈등을 조장했다.

만력 연간 명은 사행으로 온 해서여진의 추장에게 도독을 임명하고 연회를 베풀었다.¹⁵ 상대적으로 물품이 부족한 여진은 명에 공마眞馬를 공물로 전달하고 반대급부로 상을 받았으며, 비록 기미위소의 관직이지만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신분이었다. 이는 여진이 명을 상대로 국경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¹⁶ 여진의 대명사행 인원은 300명 이상으로 말교역 뿐만 아니라 상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매력적인 혜택이었다. 이처럼 여진의 대명사행 요구는 만력제가 등극한 1573년(만력 원년), 8월 9일까지 11회 사행한 점에서 확인된다. 이들은 북경에서 말 교역과 하사품을 받았다.¹⁷ 만력제의 등극이란 최대 경사를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황제의 등극에 대한 사행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다. 만력 연간 명의 여진정책이 회유 중심으로 전환된 결과이며, 여진의 대명사행을 통해 정치·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합쳐진 결과였다.

만력 연간 여진의 대명사행은 200여 명 이상의 대규모였다.¹⁸ 만력 전

¹⁵ 『명신종실록』 권11, 만력 원년 3월 1일(신사).

¹⁶ 『명신종실록』 권12, 만력 원년 4월 8일(정사).

¹⁷ 『명신종실록』 권12, 만력 원년 4월 15일(갑자); 16일(을축). 만력제가 등극하자 여진 여러 부족은 적극적으로 조공하여 상과 연회를 받았다.

¹⁸ 『명신종실록』 권25, 만력 2년 5월 25일(무술); 권26, 6월 12일(을묘); 권27, 7월 5일

〈표 1〉 만력 전반기(1573~1593) 여진의 대명사행 현황

연도	소계
1573년(만력 1)	11회
1574년(만력 2)	3회
1575년(만력 3)	5회
1576년(만력 4)	9회
1577년(만력 5)	5회
1578년(만력 6)	2회
1579년(만력 7)	13회
1581년(만력 9)	11회
1583년(만력 11)	4회
1584년(만력 12)	3회
1588년(만력 16)	8회
1589년(만력 17)	2회
1590년(만력 18)	2회
1591년(만력 19)	6회
1593년(만력 21)	3회
합계	87회

* 전거 : 『명신종실록』

반기 여진의 대명사행 횟수는 많은 편이었다.¹⁹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만력제가 즉위하였을 때는 만력제의 시대를 알리는 의미에서 여러 여진에게 사행기회를 부여한 반면, 점차 안정화되었다. 장거정이 집권한 시기에는 여진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행의 기회를 부여한 반면, 만력 10년 만력제가 친정한 이후에는 여진정책이 내부 정세불안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만력 전반기까지 명에 사행한 여진은 누르하치의 건주위보다 해서여진이 많았다. 이는 명의 여진정책이 해서여진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누르하치가 처음으로 사행을 파견한 시점은 1590년(만력 18)이다. 즉,

(정축). 만력 2년에 海西者刺衛 女直都督 阿失卜은 211명, 塔魯衛 女直都督僉事 籠卜은 179명, 海西古城衛 女直都指揮同知 兀答은 200명, 忽蘭山衛 女直都督同知 阿卜은 110명 등으로 모두 사행규모가 작지 않았다. 해서여진의 咬郎兀衛 都指揮使 大汗, 禿赤衛 都指揮僉事 少里 등도 사행했다.

¹⁹ 『명신종실록』 권35, 만력 3년 2월 21일(경인).

누르하치의 건주여진 통합 및 전체 여진 병합 이전까지 명은 여전히 해서 여진을 중시하여 이들의 사행을 받았다. 명은 여진의 다양한 부족들이 명에 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여진의 경쟁과 내부 갈등을 유도했다.

또한, 명은 여진에 대해 기미정책으로 경쟁을 유도했다.²⁰ 물론 여진이 불법적으로 명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군사적인 정벌과 제압을 병행했다. 명의 여진정책은 실제 요동의 군사지휘관 능력에 의해 실효성 유무가 결정되었다. 당시 요동의 실권자였던 이성량(李成梁)의 군사활동과 만력제의 여진정책은 일정한 간극이 존재하여 향후 여진의 정명(證明)전쟁 발미를 제공하였다.

건주여진의 통합, 후금과 청의 건국, 명청전쟁, 명청 교체 등으로 이어지는 시대는 만력제가 통치하던 시대였다. 만력 후반기 명이 요동과 여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면서 여진은 통합과 국가건설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만력 연간에 여진 통제권을 상실한 이유는 명의 정세불안 때문이다.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요동정세가 변화하고, 여진이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은 전적으로 명의 통제권 약화에서 시작된다. 여진이 통합하고 후금을 건국하는 과정에 명의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당시 명의 황제는 만력제(萬曆帝)이다. 9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만력제는 10년 동안 대리청정(代理聽政)의 형식으로 통치했다. 내각대학사 장거정(張居正)이 사망한 뒤 비로소 친정(親政)한 만력제는 정치적으로 관료들과 충돌했다.

황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황제에게 집중된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황제가 보편적인 통치를 펼칠 수 있도록 관료들의 보좌를 받았다. 관료들은 황제를 견제하기 위해 예치(禮治)와 법치를 강조했다. 명은 원말 혼

²⁰ 赵宇, 「明代的女真朝贡政策与辽東马市变迁」,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20-2.

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통적인 예치를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몽골의 원 제국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렸던 국가이다. 명은 예에 기반한 법제^{法制}를 정립하고 천명^{天命}을 받은 황제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갖추었다. 절대적인 황제 권력의 정통성은 예에 기반해야 했다. 예는 질서를 의미하며, 황제 권력은 정당한 황위 계승에 의해 정통성이 확보된다. 황위 계승은 예에 기반한 질서에 따라 질서있게 계승되어야 했다. 그러나 황위 계승은 미래 권력의 향배를 좌우하므로 황제와 관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때문에 모든 황제는 향후 자신의 뒤를 이어 명을 통치할 황태자 책봉에 매우 신중했다. 이는 관료들도 마찬가지였다.

고대 주나라의 종법제^{宗法制} 정립 이후 황위 계승은 적장자^{嫡長子} 상속이 기본이었다. 또한, 황위 계승은 관료사회의 권력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황제와 관료사회의 관점이 종종 충돌했다. 그러나 세상이 이념과 원칙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만력제가 친정한 이후 자신의 첫째 아들보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주고자 하자 관료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1582년(만력 10), 효정황태후^{孝靖皇太后} 왕씨^{王氏}는 만력제의 첫째 아들 주상락^{朱常洛}을 낳았다. 문제는 만력제가 첫째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을 황태자로 책봉하고자 하면서 발생했다. 만력제는 황귀비^{皇貴妃} 정씨^{鄭氏}를寵愛하였는데, 1586년(만력 14) 정씨가 만력제의 셋째 아들 주상순^{朱常洵}을 낳자 첫째 주상락이 아닌 주상순을 황태자로 삼고자 했다. 만력제의 주상순 황태자 책봉주장에 관료들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종법을 강조한 관료들은 조속히 장자 주상락을 황태자로 책봉하라고 요구했다. 황제인 자신의 주장을 반대하는 관료집단을 만력제는 불쾌하게 여겼다. 그러나 홍무제 이후 정립된 관료체제에서 만력제가 직접적으로 이를 무마하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이에 만력제는 정무를 거부하여 관료들을 압박했다.²¹

21 『명신종실록』 권587, 만력 47년 10월 2일(신해). 貴州 道御史 蕭毅中の 만력제에 대한

가정嘉靖 연간 이후 명 관료사회는 정파성이 강했다. 학연과 지연을 통해 문관뿐만 아니라 무관들도 중앙의 내각 대학사를 정점으로 하는 관료 사회에 연결되어 강한 정파성이 있었다.²² 문무 관료의 정치적 미래는 다음 황제로 누가 즉위하느냐에 달렸다. 관료들은 중법을 내세워 만력제를 압박하고, 만력제는 철저히 무응답하였다.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가 걸려있는 점에서 관료들은 물러설 수 없었다. 결론은 예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가졌던 관료들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만력제는 정무를 거부하며 정사를 자신이 죽을 때까지 대면하지 않았다.²³

정치적인 변화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만력 연간 정세변화는 1582년(만력 10), 장거정 사망하고 만력제가 친정하면서 시작되었다.²⁴ 장거정이 사망하자 그가 추진하였던 개혁정치는 종료되고, 만력제가 친정하면서 개혁정치의 성과는 모두 사라졌다. 장거정의 개혁정치에서 피해를 보았고 생각한 관료들이 장거정을 탄핵하자 만력제는 장거정 지우기를 단행했다. 장거정 집권기에 재정적 안정은 오히려 군사활동에 적극적인 군수지원이 가능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장거정이 집권했던 만력 10년까지 기간, 명은 요동과 동북방에 대한 통제권을 확고하게 행사했다. 그러나 장거정 지우기 작업은 재정악화와 군사활동의 제약이 초래되었다.

한편, 만력제가 친정하는 해, 대외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명의 최대 위협세력이었던 몽골의 순의왕順義王 엄답俺答이 사망했다.²⁵ 엄답의 사망은 자연스럽게 몽골의 위협이 축소됨을 의미한다. 비로소 명은 몽골에 대한 군사부담을 줄이게 되었다.

기록에서 만력제는 30년간 不郊·不廟·不朝하였다고 했다. 만력제는 관료사회와 만나는 일체의 정무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황제로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다. 특히 자신이 관심있는 황실의 공사 등에 적극적인 황제문서를 하달하여 강조하기도 했다.

²² 賈艷敏, 「明万历年间立储事与万历朝政」, 『黄淮学刊』(社会科学版) 1992-4, 53~57쪽.

²³ 김경록, 「만력 전반기 명의 정세와 임진전쟁 참전과정」, 『만주연구』 35, 2023, 165~196쪽.

²⁴ 『명신종실록』 권125, 만력 10년 6월 20일(병오).

²⁵ 『명신종실록』 권121, 만력 10년 2월 4일(계사).

명의 요동정책과 여진정책에 있어 초무 등 회유와 포상만을 시행한 것은 아니다. 필요시 적극적인 정벌이 시행되었다. 명대 군사력을 운용하는 기본은 위소체제와 황제에게 집중된 군령권이다.²⁶ 위소체제와 군령권의 중앙집권화는 병력 운용에 많은 시간과 병력동원, 군수조달 등이 필요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임진왜란에 명군의 참전이다. 이외에 만력제의 등극한 해에 발생한 지역의 반란에 대한 진압군 투입과정이다.

일례를 살펴보면, 1573년(만력 원년) 2월에 광서순무廣西巡撫 곽응빙郭應聘은 장황한 보고서를 만력제에게 올렸다. 그 내용은 부강府江에 거주하던 요족瑶族이 일으킨 봉기를 진압한 공로와 포상을 건의한 것이다.²⁷ 요족은 명의 관원이 다스리는 것에 반발하여 1572년에 봉기하여 주변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명군이 초기 진압에 실패하자 병비부사兵備副使 유온劉穩은 만력제에게 많은 토벌군을 요청했다. 유온의 보고를 접한 병부는 광서의 각 주司州에 주둔한 토관병土官兵을 네 대초大哨로 편성했다. 삼동초三峒哨는 참장參將 왕세과王世科가 지휘하고, 부사副使 김주金柱가 통제하도록 했으며, 동안초東岸哨는 참장 전봉상錢鳳翔이 지휘하고, 첨사僉事 하도남夏道南이 통제하도록 했다. 서안초西岸哨와 수초水哨는 도사都司 동룡董龍과 왕승은王承恩이 지휘하고, 부사 정무鄭茂가 통제하도록 하고, 이들 전체 병력을 총병관總兵官 이석李錫이 통솔하도록 했다. 토벌군이 편성되면 당연히 군량과 군수지원이 따라야 했는데, 이는 참정參政 호직胡直이 맡고, 군기와 군율은 부사 유정거劉廷舉를 감군으로 임명해 감독했다.

토벌군은 반란지 주변에서 긴급하게 편제된 병력으로 매우 신속하게 투입되었지만, 1572년 10월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토벌작전을 3개월간 전개했다. 처음부터 요족의 반란군은 전투력이 높은 군사력이 아니라 지역민 중심이었다. 민란이었기에 토벌군은 10개의 요새를 점령하고, 반란군 두목

²⁶ 김경록, 『조선전기 한중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2022.

²⁷ 『명신종실록』 권10, 만력 원년 2월 23일(갑술).

양전보楊錢甫 등 10명과 요족 반란군 4,667명을 사살하고, 포로 440명을 사로잡았다. 소규모의 요족 반란을 진압하는 토벌은 1차적으로 주변 지역 병력을 집중하고,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실패하면 다른 도사都司에서 병력을 조발調發하여 토벌하는 2차 작전이 시행된다. 결론적으로 지역민이 반란군의 주력을 이루고, 병력도 5,000여 명임에도 토벌군을 편제하고, 군량과 군수, 감독관 등을 정비하여 토벌하는데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수렵생활로 다져진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보유한 여진은 기병 중심의 운용체제를 갖추었다. 여진의 침입은 위에서 살펴본 요족의 반란과 차원이 다르다. 명은 여진의 침입이 가지는 군사적 위협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초기부터 여진을 기미정책으로 대응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회유와 상급을 하사하지는 않았다. 회유와 군사정벌을 병행했다.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은 요동도사가 담당했다. 만력 연간 명의 요동정책을 주도한 인물은 여제汝契 이성량李成梁이다. 이성량은 원래 고조부 이영李英이 조선에서 명으로 귀화한 집안 출신이다. 이성량은 철령위鐵嶺衛 지휘첨사指揮僉事라는 무관을 세습했다. 원래 명의 무관제도에서 전통적 무관집안 즉, 군적軍籍이 아니면 습직襲職이 허가되지 않았지만, 여진을 정벌하는 과정에 공적을 인정받아 추천되고, 무관직을 세습할 수 있었다. 이성량은 협산참장險山參將, 협수요양協守遼陽, 서도독첨사署都督僉事를 거쳐 임시 총병관으로 승진하여 여진에 대응하기 위해 요동의 주요 군사시설을 강화하고, 각지의 병력을 충원했다.²⁸

이후 이성량은 탁산卓山 전투에서 승리하여 도독동지都督同知에, 요양遼陽 전투, 전둔前屯 전투, 철령진鐵嶺鎭 전투, 건주여진 왕고王杲와의 전투 등에서 군공을 세워 최고무관직인 좌도독左都督이 되었다.²⁹ 이성량의 요동지배에 있

²⁸ 『명목종실록』 권18, 융경 2년 3월 8일(무오): 권19, 4월 26일(을사); 권50, 4년 10월 6일(경자); 권64, 5년 12월 23일(신해).

²⁹ 『명신종실록』 권2, 융경 6년 6월 13일(정묘).

어 장용보(長勇堡) 전투, 심양(瀋陽) 전투, 금주(錦州) 전투, 의주(義州) 전투, 하동(河東) 전투, 장정보(長定堡) 전투 등이 큰 역할을 하였지만,³⁰ 장정보전투에서 공적을 허위 보고한 사건이 탄로나고 탄핵되어 모든 상급(賞給)을 상실하였다.³¹

탄핵되었던 이성량을 다시 관직으로 불러온 것도 여진이었다. 1578년에 여진의 침입이 심해지자 명은 이성량을 영원백(寧遠伯)으로 삼아 요동방어를 맡겼다. 1580년대 이후 여진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요동 각지를 침입했다. 예를 들면, 1581년(만력 9) 이성량은 여진 속파해(速把亥)가 지휘하는 10만 명의 공격을 광녕에서 물리쳤다. 이성량의 여진과의 전투에서 많은 여진추장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누르하치의 여진 통일 이후 정명(證明) 전쟁의 명분으로 거론되었다.³²

이성량은 요동방어의 최고 책임자로 여진이 다양한 지역을 공략하면 자신이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주전력을 투입하여 승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요동 전역을 방어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았다. 이성량이 주력을 투입하지 않는 각지의 명군은 전물 당하기도 했다. 이성량의 이러한 개인 공적을 중시하는 군사활동과 지휘는 요동의 명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누르하치가 건주여진의 통합을 진행하던 시점에 명의 주요 군진 지휘관계를 살펴보자. 1585년(만력 13) 12월의 기록을 기준으로 요동총병(遼東總兵) 이성량, 계진총병(薊鎮總兵) 장신(張臣), 창진총병(昌鎮總兵) 동일원(董一元), 보정총병(保定總兵) 양사외(楊四畏), 선부총병(宣府總兵) 왕국훈(王國勳), 대동총병(大同總兵) 마귀(麻貴), 산

30 『명신종실록』 권83, 만력 7년 정월 22일(무진).

31 『명신종실록』 권84, 만력 7년 2월 2일(정축). 실제 장정보전투는 遊擊 陶承繼가 지휘했지만, 이성량은 만력제에게 자신의 공적으로 보고했다.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도승곡을 몰래 죽이는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급사중 光懋가 적발하고 탄핵하여 이성량은 오랜기간 동안 축적하였던 모든 공적과 관훈을 상실하였다.

32 『명신종실록』 권122, 만력 10년 3월 18일(병자). 여진추장 速把亥가 義州를 침입하자 이성량이 이를 격퇴하고, 100여 명의 수급을 만력제에게 바쳤다. 병부는 요동방어를 강화한 성과라 평가하였으며, 만력제는 승첩을 선포하고 제사지냈다.

서총병 山西總兵 이영은 李迎恩, 연수총병 延綏總兵 가국충 賈國忠, 영하총병 寧夏總兵 장유충 張維忠, 고원총병 固原總兵 이진 李眞, 감숙총병 甘肅總兵 유승사 劉承嗣, 사천총병 四川總兵 이응상 李應祥, 절강총병 浙江總兵 왕화희 王化熙, 복건총병 福建總兵 우송 于嵩, 광둥총병 廣東總兵 유봉상 劉鳳翔, 광서총병 廣西總兵 호량봉 呼良朋, 귀주총병 貴州總兵 장조 張澡, 부총병 副總兵 장개 張玠 등이었다.³³ 이들 주요 군사지휘관은 대체로 이성량과 유사하게 명의 전체 군사역량 보다는 개인의 공적에 관심이 많았다. 이들 가운데 임진왜란에 참전한 인물이 창진총병 동일원, 대동총병 마귀, 영하총병 장유충 등이다. 이성량을 대신하여 요동병력을 지휘하여 참전한 이여송을 요동총병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6세기 동북아시아는 명, 조선, 몽골, 여진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국제세력이 충돌과 연합의 격동기를 맞이했다. 특히 16세기 최대 국제전쟁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 명, 일본은 전후 격변의 역사를 경험했다. 만력초기 장거정의 개혁으로 국가정영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지만, 만력제의 친정 이후 황태자 책봉문제로 관료들과 대립하며 정국운영은 비정상화되었다. 가정, 융경, 만력 연간으로 이어지는 시기, 명은 몽골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지만, 중앙정부의 혼란과 군사지휘체계의 부실화 때문에 동북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하던 여진을 통제하지 못했다.

1589년(만력 17), 명은 건주여진을 통합한 누르하치를 도독에 임명하여 기존 여진을 대표한 하다를 대체하고자 했다.³⁴ 명의 정치, 군사적 의도는 여진의 갈등을 유발함에 있었다. 신흥 세력으로 여진을 통합하고자 하였던 누르하치와 기존 세력을 유지하려던 하다를 비롯한 여러 여진세력은 상호 군사충돌하였다. 이런 갈등은 오래가지 않았다. 16세기 최대의 동아시아 국제전쟁인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임진왜란에 명군이 참전하면서 명의 여진에 대한 통제력이 급속하게 약화되었다.

³³ 『명신종실록』 권169, 만력 13년 12월 18일(갑신). 이 해에 명은 무관에 대한 고과평정을 통해 승진과 파출을 결정했는데, 본문에서 언급된 무관은 모두 유임되었다.

³⁴ 『명신종실록』 권215, 만력 17년 9월 11일(을묘).

16세기 이전 국경관련 조선·명·여진 군사관계

국경과 관련된 조선·명·여진 군사관계는 여말선초에 시작되었다.³⁵ 여말선초는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변화되는 변혁기였다. 원 제국이 망하고 명이 국제질서의 중심국으로 등장하자 조선은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위해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했다.³⁶ 명은 조선이 요동과 여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의심하여 외교압력을 행사했다. 조선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군사외교를 펼쳤다. 당시 발생한 종계변무, 혼단사건, 조선사신 입국금지 등이 이에 해당하며, 명의 조선 압박은 영락 연간에 들어서면 안정화되었다.³⁷

성리학적 덕치(德治)의 정치를 추구하였던 조선은 여진문제로 조명관계에 갈등을 초래하고 싶지 않았다. 함경도를 기반으로 성장한 이성계의 영향으로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던 여진은 조선의 영향력에 있었지만, 압록강 유역의 여진은 조선에 위협적인 존재였다. 요동 동쪽과 한반도에서 다소 먼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은 대체적으로 명의 기미위소에 포함되었지만,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던 여진은 조선에 수직(受職)하였다.³⁸ 조선의 입장에서

35 김경록,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 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 35, 2011, 13-22쪽. 여말선초 조명관계는 요동과 여진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상호 갈등했다.

36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18일(정유). 조선의 건국을 선포한 직후 이성계는 ‘高麗權知國事’의 명의로 명에 趙胖을 사신으로 보내어 조선의 건국을 알리고 그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성계는 고려말부터 요동정벌 반대 등 지속적으로 親明的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명의 우호적인 반응을 기대하였다. 고려의 정국동향을 주시하던 홍무제의 입장에서는 고려에서 역성혁명이 이미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혁명세력이 反明親元勢力을 제거하고, 親明政策을 표명하였기 때문에 고려의 국내사정을 중국에서 간여할 바가 아니라는 중립적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태도는 이색의 親征요구에 대해 보였던 태도와 동일하였다. 중립적 태도는 직접적인 간여를 배제하되, 역성혁명 자체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명분이 작용한 것으로 향후 조선의 대명관계에 따라 정책이나 실력행사가 변화될 여지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친명관계를 통해 건국의 정당성을 찾고자 했다.

37 박원호, 『명초조선관계사연구』, 일조각, 2002, 1~370쪽; 김경록,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2017.

38 한성주, 「朝鮮初期 朝·明 二重受職女眞人の 兩屬問題」, 『조선시대사학보』 40, 조선시대사학회, 2007, 5~44쪽.

여진이 명의 기미위소로 편입되면, 임의대로 여진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명의 통제를 받아 여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곤란한 관계가 설정된다.

국경의 관점에서 보면, 명의 기미위소로 편입된 여진의 거주지는 중간 지대이다. 범월犯越을 비롯한 각종 국경사건이 발생하면 조선은 명의 관직을 받은 여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토벌을 포함한 강경한 군사활동은 여진의 불법행위를 명에 통보하고 명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다. 이는 4군6진 개척을 비롯한 대여진 군사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³⁹ 즉,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의 여진정책은 조선·명·여진의 삼각 군사관계에서 진행되었다.

명의 입장에서 여진은 비록 내치內治의 대상은 아니지만, 회유와 귀부를 통해 명의 통치체제에 포함된 기미위소驛廩衛所였다. 명의 기미위소로 지위를 가진 여진이 거주하는 공간 역시 명분상으로는 명의 관할이었다. 명은 광범위한 여진의 거주공간, 복잡한 세력관계로 직할 통치는 불가능했지만, 기미위소에 포함시켜 여진의 통합으로 인한 독자적인 세력화를 경계하고, 조선의 여진에 영향력 확대도 방지했다. 이런 점에서 명은 여진을 조공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독자적인 국가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만약 여진이 명의 직할 강역으로 침입하면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조선에 군대 파견을 강제하기도 했다.

조선은 건국 직후 태조 이성계의 즉위교서即位敕書를 통해 다스림의 대강을 천명했다. 여진을 조선의 주변 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해 문화국가로 너그럽게 대하되 필요시 정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명·여진관계의 전개양상과 여진의 국경침입이 결합되면 복잡한 양상으로 흐른다는 사실이었다. 조명관계에서 국경사건은 순탄하게 전개되지 않

39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009. 저자는 15세기 해외파병 문제를 조선의 대명인식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세종대, 세조대, 성종대 명의 파병요구에 대해 조선이 출병한 것은 계산된 결정이라 평가했다.

았다. 명 건국 이후 홍무제는 고려를 불신하였으며, 이는 여·명관계의 전개양상에 잘 나타났다. 고려를 대신하여 건국된 조선에 대해 홍무제는 요동과 여진문제로 의심을 가졌다.⁴⁰

조선 개국시기 조선과 명의 국경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건은 흠차내사欽差內史 황영기黃永奇, 최연崔淵이 홍무제의 수조手詔를 조선에 전달하며 발생한 혼단釁端사건이다.⁴¹ 홍무제는 수조를 통해 국경을 넘어 조선이 여러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① 명이 중국통일을 완성하여 천하를 통치하는데, 조선이 명의 번국이면서 지속적으로 사단事端을 일으키고자 한다. ② 조선이 사적으로 요동의 요왕부遼王府와 영왕부寧王府에 사신을 보내어 빙문聘問하고, 변방의 장수를 매수하고, 요동을 왕래하며 여진과 연결하고자 하는 것은 우왕대 요동정벌을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③ 많은 여진인이 조선으로 유입되면 명의 요동경략에 차질이 발생한다. 이러한 국경의 외교사건을 조선이 의도하였다는 혼단사건은 강역 및 국경에 대한 상호인식이 반영된 사건이었다. 그 중심 내용은 강역 및 국경이라 인식한 요동과 그 공간에 거주하는 여진에 대한 영향력 여부였다.

홍무제는 예부상서 및 요동도휘사사 등에게 조선을 경계하도록 지시하고, 조선사신이 요동을 경유하며 각종 군사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입국을 금지했다. 홍무제는 요동도사를 통해 요동을 직접 지배하고, 군사지리와 정세변화로 직접 지배가 불가능한 여진은 기미위소로 초무하여 조선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지 않았다. 명의 관점에서 보면, 요동은 원래 몽골의 원이 가장 신뢰하던 지역으로 여전히 많은 몽골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직접 통치가 필수적이었다. 자칫 반명세력으로 군사화하면 명의 통치질서에 큰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요동의 남쪽에 위치한 조선과 동쪽에 위치한 여진이 몽골과 결합하면 강력한 세력이

40 박원호, 「明初 朝鮮의 遼東攻伐計劃과 表箋問題」,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2002, 46쪽.

41 『명태조실록』 권228, 홍무 26년 6월 18일(임진);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5월 23일(정묘).

형성될 수 있었다. 명의 구체적인 요동정책 변화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15세기에서 16세기 전반기까지 요동을 둘러싼 조선·명·여진의 삼각 국제관계를 살펴본다.

조선의 여진정책은 건주여진(建州女眞)이 주된 대상이다. 명은 요동과 동쪽의 만주 전역에 거주하는 해서여진(海西女眞)에 주목했다. 지리적으로 압록강 북쪽에서 요동의 동쪽에 이르기까지 거주하였던 건주여진은 조선초기 이후 조선과 군사적으로 충돌했던 여진이었다. 압록강 유역으로 수시로 침입하던 건주여진이 16세기 후반기부터 통합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조선의 입장에서 분산되어 상호 갈등하던 건주여진이 통합되는 것은 대규모 군사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두만강 유역에서 변호(藩胡)로 거주하던 여진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었다. 16세기 초 8,000호, 4~5만 명의 인구로 구성된 변호가 이탈하면 조선의 국경지대가 없어진다. 조선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었다.

간략하게 15세기 조선의 여진정책을 살펴본다.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두만강 유역의 여진을 변호로 삼아 북방 국경을 안정화시키고자 했다.⁴² 그러나 국제정세가 변화되면서 여진정책은 급변했다. 중국 대륙의 서북방에서 몽골의 오이라트가 흥기하자 동북방의 몽골 다른 세력이 남하하였다. 동북방 몽골세력이 남하하자 압박을 받은 요동 동쪽의 여진이 조선의 국경유역으로 유입되었다. 조선이 남하한 여진이 국경을 넘어 침입하면 강력한 군사적으로 대응했다. 세종대 여진정벌은 여진의 국경침입에 대응함과 동시에 북방개척을 병행한 것이다. 조선은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영

⁴² 강성문, 「朝鮮시대 女眞征伐에 관한 연구」, 『軍史』 18, 1989; 정해은, 『한국전통병서의 이해』, 군사편찬연구소, 2004; 민덕기, 「임진왜란기 조선의 북방 여진족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응책-‘南倭北虜’란 측면에서」, 『한일관계사연구』 34, 2009; 김구진, 「조선시대 女眞에 대한 정책」, 『白山學報』 88, 2010; 한성주,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1; 정다함, 「征伐이라는 戰爭/征伐이라는 祭祀-世宗代己亥年“東征”과 婆猪江“野人征伐”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2, 2013; 한성주, 『조선시대 변호 연구』, 경인문화사, 2018.

토의 확장보다는 국경을 안정시키는 수성^{守城}의 토벌을 단행했다. 조선은 국방정책으로 북방에서 침입하는 세력을 여진, 몽골로 상정했다. 특정 시기에 토목보^{吐木堡}의 변 등 대륙정세가 급변하자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현실적으로 침입 가능성이 없던 몽골의 침입도 경계하기도 했다.⁴³

그러나, 조선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여진의 침입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조선은 여진을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세력이 아니라 소규모로 국경을 침입하여 노략질하는 세력으로 인식했다. 국경을 침입하여 노략질하는 세력을 와해시키기 위해 우호적인 여진을 번호, 번리^{藩離}로 삼으면 여진 부족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번호가 침입하는 여진을 방어하는 역할도 가능했다. 세종~성종까지 조선과 여진과의 군사충돌 및 조선의 대여진정책은 강력한 해외원정이 아닌 전쟁억제를 위한 토벌전쟁이었다.⁴⁴

16세기 여진은 유목, 수렵의 단계를 넘어 일정 수준의 농경민으로 정착했다. 농경생활을 하기 위해 정착지가 필요하고, 여진이 거주하던 공간 가운데 가장 적합지가 조선과의 국경지대였다. 명이 주목한 해서여진도 아니고, 건주여진 가운데 조선에 우호적인 부족으로 조선에서 제공하는 농경지에 정착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번호 여진은 조선의 영향에 속해 있었다. 대륙정세가 급변하여 몽골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 동쪽의 다른 몽골세력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요동의 동쪽에 거주하던 여진은 더 남쪽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정세변화로 순차적인 이동으로 조선의 국경지대에 거주하던 번호가 이탈하면 조선의 국경지대가 불안해진다. 이 때문에 조선과 명은 요동을 포함한 만주의 여진족 거주 및 세력화에 국가적인 관심을 가졌다.

명은 16세기 요동경략에 한계를 노출하여 여진 통제력을 상실했다.⁴⁵ 누르하치에 의해 건주여진 통합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난 시점에 동아시아

43 김경록,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2017.

44 김경록, 「조선전기 동북아의 정세와 전쟁」, 『군사』 110, 2019, 220~222쪽.

45 楊昭全 외, 『中朝邊界史』, 吉林文史出版社, 1993.

국제전쟁인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조선과 명은 임진왜란과 대어진정책을 병행해야 했다. 조선은 임진왜란의 격동기에 북방 국경문제에 대해 결코 여진에 양보하지 않았다.

조명관계에서 국경침입은 명대 여진의 복속여부와 조선의 ‘사대지성(事大之誠)’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조선시대 국경은 강역(疆域)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강역은 포괄적인 것으로 실질적인 영토가 아니더라도 명대 국제질서에서 번속(藩屬), 속위(屬衛), 번방(藩邦), 속방(屬邦) 등을 포함한다. 이때 명이 인정하는 독립 주변국은 제외된다. 요동을 포함한 만주지역은 조선전기 조선과 명의 국경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조선과 명은 이 지역의 거주민이었던 여진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여 이 지역을 강역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이 과정에 조명관계의 긴장과 충돌이 발생했다. 자칫 현재의 관점에서 조선전기 국경문제를 명의 주장만을 채택하여 역사를 왜곡하는 사례도 있다.⁴⁶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국경은 특정 산과 강, 바다 등을 경계로 일정 지역을 국경지대로 인식하였으며, 현대와 같은 국경선 개념은 없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관점으로 한중관계에서 분명한 국경선을 조선전기에 인식하고 설정되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명은 국제정세, 명의 정세, 요동경략의 전개과정 등으로 인해 특정 국경선을 설정하지 않고 요동도사의 직할 요동을 실질적인 강역으로 인식하고, 이 밖의 지역은 조공제도에 따라 기미위소로 운영되어 주변국과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국경지대로 인식했다.

16세기 전반기 조선, 명, 여진의 관련성은 니탕개의 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진의 일족이었던 니탕개가 세력을 확대하여 조선의 국경을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조선과 명은 현상 유지를 지향했다.⁴⁷ 조선은 여

⁴⁶ 남익현, 「16-17세기 여진의 성장과 요동 변경지대 성격 연구-변경지대의 변화를 통해 본 만리장성 동단기점설 비판」, 『동북아역사논총』 34, 2011, 295~330쪽.

⁴⁷ 서병국, 『宣祖時代 女眞交涉史 研究』, 교문사, 1970; 박정민, 「누르하치의 두만강 유역 진출과 조선의 藩胡 상실」, 『인문과학연구』 43, 2014.

진과 경계를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인식했다. 조선은 건국 이후 명의 사신을 영접하는 공간으로 압록강을 설정했다. 요동도사에서 파견한 관원이 수시로 조선에 도착하기도 했다. 이때 요동도사에서 파견한 명 관원이 압록강에 도착하면 조선 관원이 차정되어 이들을 영접하곤 했다. 이는 국가의 경계에서 사신을 영접한다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⁴⁸

국제정세가 변화하면 여진은 주로 남하하여 조선과의 국경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 여진인이 국경을 넘어오면 시대에 따라 조선과 명의 대응에 차이가 있다. 조선초기에는 여진인의 범월에 대해 명은 여진인을 명에 돌려보낼 것을 요구한 반면, 조선은 여진인을 귀화인으로 인식하고 조선의 번호로 거주하도록 했다.⁴⁹ 사건별로 조선은 조선으로 들어온 여진인을 조명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명에 보내 외교적 충돌을 막고자 했다. 조선은 이성^{泥城}-강계^{江界} 등지의 여진인을 쇄환하고, 군사외교로 해결했다.⁵⁰

여진정책과 관련하여 조선의 요동인식은 중층적이었다. 조선은 동북면을 태조의 발상지로 여기고 국가 정통성 측면에서 강조했다. 이곳에 거주하는 여진을 회유와 정벌로 대응했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여진의 동향을 늘 주목하고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을 취했다. 조선은 요동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을 조선의 영역으로 파악하지 않고, 국제정세에 따라 명과 북방민족의 침입을 방지하는 중간지대로 상정했다. 이는 태종대 하륜^{河崙}이 요동정세를 상세히 파악하여 왕조의 안정을 지향하고 지배체제를 강화하자고 한 점에서 확인된다.⁵¹ 하륜은 이를 위해 여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48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7월 2일(기해). 1394년(태조 3) 홍무제가 조선에 사신을 보내도록 요동도사에 지시하자 요동도사의 관원이 압록강에 도착하고, 이를 조선관원 千戶 李堅實, 鎮撫 康寶鼎, 通事 金龍 등이 영접하기도 했다.

49 김경록, 「조선초기 귀화정책과 조명관계」, 『역사와 현실』 83, 2012.

50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6월 1일(을해).

51 『春亭集』卷6, 封事, 謹事大.

조선은 현실적으로 요동을 명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요동정세에 따라 조선의 국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조명관계에서 여진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앞에서 설명했다.

한편, 16세기의 조명관계에서 경작사건이 국경문제로 자주 발생했다.⁵² 특히, 압록강 하류는 주요 경작지로 주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압록강 하류에 요동인이 들어와 불법 경작한 사건이다. 이는 함부로 국경을 넘은 범월사건이자 국경침범이었다. 의주부 조산평^{造山坪}에 명나라 사람이 들어와 무단으로 경작한 사건은 16세기에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다. 압록강 하류에 주로 경작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은 금동도^{黔同島}, 위화도^{威化島}, 조산평, 설함평^{設陷坪} 등지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조선은 요동도사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명은 해당 경작자에게 죄를 묻고 경작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다. 조선에서 요동인이 금동도와 위화도에서 농사짓는 것을 적발하고, 경영도어사^{慶寧都御史}, 도총병관^{都總兵官}, 태감^{太監} 등 요동의 형사, 군사, 행정관청에 항의했다. 이에 요동대인 노탁^{魯卓}이 경작자를 치죄^{治罪}하고 곡식은 베어버리는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요동인의 범월을 금지한다는 표석을 요동의 도어사, 총병관, 태감의 명의로 세웠다. 그럼에도 요동인의 경작사건은 근절되지 않았다. 금동도와 위화도는 실제 의주에서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었지만, 설함평은 의주성에 인접한 곳이었다. 조선은 심각한 국경침범으로 인식하고, 역관을 파견하여 요동도사에 항의했다.⁵³

⁵² 서인범, 「압록강하구 연안도서를 둘러싼 조·명 영토분쟁」, 『명청사연구』 26, 2006, 31~68쪽; 구도영, 「16세기 조선의 압록강 하구 도서에 대한 영토인식과 외교전략」, 『역사와 현실』 97, 2015, 233~264쪽; 문광균, 「조선후기 압록강 하안의 신도(薪島) 범월과 신도진(薪島鎭)의 설치」, 『역사와 현실』 119, 2021, 199~235쪽.

⁵³ 『중종실록』 권93, 중종 35년 4월 10일(신미).

조선이 경작금지를 요구하자 요동도사는 관원을 해당 지역에 파견했다. 요동의 관원이 파악한 요동인의 경작 지역은 광범위했다. 위화도에서 금동도까지 거리는 15리, 금동도에서 설함평까지는 12-13리, 조산평과 설함평은 그 면적이 20여 리, 15여 리로 압록강 하류에서 넓은 편이다. 조산평과 설함평은 이미 경작이 이루어져 농막도 설치되었다. 요동인은 적강(狄江)의 건너편 강가에 거주하며, 도강하여 경작하고 상당한 경작물을 거두었다. 요동도사에서 표석을 세워 금지했음에도 통제가 안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조선은 의주에 예조참판 윤개(尹溉)를 선위사로 파견하여 조선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⁵⁴

1581년(선조 16)에 조산평의 경작문제는 조명관계에서 국경사건으로 다시 부각되었다. 요동인 유상덕(劉尙德) 등이 조산평에 불법 넘어와 경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은 전례대로 요동에 경작금지를 요구했다. 요동도사는 마이산(馬耳山) 아래 통구(通溝)에 표석을 세워 경작을 금지했다.⁵⁵ 여전히 경제적 이익이 높아 근절되지 않았다.

조산평의 경작문제는 범월사건으로 확대되었다. 1585년(선조 18)에 의주목사 서익(徐益)이 요동인의 조산평 경작문제와 함께 조선과 요동인이 상호 강을 건너 사적으로 교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국왕에게 보고했다. 이에 조선은 압록강의 진보(鎭堡)에 명령을 내려 압록강을 왕래하며 장사하는 이들을 엄금하도록 하고, 평안도관찰사, 평안도병마절도사, 의주목사에게 이를 관장하도록 신칙(申飭)했다.⁵⁶

이러한 월경과 경작은 그 대상 지역이 국경방어의 요충지였던 의주와 인접한 점에서 조선은 군사문제로 인식하고, 군사외교 차원에서 명에 근절을 요구했다. 요동도사의 조치가 있었지만, 그 실효성은 높지 않았다.

⁵⁴ 『중종실록』 권93, 중종 35년 8월 23일(임오).

⁵⁵ 『선조수정실록』 권17, 선조 16년 4월 1일(임자).

⁵⁶ 『선조실록』 권19, 선조 18년 4월 21일(임술).

거듭 요동도사가 금지했지만, 경작을 멈추지 않았던 요동인 왕중^{王中} 등은 압록강 하류의 국경지대가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았음을 반영한다.⁵⁷

조명관계에서 경작사건은 월경사건과 함께 국제문제의 핵심사안이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월경, 경작사건에 대한 조선의 군사적 대응은 공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조선은 압록강 하류에 요동인이 월경하여 경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명 요동도사에 항의하여 조치를 취했다. 1528년(중종 23) 압록강 하류 신도^{薪島}에 명 선박이 표류하자 이를 조사하기 위해 조선은 경차관 임준^{林駿}을 파견했다. 파견된 임준은 표류선박을 조사하며 요동인이 신도에 불법 거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국왕에게 보고했다. 이에 조선은 이들을 요동으로 쇠환했다.⁵⁸ 신도 등지에 요동인이 월경하여 경작하는 사건은 조선의 강력한 조치와 달리 명의 매우 이완된 태도를 보여준다. 1529년(중종 24) 정조사 박광영^{朴光榮}이 요동도사에 신도의 월경·경작문제를 제기하자 요동도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박광영은 조선의 쇠환과정에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황제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황제에게 보고되는 사건으로 사안이 확대되자 이를 원하지 않았던 요동도사는 근절을 약속하기도 했다.⁵⁹

반면, 두만강 하류에 여진인이 월경하여 경작하면 직접 군사활동을 취했다. 조선 무관이 월경하여 경작하는 여진에 대해 군사작전을 펼치다가 전사하기도 했다.⁶⁰ 두만강을 넘어온 여진에 대해 보다 강경한 군사대응을 한 점은 명나라 사람이 아니라 여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요동도사의 월경·경작문제에 대한 대응을 통해 명의 국경인식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분명 조선과 국경을 압록강으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국

57 『歷代要覽』 嘉靖 19년.

58 『중종실록』 권62, 중종 23년 8월 24일(계해).

59 『중종실록』 권66, 중종 24년 12월 9일(신미).

60 『歷代要覽』 嘉靖 2년; 7년.

경정책은 미흡하였다. 자국민의 월경을 금지한다는 형식만 갖추고 실질적인 금지조치는 없었다. 월경을 금지하려면 군사적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형사적 조치만 취했다. 이는 압록강의 월경을 조선과의 국경을 침범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국민 내지 여진인의 범월을 소홀하게 인식한 점도 작용했다.

조선에서 명 황제에게 국경침범 사건으로 보고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면 요동도사는 비로소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도사건이다. 지속적으로 신도에 요동인이 불법 월경하여 경작하자 조선은 황제에게 군사외교 차원에서 월경사건으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요동도사는 황제에게 보고되는 상황을 차단하고자 했다. 1530년(중종 25) 요동도사는 탕참지휘^{湯站指揮} 왕우^{王瑀}가 병력을 지휘하여 신도에 불법 거주하며 경작하던 요동인 60명을 쇠환하였다. 월경, 경작, 쇠환 등에 군사관계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왕우는 휘하 병력을 지휘하여 의주를 경유하여 신도로 들어가겠다고 통보해 왔다. 조선은 외국 군대의 조선 경내로 진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조선은 명군이 신도로 바로 들어갈 것을 주장했다. 결국 조선군과 명군이 연합하여 불법 경작인을 쇠환했다.⁶¹ 이후 요동도사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1531년(중종 26)에는 요동도사의 삼대인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경작인을 쇠환하였다.⁶² 즉, 조명관계에서 압록강은 상호 국경으로 인식하였지만, 그 인식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관계에서 주요 군사현안으로 등장하면 국경을 침범하거나 월경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⁶¹ 『중종실록』 권67, 중종 25년 3월 10일(경자); 『歷代要覽』 嘉靖 9년.

⁶² 『歷代要覽』 嘉靖 10년; 12년; 13년; 14년.

제 2 절 누르하치의 여진 통일과 조선·여진관계 변화



“누르하치 형제가 명년 1~2월 사이에 본국의 지방을 침략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지금 바야흐로 인마를 조련하고 활과 화살을 널리 만들고 있다는 통사 하세국 등이 정탐해 보고한 정형이 정확한 것 같다. 그러므로 다시 적당한 관원을 차임하여 협수부총병부協守副總兵府에 보내야겠으니 그대로 부총병부에 머물러 있으면서 비밀히 체방體訪하여 긴급한 소식이 있으면 밤을 세워 치보馳報하게 하여 방비와 호응에 편리하게 할 뜻으로 갖추어 아뢴다.”

『선조실록』 권70, 선조 28년 12월 6일(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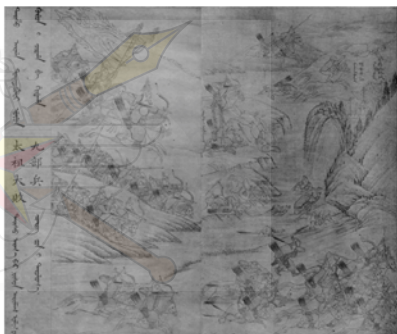
누르하치의 여진 통합

건주여진은 압록강 북부에 주로 거주한 여진부족이다. 건주여진의 주요 부족은 숙수후(蘇克素渚), 후너허(渾河), 왕기아(完顏), 동고(董鄂), 저천(哲陳) 등이며, 백두산 일대의 너연(訥殷), 주서리(朱舍里), 야루기양(鴨綠江) 등 부족도 있었다. 누르하치가 일어나 건주여진을 통합할 때는 숙수후 등 5개 부족을 통합했다. 전통적으로 독립적인 부족 생활을 하였던 건주여진은 명의 기미정책과 부족 사이의 갈등으로 통일된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16세기까지 건주여진의 성장에 가장 큰 장애는 명의 기미정책도 있었지만,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한 해서여진이었다. 해서여진은 호륜 4부로 재편되어 명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대명교역권을 장악하였다.

건주좌위 수장 가문 출신이었던 누르하치는 1583년 군사를 일으켜 다른 부족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기병을 활용하여 건주여진의 여러 부족을 정복했다. 누르하치는 1588년에 건주여진을 통일하고 해서여진과 몽골에 대해 군사압박을 가했다. 누르하치의 세력확장에 위기의식을 느낀 제 부족은 1593년 9개 부가 연합하여 건주여진을 공격했다.

16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변화시킨 국제전쟁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조선, 명, 일본이 전쟁에 몰두하던 시기였던 1593년(만력 21) 9월, 여진의 주도권 다툼으로 군사충돌이 일어났다. 예허(葉赫), 하다(哈達), 우라(烏拉), 후이파(輝發), 코르친(科爾沁), 시버(錫伯), 팔아홉(掛勒察), 주서리(珠舍里), 너연(訥殷) 등 9부 연합은 3만 명 병력으로 건주여진의 누르하치를 공격했다. 누르하치는 9부



〈그림 2〉 누르하치와 9부 연합군 전투

(출처 : 『만주실록』 권2)

누르하치의 여진 통합전쟁에서 9부 연합군 전투는 누르하치의 성장을 경계한 명의 사주로 몽골, 여진 9개 부족이 연합군을 편성하여 치른 전투였다. 누르하치는 건주여진 통합 이후 이 전투를 계기로 본격적인 통합전쟁을 전개했다.

연합군을 맞이하여 고평산^{古坪山} 전투에서 결전을 치르고 크게 승리했다. 이후 명은 1595년(만력 23) 누르하치의 세력을 인정하고 하다부를 대신하여 용호장군^{龍虎將軍}으로 임명했다. 이는 누르하치가 요동의 여진 제 세력의 실질적인 맹주가 되었음을 반영한다.

용호장군으로 책봉된 누르하치는 해서여진의 하다^{哈達}, 우라^{烏拉}, 예허^{葉赫}, 후이파^{輝發} 등 호륜^{扈倫} 4부^部를 통합하기 위한 여진 통합전쟁을 시작했다. 1599년(만력 27)에 해서여진의 제 세력을 각개 격파하고자 하다를 제일 먼저 정복했다. 누르하치의 급속한 세력 확장에 위기의식을 가졌던 명은 누르하치에게 하다의 재건을 명령했다. 그러나 명의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누르하치는 명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누르하치는 명의 명령을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다. 분명 누르하치의 공작으로 하다가 자중지란에 빠지자 누르하치는 1601년(만력 29) 하다를 복속시켰다.

누르하치는 군사적, 정치적 세력관계를 고려하여 치밀하게 호륜 4부를 접수할 계획을 세웠다. 먼저 명과 통교하며 지리적으로 마시^{馬市}의 남관^{南關}에 있어 건주여진과 가깝고 세력이 가장 약한 하다^{哈達}를 공략하고자 했다.⁶³ 때마침 하다와 예허 사이에 혼인문제로 충돌이 발생하자 누르하치는 하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대를 파견했다. 누르하치 군대의 등장에 예허와 하다는 급히 우호를 맺었지만, 결국 누르하치에 의해 하다는 점령되었다. 명은 누르하치의 성장에 위협을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여진분쟁에 개입했다. 명의 압박에 대응하여 누르하치는 하다의 무이고대^{武爾古岱}를 부족장으로 삼아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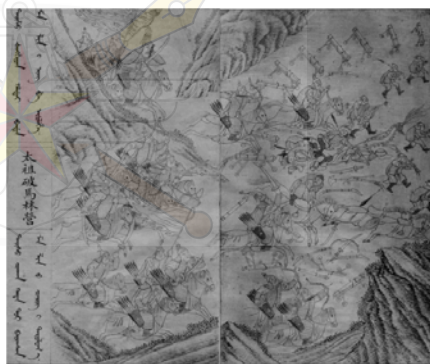
누르하치는 다음으로 세력이 약한 후이파를 목표로 삼았다. 건주여진이 요동 전역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후이파가 있었다. 위협을 인지한 후이파

⁶³ 김운순, 「누르하치의 扈倫4部 통합과 후금의 건국」, 『강원사학』 26, 강원사학회, 2014, 147~172쪽. 하다는 세력은 약했지만, 교역권한에 해당하는 칙서(勅書)를 700개 소유한 점에서 누르하치의 공격목표가 되었다. 누르하치는 세력확장을 하며, 명과 교역권을 장악하여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는 예허와 동맹을 맺었지만, 내부 반란이 일어나 오히려 누르하치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예허의 이중적인 태도에 후이파는 예허와 누르하치 사이를 오갔다. 누르하치의 공약으로 후이파는 복속되었다.

호륜 4부 가운데 건주여진과 우호적이었던 우라는 누르하치와 동맹을 맺고 두만강 중하류까지 진출했다. 두만강 북안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아 누르하치 역시 필수적으로 복속시키고자 했다. 결국 이들을 두고 누르하치와 우라의 충돌이 발생하여 상호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1614년(만력 42) 누르하치는 가용전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라를 공격했다. 우라는 예허와 연합해 대응했지만 결국 합병되었다. 합병된 뒤 우라가 누르하치에게 대항하는 태도를 보이자 누르하치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우라를 정벌하였다.

호륜 4부 가운데 가장 세력이 강했던 예허는 위기감을 느끼고 누르하치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통합을 위해 누르하치와 예허는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예허는 일방적으로 패배하지 않았다. 이는 예허의 세력이 강했던 점도 있지만, 명이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명은 누르하치의 세력 확장에 위협을 인지하고, 조선, 예허 등의 병력을 연합하여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 1619년 사르후 전투 薩爾滸之戰이며, 결과는 누르하치의 압승이었으며, 여세를 몰아 누르하치는 예허를 정벌하여 복속시켰다.



〈그림 3〉 사르후전투의 첫 교전

(출처 : 『만주실록』 권4)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는 정명전쟁을 선포하고 명·조선·예허군이 연합한 군대와 사르후전투를 치른다.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후금군은 기동성과 각개 격파작전으로 대승을 거둔다. 본 장면은 사르후전투의 첫 교전이었던 마림군과의 전투장면이다.

원래 누르하치는 건주여진의 오도리족 수장 먼터무 孟特穆의 후손이었다.

먼터무가 원명 교체기에 안전을 위해 두만강 유역의 회령會寧으로 옮겨와 거주하면서 조선과 인연이 시작되었다. 조선 이성계의 휘하에서 활동하였으며, 태종에 의해 경원등처관군만호慶源等處管軍萬戶의 관직을 받았다. 먼터무를 둘러싼 조선과 명의 초무정책이 전개되었다. 결국 먼터무가 명의 건주 좌위 도지휘사에 임명되며 기미위소에 편입되었다. 먼터무는 회령에서 칠성야인七姓野人의 침입을 받아 패망하고, 이복동생 범찰凡察과 아들 동창童倉이 건주위의 파저강波猪江 유역으로 이동하여 건주우위, 건주좌위 수장이 되었다. 건주위와 이들 좌·우위를 합쳐 건주삼위建州三衛라 한다. 건주좌위 수장이었던 누르하치는 1589년(선조 22)에 건주위와 건주우위를 복속시켜 건주여진을 통합했다.

건주여진을 통합한 누르하치는 전체 여진 통합을 위한 점진적인 통합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 동아시아 국제전쟁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누르하치의 입장에서 매우 좋은 기회였다. 명의 요동과 여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 누르하치의 여진 통합전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전쟁에 집중한 조선의 변호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어 이들을 복속시키는 여건이 생긴 것이다. 실제 누르하치는 임진왜란 전후 두만강 유역까지 진출했다. 당시 누르하치는 직접적인 정복보다 건주여진의 세력을 과시하여 변호가 복속되는 방식을 추진했다.

조선의 변호로 존재한 여진은 주요 여진세력의 복속 대상이 되었다. 임진왜란 직후 우라烏喇의 부잔타이布占泰가 두만강 유역에 침입하여 변호를 복속시키고자 했다. 부잔타이의 침탈을 받은 변호는 건주여진의 누르하치에게 귀순하였다. 두만강 유역 변호의 구원요청을 받은 누르하치는 군사력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변호의 복속을 유도했다. 누르하치는 두만강 유역의 변호를 건주위로 이주하도록 군대를 보내 호위했다. 변호를 건주위로 옮기려는 누르하치의 군대와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부잔타이 사이에 1607년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문제는 이 전투가 조선의 경내인 중성

진 鍾城鎭 오갈암 烏碣巖에서 치루어졌다는 점이다. 조선은 여진의 군사충돌에 휩쓸리지 않고자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하지 않았다. 누르하치의 군대가 승리하여 조선의 변호는 자연스럽게 철폐되었다. 누르하치는 현실적으로 동해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여러 지역의 여진을 통합하고자 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희망했다. 조선은 거듭 여진과의 군사충돌을 피하고자 여진 통합과정에 간여하지 않았다. 오갈암전투 승리와 두만강 유역 변호의 복속은 누르하치의 여진 통합에 기초가 되었다. 누르하치는 1583년부터 1598년까지 건주여진 통합을 추진했다. 건주여진을 통합한 본격적인 여진 통합에 앞서 두만강 유역의 변호를 복속시키는 작업을 전개했다. 백두산 3부와 와르카부 瓦爾喀部를 복속시킨 누르하치는 1598년부터 호룬 4부에 대한 통합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조선은 여진 통합과정에 직접적인 간여를 하지 않고, 군사·외교적으로 대응했다. 외교적 대응은 명으로 하여금 누르하치의 조선에 대한 접근을 통지하여 통제하도록 하고, 건주위에 조선의 관원을 파견하여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었다. 군사적 대응으로 조선은 화기를 집중 국경지역에 배치하여 수성 守城 중심의 방어전략으로 전환했다. 또한 포수 砲手를 양성하여 평안도와 함경도 내륙의 방어를 강화하고, 수도권 방어체제를 정비하는 등 누르하치의 기병과 전면 침입에 대비했다.⁶⁴

16세기 말~17세기 초 두만강 유역의 변호는 건주여진과 홀라온의 경쟁적인 초무와 군사공격에 직면했다. 조선은 국경지대의 변호가 직면한 군사위기에 묵인할 수는 없었다. 세력이 약한 변호는 자신들의 활로를 모색해야 했다. 두만강 유역 변호의 향배 문제는 조선과 건주여진, 후금, 청의 외교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던 핵심사안이었다. 와르카 Warka로 통칭된 두만강 유역 변호에 대한 관속 管屬문제는 후금시기에 쇄환 刷還사안으로 변화되

⁶⁴ 한성주, 「누르하치의 두만강 유역 변호 침탈과 조선의 대응 고찰」, 『만주연구』 22, 2016, 127~163쪽.

고, 1644년 순치제가 면제해 줄 때까지 조청관계에서 군사사건으로 지속되었다.

선조대 변호 로툰^{老土}가 건주여진에 귀부하는 과정에 누르하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선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 와중에 1600년 조선과 건주여진 사이에 군사충돌이 발생했다. 이 군사충돌은 1627년 정묘호란을 일으킨 후금이 조선과 갈등사례로 재론하기도 했다. 국경지대에 거주하던 여진 변호에 대한 조선의 인식과 대응은 향후 조·후금, 조청관계의 군사갈등이 건주여진 시기에 이미 배태되었음을 의미한다.⁶⁵

누르하치의 여진 통합전쟁은 조명관계, 조여진관계, 명의 요동정책, 명여진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동아시아 역사변환의 계기가 되었다. 이에 1599년 하다를 시작으로 1607년 호이파, 1614년 우라, 1619년 예허를 차례로 통합했다. 누르하치는 건주여진 통합에서 시작하여 여진 통합을 거쳐 후금으로 나아갔다. 이때 주목되는 역사 사건은 후금의 건국이다. 1616년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는 여진 통합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전히 명 중심 국제질서가 유지되는 국제정세에서 통합의 승기를 잡은 누르하치는 후금을 건국하고, 정명전쟁의 기치를 높이 세웠다. 이는 여진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명전쟁이었음을 천명한 것으로 조명관계에서 여진을 변호로 인식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선은 명의 대후금 연합군으로 참전하였다. 마지막까지 누르하치에 대항하였던 예허는 명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누르하치를 공격한다고 하자 이에 병력을 파병했다. 명군, 조선군, 예허군이 연합한 군대가 누르하치를 공격한 사르후전투가 벌어졌다. 사르후전투는 후금군의 대승으로 끝나고, 명과 후금의 큰 전쟁의 계기가 되었다.⁶⁶

⁶⁵ 장정수, 「선조대 말 여진 변호 로툰(老土)의 건주여진 귀부와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78, 2016, 7~49쪽.

⁶⁶ 李健才, 『明代東北』, 遼寧人民出版社, 1986, 203~241쪽.

해서여진의 호륜 4부는 명과의 중개무역을 통해 경제적 풍족함이 있어 여러 여진세력을 주도했다. 군사지리적으로 호륜 4부는 건주여진과 명 사이에 거주하여 누르하치의 팽창에 있어 전략적 요충지였다. 건주여진을 통합한 누르하치가 요동으로 진출하고, 명을 대적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호륜 4부를 통합해야 했다.

명은 기미위소 책봉과 사행의 교역권을 통해 호륜 4부를 통제하고, 호륜 4부를 통해 전체 여진을 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이 호륜 4부를 각개 격파하자 기존의 기미정책을 적극적인 토벌로 전환했다. 누르하치가 건주여진을 통합하는 과정에 명은 적극적으로 호륜 4부를 지원했다. 명의 지원을 받은 호륜 4부가 일원적인 체계를 갖췄다면 누르하치의 팽창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지만, 호륜 4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4개의 대부족은 상호 갈등했으며, 대부족 예하의 부족간 다툼도 존재했다. 군사역량을 집중하여 누르하치의 군사침략에 대응할 수 없었다. 누르하치는 호륜 4부를 개별 통합하며 교역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주변 부락의 인구까지 흡수하여 군사역량을 확대시켰다. 후금 건국 이후 누르하치가 명 주도의 연합군과 요동을 두고 벌인 사르후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점은 호륜 4부의 통합과정에서 축적된 역량 때문이었다. 호륜 4부의 통합은 누르하치의 후금 건국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⁶⁷

한편, 조선은 북방 변경에 인접한 여진을 여진女眞, 올랑합兀良哈, 올적합兀狄哈으로 구분하고 변호藩胡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대여진정책을 추진했다.⁶⁸ 조선은 오랜 기간 여진의 침범으로 많은 국경분쟁을 경험했다. 기본적으로 여진의 침입에 대해 강경하게 물리치고, 조선의 변호로 있는 여진이면 군사적으로 응징했다. 그러나 명의 기미위소 무관으로 임명받은 여진이면 문제가 복잡했다. 형식적이었지만, 엄연히 명의 무관을 조선군이

⁶⁷ 김윤순, 「누르하치의 扈倫4部 통합과 후금의 건국」, 『강원사학』 26, 2014, 147~172쪽.

⁶⁸ 김종국, 「정묘호란시의 후금의 출병동기-후금의 사회경제적 제문제와 관련하여-」, 『동양사학연구』 12·13, 1978, 55~93쪽.

군사적으로 응징한다는 것은 조명관계의 군사충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조선이 여진의 침입에 대한 군사정책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행사되었다. 첫째, 사전에 변호로 거주하던 여진을 통해 군사정보를 수집하거나 통사(通事)(역관)를 여진과 명에 파견하여 군사정보를 수집하여 군사방비를 강화하는 정보수집 및 방어정책이다. 둘째, 그럼에도 여진이 침입하면 강력하게 격퇴하거나 일정 범위까지 추격하여 군사적으로 응징하는 군사작전이다. 셋째, 명의 여진 통제권을 활용하여 조선의 군사작전 없이 여진을 응징하는 군사외교였다. 이들 방법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시행되었다. 첫째 정보수집 및 방어강화는 일상적인 조선의 여진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과 병합되어 전개되었다. 둘째, 군사작전은 조선에 큰 부담이었다. 물론 여진의 불법침입을 격퇴하더라도 조선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추격을 위해 부대를 편성하고 지리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여진거주 지역으로 출동하는 것도 위험부담이 많았다. 전투는 필수적으로 조선군의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 역시 부담이었다. 조선이 가장 선호하였던 방법은 군사외교였다. 군사력을 동원하고 실제 전투에서 조선군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조선은 여진의 불온한 정세가 전개되면 정보를 수집하여 선제적으로 명에 통보하여 여진의 침입 자체를 사전에 차단했다. 전 시대에 걸쳐 조선의 여진정책에 필수적으로 명이 관련된 것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조선, 명, 여진의 군사관계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해 본다. 조선은 국제정세와 군사상황을 사행과 지역 차원에서 군사정보로 수집했다. 1574년(선조 7) 11월, 달자(驛子) 기병 20만 명이 요동의 개원(開原)을 공격하였지만 명의 방어에 의해 패배하였다. 침입한 몽골군 1천 명이 죽었다는 군사정보는 신속하게 조선의 사행이 파악하여 국왕에게 보고되었다.⁶⁹ 조선은 항상 대륙과 해양 등 전방

⁶⁹ 『선조실록』 권8, 선조 7년 11월 3일(계유).

위적으로 발생하는 군사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군사정보 차원에서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정세의 변화를 파악하고 유사시 군사정책으로 신속하게 시행했다.

군사정보 수집은 북방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조선은 북방 이외에 일본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대마도주가 전달해 오는 왜구 정보 역시 매우 민감한 군사정보였다.⁷⁰ 해양 군사정보 역시 군사정보로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해양 군사정보 소통과 교환을 통해 명에 보다 많은 군사외교의 공간이 확보된다는 장점도 있었다. 해양정세는 표류한 중국인, 조선인의 송환과 관련된다. 1576년(선조 9) 명에 표류한 조선인 양준^{梁俊} 등 22명이 송환되어 오자 배 1필씩 지급하여 위무했다. 송환된 표류 조선인은 표류지의 관부에서 병부로, 병부는 예부로, 예부는 요동도사와 조선에 공문을 이자^{移咨}하여 송환했다.⁷¹ 조선인이 명에 표류하거나 명나라 사람이 조선에 표류하면 양국은 표류민을 적극 구호하여 상대국으로 송환하며 여러가지 정보를 교환했다. 이처럼 표류민 구호 및 송환시 필수적으로 사행을 통해야 했기 때문에 조선은 사행파견을 통해 부수적으로 관련 군사정보를 적극 수집했다. 이 시기 임진왜란 이전까지 조선에서 명에 파견한 사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선조 연간 조명사행 현황(선조즉위~선조 26년)

시 기		사 행 명
1567년(선조 즉위)		고부사
		성절사
1568년(선조 1)	2월	칙사
	5월	책봉사
		진하사

⁷⁰ 『선조실록』 권9, 선조 8년 3월 17일(병진). 대마도주가 책략로 일본 적도들이 배를 손질 하는데 어느 나라를 침범하려는 모르겠다는 정보를 알려오자, 비변사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도의 防禦使, 助防將에게 방비를 강화하도록 했다.

⁷¹ 『선조실록』 권10, 선조 9년 6월 29일(경인).

		천추사
	6월	칙사
1569년(선조 2)		동지사
1570년(선조 3)		주청사
1572년(선조 5)	5월	천추사
	8월	등극하사
	?	진위사
	9월	사은사
	10월	등극조사
1573년(선조 6)	2월	주청사
	5월	성절사
1574년(선조 7)	5월	성절사
1575년(선조 8)		사은사
1576년(선조 9)		?
		동지사
1577년(선조 10)	2월	사은사
		주청사
		동지사
1578년(선조 11)		
1581년(선조 14)		주청사
1582년(선조 15)		조사
1587년(선조 20)	3월	진사사
1589년(선조 22)		성절사
1590년(선조 23)		성절사
1591년(선조 24)		진주사
1592년(선조 25)		문안사
		명사
		운향사
		청병진주사
1593년(선조 26)	7월	주청사
	11월	사은사
		사은사

* 전거 : 『선조실록』, 김경록, 「만력 전반기 명의 정세와 임진전쟁 참전과정」, 『만주연구』 35, 2023. 재인용

조선사행은 사행을 통해 외교목표를 달성하고, 사행을 갔다오는 과정에 다양한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당시 조선의 최대 군사외교 정보는 황제정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1578년(선조 11) 1월에 동지사로 명에 사행한 안종도(安宗道)는 황궁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만력제의 조천궁(朝天宮) 수건(修建) 명령이 내려졌음을 신속하게 국왕에게 보고했다.

이때 권력을 장악한 수보^{首輔} 장거정^{張居正}의 부친상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존재하였다고 추가로 보고했다.⁷² 이처럼 황제에 관련된 정보는 명의 대외 정책, 군사정책에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조선은 융경제 사망, 만력제 등극, 황궁 화재, 만력제의 황궁 중건 등 북경에서 정세변화에 민감하게 대명 군사외교를 펼쳤다. 일례로 융경제가 사망하고 만력제가 등극하자 선조는 절사^{節使} 이외에 진위사^{陳慰使}, 진향사^{進香使}, 하등극사^{賀登極使} 등을 연이어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군사외교를 펼쳤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의 대명사행을 통한 군사외교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였다는 특정한 명분이 있으면 이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예를 들면, 융경~만력 연간 6개월간 사행 13건이 왕래한 점은 조선의 적극적인 대명외교를 보여준다. 즉, 절사 파견⁷³, 사은사행 파견⁷⁴, 명의 조사^{詔使} 파견⁷⁵, 하등극사행^{賀登極使行} 파견⁷⁶, 사은사행⁷⁷ 등이며, 조선은 진위·진향사행 파견시 사로잡혔던 명나라 사람을 함께 돌려보냈다. 조선의 이런 적극적인 외교활동은 만력제에게 만족스러움을 가져다주었으며, 조선의 사행에 대해 많은 상을 내리기도 했다.⁷⁸ 조선의 적극적인 대명사행 파견은 조명관계를 원만하게 맺어 여진정책에서 명이 통제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되었다.

한편, 조선은 여진의 군사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임진왜란 이전까지 조선의 군사상황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다. 이성계는 동북면의 여진족을 포함한 세력을 기반으로 중앙으로 진출하여 역성혁명을 통해 조선을 개국

72 『선조실록』 권12, 선조 11년 1월 23일(을해).

73 『명신종실록』 권2, 융경 6년 6월 13일(정묘). 方物과 馬匹을 진헌하였다.

74 『명신종실록』 권2, 융경 6년 6월 23일(정축).

75 『명신종실록』 권3, 융경 6년 7월 21일(갑진). 만력제의 등극을 알리는 조사를 지참한 翰林院 編修 韓世能, 吏科左給事中 陳三謨 등이 조선에 왔다.

76 『명신종실록』 권4, 융경 6년 8월 12일(을축).

77 『명신종실록』 권4, 융경 6년 8월 20일(계유).

78 『명신종실록』 권6, 융경 6년 10월 11일(갑자). 만력제는 조선사행에게 이례적으로 은(100냥), 비단(4단), 저사(12포리)를 하사했다.

했다. 세종대 6진 개척 이후 조선은 6진의 성밖 여진을 성저야인(城底野人)으로 인식하고 번리(蕃離), 번호(蕃胡)로 지칭했다.⁷⁹ 조선은 조선인과 여진족을 거주 분리하여 성 안과 밖에 별도로 거주하게 하여 분쟁을 방지하고자 했다.

니탕개(尼蕩介)의 난이라 불리는 선조대 최대 여진족의 침입이 발생했다. 1583년(선조 16) 여진기병 2만 명이 회령(會寧)의 번호 니탕개 지휘하에 조선의 두만강 유역 여러 군진을 침입하였다. 비록 니탕개의 난은 진압되었지만, 여진번호들은 이후 임진왜란 기간 중 조선으로부터 이탈하거나 오히려 일본군의 진출에 자극을 받아 조선군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처럼 선조대 조선·여진관계는 여진의 국경침입, 약탈로 이어져 정치·군사적 당면과제가 되었다. 여진은 주로 두만강 유역 함흥으로 침입하고, 압록강 상류 강계의 농경지를 침범했다.⁸⁰ 조선은 강계의 서해평(西海坪)을 침입한 여진을 대상으로 회유책을 제시했다.⁸¹ 사실 여진의 서해평 침입은 이미 전례가 있었다. 1565년(명종 20) 9월, 여진의 서해평 침입을 진압하고자 하였지만 실패하기도 했다.⁸² 1568년(선조 1) 조선의 적극 대응으로 한동안 진정되었지만, 1574년(선조 7) 재침입하여 큰 피해를 주기도 했다.⁸³

조선은 대여진정책을 명종대 회유와 방관으로 펼쳤지만, 선조대에 접어들며 적극 대응책으로 전환했다. 선조대 조선과 여진의 충돌은 여진 내부 세력갈등과 연관되지만, 최대 사건은 니탕개의 난이었다.⁸⁴ 사실 조선은 명종대 을미왜변(乙未倭變) 이후 군사력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선조는 삼남병력을 북방에 배치하고, 비변사로 하여금 이를 총괄하여

79 한성주, 「조선전기 두만강유역 ‘여진 번리·번호’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학보』 41, 2010.

80 이하 조선과 여진관계는 한성주, 『조선시대 번호연구』, 경인문화사, 2018. 참조.

81 『명종실록』 권30, 명종 19년 5월 5일(병오).

82 『명종실록』 권31, 명종 20년 9월 5일(무술).

83 『선조실록』 권8, 선조 7년 8월 7일(무신).

84 송우해, 「조선 선조조의 니탕개란 연구」, 『역사비평』, 2005; 윤호량, 「선조 16년(1583) 니탕개의 난과 조선의 대응」, 『군사』 82, 2012.

지휘하게 하고, 납속면천(納粟免賤)을 실시하여 병력과 군량을 확보하고자 했다.⁸⁵ 한편, 조선은 선조의 왕위계승 정당성과 왕권강화 목적에서 명을 대상으로 종계변무 외교를 전개하여 『대명회전』를 가져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이 시기 조명관계의 유기적인 외교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⁸⁶

1568년(선조 1) 5월에 상토진(上土鎭)에서 조선과 여진 사이에 군사충돌이 발생했다. 평안병사가 여진 기병 100명과 별도의 보병까지 합세하여 침입하였음을 보고했다.⁸⁷ 이에 비변사에서 근래 여진의 침입이 대규모로 지속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여 장기적인 방비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했다. 선조가 즉위한 이후 첫 국경의 군사충돌이라 비변사에서 나름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⁸⁸

이 시기 조선의 군사외교를 살펴보면 매우 주도면밀하였다.

조선은 명의 정세, 요동 정세, 여진 상황까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은 만력제가 등극 이후 학문에 열중하고, 자전태후(慈殿太后)의 섭정 정국에서 황명을 출납하는 업무는 사례감(司禮監) 태감 풍보(馮保)가 전담하되 내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정사가 처리된다고 파악했다. 정치와 연계된 학문에 있어 왕수인(王守仁)이 문묘(文廟)에 배향되어 양명학(陽明學)이 크게 일어나



〈그림 4〉 경원부의 주요 군사진보 현황

(소장 :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경원부는 함경도에서 여진과 군사적 충돌이 빈번했던 지역으로 훈융진, 안원보, 건원보, 아산보 등의 진보를 갖추고 군사대응했다.

⁸⁵ 김경록, 「만력 전반기 명의 정세와 임진전쟁 참전과정」, 『만주연구』 35, 2023.

⁸⁶ 『선조실록』 권6, 선조 5년 11월 4일(병술).

⁸⁷ 『선조실록』 권2, 선조 1년 5월 20일(기사).

⁸⁸ 『선조실록』 권2, 선조 1년 5월 23일(임신).

는 현상도 파악했다.⁸⁹

당시 조선의 여진정책은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여진의 침입에 변장과 무관은 대규모 정토(征討)를 주장했지만, 유희춘(柳希春)을 비롯한 문관들은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선조는 대규모 정토는 아니더라도 응징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⁹⁰ 선조 초반 여진정책은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었다.⁹¹ 선조는 여진에 대한 군사작전을 위해 무관을 양성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군사지휘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조는 무과(武科)의 전시(殿試)를 열고, 대신, 비변사, 병조가 추천한 무신 79명 가운데 7명을 초계(抄啓)했다.⁹² 또한, 병력동원을 위한 군적경차관(軍籍敬差官)의 위임 및 군적(軍籍) 정비의 노력도 이루어졌다.⁹³

한편, 조선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만력제의 여진정책을 수용했다. 요동정세 변화에 따라 전체 여진에 대한 통제는 요동도사에서 관장하고, 조선은 두만강 유역의 여진 번호에 대해 통제하였다. 명의 기미정책과 달리 조선의 여진 통제책은 군사충돌을 유발하기도 했다.

선조대 여진의 국경침입은 1579년(선조 12) 12월 여진이 은성진(穩城鎭)에 침입하여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⁹⁴ 즉,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과 여진의 군사충돌은 이미 빈발했다. 군사충돌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한 시점은 1583년(선조 16)이다. 1583년 한 해 동안, 여진은 약 21회에 걸쳐 조선의 국경을 침입하여 혼란을 초래했다. 1월에 여진은

⁸⁹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1월 17일(무술).

⁹⁰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2월 5일(병진).

⁹¹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7월 10일(무자). 비변사는 중추부 2품 이상의 대신으로 하여금 西海坪의 征討를 논의하였다.

⁹²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6월 17일(을축). 선조는 鄭世弼, 南彦純, 卞國幹, 柳台壽, 吳沄, 邊良佐, 張義賢 등을 불러 임용했다.

⁹³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9월 9일(병술). 당시 천재지변으로 농사가 어려워 군적정비를 위한 시행을 미루자는 의견도 있었다.

⁹⁴ 『鶴峯逸稿』 권3, 「北征日錄」 기묘년 12월 15일(병술).

온성진, 경원진의 아산보阿山堡 등지를 침입했다. 이 침입은 일명 니탕개의 난으로 임진왜란 직전에 일어난 조선과 여진의 군사충돌 중 가장 주목되는 사건이다.⁹⁵

여진은 조선군이 침탈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세력을 모아 아산보를 포위했지만, 조선군의 대응으로 점령하지는 못했다. 경원부사 김수金璲와 판관 양사의梁士毅가 군대를 지휘하여 조선인을 구출하려다 역습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다. 여진은 1만명 규모의 대군으로 경원진을 포위했다.

번호 니탕개의 경원진과 아산보 침입을 북도병사 이제신李濟臣이 선조에게 보고하면서 조선은 선조대 최대 여진전쟁이었던 니탕개의 난에 직면했다. 선조는 전시체제를 갖추고 오운吳漣과 박선朴宣을 조방장助防將으로 임명하여 긴급하게 병력을 지휘하여 먼저 북방으로 가도록 했다. 뒤이어 경기감사 정언신鄭彦信을 우참찬으로, 도순찰사 이용李肱을 방어사로 삼았다가 남병사 김우서金禹瑞를 방어사로 교체하고, 이용을 남병사로 삼아 군사력을 지휘하도록 했다.⁹⁶ 그러나 중앙에서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경원진과 안원보安遠堡는 여진에 함락되었다. 조선은 신속하게 군사정책을 식별하고 시행하였음에도 여진을 막지 못했다. 선조는 수성하지 못한 죄로 경원부사 김수와 판관 양사의를 효시하여 여진의 침입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⁹⁷

2월에 북병사 이제신은 전열을 갖추고 온성부사 신립申砮, 부령부사 장의현張義賢, 첨사 신상절申尙節, 군관 김우추金遇秋 등으로 하여금 경원진慶源鎭, 훈융진訓戎鎭, 안원보安原堡, 건원보乾原堡 등지의 여진을 토벌하였다. 1583년 1~2월의 여진 반란과 조선의 토벌 등은 여진 번호의 반란에 대한 조선의

⁹⁵ 한성주, 『조선시대 번호 연구』, 경인문화사, 2018, 120~122쪽. 당시 기록의 살펴보면, 『선조실록』 편찬과정에 니탕개를 혼란스럽게 기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니탕개의 난 시작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⁹⁶ 『선조실록』 권17, 선조 16년 2월 7일(경인).

⁹⁷ 『선조실록』 권17, 선조 16년 2월 9일(임진).

강경한 응징이었다.⁹⁸ 여진 번호는 조선의 응징으로 진압되기보다 오히려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반발했다. 그 반발의 중심은 경원진 일대의 번호가 아닌 온성진(溫城鎭), 회령진(會寧鎭), 중성진(鍾城鎭)의 번호였다. 그 핵심 인물이 니탕개였으며, 이 시기 여진 번호가 보다 조직화되고, 세력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조선은 방계군주 선조의 통치기간으로 중앙정치의 혼란으로 북방 여진족에 대한 효율적인 군사대응을 실시하지 못했다. 결국 니탕개의 난으로 이어졌다. 조선은 여진의 침입 경험으로 군사개혁을 실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니탕개의 난 전투경험을 조총과 보병중심 일본군에 적용하여 임진왜란 초기 연전연패를 초래하기도 했다.

요동에서 건주여진이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호륜 4부를 비롯한 여러 세력을 제압하는 동안, 명은 요동총병관 이성량에게 군사지휘를 위임하여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만력 연간 여진은 지속적으로 명을 침입했으며, 명군은 허위보고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요동총병관 이성량은 명군의 체질적인 개혁과 정비는 간과하고, 권력강화에 집중했다. 이성량의 독단적이고 무능한 지휘 및 과도한 여진에 대한 대응은 누르하치의 명 정벌전쟁 명분을 제공하였다.⁹⁹

조선과 건주여진관계

조선 명종~선조 초반까지 압록강 중상류에 거주하는 여진을 몰아내고자 했지만 한계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명종대 소극적인 여진정책에 반해 선조는 즉위하며 의욕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선과 여진관계는 군사차원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조선은

⁹⁸ 한성주, 2018, 위 책, 123쪽.

⁹⁹ 김경록, 「만력 전반기 명의 정세와 임진전쟁 참전과정」, 『만주연구』 35, 만주학회, 2023, 165~196쪽.

여진부락의 귀순^{歸順}을 권장하며 연향^{宴享}과 개시^{開市}를 열어주었으며, 여진 정책을 대외정책에서 국경정책으로 전환했다.¹⁰⁰

조선시대 국경문제는 국가의 최대 군사문제였다. 조선은 다양한 외교정보를 수집하여 여진의 정세변화를 분석하여 군사정책을 수립했다. 즉, 국경문제는 외교정보, 군사정보의 수집, 분석, 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대외적인 외교·군사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이를 통해 국경관련 정세를 분석하여 국경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는 체계가 합리적이었다. 조선은 국경문제가 발생하면 변방의 지방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명을 통해 외교·군사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외교활동, 군사활동을 펼쳤다.¹⁰¹

특히, 만주정세는 조명관계에서 신속하게 공유되었다. 조명 상호 국익관계에 따라 국경정보가 차단, 은폐, 왜곡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명관계에서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직접 충돌되는 외교사항이라면 정보가 공유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여진, 몽골 등 양국의 국경지대 밖에 존재하는 세력의 양태에 대한 정보는 긴밀하게 공유되었다. 조명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교환되는 정보는 여진관련 정보였다. 여진이 조선과 명의 국경을 침입하여 노략질하거나 각종 병폐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여진의 정세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전달되었다.

조선, 명, 후금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국제정세 및 군사

100 이재경, 「명종-선조대 압록강 방면 여진족 집단들과 조선」, 『한국문화』 83, 2018, 266~305쪽.

101 김경록,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와 외교정보의 수집-보존체계」, 『동북아역사논총』 25, 동북아역사재단, 2009, 291~323쪽. 조선시대 대외적으로 수집하고자 하였던 외교정보와 군사정보는 구분되어야 한다. 외교정보는 대명·대청·대일사행, 사신접대 등을 통해 외교문서의 전달·접수, 사행원의 문건 등으로 수집, 국왕에게 보고되는 대외관련 다양한 정보이다. 반면, 군사정보는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등 변방의 주요 군사지휘관, 지방관이 수집하고, 요동의 명 관아에서 전달해오는 군사관련 사항을 군사계통으로 국왕에게 보고되는 정보이다. 물론 외교정보와 군사정보의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 사행을 통해 수집되는 외교정보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국제정세 및 명, 몽골, 여진의 군사상황에 대한 군사정보이다. 이런 측면에서 외교정보에 군사정보가 일부 교차되는 성격이 있다.

관계를 살펴볼 때, 전환점은 임진왜란이었다. 임진왜란이 한참 진행되는 시기에 여진이 조선에 먼저 조·후금관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를 조선은 거부하고, 명을 통해 여진을 통제하고자 했다. 여진이 조선에 관계 개선을 요구하자 조선은 기본적으로 거부하며, 여진을 달래기 위해 별도의 인물을 파견하여 건주여진의 누르하치를 방문하도록 했다. 이때 파견된 조선의 대표가 복귀한 뒤에 국왕 선조에게 보고한 내용을 통해 당시 각종 군사정보가 어떻게 조선, 명, 여진 사이에 긴박하게 소통되고 유출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가 『건주기정도기(建州紀程圖記)』이다.¹⁰²

『건주기정도기』는 임진왜란기 건주위의 누르하치가 조선에 보내온 문서에 대한 답신을 전하고, 그 여정에 여진의 정세를 정탐한 신충일(申忠一)의 보고서이다.¹⁰³ 『건주기정도기』는 조선이 임진왜란의 와중에 북방의 여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보여준다.

건주위 추장 누르하치는 건주여진을 통합한 뒤 두만강 유역의 여진까지 병합하고자 했다. 이 와중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누르하치는 조선과 명에 구원병을 파견하겠다는 문서를 보냈지만 조선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누르하치는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명분을 찾고 있었다. 조선, 명, 여진 사이에 임진왜란과 건주여진 통합 등 군사관계의 현안이 발생하여 치

¹⁰² 成海應, 『研經齋全集』 外集 권50; 이인영, 「申忠一의 建州紀程圖記에 대하여 -최근 발견의 淸初史料」, 『진단학보』 10, 진단학회, 1939. 『건주기정도기』의 실물은 1939년 이인영에 의해 신충일 후손집안에서 발견되어 학계에 소개되었다. 이인영의 소개 이전 가장 오랜 기록은 성해응의 『연경재전집』에 수록된 「건주기정」이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건주기정도기』는 『선조실록』 권71, 1596년 1월 30일 3번째 기사로 수록되었지만, 지도사료는 없다. 그러나 지도사료는 성해응의 『研經齋全集』 外集 권50에 수록되었는데, 내용은 보고서의 요약형식이다. 이후 이인영에 의해 전체 『건주기정도기』가 공개되었으며, 이는 1940년 8월에 조선인쇄주식회사에 의해 『건주기정도기해설』로 출판되었다. 이후 1970년 대만의 대련국풍출판사에서 『開國史料』를 출판하며 「건주기정도록」이란 제목으로 원전이 수록되었다.

¹⁰³ 이인영, 「申忠一의 建州紀程圖記에 대하여 -최근 발견의 淸初史料」, 『진단학보』 10, 진단학회, 1939, 134~144쪽.

밀하게 대응하던 와중에 범월犯越사건이 발생했다. 건주여진인 28명이 평안도 위원군渭原郡에 인삼을 캐러 월경하자,¹⁰⁴ 위원군수 김대축金大畜이 27명을 죽인 사건이다.¹⁰⁵ 통상적으로 여진인의 범월, 채삼採蔘사건은 수시로 일어났지만, 임진왜란 와중에 누르하치가 빌미만 찾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 문제였다.¹⁰⁶ 뒤이어 조선의 만포滿浦침사에게¹⁰⁷ 이전에 함부로 건주여진에 들어온 조선인 14명과 물자를 돌려보내니 조선과 건주여진이 영구히

10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5, 平安道, 渭原郡. 동·북쪽으로 강계부와, 남·서쪽으로 理山郡과 연결된 위원군은 서울과 1,255리 거리에 있었다. 絲, 삼, 담비, 靑鼠, 수달, 영양, 꿀, 부석, 인삼, 잣, 오미자, 사향, 여향어, 弓幹木 등 토산물이 있어 여진인의 범월이 자주 있었다. 석축으로 된 읍성(둘레 1,172척, 높이 4척), 석축으로 된 加乙罕洞行城(둘레 874척, 높이 4척), 석축으로 된 洞口行城(둘레 1,172척, 4척) 등 석곽이 있고, 관방 시설로 加乙罕洞堡(석축, 둘레 541척, 높이 9척), 直洞城(둘레 1,000척, 높이 18척), 南坡堡木柵(둘레 55척, 높이 18척) 등이 있다.

105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6월 12일(경자).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江界判官 金大畜은 평양을 구원하러 가다가 길에서 선조의 파천행렬을 만나 御膳을 준비하여 올렸다. 당시 파천행렬이 肅川을 지나 안주 雲巖院에 도착했지만, 안주 아전과 백성들이 모두 도망하여 목사 李民覺이 혼자서 나와 영접하기도 했다.

106 『선조실록』 권68, 선조 28년 10월 15일(갑인). 권94, 30년 11월 7일(갑오). 사헌부가 김대축을 탄핵한 내용을 통해 이 사건의 전모를 가름해 볼 수 있다. 군수 김대축은 渭原郡守로 경계업무를 소홀히 하여 여진인이 삼 개기 위해 함부로 경내에 들어와서 방목하는 소들을 노략질하게 한 과실이 있고, 공을 노려 굶어서 거의 죽게 된 여진인을 사로잡아 죽여 머리를 베고 토벌하였다고 보고한 과실을 범했다. 특히 사헌부는 이때 여진인들을 사로잡아 죽인 사건이 빌미가 되어 누르하치의 조선에 대한 공세가 시작된 점을 들어 변방의 정보보고는 국가의 중대한 일인데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거짓을 보고한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선조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들여 김대축을 잡아들여 推考하도록 했다. 실제 김대축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년 뒤 1597년 11월에 사헌부에서 다시 김대축에 대해 동일한 사안으로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김대축은 礪山郡守로 재직하였다. 거듭 사헌부에서 김대축을 탄핵하며 내세운 잘못은 김대축이 부질없이 여진인을 죽여 변방의 분쟁을 일으켜서 큰일을 낼 뻔하였다는 점이다. 추가로 사헌부는 위원군이 賊變의 直路에 위치한 요충지이므로 군사능력이 있어 국경방어를 감당할만한 인물로 차정할 것을 건의했다. 사헌부의 탄핵에 대해 선조는 윤허하였다.

107 『만기요람』 군정편 4, 關防. 평안도(平安道): 『국조보감』 권61, 영조조 5, 15년 11월: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5, 평안도, 관방. 만포는 평안도 관방체계에서 江界의 휘하에 馬馬海堡, 楸坡鎮, 從浦鎮, 上土鎮, 外怪鎮, 伐登鎮, 高山里鎮 등과 함께 성이 있는 군진으로 압록강을 넘어 건주위의 집안과 인접한 지역이다. 이에 조선초기부터 수시로 여진족이 강을 건너 교역을 요구하거나 군사침입을 일삼았던 지역이다.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만포침사는 邊地例에 의거하여 부임한 지 1년이 되기 전에는 다른 관직으로 옮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滿浦鎮은 강계도호부의 서쪽 128리에 있으며, 석성이 둘레 3,172척, 높이 5척이다. 兵馬僉節制使營, 군창, 행성이 있다.

사이 좋게 지내자는 서계書契를 보내왔다.

누르하치가 서계를 보내온 시점은 1595년(선조 28) 7월 5일이었다. 누르하치의 서계는 만포첨사를 통해 평안병사 신잡申穰에게 보고되고, 다시 중앙의 선조에게 보고되었다. 신잡은 당시 만포첨사가 정중히 서계를 거절하는 이유를 여진에 설명했음을 국왕에게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란을 일으키는 경향을 감안한 조치였다. 당시 서계를 가지고 온 여진 병력은 90명이었다.¹⁰⁸ 평안병사 신잡은 서계를 받지 않으면 화근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고 서계를 접수할 수도 없어 일단 조방장助防將 변응규邊應奎를 임시 영장領將으로 삼아 만포에 주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건의했다.

평안병사의 보고를 접한 선조는 당시 군국기관이었던 비변사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비변사는 전란 중 조선의 북방 방어체계가 허술한 점, 1594년 누르하치가 병력파견을 제안했을 때 명을 통해 거절한 점을 고려하여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물론 누르하치가 조선인 쇄환을 핑계로 조선의 군사상황을 정탐할 것이라 판단했다. 다만 만포첨사 차원에서 서계접수를 거절하면 누르하치에게 외교적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다.

당시 임진왜란에 명군이 파병되어 전쟁을 연합으로 수행하는 상황에서 건주여진의 누르하치로부터 군사관련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칫 명의 의심을 초래할 위험도 있었다. 조선은 유사한 사례로 조명관계에서 군사적 위험을 경험한 바 있었다.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여진관계는 매

¹⁰⁸ 『선조실록』 권65, 선조 28년 7월 25일(병신). 7월 5일 건주위 여진족 90여 명이 만포에 도착하자 첨사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려고 했다. 처음 여진족이 왔을 때, 누르하치의 서계가 있는지 조선은 몰랐다. 여진족이 서계접수가 안되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여 첨사 등이 달래어 음식을 먹도록 하고, 사이에 몰래 서계를 등서하여 평안도병마절도사에게 보고했다. 처음 만포첨사가 서계를 접수하지 않은 이유는 조선인과 물자의 쇄환을 핑계로 여진인이 조선 국경에 들어와 함부로 산삼을 캐려고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는 조선의 모든 군사력이 남쪽의 일본군을 대응하기 위해 집중되어 압록강변의 군사력이 이동하여 진영에 실제 병력이 적었던 점도 감안되었다.

우 특수한 측면이 있었다.

세조대 누르하치의 선조였던 충산^{董山}에게 관직과 물품을 주었다가 조명간 외교문제로 비화된 사건이 있었다. 조선은 명에 알리지 않고, 여진에 관직과 물건을 하사하여 변호로 삼았다. 그러나 조선의 여진정책이 명에 알려지면 군사외교 사건으로 확대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조가 여진에 관직을 하사한 일이다. 역사적 우연일지 모르지만, 그 대상이 누르하치의 조상이었다. 1459년(천순 3) 2월 22일, 천순제는 조선국왕 세조에게 칙서를 보내어 조선이 건주여진과 접촉한 일을 질책했다.¹⁰⁹

세조 연간에 요동의 변장^{邊將}이 건주삼위^{建州三衛}의 도독^{都督} 고납합^{古納哈}과 충산^{董山} 등이 조선에서 상사^{賞賜}를 받았다고 주보^{奏報}했다. 명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은 명의 동방 제후국가^{東藩}로 사사로이 주변 세력과 더불어 외교관계^{交通}를 맺지 못하는데, 세조가 이를 어겼다고 질책했다. 명은 조선과 여진이 사사로인 통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부여받은 역할^{本分}을 행하고, 각기 국토^{境土}를 지켜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치제는 칙사^{勅使}를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과 여진의 사신왕래 상황을 조사했다. 당시 명의 조선·여진관계에 대한 입장은 순치제의 칙서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순치제의 특명을 받은 칙사가 지참한 칙서는 1459년(세조 5) 4월 8일에 세조에게 전달되었다. 이날 세조는 모화관에서 천순제의 칙서를 가져오는 칙사를 맞이하여 의례를 행하고, 근정전^{勤政殿}에서 칙서를 읽었다.¹¹⁰ 칙사 진가유^{陳嘉猷}를 통해 세조는 명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했다. 명은 이 사건 직전까지 조선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 동안 조선이 표류한 명나라 사람과 전량^{錢糧}을 명으로 돌려보내고, 일본에서 조현^{朝見}한 사실을 주달^{奏達}하는 등으로 조선을 신뢰했다. 그러나 국경관련 조선·여

109 『명영종실록』 권300, 천순 3년 2월 22일(을해).

110 『세조실록』 권16, 세조 5년 4월 8일(기미).

진의 연계는 엄격히 금지했다.

명의 고압적 태도에 세조는 고납합과 동창 등은 이전부터 조선의 관직을 받았으며, 이들이 조선에 왕래하는 것을 막으면 변방에 혼단(鼻端)이 발생할 것이기에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는 입장이었다. 조선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은 이미 명으로부터 도독 관직을 받아 명의 신하가 된 여진을 조선이 다시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명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해결방안은 여진이 조선에 와서 불가피하게 관직과 상물(賞物)을 준 일자를 명백히 명에 전달하고, 명이 여진에 신직(申勅)하여 다시는 조선과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었다.¹¹¹ 즉, 명이 중심이 되어 조선과 여진은 결코 직접 왕래하지 못하고, 명의 중재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이러한 관계는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조선·명·여진의 삼각 군사관계를 보여준다.

다시 선조대로 돌아와 조선은 각종 사례를 참조하여 여진과 왕래하는 것을 명에서 금지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즉, 조선에서 누르하치의 접근 등을 자세히 적어 명 요동도사에 자문을 보내면 된다고 판단했다. 조선은 군사외교로 해결하고자 했다. 누르하치의 서계를 명에 알려 결정을 미루고, 방어차원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서울에 주둔한 평안도출신 무사들을 평안도에 보내 병마절도사가 지휘하도록 했다. 즉, 누르하치 서계접수 여부를 명에 통보하여 명이 직접 여진을 제어하도록 하고, 다만 조선은 군사적으로 만포에 병력을 증강시키고, 강변의 군사요충지에 경계를 강화했다.

¹¹¹ 김경록, 「조선초기 대명외교와 외교절차」, 『한국사론』 44, 2000, 1~54쪽; 「조선시대 사대문서의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134, 2006, 35~71쪽;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 26, 2006, 123~168쪽. 조선시대 외교문서의 행이체계는 조선사행이 명·청에 사행하여 외교문서를 통해 외교목적을 전달하면 황제문서 내지 관부문서를 접수하여 귀국하는 반면, 중국사행은 조선에 황제·관부문서를 전달하여 외교목적 전달한 뒤 귀국하고 별도의 조선사행이 관련 답변 외교문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체제였다. 이런 점에서 중국사신은 자신들이 부여받은 사행목적에 부합하는 조선의 외교문서가 작성되는가에 늘 주목했다.

이에 조선은 만포에 온 여진병력에 대해 잔치를 베풀어 위무했다. 이를 위해 평안감사가 물자를 조달했다. 또한,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서계를 접수하고 조선과 여진이 왕래하는 일은 명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승문원承文院에서 답장을 작성하여 7월 25일, 만포첨사 김억추金億秋가 여진에 전달하도록 했다. 기타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강계부사江界府使 허옥許碩이 현지 상황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¹¹²

누르하치는 위원에서 여진인 살해사건의 복수를 명분으로 압록강뿐만 아니라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을 복속시키고자 했다. 조선과 명은 누르하치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8월 13일, 선조는 명 유격遊擊 호대수胡大受에게 문서를 보내 누르하치에게 연락하여 조선에 대한 군사충돌을 벌이지 말도록 중재를 요청했다.

임진왜란은 명과 여진의 조선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명은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을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된 주변국藩屏(藩邦) 가운데 전통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예의지국으로 인식했다. 이는 명대 문물전장의 집대성이자 법제의 종합판인 『대명회전大明會典』을 통해 확인된다.¹¹³ 역사와 예의를 갖춘 명 이외에 주변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국가로 조선을 인식했던 것이다.

여진은 오랫동안 분열되어 조선의 국경 주변에서 조선의 관직과 물품을

¹¹² 『선조실록』 권61, 선조 28년 3월 22일(을미). 『건주기정도기』에는 만포첨사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1595년 3월 22일에 金億秋로 滿浦僉使를 삼았던 실록기사를 근거로 김억추가 누르하치의 서계를 받고 선조에게 보고했으며, 서계접수를 거부하였다가 답장을 적어 보낸 주체를 김억추로 비정한다. 답장은 누르하치가 조선인 14명을 쇠환한 후의를 가상히 여기지만, 명 조정의 법에서 금하는 사항으로 건주위와 조선이 왕래할 수 없음을 명분으로 거절하는 내용이었다.

¹¹³ 『大明會典』 권105, 主客清吏司, 朝貢1, 東南夷上. 『대명회전』의 구성체제에서 예부의 대외관계를 담당한 主客清吏司의 職制와 職掌을 정리하며 중요성과 방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였다. 권105~108에 걸쳐 朝貢1(東南夷上), 朝貢2(東南夷下), 朝貢3(北狄, 東北夷, 西戎上), 朝貢4(西戎下, 土官, 朝貢通例) 등 명대 대외관계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에 조선은 제일 앞에 기록되었다.

통해 생활했다. 명과 여진은 조선을 강하다고 인식했다.¹¹⁴ 그러나 임진왜란에서 조선은 너무나 무기력했다. 명은 참전하며 조선의 군사체제 개혁을 요구하며, 군사개혁을 지원할 문헌, 무기, 인원을 파견하여 지원했다.¹¹⁵ 유격 호대수는 조선의 대일본 전쟁수행에 필요한 조선군 군대교련과 방수^{防守}를 위해 파견된 명 장수이다. 호대수의 파견에 대해 선조는 조선군 훈련과 군사체제에 관련된 중대한 직무로 온다고 보고, 접반관으로 지략을 갖춘 재사^{才士}를 천거하도록 훈련도감에 지시했다.¹¹⁶ 호대수가 한양에 도착한 시점은 7월 25일이었다. 선조는 시어소^{時御所} 별전^{別殿}에서 호대수를 접견했다. 호대수는 조선의 전쟁수행에서 군량준비와 운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경략^{經略} 병부시랑 손광^{孫光}의 소첩^{小帖}을 선조에게 전달했다.¹¹⁷

누르하치에게 외교적 조치를 요구하는 조선의 요구에 호대수는 긍정적이었다. 사실 조선 내부에서 조선군의 훈련과 전투력 강화를 위해 온 호

114 『漂海錄』 권2, 무신년 2월 17일. 명에 표류한 崔溥가 1488년(성종 19) 2월 17일, 姑蘇驛에 유숙하며 按察御史 王氏, 宋氏와 禮賓館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조선이 어떤 능력으로 고구려-수, 고구려-당전쟁에서 승리하였는가는 질문에 지모있는 신하와 용맹한 장수가 군사를 지휘하여 모두가 위사람을 親愛하고 長上을 위해 죽을 각오로 싸웠다. 신라, 백제, 고구려가 한 나라가 되었으니 物産은 많고 땅은 크며, 재물은 넉넉하고 군사는 강성하며, 충성스럽고 지모있는 선비들이 많다는 답변이 있었다. 명 관원이 조선의 역사에서 중국의 강대한 병력을 물리친 점을 질문한 점에서 당시 명의 조선에 대한 군사적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115 김경록,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 하권, 군사편찬연구소, 2022, 451~613쪽.

116 『선조실록』 권64, 선조 28년 6월 26일(정묘).

117 『선조실록』 권65, 선조 28년 7월 25일(병신); 28일(기해). 손광은 경략 顧養謙이 1594년 5월에 탄핵되자 경략을 대리했던 인물이다. 고양경이 일본에 대한 불공정책을 주장한 반면, 손광은 반대입장이었다. 그러나 경략이 된 이후 현실적으로 임진왜란을 종료하기 위해 강화정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추진했다. 손광은 실제 병력을 파견할 수 없자 호대수를 비롯한 무장을 파견하여 조선군의 전투역량을 강화하여 일본군을 대응하고자 했다. 손광의 소첩은 “이 땅위에서 호걸이라고 일컫는 자도 無事할 때 처하기는 쉬우나 有事時에는 처하기가 어려우며, 유사시라도 할 수 있을 때 처하기는 쉬우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에서 조선의 군사요구에 명 장수를 파견하여 훈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량은 전쟁정책을 마련하고, 팔도의 병력을 모집하여 편제를 정비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馬駄의 운송을 줄이고, 敎師를 나누어 보내고, 군량을 미리 준비하고, 礮穴을 수색하고, 험준한 곳에 웅거하여 국경을 지키고, 군사의 장비를 의논하여 결정하고, 屯田을 많이 개간하고, 떠도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어루만져 안심시키는 방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우의정 李元翼이 호대수와 협의하여 소첩 가운데 군량이 가장 긴급하다고 협의하였다.

대수에게 여진관련 사항을 제기한다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처음 누르하치의 서계문제가 발생하자 조선은 명의 사주를 받은 사건이라는 의심도 했다. 자칫 이런 의심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명의 정치, 외교적 의도에 조선이 순응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었다.¹¹⁸

이 과정에 조명관계에 큰 일이 발생했다. 참전한 명군의 최고 지휘관인 경략 손광(孫鑠)이 파면된다는 정보가 알려졌다. 손광의 파면은 조명 군사관계의 중요한 사례이다. 손광은 비밀스럽게 호대수에게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는 특진관(特進官) 이덕형(李德馨)이 역관 이억례(李億禮)를 통해 몰래 베껴 국왕 선조에게 보고되었다.¹¹⁹ 손광은 자신의 탄핵을 인지하고 파견한 호대수에게 조선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호대수는 12월에 명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이런 사정으로 조선에서 호대수에게 차관을 파견하여 누르하치에게 함께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조선은 매우 신중하게 군사외교를 펼쳤다. 자칫 누르하치가 오해하면 임진왜란 와중에 북방의 여진과 군사충돌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병조판서 이덕형(李德馨), 참판 한효순(韓孝純)은 신충일(申忠一)이 명군과 함께 조선관원이 누르하치에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왕대귀(王大貴)와 함께 하세국이 누르하치에게 파견되었다. 이는 조선이 경략 손광의 교체라는 정세를 활용하여 호대수에게 여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여 성공시킨 군사외교의 사례이다.

조선은 건주여진의 누르하치를¹²⁰ 정탐하기 위해 명의 도움과 묵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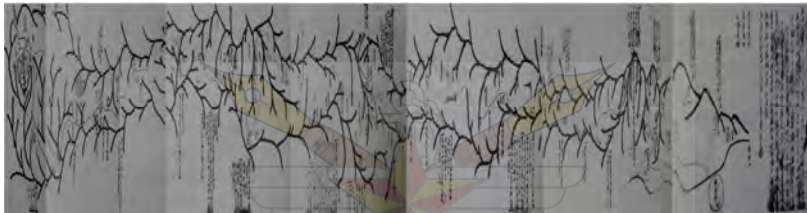
¹¹⁸ 『선조실록』 권66, 선조 28년 8월 13일(계축).

¹¹⁹ 『선조실록』 권67, 선조 28년 9월 6일(을해).

¹²⁰ 『선조실록』 권23, 선조 22년 7월 12일(정사). 누르하치 집안은 원명교체기 依蘭에서 두만강 유역 會寧(吾音會)로 이주하여 이성계에 從軍한 공으로 慶源等處管軍萬戶를 받은 6대조 먼터무(孟特穆)에서 시작된다. 『조선왕조실록』에 童孟哥帖木兒로 기록된 먼터무는 이후 영락제의 초무에 응하여 건주좌위의 수장이 되었다. 이후 여진족 내부의 갈등으로 동맹가침목아는 七姓野人の 공격을 받아 패망하자 뒤를 이어 凡察와 童倉이 波猪江으로 이동하여 각각 건주우위와 건주좌위가 수장이 되었다. 건주좌위의 후손인 누르하치는 1589년(선조 22), 건주삼위를 통합하여 왕을 칭했다. 이 시기 이미 누르하치는 두만강 유역의 毛麟衛를 복속시켜 점진적으로 주변 여진족을 도모하고자 했다.

받아 관원을 파견했다. 국왕의 명령을 받은 만포진(滿浦鎭)첨절제사 유엄(柳濂)은 통사(通事) 하세국(河洗國) 등 11명을 명 요동의 선유관(宣諭官)이었던 가정(家丁) 양대조(楊大朝)를 따라 건주여진에 파견했다.¹²¹ 10월 18일에 출발한 이들은 11월 2일에 돌아왔다.

구체적으로 호대수는 차관(差官) 여희원(余希元)을 만포로 보내어 여희원의 가정이 조선 관원과 누르하치를 방문하도록 했다.¹²² 10월 18일, 향통사 하세국은 여희원의 가정 양대조(楊大朝)와 함께 누르하치에게 호대수의 선유문을 전하고, 누르하치의 부장(副將) 마신(馬臣) 등과 함께 11월 2일 만포에 도착했다. 마신은 누르하치의 편지를 만포첨사에게 전달했다.



〈그림 5〉『건주기정도기』 수록 조선에서 건주여진 거주지까지 노정

(출처 : 『건주기정도기(建州紀程圖記)』)

복귀한 하세국 등이 정탐한 내용은 만포진, 평안도병마절도사 변응규(邊應奎)의 치계(馳啓)로 11월 15일 국왕에게 보고되었다. 그 내용은 매우 상세했다. 누르하치가 아우 슈르가치(速兒哈赤)와 함께 각지의 여진인을 조발(調發)하여 훈련하고, 달장(達匠)을 모집하여 활·화살 등을 준비했다. 온화위(溫火衛), 본위(本衛)

¹²¹ 계승범, 「향통사 河世國과 조선의 선택: 16~17세기 한 여진어 통역관의 삶과 죽음」, 『만주연구』 11, 2011; 박정민, 「임진왜란과 여진인 ‘來朝’의 종언」, 『만주연구』 18, 2014; 박정민, 「누르하치의 두만강 유역 진출과 조선의 藩胡 상실」, 『인문과학연구』 43,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김선민, 「훈춘, 청과 조선의 변경」, 『만주연구』 19, 2015. 하세국의 구체적인 활동, 조선의 변호에서 누르하치의 세력권으로 이동하는 여진족의 정세, 건주여진을 발판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누르하치에 대한 정세파악 등을 살펴볼 수 있다.

¹²² 『선조실록』 권67, 선조 28년 9월 17일(병술). 여희원이 가져간 호대수의 선유문(宣諭文)은 작성과정에 조선과 의견조율이 이루어졌다.

등이 누르하치 휘하에 합류했지만, 여전히 내부적 갈등이 잔존하고, 누르하치가 다음 해 1~2월에 조선, 특히 위원^{溥原}을 침입할 것이라 분석했다.

조선은 통사 하세국과 함께 정세를 탐문할 무관을 파견했는데, 이 인물이 남부주부^{南部主簿} 신충일^{申忠一}이다.¹²³ 신충일은 비변사에서 추천된 인물로 선발되자마자 한성을 출발해 만포로 이동했다. 신충일은 1595년 12월 22일부터 1596년 1월 5일까지 만포첨사 명의의 답서를 전달하고, 누르하치의 답장을 받아왔다. 이 과정의 보고서가 『건주기정도기^{建州紀程圖記}』이다. 조선에서 건주여진까지 노정, 가는 길의 주요 산천과 지명, 촌락, 군비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성내의 구성, 누르하치와 슈르가치의 거주양태 등에 대해 기록했다.¹²⁴

하세국의 보고를 받은 선조는 의정부로 하여금 명에 통보하도록 했다. 의정부는 성균관 학유^{學諭} 채형^{蔡衡}을 명에 파견하여 하세국이 수집한 군사정보를 통보하고, 명이 파악한 정세를 알려주도록 요구했다. 동시에 조선은 서북변경의 방어를 강화하고, 건주여진과 가까운 명의 애양^{愛陽}·관전^{寬奠} 등지에 통사 이해룡^{李海隆}을 보내 경계강화를 통보했다.

12월 6일, 협수부총병부^{協守副總兵府} 유격^{遊擊} 호대수가 누르하치의 동향을 알리는 자문^{咨文}을 보내오자 선조는 대응책을 마련했다.¹²⁵ 이와같이 조선과 명은 여진의 동태를 주목하고 상호 긴밀하게 군사정보를 교환하며 군사외교를 펼쳤다.¹²⁶ 이는 이후 요동을 중심으로 명청 교체 및 조청관계에

123 『선조실록』 권69, 선조 28년 11월 23일(신묘); 권71, 29년 1월 30일(정유).

124 신충일 저, 신해진 역주, 『건주기정도기』, 보고서, 2017.

125 『선조실록』 권70, 선조 28년 12월 6일(갑진).

126 한성주, 「누르하치의 두만강 유역 변호 침탈과 조선의 대응 고찰」, 『만주연구』 22, 2016, 127~163쪽. 누르하치가 건주여진을 장악하고, 요동의 여진 제종족 및 몽골을 병합하는 과정에 조선은 누르하치의 여진에 대해 경계했다. 누르하치의 등장에서 조선의 대응은 누르하치가 건주여진을 장악하고 두만강 유역으로 진출하자 위기가 고조되었다. 누르하치는 전통적으로 유지되었던 여진의 조선번호를 철폐하고 조선을 침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누르하치세력이 동해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자 결국 조선과 여진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서 군사관계사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국제전쟁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명·여진(후금, 청)의 치열한 군사관계는 향후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누르하치는 여진 통합을 위해 조선의 변호로 거주하던 두만강 유역 여진을 복속시키고자 했다.¹²⁷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르하치가 접근하기 이전, 우라^{烏拉}, 오나^{烏喇}의 추장 부잔타이^{布占泰}가 두만강 유역의 여진을 압박했다. 두만강 유역 여진은 조선이 전쟁 중이었다는 점에서 누르하치에 귀순하고자 했다. 이를 명분으로 누르하치는 군대를 보내 여진을 귀속시키고, 건주위로 이주시켰다. 이 과정에 누르하치군과 부잔타이군이 조선의 국경 내 종성진^{鍾城鎭} 오갈암^{烏碣巖}에서 전투를 벌였다.¹²⁸

누르하치는 두만강 유역 여진을 복속시키되 오랫동안 조선의 변호로 존재한 점을 감안하여 조선군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했다. 비록 건주여진을 통합하더라도 조선과 군사충돌하면 자신에게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조선 역시 일본군과의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 여진과 군사충돌보다 교린차원에서 외교로 해결하고자 했다.

127 『청태조실록』 권2, 신묘 정월 1일(무술); 정유 정월 1일(임진). “葉赫·哈達·烏喇·輝發同遣使告 上曰 吾等不道 兵敗名辱 自今以後 願復締前好 重以婚媾 葉赫貝勒布揚古 願以妹歸 上金台石願以女妻 上次子代善 上許焉 具鞍馬鎧胄為聘 更椎牛 刑白馬 祀天 設卮酒·塊土及肉血骨各一器 四國相繼誓曰 既盟以後 若棄婚姻 背盟好 其如此土·如此骨·如此血 永墜厥命 若始終不渝 飲此酒·食此肉福祿永昌 誓畢 上亦誓曰 爾等踐盟則已有渝 盟者 待三年不悛 吾乃征之 後因蒙古獲罪於上 穆哈連引陣獲蒙古馬四十匹來歸 時納林布祿背盟 奪其馬 執送穆哈連於蒙古 又以金台石所許之女 妻蒙古喀爾喀部落貝勒介賽而烏喇貝勒布占泰 將滿太妻都都祜所珍銅錘 使人送葉赫貝勒納林布祿 又將我國所屬瓦爾喀部之安褚拉庫 內河二路 眾所推服者·羅屯·噶石屯·汪吉努三人 送葉赫 引其使招誘安褚拉庫 內河二路.”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누르하치는 백두산의 압록강 길을 차지하고, 와르카부(瓦爾喀部)의 안출라쿠(安楚拉庫), 內河지방의 로툰(羅屯), 가시툰(噶什屯), 왕기누(汪吉努)를 복속시켰다.

128 董万崙, 『明末清初圖們江內外瓦爾喀研究』, 『民族文化』 2003-1; 남익현, 「16~17세기 두만강 변경지대 여진의 성장과 국제질서의 변화-瓦爾喀 등 여진족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41, 2014.

누르하치는 여진 통합과정에 군대를 환도군(環刀軍), 철추군(鐵鎚軍), 찬적군(串赤軍), 능사군(能射軍) 등 4개 부대로 편성했다.¹²⁹ 조직화된 군사편제는 누르하치의 여진 통합전쟁에 효율적이었다. 결국 1595년(선조 28) 12월, 누르하치는 모린위(毛麟衛)를 복속시켜 두만강 유역 여진을 장악했다.¹³⁰ 이후 누르하치는 자신의 군사력이 기병 3~4만 명, 보병 4~5만 명이라 주장하고 임진왜란에 파병을 제안했다. 조선은 이를 반대했다. 임진왜란을 경과하면서 누르하치는 명의 요동 통제력이 약화된 점을 확인하고, 만주 전역에서 여진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누르하치의 서계문제는 병자호란의 역사적 연원이자 조선후기 조청관계에서 군사관계의 전개가 가지는 역사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여기서 하나 주목되는 점은 조선의 대여진 군사관계는 인삼(山參)이란 경제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경제적 목적으로 강을 건너 인삼을 채취하는 사례는 이미 조선초기부터 있었다. 대부분 명인(明人)이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단속과 방지가 어려웠다. 자칫 명인을 명에 통보하지 않고 단속하거나 죽이면 심각한 외교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선은 채삼(採參) 방지책을 강구했다.¹³¹ 채삼문제는 조선후기 한중군사관계에서 국경방어 및 경계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며, 양국 사이에 충돌하였다.¹³²

조명관계에서 채삼문제에 대한 조선의 대응 사례로 1589년(선조 22)

¹²⁹ 『선조실록』 권23, 선조 22년 7월 12일(정사). 이는 기존에 여진의 일반적인 군사활동 형태와 달리 부대별 특성을 통해 갈, 철추, 꼬쟁이, 활 등 무기체계에 따른 순차적인 공격 및 방어를 병행했던 부대로 보인다.

¹³⁰ 『선조실록』 권71, 선조 29년 1월 30일(정유).

¹³¹ 『선조실록』 권23, 선조 22년 7월 12일(정사).

¹³² 김선민, 「인삼과 강역: 후금-청의 강역인식과 대외관계의 변화」, 『명청사연구』 30, 명청사학회, 2008, 227~257쪽; 「명말 요동 변경지역을 둘러싼 명-후금-조선의 삼각관계」, 『중국사연구』 55, 중국사학회, 2008, 207~245쪽; 「국경지대에서 국경선으로: 19세기 말 청과 조선의 관계」, 『중국사연구』 82, 중국사학회, 2013, 177~214쪽; 「17-18세기 청대 인삼정책의 변화」, 『중국학보』 74, 한국중국학회, 2015, 405~424쪽; 「18세기 후반 훈춘 협령의 지역관리와 인삼행정」, 『사총』 93, 역사연구소, 2018, 191~230쪽; 「청대 길림의 재배삼과 자연환경」, 『동국사학』 73,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2, 119~175쪽; 「청대 훈춘의 인삼과 범월」, 『인삼문화』 5-1, 고려인삼학회, 2023, 1~20쪽.

채삼사건이 있다. 명인이 월강하여 채삼하자 조선군이 발견했지만,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가도록 몰아냈다. 선조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명인이 만약 허가증인 진첩^{眞帖}을 지참하더라도 들어올 곳과 들어오지 못할 곳이 있는데, 압록강, 두만강의 국경은 허락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더 염려스러운 점은 명인의 월강을 본받아 여진인이 함부로 월강하여 채삼하는 일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선조는 군율에 따라 처리하고, 방지하지 못하는 변방의 장수는 모두 나국^{拿鞠}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했다. 이 전까지 변방의 장수들이 명인이더라도 적극 단속하도록 지시한 것인데, 이후 여진이 위원에서 채삼하다 조선군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명분으로 누르하치는 조선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 시기 조선은 여진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국방체계를 개편했다. 당시 개편된 국방체계 제승방략^{制勝方略}은 전쟁 혹은 변란이 일어났을 때 각 지역의 수령이 소속 군사를 이끌고 거점 지역으로 이동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의 지휘를 받는 군사 전략이다. 이런 제승방략체계를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여 험준한 산악과 넓은 방어선으로 구성된 함경도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상세히 정리한 책자 『제승방략』을 편찬하여 보급했다.

‘제승^{制勝}’이란 적을 제압하여 승리로 이끈다는 뜻이며, 전쟁에 승리하는 전략인 셈이다. 조선전기 국방체제는 1457년(세조 3) 만들어진 진관체제^{鎭管體制}였다. 이는 병력 이동 없이 행정 단위에 따라 소속 지역을 지키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많은 군사와 군비^{軍費}를 발생시켰다. 또한 진관체제는 군사를 분산시키게 되므로 상습적으로 침입을 당하는 지역이나 군사 요충지를 선별하여 병력을 집중시키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조선전기의 골칫거리였던 여진과 왜구 등과 같이 소규모 국지전에 대처하기에는 비효율적이었다.

조선은 1510년(중종 5) 일어난 삼포왜란을 계기로 하여 전투가 벌어지는 거점지역에 각 진관의 수령이 휘하 군사들을 이동시키고, 중앙에서 보낸 군사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전략, 곧 제승방략^{制勝方略}의 방어체제를 구축

했다. 조선은 비전문가가 지휘하는 분산적 방어체계를 전문가가 지휘하는 집중적 방어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변방의 국지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같은 전면전에서 제승방략은 매우 취약했다.¹³³ 집중적 방어 거점 지역이 함락될 경우 후방에서 방어선을 다시 형성할 방법이 없었으며, 중앙 지휘관이 전선에 도착하는 시간보다 적의 진격이 빠를 경우 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일본군이 삼시간에 수도를 함락시키는 것으로 현실화되었다. 결국 임진왜란 이후 국방 체제는 제승방략 체제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중앙군을 강화한 5군영과 지방군을 강화한 속오군으로 변화되었다.

진관체제는 행정조직 단위인 읍^邑을 동시에 군사조직 단위인 진^鎭으로 편성해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으로 나누고, 각 읍의 행정관인 수령이 군사지휘관도 겸임하도록 한 제도이다. 즉, 진관체제는 국방 체제를 전국토로 확대해 행정조직과 맞물려 일원화한 조치이며, 각 진관 단위로 자전자수^{自戰自守}를 원칙으로 했으므로 병력을 다른 진관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관체제는 전 국토를 방위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방위에서 전방·후방의 구별이 없었다. 방위체제가 평면적이어서 요충지에 실질적인 방어 병력을 투입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적이 상습적으로 침입하는 지역이 있다면 군사력을 이 지역에 집중시켜야 하지만, 실제 군사를 분산 배치하므로 집중적으로 적을 격퇴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전 국토의 방위체제이므로 많은 군사가 동시에 필요했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인^{保人}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군역 기피로 16세기 이후 대립제^{代立制}가 성행하면서 병력수가 감소했고 군사들의 전투력도 점점 저하되었다. 더구나 문관이 수령으로 임용된 지방에서는 군사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이 군사지휘권을 겸장하므로 국방에 무관심한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에 북방군사체제로 진관체제의 단점을 개선해 만든 제승방략도 임

¹³³ 김경록,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2022.

진왜란과 같은 전면전에 국지전 중심 방어체제로 한계를 보였다. 군사력을 제1방어선에 집중 투입한 결과 제일선이 무너지면 후방의 제2, 제3방어선을 형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인근 지역이 적에게 빠르게 함락되었다. 신속한 적의 침입에 중앙의 지휘관이 도착하기 전에 붕괴되는 방어선도 문제였다. 또한, 중앙의 지휘관과 지방 지휘관의 지휘체계의 혼선도 문제였다. 임진왜란 이전에 유성룡은 제승방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관체제의 복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1592년(선조 25) 4월 17일에 선조는 이일에게 일본군의 북진을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이일은 19일에 도성에서 출발했다. 경상감사 김수는 제승방략에 의거 각지 수령으로 하여금 정해진 대가로 집결할 것을 지시했다. 경상좌도 병력은 대구에서 며칠 동안 비를 맞으며 순변사(巡邊使)를 기다리다가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이일은 문경에 23일 도착했지만 병력은 없었다. 24일, 상주까지 내려와 인근에서 수백 명의 병력을 모아 25일 하루 훈련했다. 훈련 중에 일본군이 상주로 진출하여 상주전투가 벌어졌으며 이일은 전투다운 전투도 못하고 탈출해 문경, 조령, 충주에서 신립(申立) 군대와 합류했다.

1583년(선조 16) 2월에 여진족 니탕개(尼湯介)가 난을 일으켜 대구모로 조선의 북방을 침략했다. 니탕개 난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은 도체찰사(都體察使)와 방어사(防禦使) 등을 파견해 병마절도사와 함께 지방군을 나누어 지휘하도록 했다. 이 난이 있은 뒤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로 부임한 이일(李鎰)은 1588년 3월에 『제승방략』을 펴냈다. 1670년(현종 11)에 『제승방략』을 다시 간행하면서 여기에 발문을 쓴 이선(李選)의 말에 따르면 이미 북방에서 김종서(金宗瑞)가 시행한 제승방략법이 있었다. 이것을 이일이 증보, 정리해 펴낸 책이 『제승방략』이었다.

저자 이일은 1558년(명종 13)에 25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하면서 관직에 나아가 니탕개 난 당시 전라도 수군절도사로 있다가 그 해 4월에 경원부사로 임명되고,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로 승진한 이일은 “적로의 형

세, 부락의 다소, 산천의 험악과 평탄, 도로의 멀고 가까움, 성을 지키는 절차, 적을 추격하고 요격하는 등의 일”을 틔나는 대로 현지 조사하고 여러 조건을 참작해 이 책을 편찬했다.

이일이 완성한 제승방략은 유사시에 북도의 병마절도사를 중심으로 도내의 전체 병력을 동원하는 체제였다. 남방의 제승방략이 중앙에서 파견한 경장(京將)이 중심이라면, 북방의 제승방략은 현지 병마절도사가 중심이 되어 군사를 통솔하는 차이가 있다. 현존하는 『제승방략』은 1588년에 이일이 펴낸 『제승방략』을 1670년(현종 11)에 함경북도 병마평사(兵馬評事) 이선이 다시 간행한 2권 1책이며 목판본으로 중간본(重刊本)이다. 이선이 쓴 발문이 있다.

『제승방략』의 구성은 권1과 권2에 걸쳐 「열진방어(列鎭防禦)」, 권2의 끝 부분에 부록으로 「군무 29조」, 「금령 27조」, 「육진대분군」, 「삼읍분군」, 「청행제승방략장」, 「비국회관」, 「보순영」, 「방량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진방어」에는 경흥, 경원, 온성, 종성, 회령, 부령의 6진과 여기에 소속된 진/보(예를 들면, 경흥진-서수라보, 조산보, 무이보, 아오지보), 이밖에 경성진, 길주진, 명천현과 여기에 소속된 진/보의 위치와 형세, 적로(敵路)의 거리, 각 진보의 상호 방어관계, 인근에 있는 변호부락(藩胡部落), 요격이나 복병의 요지, 성보·봉수 배치, 성안의 우물과 성문 숫자, 방어 군사의 규모, 무기 현황 등을 수록했다. 그리고 각 진보에서 일어난 야인의 침범 사건도 자세히 조사해 수록했다. 무엇보다 이들 진보의 전투력과 상황은 현지조사가 아니면 답아낼 수 없는 생생한 정보들이므로 저자 이일이 직접 답사하여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함경도의 성은 소규모 석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군사규모가 많지 않았다. 예를 들면, 6진의 29진보에 토착군사가 4,166명이고 남쪽지방에서 온 부방군이 794명이며, 기타 다른 진보에는 토착군사가 1,585명이고 남쪽지방의 부방군이 615명이다. 무기 현황은 6진의 29진보에 활 12,356장, 장전(長箭) 2,246,422개, 편전 2,617,742개가 보유되었으며, 남방

의 14진보에는 활이 1,808장, 장전이 420,412개, 편전이 418,432개 보관되었다. ‘고사’라는 부분에 39건의 여진족 침입기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니탕개 난에 관련된 내용이 21건이다. 시전^{時錢} 부락의 침입에 대한 기록도 7건이나 되었다.

부록은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제승방략법을 기록했다. 「군무29조」는 각 진/보^{鎭堡}의 군사들이 지켜야할 수칙 29가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놓았다. 수호법을 보면 이른 새벽에 수호장이 군사를 이끌고 점검을 나가 두만강 일대를 순찰하고, 수호정^{守護廳}에 이르면 갑옷을 벗지 않고 말에 안장을 갖춘 채 멀리 망을 보면서 적침을 경계하다가 해가 질 때 들판의 농민과 함께 진보로 철수하고, 농민들도 진보에서 자기 농토에 일하러 갈 때에는 모두 칼·창·도끼 등의 군사 장비를 소지했다가 적변이 있으면 한곳에 모여 군사들과 함께 대항한다는 등의 수칙이다. 「금령27조」는 엄격한 별직 조항, 「육진대분군」과 「삼읍분군」은 6진과 3읍(부령, 명천, 길주)의 분군 규정과 해당 지휘관을 규정한 조항, 「청행제승방략장」은 1588년(선조 21) 3월 3일에 이일이 선조에게 제승방략의 시행을 건의한 글, 「비국회관」은 이일의 건의에 대해 비변사에서 1588년 6월 19일에 답변한 내용, 「보순영」은 순영에서 함경북도 병마절도사에게 보낸 문서, 「방량식」은 군사/군마에 지급하는 군량과 마초^{馬草}(말먹이)를 명시한 것이며: “군사 1인에게 하루에 쌀 3승, 기마 1필에게 죽미 1승, 종인^{從人} 2인에게 쌀 4승과 콩 3승, 복마^{卜馬}(짐실는 말) 1필에게 콩 2승을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조선의 국토방위전략은 진관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다. 『제승방략』은 조선의 대북방 군사전략으로 넓은 전선에 걸쳐 산악지형에 작은 진보로 구성된 방어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선이 제시한 새로운 군사방어체계였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동안 여진의 침입으로 방어체계에 한계를 보였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위전략을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새로운 병서로 간행한 점에 의미가 있다.

〈표 3〉 명-후금전쟁 전후 주요 사건

전쟁 이전	전쟁기	전쟁 이후
▶ 건주여진 통일 : 1588년, 누르하치의 건주여진 통일은 후금, 청, 명 청전쟁 여정의 출발점 ▶ 명의 여진공략 실패 : 누르하치의 건주여진 통일에 대한 견제로 1590년, 명은 요동 군사력을 동원하여 공략하였지만, 명군의 처참한 패전 ▶ 명군의 임진왜란 참전 :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황제국으로 1592년~1593년 1차 파병본진으로 참전하여 일명 만력삼대전쟁을 치루어 국가차원의 막대한 비용을 지출 ▶ 여진통일 : 누르하치는 국제정세를 활용하여 1616년 모든 여진족을 통일하여 후금 건국	▶ 후금의 정명전쟁 : 푸순성 점령(1618), 요동동부 공략(1618), 청하성 전투(1618) 등 후금의 연전연승 ▶ 사르후전투(1619) : 명 중심 연합군과 후금의 대규모 전투 ▶ 명 정세혼란 : 만력제 사망(1620), 후금의 만주경략(1621), 십양점령(1621) 등 황위계승의 혼란과 정세불안 ▶ 인조반정(1623) : 조선의 대명정책, 대후금정책 변화 ▶ 후금에서 청으로 : 영원성전투(1626), 홍타이지 즉위, 정묘호란(1627), 송정제 즉위(1627), 내몽골 공략(1629), 모문룡 사망(1629), 기사의 변(1629), 원숭환 처형(1630), 명군 공유덕, 경중명 후금 투항(1633), 청 건국(1636)으로 이어지는 정세변화에서 후금은 청으로 국가체제를 전환하여 본격적인 정명전쟁 수행	▶ 남명정권 수립(1644) : 명 세력은 강남지역에서 송정제의 사촌을 홍광제 추대하여 남명 수립 ▶ 이자성의 난 종료 : 북경에서 몰려난 이자성이 1645년 부하에게 살해됨 ▶ 응무제 등극 : 1645년에 정지룡 등이 응무제를 추대 ▶ 청의 남정 : 청군의 남명정권 정벌의 일환으로 1650년 경동과 구이린이 함락됨 ▶ 청의 해양정벌 : 1656년 청군은 주산열도를 점령하여 남명정권의 대만연결을 차단 ▶ 강희 연간 : 1661년 순치제를 이어 강희제 즉위 ▶ 오삼계의 남명정권 정벌 : 1662년 청군의 일환으로 남정하 오삼계가 남명 영력제를 축임
	▶ 조선의 굴복 : 병자호란(1636), 삼전도 치욕(1637)으로 청은 정명전쟁 집중 ▶ 이자성 반란과 청의 입관 : 송산성전투와 금주성 점령(1640), 순치제 즉위(1643), 이자성 북경점령(1644), 오삼계의 투항(1644) 등 전황을 거쳐 청군이 입관하여 북경을 점령함으로써 명 멸망	▶ 삼번의 난 : 1673년 운남의 오삼계, 광동의 경정충이 반청복명을 기치로 반란을 일으킴 ▶ 반청세력의 등장 : 정경의 해징점령(1678년) ▶ 오삼계 사망 : 1678년 오삼계가 사망하자 후손이 반란을 주도했지만, 급속하게 세력이 줄어들어 1681년 강희제의 대대적인 공략으로 진압

제 3 절 국경을 둘러싼 조선·여진의 군사갈등



“천하의 봉강(封疆)은 피차가 매우 분명하다. 그런데 네(여진)가 천조(天朝)를 두려워하지 않고 압록강을 건너 사사로이 조선과 몰래 서로 통하고 있으니, 이것은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군문(軍門)의 엄명을 받아 정병(精兵)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 등처를 지키면서 조선의 군사를 교련하고 있다. 조선의 군사가 모여서 나의 절제(節制)를 받고 훈련하는 자가 이미 5~6만 명이 넘는다.”

『선조실록』 권66, 선조 28년 8월 13일(계축)

명의 요동경략과 동아시아 국경인식

국토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한국인이 삶의 공간으로 가꾸어온 역사 공간이자 문화공간, 생활공간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인은 오랜 세월을 걸쳐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영토로 인식하고 국제적으로 안정적인 정세를 유지하며 평화로운 삶을 지향했다. 일례로 1389년(공양왕 1) 박위의 대마도정벌, 1419년(세종 1) 이종무의 대마도정벌에도 불구하고 결코 대마도를 고려와 조선의 영토라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마도를 근거지로 한반도에 불법 침략하였던 왜구를 소탕하기 위한 군사활동의 일환으로 정벌을 시도하고 왜구침략을 근절하고자 했다. 이처럼 군사적으로 특정지역을 확보하였음에도 한국인의 삶 공간이 아니라면 영토로 확정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영토는 국경과 연관되며, 조선이 인식한 국경선 이내의 영토를 국토로 인식했다. 상식적으로 압록강,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국경선이 상정된다. 국경선이란 인식 때문에 국경선을 지키고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력이 배치되어 방어체계를 갖추었다.

현재 한국은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명확한 영토개념을 설정하였다. 반면 조선은 『경국대전』과 같은 법전에 영토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조선이 영토를 인식하지 않았음이 아니라 법전에 이를 명시한다는 법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이 인식한 영토는 분명 존재했다. 관찬으로 편찬된 지리지에 명시된 지방제도의 범위가 왕권으로 통치하는 지리적 범주이다. 조선후기 한중 군사관계는 조선, 명, 여진이 관련된 국경문제에서 시작된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절은 조선, 명, 여진이 관련된 국경문제의 시작점을 분석하여 조선후기 한중 군사관계의 원천과 흐름을 가름해 본다.

조선시대 강역, 국경개념은 조선·명·여진의 외교체제에 기반한다. 국가관계를 외교라 한다면, 외교는 자국의 강역·국경 밖의 세력과 국가에 대

해 국가이익을 위해 펼치는 전방위 국가활동이다.¹³⁴ 15세기 명 중심 국제질서는 중화국가 명의 국경인식과 국토개념에 큰 영향을 받았다.

명의 국경인식과 국토개념은 건국 황제 홍무제의 동아시아 세계관에 의해 정립되고, 이후 국제정세에 따라 변화되었다. 홍무제는 건국 이후 명 중심의 국제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명확한 국경정책을 시행했다. 원대의 분권적인 통치체계가 국제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였다고 인식한 홍무제는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통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적용했다. 국제적으로 조공제도를 정립하고 이를 주변국에 강요했다.

전통시대 국제관계는 기존 연구에서 ‘조공朝貢’으로 정의된다.¹³⁵ 조공은 조근朝覲과 헌공獻貢을 포함한 개념으로¹³⁶ 명대 조공은 ① 지방정부 조공, ② 소수민족과 토관土官 조공, ③ 주변국 조공, ④ 기타 조공 등으로 분류된다.¹³⁷ 지방정부와 소수민족(토관포함)의 조공은 내정內政의 영역이며, 이를 대외적으로 확대한 주변국과 기타지역의 조공이 적용된 것이다. 홍무제가 인식한 세계관은 「조훈祖訓」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훈’은 글 풀이대로 ‘조상이 남긴 가르침’이란 뜻으로 『상서尙書』에서 유래한다.¹³⁸ 홍무제는 전설적인 황제 우禹의 천하통치 방식을 모방하여 국가운영의 대강大綱을 밝힌 글을 조훈이라 불렀다.¹³⁹ 창업군주로 자손에게 국가운영의 주의점과 방침을 알려주고자 하였다.¹⁴⁰ 홍무제는 치국治國의 방도를 자손에게 가르치는 「조훈록祖訓錄」을 편찬하고, 1395년(홍무 28) 9월, 홍무제는 조훈

¹³⁴ 상세한 내용은 본 장 1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¹³⁵ 전해종, 『한중관계사연구』, 일지사, 1970; 信夫清三郎, 『日本外交史』, 勁草書房, 1974; 張存武, 『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灣商務出版社, 1987; 濱下武志, 『近代中国の國際的契機』, 東京大学出版会, 1997; 何芳川, 「華夷秩序論」, 『北京大學學報』 1998-6; 喻常森, 「試論朝貢制度的演變」, 『南洋問題研究』 2000-1.

¹³⁶ 『周禮』 春官, 大宗伯; 『廣雅』 釋言; 『尚書要義』 卷6, 賦自上稅下貢從下.

¹³⁷ 李雲泉, 『朝貢制度史論』, 新華出版社, 2004, 61쪽.

¹³⁸ 『書經』 五子之歌.

¹³⁹ 김경록, 「조선초기 종계변무의 전개양상과 대명관계」, 『국사관논총』 108, 2006.

¹⁴⁰ 石原道博, 「皇明祖訓の成立」, 『明代史論叢』, 1962, 12쪽.

조장(祖訓條章)을 천하에 반포하고, 조법(祖法)을 변경하면 국가가 어지러워질 것이며 천하에 해가 될 것이라 언급함으로써 조훈의 수호를 강조하였다. 이는 조훈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는 신하를 간신으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사면하지 말도록 칙유(勅諭)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후 「조훈록」을 보완하여 ‘황명조훈(皇明祖訓)’이라 개칭하고, 조훈은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수록되었다.¹⁴¹ 즉, 원명 교체의 험난한 건국의 과정을 경험하고, 명을 중심국으로 국제질서에서 반석 위에 놓기 위한 홍무제의 철저한 가르침이 조훈이다. 이 조훈에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군사적으로 주변국을 함부로 정벌하지 않도록 하라는 훈계였다.

‘황명조훈’에서 보이는 홍무제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홍무제는 해외 만이(蠻夷)의 나라가 명에 우환이 된다면 토벌하고, 그렇지 않다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국가 영토가 넓으면 평안하기 어렵고, 백성들의 폐해가 많아 반란이 일어나기 쉽다고 봤다.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더라도 공급(供給)에 문제가 발생하고, 백성을 통치하기 쉽지 않았다. 정벌 군주의 위엄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면 명에 피해를 가져올 것이며, 역사에서 확인된다고 했다. 홍무제의 입장에서 최대 관심거리는 몽골이었으며, 요동의 여러 세력은 명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자 했다.¹⁴²

〈표 4〉 홍무 연간 명의 부정자국(不征之國)

방위	국가
동북	조선
정동편북	일본
정남편동	대유구, 소유구
서남	안남(安南), 진랍(真臘), 섬라(暹羅), 점성(占城), 소문답라(蘇門答剌), 서양(西洋), 조와(爪哇), 일형(浣亨), 백화(白花), 삼불제(三佛齊), 발니(渤泥)

* 출처 : 『명태조실록』 권68, 홍무 4년 9월 22일(신미).

¹⁴¹ 『명태조실록』 권82, 홍무 6년 5월 1일(임인); 권241, 28년 9월 19일(경술); 권242, 윤9월 29일(경인); 『만력회전』 권105, 예부63, 朝貢1, 朝鮮國.

¹⁴² 『皇明祖訓』 祖訓首章.

즉, 홍무제는 건국 이후 명 중심 국제질서를 확립하여 주변국이 각국의 국경을 유지하여 상호 충돌을 방지하고자 했다. 홍무제는 명을 중심으로 주변 방위에 따라 주요 국가를 상정하고 몽골을 제외하고 주변국이 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홍무제는 동북방면에서 조선은 군사적으로 충돌하여 명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부정지국으로 조선을 제일 먼저 설정한 점에서 확인된다. 이에 명의 요동경략을 추진하여 요동을 직접 지배하고, 그 밖의 지역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¹⁴³ 홍무제는 건국이후 요동 최대 복원 세력 나하추를 회유하여 요동을 복속시키고자 했다.¹⁴⁴ 홍무제는 천명을 받들어 복원을 격퇴시키고, 주변국이 조공하도록 하여 명 중심 국제질서를 만들고자 했다. 명의 입장에서 비록 몽골이 여전히 위협세력으로 서북쪽에 존재했지만, 남북동서로 대부분의 세력을 제압하고 요동만 남았다. 명의 요동경략 과정에 홍무제는 나하추의 투항을 통해 군사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조선은 이들 정벌하지 않는 국가 가운데 동북방면에 위치했다. 그런데 명의 정벌대상 및 정벌하지 않는 국가에 여진은 없다. 홍무제는 조선을 한반도에 한정된 국토를 가진 국가로 인식하고, 매우 좁은 요동팔참을 통해 안정적인 국경지대를 국경으로 하는 인식하였다. 반면, 여진은 명의 영역 속에 포함되는 소수민족으로 인식했다. 이들 위해 여진을 적극 초무하여 기미위소에 편입시키고자 했다. 즉, 여진은 요동과 한반도 북부에 거주하는 존재로 별도의 국경이 필요없는 세력으로 인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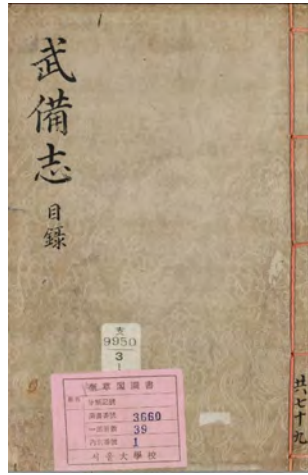
조선시대 국경문제에 있어 조명의 국경인식은 복합적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명 국경은 상호 명확하게 인식했다. 압록강 북쪽에서 요동도사의 직접 관할지역까지 일정한 국경지대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함

¹⁴³ 김경록, 『홍무연간 명의 요동경략과 조명관계』, 『군사』 102, 2017.

¹⁴⁴ 『명태조실록』 권52, 홍무 3년 5월 29일(정사).

으로써 국경을 획정한 것이다. 조명관계에서 국경지대가 상호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 국경사건이 발생하면 군사관계 차원에서 이곳을 넘어가면 국경을 넘는다고 하는 선은 존재했다. 그 묵시적인 국경선은 압록강이었다. 묵시적인 국경선을 넘어 발생하는 군사사건을 범월犯越이라 한다.

범월을 포함한 국경문제를 정리하기 앞서 국경관련 명의 조선·여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홍무제에게 여말선초에 조선을 여진과 요동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했다.¹⁴⁵ 홍무제는 자신이 추진하던 요동경략과 조선이 추진하던 적극적인 확장 및 여진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국경정책이 충돌한다는 점을 인지했다. 당시 명은 통일전쟁으로 군사적 소모가 많았는데, 추가로 주변국과 전쟁은 군사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자칫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통치체제의 허점이 노출되어 각지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 판단했다. 홍무제는 요동도사에 명하여 조선의 입국을 차단하고, 여진으로 하여금 조선과 관계를 단절하도록 했다.¹⁴⁶ 또한, 홍무제의 이런 인식은 『무비지武備志』에 그대로 인용되었다.¹⁴⁷



〈그림 6〉『무비지』

(소장 :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명대 최고의 군사문헌인 『무비지』에 국경에 관련한 홍무제의 인식이 수록되었다는 점은 명의 공식적인 국경인식을 보여준다.

홍무제가 인식한 명의 강역은 1368년 남경의 남교南郊에서 북벌을 위해 천지天地에 제사하며 올린 축문에 잘 보인다. 홍무제가 축문에서 제시한

¹⁴⁵ 김경록, 「명초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 『군사』 99, 2016; 「홍무연간 명의 요동 경략과 조명관계」, 『군사』 102, 2017.

¹⁴⁶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제도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 64, 한국역사연구회, 2007.

¹⁴⁷ 『武備志』 朝鮮考: 茅元儀, 『茅子曰』.

천하, 즉 명의 강역은 원말 혼란기에 잠시 토지와 백성이 나뉘었다가 하늘이 자신으로 하여금 이를 평정하도록 하였는데, 땅의 둘레가 2만 리라 제시했다.¹⁴⁸ 즉, 홍무제는 강역 2만 리를 안정시켜 천명을 받들겠다는 맹세했다.

조선시대 강역과 국경을 살펴볼 때, 반드시 국제정세와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중심국 명을 살펴본다. 명은 건국 이후 내치^{內治}와 외정^{外征}을 병행했다. 내치 차원에서 민적^{民籍}과 달리 군적^{軍籍}에 기반한 군호^{軍戶}의 군사동원체제 확립, 부대편성을 정립하기 위한 부오법^{部伍法} 제정, 군구^{軍區}단위로 도지휘사^{都指揮使司}를 설치하고 중앙에 요군도독부^{五軍都督府}를 두어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군사지휘체계 등을 갖추었다.¹⁴⁹ 내치가 갖춰지자 외정으로 산둥^{山東}전투, 하남^{河南}전투, 하북^{河北}·대도^{大都}전투, 산서^{山西}전투, 섬감^{陝甘}전투, 북원^{北元}정벌, 요동^{遼東}전투 등 다양한 전투가 있었다. 특히, 요동전투는 요동경략 과정에서 벌어진 전투였다.¹⁵⁰ 명은 군사체계를 정립하여 국경에 주요 전력을 배치하였는데, 요동은 변방이라 인식하여 요동도사를 통해 군정^{軍政}을 실시했다.¹⁵¹ 요동에 군정을 실시한 이유는 군사적 통치가 필요할 만큼 군사상황이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¹⁵² 군사적 위험이 높으면 최대한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치정책이 전개된다.

대표적인 정책이 초무^{招撫}정책이다. 명의 전쟁 등 군사작전보다 해당 지역의 거주민을 회유하여 통치에 순응하도록 하는 초무정책은 주로 요동

148 『명태조실록』 권29, 홍무 원년 정월 4일 을해.

149 『명태조실록』 권14, 갑진년 4월 29일(임술); 김경록, 「명초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 『군사』 99, 2016.

150 臺灣三軍大學 編, 『中國歷代戰爭史(明)』 14, 中信出版社, 2013, 93~133쪽.

151 김경록, 「홍무연간 명의 요동경략과 조명관계」, 『군사』 102, 2017.

152 張士尊, 「明初遼東二十五衛建置考釋」, 『鞍山師範學院學報』 1, 1994; 「明初遼東二十五衛建置考釋(續)」, 『鞍山師範學院學報』 2, 1994. 홍무 연간 遼東衛, 定遼都衛指揮使司 설치이후 遼東都指揮使司로 개편하고, 12위를 설치하여 전략적 방어선을 정립했다. 1386년(홍무 19) 金山戰役 이후 25위 체제를 만들었다.

〈표 5〉 명대 요동도사 휘하 위소현황

정요좌위 定遼左衛, 정요우위 定遼右衛, 정요중위 定遼中衛, 정요전위 定遼前衛, 정요후위 定遼後衛, 동녕위 東寧衛, 철령위 鐵嶺衛, 심양중위 瀋陽中衛, 해주위 海州衛, 개주위 蓋州衛, 금주위 金州衛, 복주위 復州衛, 의주위 義州衛, 요해위 遼海衛, 삼만위 三萬衛, 광녕좌둔위 廣寧左屯衛, 광녕우둔위 廣寧右屯衛, 광녕중둔위 廣寧中屯衛, 광녕전둔위 廣寧前屯衛, 광녕후둔위 廣寧後屯衛, 광녕위 廣寧衛

* 명대 후기에 설치된 위소 : 광녕좌위 廣寧左衛, 광녕우위 廣寧右衛, 광녕중위 廣寧中衛, 영원위 寧遠衛, 무순천호소 撫順千戶所, 포하천호소 蒲河千戶所, 영원중좌천호소 寧遠中左千戶所, 영원중우천호소 寧遠中右千戶所, 광녕중전천호소 廣寧中前千戶所, 광녕중후천호소 廣寧中後千戶所, 광녕중좌천호소 廣寧中左千戶所, 금주중좌천호소 金州中左千戶所, 철령좌좌천호소 鐵嶺左千戶所, 철령중좌천호소 鐵嶺中左千戶所, 삼만전전천호소 三萬前千戶所, 삼만후후천호소 三萬後千戶所, 삼만중중천호소 三萬中千戶所, 요해중중천호소 遼海中千戶所, 요해우우천호소 遼海右千戶所, 요해전전천호소 遼海前千戶所, 요해후후천호소 遼海後千戶所, 동녕중좌천호소 東寧中左千戶所

* 『만력회전』 권124, 병부, 직방청리사, 성황1, 도사위소.

북쪽의 몽골과 동쪽의 여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명은 초무정책이란 방어적 군사정책을 펼치고, 거주 부족의 인지주의(因地主義)를 인정하여 요동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고자 했다. 홍무제 이후 명의 요동정책 기초가 된 이러한 정책은 명의 국토와 국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¹⁵³

또한, 명대 국방체계를 통해 조명관계의 국경을 살펴볼 수 있다. 명대 국방체계는 국경지역에 설치된 구변(九邊) 중심의 도사·위소 방어체계였다.¹⁵⁴ 구변체제에서 요동은 요동도사가 중심이 된 방어체계에 해당된다. 명의 국경관련 요동정책은 영락제의 군사정책에서 거듭 확인된다. 영락제는 등극과정에서 상실된 통치명분을 강력한 대외정벌을 통해 보완하고자 했다. 영락제는 제위기간 여러 차례 몽골원정을 단행하고 그 대부분을 친정(親征)했다. 명의 서쪽에서 동북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군사공

153 『명태조실록』 권187, 홍무 20년 12월 24일(임술). 홍무제는 遼東三萬衛를 설치하고, 이전에 요동경략 과정에 공을 세운 여진족이 지속적으로 봉록을 승계하며, 해당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다.

154 劉仲華, 「試析分權制衡和以文制武思想的對明代九邊防務體制的影向」, 『寧夏社會科學』 97, 1999, 92쪽. 九邊은 遼東, 薊州, 宣府, 大同, 偏關(山西), 榆林(延綏), 寧夏, 固原, 甘肅으로 구성된다.

격을 수시로 벌였던 몽골은 진정한 정도로 적극 대응했다.¹⁵⁵ 반면, 요동 정책의 일환으로 요동 동쪽에 거주한 여진은 회유와 초무정책을 펼쳤다.¹⁵⁶ 여진을 직접 정복대상이 아닌 회유대상으로 인식한 명은 조선이 여진을 회유하는 것에 불편했다. 명은 조선이 여진을 회유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면 고려말 요동정벌과 같은 군사작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명은 중심국으로 조선에 여진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도록 강제했다. 조선전기 조선, 명, 여진의 외교관계는 이렇게 정립되었지만, 내부적으로 상호 이익관계에 충돌하면 언제든 군사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조명관계에서 양국은 강역이 설정되었지만, 요동과 여진을 두고 상호 영향력 확장여부에 따라 군사충돌의 개연성이 높았다.

또한, 명의 역전체제를 통해 국경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¹⁵⁷ 홍무제는 1394년(홍무 27) 9월, 한림원에 명하여 전국의 도리(道里)를 정리한 『환우통구(寰宇通衢)』을 편찬했다. 『환우통구』는 명의 국토지리를 정리하여 통치기준으로 전국 역전(驛傳)체제를 규정한 관찬서이다.

〈표 6〉 『환우통구』의 육행(陸行)과 수륙겸행(水陸兼行) 현황

구분	지점	육행	수륙겸행
동쪽 거리	요동도사	3,944리, 마역 64	3,045리, 역 40
요동의 동북	삼만위	360리, 마역 4	

* 전거 : 『명태조실록』 권234, 홍무 27년 9월 23일(경신).

『환우통구』에 제시된 다른 지역은 제외하고, 조선과 여진에 관련된 요동을 살펴본다. 홍무 연간 남경에서 요동은 요동도사를 지점으로 육행

155 姚繼榮, 「明代遼東馬市述論」, 『遼寧師範大學學報(社科版)』 4, 1998, 85~86쪽.

156 『명태조실록』 권66, 홍무 4년 6월 29일(경술). 요동경략을 1차적으로 완성한 홍무제는 요동의 지형이 길게 형성된 작전지원선, 광범위한 지역, 산악으로 차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여진에 초무정책을 펼쳤다.

157 김경록, 「명대 역전제도와 한중관계에서 부함의 의미」, 『명청사연구』 49, 명청사학회, 2018.

3,944리의 거리에 마역馬驛이 64곳이다. 또한, 수륙겸행은 3,045리에 역이 40곳이 운영되었다. 또한, 요동도사에서 동북으로 삼만위까지 360리에 마역이 4곳이었다. 『환우통구』의 역전체제는 요동도사의 위소체제에 한정된다. 이에 북쪽, 동쪽의 몽골, 여진이 거주하던 지역은 기미위소로 명의 역전체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명이 설정한 강역은 요동도사 휘하의 위소에 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명은 강역을 넘어선 지역은 기미정책을 통해 기미위소를 설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영향력은 작동되지 않는 시기가 많았다. 이는 조선에 여진정벌에 파병을 요구한 점에서 확인된다. 강역 내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정벌에 조선군의 파병을 요구했다.¹⁵⁸

명은 조선과의 국경을 압록강으로 인식했다. 이는 압록강 유역의 각종 범월 등 문제가 대두한 점, 조선의 대명사행이 도강하면서 명의 영역으로 들어섰다고 기록한 점에서 확인된다. 문제는 요동도사 휘하 위소衛所와 군진이 압록강까지 설치되지 않았던 점이다. 명은 요동도사의 직할 지역과 압록강 사이의 지역을 여진, 몽골세력이 출몰하는 공간으로 인식했다. 명의 강역은 아니더라도 명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인식했다. 이는 조명관계에서 국경지대가 복합적 인식 공간임을 잘 보여준다.

명이 압록강까지 명확한 강역으로 확정하고 군사력을 주둔시키지 않은 이유는 군사지리적 특징 때문이다. 요동도사의 직할 지역에서 압록강까지는 험준한 산악지대이자 북쪽, 동쪽에 몽골과 여진이 거주하며 수시로 침략했다. 이런 군사지리적 열악함으로 명군을 직접 주둔시키면 방어가 어렵고, 후속부대의 군사적 구원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조명 국경지대는 명확한 국경선이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조선, 명, 여진이 상

¹⁵⁸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 조선지배층의 중국 인식』, 푸른역사, 2009. 저자는 3장(계산된 결정: 15세기 해외파병 문제와 조선의 명나라 인식)을 통해 조선 초기의 여진정책과 세종대, 세조대, 성종대 명의 파병요구에 조선의 대응을 상세히 정리했다.

호 충돌했다. 이런 상황은 영락 연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¹⁵⁹

조선시대 국경 공간은 조선, 명, 여진(청) 세력이 차지하는 영역의 접경이다. 조선은 고려를 대신한 시점부터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개칭한 시점까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차지한 주체였다. 명은 몽골을 북막(北漠)으로 몰아내고 중국 대륙과 요동을 차지하고 요동을 경략했다. 그러나 명과 요동의 정세변화와 요동의 군사지리적 특성 등으로 만주까지 국경을 확장하지 못하고 요동의 동쪽과 북쪽을 기미위소로 책봉했다. 여진(청)은 원대에서 명대까지 만주와 한반도 북쪽에 거주하며 명의 기미위소로, 조선의 번호(藩胡)로 존재했다. 여진 통합 이후 후금과 청을 건국하여 정명(征明)전쟁을 승리하고, 중국 대륙과 만주를 차지하여 중요한 주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16세기 조선, 명, 여진의 국경, 강역(疆域),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은 경계 즉 국경개념의 변화로 인한 군사갈등을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무인지대를 설정하는 국경지대 개념에서 정세변화와 세력확장으로 무인지대를 사라지고 직접적인 국경선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조선후기 한중 군사관계의 핵심사안으로 등장하는 국경문제의 연원을 살펴보고 조선, 명, 여진의 상호 국경분쟁의 역사적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조청 국경분쟁 및 개항 이후 국경문제를 이해하는 단초로 삼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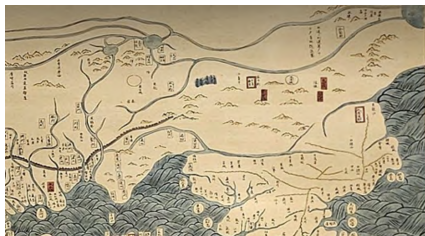
조선시대 국경문제는 학계의 높은 관심주제였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성과가 도출되었다.¹⁶⁰ 역사학, 정치학,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학문에

159 박원호, 『명초조선관계사연구』, 일조각, 2002; 김경록,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2017.

160 김선민, 「欄頭: 청-조선 조공관계의 변경적 측면」, 『대구사학』 96, 2009, 151~187쪽; 김택중, 「19C 말 韓中 국경문제의 발단과 교섭」, 『한국사상과 문화』 55, 2010, 253~277쪽; 김종진, 「〈關西別曲〉의 문화지도와 국토·국경 인식」, 『국제어문』 50, 2010, 31~61쪽; 이범관, 홍영희, 조병현 외 2명, 「朝·淸 國境定界交渉과 北方領土意識에 關한 研究(下)」, 『한국지적학회지』 26-2, 2010, 225~241쪽; 이화자, 『한중국경사 연구』, 해안, 2011; 엄찬호, 「조·중간의 경계분쟁과 고지도」, 『한일관계사연구』 42, 2012, 305~342쪽; 張華, 「근대 이래 중국 국경의 변천과 영토 인식」, 『역사와 교육』 20,

서 국경문제 연구가 진행되어 개략적인 성격, 범위, 의미를 식별하였다.¹⁶¹ 특히 조선시대 영토, 국경을 분석하기 위해 국토와 국경개념, 조명·조여진·조청관계, 육로로 이어지는 국경, 북방개척과 군진설치, 국경선으로 압록강·두만강 유역, 평안도·함경도 공간인식, 국방정책, 국경사건, 군사지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¹⁶²

원말명초는 국경문제의 주요 주체가 각자 자신의 영역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갈등하던 시기였다. 중국 대륙을 차지한 명은 북방민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홍무 연간 적극적으로 요동경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제한된 국력과 국제정세로 인하여 요동도사를 설치한 지역까지 강역이라 인식했다. 당시 원의 통제에서 벗어난 여진은 요동, 만주, 한반도 북부에 걸쳐 광범



〈그림 7〉 조선초기 조선·명·여진의 국경인식

(출처 :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모사본)

1402년에 제작된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조선과 명, 여진의 명확한 국경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자연지리를 표기한 점으로 보아 당시 조선과 명, 여진은 국경선보다 국경지대 개념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 7~47쪽; 윤해동, 「한국 변경사 연구 시론: 지대, 선, 영토」, 『민족문화논총』 67, 2017, 393~419쪽; 이성환, 「한국의 영토: 국경문제 연구에 대한 시론」, 『민족연구』 75, 2020, 12~33쪽; 김선민, 「인삼과 국경」, 사계절, 2023 등.

¹⁶¹ 남의현, 「원·명교체가 한반도 북방경계인식의 변화와 성격 -명의 요동위소와 3위(東寧·三萬·鐵嶺)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37-74쪽; 「15세기 북방정세와 명의 변경정책의 재검토 -명의 대몽골 정책과 조선·여진관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9 (2011), 159-183쪽; 김선민, 「웅정·건용년간 犇牛哨 사건과 청-조선 국경지대」, 『중국사연구』 71 (2011), 69-97쪽; 김경록, 「조선전기 동북아의 정세와 전쟁」, 『군사』 110 (2019), 203-239쪽 등.

¹⁶² 이화자, 「조선 역관 김지남의 <북정록>과 백두산정계」, 『백산학보』 128, 2024, 325~341쪽; 배우성, 「洪良浩의 지리인식 -조선후기 만주 지리지식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00, 2005, 327~356쪽; 한성주, 「조선초기 조·명 이중수직여진인의 양속문제」, 『조선시대사학보』 40, 2007, 5~44쪽; 서인범, 「조선시대 승려들의 압록강 越境事件」, 『한국사상과 문화』 54, 2010, 227~258쪽; 김선민, 「청대 훈춘의 인삼과 범일」, 『인삼문화』 5-1, 2023, 1~20쪽; 권정은, 「조선후기 함경도 체험 가요와 기록화의 특징 비교」, 『비교문학』 92, 2024, 159~184쪽.

위하게 다양한 부족이 거주했다. 요동의 동쪽, 북쪽은 여전히 몽골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명은 조선을 제외한 요동과 만주에 걸쳐 거주하는 몽골, 여진에 대해 기미정책을 펼쳐 기미위소로 임명했다. 이는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시켜 통제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명은 명확히 이들 기미위소에 대해 국경 밖으로 인식하고,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관계를 맺었다.

조선은 건국 이후 통치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만한 조명관계를 맺었다. 홍무 연간 명의 국경이 요동까지 확장되자 조선은 요동에서 압록강까지를 무인지대로 인식하고, 실제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던 여진과의 국경문제에 집중했다. 영락제가 여진에 대한 적극적인 초무정책을 시행하자 조명관계에 긴장이 조성되었다.¹⁶³ 영락제는 조선을 군사외교적으로 압박하여 조선의 국경지대에 거주하던 여진을 초무하여 기미위소로 편입시켰다. 이에 반발하여 조선은 기존 번호로 거주하던 여진족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호적인 여진정책을 펼쳤다. 조선은 15세기 양계지역에서 국경분쟁을 일으킨 여진을 정벌하고,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확정했다. 조선·여진관계의 안정화로 번호들은 결국 명보다 조선의 영향력에 들어와 거주했다.

조선과 명의 국경 및 영향력 사이에 존재한 여진은 16세기에 점진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조선, 명과 많은 충돌을 일으켰다. 누르하치가 건주여진을 장악하고, 여진을 통일하여 후금을 건국하자, 조선·명·여진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상호 군사적으로 충돌하며, 새로운 국경인식을 가졌다.

14세기 말에 건국된 조선과 명은 국경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우호적으로 해결했으며,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명은 요동도사 휘하의 위소까지 강역으로 인식했다. 요동의 동쪽, 압록강과 두만강의 북쪽은 여진의 영역으로 조명관계에서 상호 중간지대의 성격을 가졌다.

¹⁶³ 김경록, 「조선초기 군인송환문제와 조명간 군사외교」, 『군사』 83, 2012; 「조선초기 귀화정책과 조명관계」, 『역사와 현실』 83, 2012.

조선의 국경인식과 여진정책

조선은 건국 이후 성리학에 기반한 덕치를 강조하여 안정적인 통치질서를 마련하고자 했다. 대외관계가 안정되어야 대내적인 정치·군사·사회·경제의 통치질서가 확립된다. 조선의 대외관계는 대명관계가 핵심이며, 다음으로 여진관계, 왜구문제 등이었다. 조선의 대외관계는 국경을 벗어난 공간에서 펼쳐진다. 요동과 한반도 북부에 거주하는 여진은 명의 위소체제에 포함되고,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은 조선에 수직受職했다.¹⁶⁴

한편, 조명관계에서 국경은 경작지 문제로 갈등하기도 했다.¹⁶⁵ 경작과 함께 월경 역시 국경문제의 핵심이었다. 조선은 압록강 하류에 대해서는 명 요동도사를 통한 군사외교를 펼친 반면, 두만강 하류에는 강력한 군사활동을 펼쳤다. 압록강 하류는 조선과 명 국경이라면, 두만강 하류는 조선과 여진의 경계라는 점에서 조선의 군사활동이 가능했다. 조선의 여진에 대한 군사활동에 무장이 전사하기도 했다.¹⁶⁶

1528년(중종 23) 압록강 하류 신도薪島에 명의 선박이 표류하자 이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경차관 임준林峻이 요동인이 신도에 불법 거주함을 보고했다. 이에 조선은 이들을 요동으로 쇠환했다.¹⁶⁷ 신도 등지에 요동인이 월경하여 경작하는 사건은 조선의 강력한 조치와 달리 명은 매우 이완된 태도를 보였다. 1529년(중종 24) 정조사 박광영朴光榮이 요동도사에 신도의 월경·경작문제를 제기하자 요동도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박광영은 조선의 쇠환과정에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황제에

164 한성주, 「朝鮮初期 朝·明 二重受職女眞人の 兩屬問題」, 『조선시대사학회』 40, 조선시대사학회, 2007, 5~44쪽.

165 서인범, 「압록강하구 연안도서를 둘러싼 조·명 영토분쟁」, 『명청사연구』 26, 2006, 31~68쪽; 구도영, 「16세기 조선의 압록강 하구 도서에 대한 영토인식과 외교전략」, 『역사와 현실』 97, 2015, 233~264쪽; 문광균, 「조선후기 압록강 하안의 신도(薪島) 범월과 신도진(薪島鎭)의 설치」, 『역사와 현실』 119, 2021, 199~235쪽.

166 『歷代要覽』 嘉靖 2년: 7년.

167 『중종실록』 권62, 중종 23년 8월 24일(계해).

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황제 보고사안으로 사건이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요동도사는 근절을 약속하기도 했다.¹⁶⁸

월경, 경작 등은 단순히 경제사건이 아니다. 월경을 방지하거나 경작인을 쇠환하기 위한 병력출동이 필요했다. 명군과 조선군이 월경 발생지 또는 경작지에 출동하여 쇠환하기 위해 상호 국경을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군대가 자국의 영역으로 출동하는 경우, 매우 민감한 군사문제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선에서 불법 월경하여 경작하는 요동인의 쇠환을 명에 요구한 사건이 있다. 1530년(중종 25) 요동도사는 탕참지휘(湯站指揮) 왕우(王瑀)로 하여금 병력을 지휘하여 신도에 불법 경작하는 요동인 60명을 쇠환시켰다. 조선은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신도로 가기 위해 명군이 의주를 경유하는 것을 반대하고 명군이 신도로 바로 들어갈 것을 주장했다. 조선은 명군이 의주에 들어온다는 점을 용납할 수 없었다. 결국 조선군과 명군이 연합하여 불법 경작인을 쇠환했다.¹⁶⁹ 이후 요동도사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1531년(중종 26)에는 요동도사의 삼대인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경작인을 쇠환하였다.¹⁷⁰ 즉, 조명간에 압록강과 두만강은 상호간에 국경으로 인식하였지만, 그 인식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양국간 주요 군사현안으로 등장하면 국경을 침범하거나 월경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조선 명종-선조 초반까지 압록강 중상류에 거주하는 여진을 몰아내고자 하였으나 한계에 부딪쳐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명종대에는 이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반면, 선조가 즉위하면서 의욕적으로 개입하였지만 군사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조선은 여진부락의 귀순(歸順)을 권장하며 연향(宴享)과 개시(開市)를 열어주었으며, 여진정책을 대외정책에서 변경정책으로 전

¹⁶⁸ 『중종실록』 권66, 중종 24년 12월 9일(신미).

¹⁶⁹ 『중종실록』 권67, 중종 25년 3월 10일 경자; 『歷代要覽』嘉靖 9년.

¹⁷⁰ 『歷代要覽』嘉靖 10년; 12년; 13년; 14년.

환했다.¹⁷¹

명대 조선의 국경문제는 외교정보의 수집과 여진의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명관계에서 국경은 상호간에 충돌되기도 했지만, 주변 세력에 의해 외교현안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국경문제는 외교정보, 군사정보의 수집, 분석, 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대외적인 외교·군사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이를 통해 국경과 관련된 정세를 분석하여 국경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는 체계가 합리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시대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은 변방의 지방관을 통한 자체적인 수집 및 명을 통해 외교·군사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외교활동, 군사활동을 펼쳤다.¹⁷²

16세기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건이 임진왜란 기간에 벌어졌다. 이 사건은 여진이 조선에 조·후금관계의 개선을 요구하자 조선이 거부하고 명을 통해 후금(여진)을 통제하고자 한 사건이다. 또한 이 사건은 조선이 별도의 인물을 파견하여 건주여진의 누르하치를 정탐하고 국경정책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¹⁷³

16세기 중엽 이후 조명간 국경문제는 여진의 흥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조선은 건주여진의 세력확장이 두만강 유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였으며, 명은 여진의 통합이 가져올 위험을 경계했다. 그러나 건주여진을 이어 여진 전체를 통합한 누르하치는 전통적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개념을 유지하되 명청교체 이후 국경선을 획정하는 차원에서 백두산 정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국경정책을 펼쳤다.

171 이재경, 「명종-선조대 압록강 방면 여진족 집단들과 조선」, 『한국문화』 83(2018), 266-305쪽.

172 김경록,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와 외교정보의 수집-보존체계」, 『동북아역사논총』 25(2009), 291-323쪽.

173 成海應, 『研經齋全集』外集 권50: 이인영, 「申忠一의 建州紀程圖記에 대하여 -최근 발견의 淸初史料」, 『진단학보』 10, 1939. 이 사건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료가 『建州紀程圖記』이다. 『건주기정도기』는 임진왜란기 건주위의 누르하치가 조선에 보내온 문서에 대한 답신을 전하고, 그 여정에 여진의 정세를 정탐한 申忠一의 보고서이다.

조선시대 조선과 명의 국경인식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개념이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 요동정책과 여진정책이 맞물려 갈등과 공조의 역사를 보여준다. 명의 적극적인 요동정책과 기미적인 여진정책의 추진을 통해 명 중심 국제질서를 안정시키려는 흐름 속에서 조선의 안정적인 대외정책과 여진에 대한 영향력 유지 노력이 시대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함께 보여준다. 조명관계에서 국경문제는 압록강 하구에 한정된 범주라면 조청관계에서 국경문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아우르는 국경선의 획정까지 이어지는 문제였다. 조선시대 국경문제는 시대별 국제정세를 반영하여 조선, 명, 청(여진) 등 주체간의 상반된 국경인식에서 기반한다. 조명관계에서 국경문제와 인식이 직접적인 국경분쟁보다 중간지대로 존재한 여진에 대한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개된 반면, 조청관계에서 국경문제와 국경인식은 구체적인 국경선의 획정을 위한 백두산정계 등의 역사사건을 통해 전개되었다.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 조명관계는 국경문제의 시작점이다. 또한, 여진문제와 연관되어 명청교체를 통해 국경문제의 새로운 변화점이다.

조선후기 조선의 국경인식은 지리인식의 흐름에서 식별할 수 있다.¹⁷⁴ 조선은 땅 경계를 해좌_{亥坐} 사항_{巳向}으로 보았다. 즉, 해방_{亥方}을 등진 좌_坐이며, 사방_{巳方}을 바라보는 방향이었다. 현대사회의 방향으로 보면, 북북서를 등지고, 남남동을 바라보는 방향이다. 『역경_{易經}』의 「선후천



〈그림 8〉 『삼경통의三經通義』 「선후천극생배합도先後天克生配合圖」
(소장 :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5594))

174 『연려실기술』 별집 권16, 地理典故, 摠地理.

극생배합도 先後天克生配合圖」에¹⁷⁵ 제시된 해방은 남남동에 해당되며, 사방은 북북서에 해당된다. 남남동을 등지고 북북서 방향을 바라보는 형태로 한 반도가 자리잡았다고 인식한 것이다.

정동은 서울에서 745리 떨어진 경상도의 영해부寧海府, 정서는 서울에서 535리 떨어진 황해도의 풍천부豐川府, 정남은 서울에서 896리 떨어진 전라도의 해남현海南縣, 정북은 서울에서 2,102리 떨어진 함경도의 온성부穩城府였다. 조선은 동서 1,280리, 남북 2,998리의 면적을 가졌다. 한반도의 지리적 모습은 고려시대 지형을 본뜬 은병銀瓶을 돈으로 유통하기도 했다.¹⁷⁶

조선은 일찍부터 지리정보에 대한 대대적인 수집, 정리작업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했다.¹⁷⁷ 조선은 전통적인 지리관념에 따라 곤륜산崑崙山 한 줄기가 큰 사막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동쪽으로 의무려산醫巫閭山이 되고 이곳으로부터 크게 끊어져서 요동 들판이 된다고 인식했다. 요동 들판을 건너가서 불쑥 일어난 것이 백두산이 되어 여진과 조선의 경계에 있었다고 인식했다. 북쪽으로 뻗은 한 줄기가 두 강을 끼고 영고탑寧古塔이 되고, 남쪽으로 뻗어나간 한 줄기가 조선의 첫째 산맥이라 보았다. 백두산 산꼭대기에 있는 큰 못池으로부터 분수령이 되어 남쪽으로 내려간 것은 연지소봉燕脂小峯, 백산白山이 되고 허항령虛項嶺, 보다회산寶多會山, 완항령緩項嶺, 설령雪嶺이 된

175 『三經通義』(奎15594) 권1, 易傳(先後天克生配合圖, 河圖洛書互相經緯圖). 본서는 1893년 白鳳來가 『周易』, 『詩經』, 『書經』의 내용이 상호 관련되었음을 圖說로 설명한 책이다.

176 『謏聞瑣錄』, “高麗時 用銀瓶爲貨, 名關口. 象我國地形云, 今未見關口之制.”

177 한국사에서 地理書는 이미 『三國史記』와 『高麗史』에 수록되었다. 조선 세종은 지지 편찬을 시도하여 『慶尙道地理志』 등을 편찬하였으며, 尹淮, 申樞 등으로 하여금 『八道地理志』를 편찬하기도 했다. 그 결과는 『세종실록』에 별도의 地理志가 수록되기도 했다. 이후 세조는 梁誠之에게 명하여 팔도 地志와 지도를 편찬하도록 했다. 양성지는 『팔도 지지』와 『東國勝覽』을 편찬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종은 盧思愼, 姜希孟, 徐居正, 成任, 양성지 등으로 하여금 『東國輿地勝覽』 찬수를 명했다. 성종 12년에 완성되었지만, 김종직의 수정을 거쳐 명의 『一統志』를 모방한 『동국여지승람』이 성종 16년에 완성되었다. 중종은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완성했다. 전국지리지에 대한 조선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조선 후기 숙종대, 영조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증보 개편을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조선은 초기부터 전국지리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졌으며, 이를 증보, 개편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다고 했다. 백두대간의 흐름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도봉산, 삼각산, 백악산, 인왕산이 되고, 한양 경성이 되었다는 지리관념을 가졌다. 산과 강을 끊임 없는 연결의 관계로 인식한 조선은 조선후기에 북방지역에 대한 높은 지리관심으로 이어졌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한국사의 주요 국토문제는 그 해결방향을 개념, 유형, 원인, 역사적 추이, 쟁점, 해법 등 총론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¹⁷⁸ 지정학적 요인으로 수많은 외침을 경험한 한반도는 전쟁의 결과물로 인적, 물적 희생과 함께 국토문제의 역사적 잔재를 가지게 되었다.



〈그림 9〉 『직예장성험요관구형세도直隸長城險要關口形勢圖』

(출처 : 『中國古代地圖集(清代)』 文物出版社, 1997.)

현재 세계는 국토문제에 관련하여 상호 충돌하고 심지어 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동아시아에 한정하더라도 영토분쟁은 역사인식문제, 해양경계선 획정 등과 관련하여 민감하게 충돌하고 있다. 남사군도분쟁(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등 6개국), 센카쿠열도(釣魚島, 다오이다오)분쟁(중국과 일본), 남쿠릴열도분쟁(일본과 러시아) 등이 있다.¹⁷⁹ 이런 역사의 현재진행형적 성격을 고려하면 역사에서 영토분쟁에

¹⁷⁸ 김강녕, 「한국의 주요 영토분쟁과 해결방향 : 총론적 이해」, 『한국과 국제사회』 5-2, 2021, 187~222쪽. 저자는 기존 한국의 주요 영토분쟁을 영토분쟁의 개념, 유형, 원인, 해법, 역사적 추이 등 해결방향 중심으로 총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개별적, 다자적 해결방향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하고자 시도했다. 저자는 독도와 이어도와 같이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지만, 다른 영토문제는 통일 후 새로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¹⁷⁹ 가장 인접국이 많은 남사군도의 연구성과는 유철종, 「남중국해 남사군도 영토분쟁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8-2,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이문기, 「중국의 해양도서 분쟁 대응전략: 조어도와 남사군도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0-3, 한국아시아학

연관된 사항은 군사관계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다. 본서에서 다루는 조선후기의 경우, 백두산정계비와 조중변계조약, 간도, 녹둔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조선, 명, 여진관계에서 시작된 국경인식은 조선후기 북벌론과 연관된다. 북벌론이 한참 진행되던 현종대 서인제 거두 송시열^{宋時烈}의 기해예송^{己亥禮訟}에서 예론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¹⁸⁰ 효종이 봉림대군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송시열은 병자호란 이후 반청여론을 주도하고, 대명의리론^{大明義理論}의 입장에서 삼전도^{三田渡} 비문을 비판하였다. 기해예송의 파장으로 정국이 혼란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 효종대 불벌론의 주도하여 조선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가졌던 인물이었던 송시열을 비판하는 파란이 일어났다. 서인 언관^{言官}들이 반발하며 크게 일어나 제2차 예송인 갑寅예송^{甲寅禮訟}으로 확대되었다.¹⁸¹

회, 2008; 김태준, 「중국의 해양 영토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국방정책연구』 23-4, 한국국방연구원, 2008; 임경한, 「중국의 남사군도(Spratly Islands) 분쟁 대응 전략」, 『국방정책연구』 26-2, 한국국방연구원, 2010; 박광섭, 「남중국해 남사군도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필리핀 아키노 행정부의 국방정책과 대응전략: 기능주의적 방식 모색」, 『아시아연구』 15-1, 한국아시아학회, 2012; 박향기, 「중국의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 전략의 변천에 관한 고찰」, 『군사연구』 136, 육군군사연구소, 2013; 정갑용, 「남중국해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관한 법적 고찰-남사군도의 7개 인공섬들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4-4, 법학연구소, 2017; 홍성근, 「남중국해 영토-해양분쟁의 현황과 법적 과제-중국의 '일대일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며-」, 『외법논집』 43-2, 법학연구소, 2019; 윤성태, 박성용, 「남중국해 분쟁과 중국, 미국, 베트남의 전략적 이해관계: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6-4, 한국동북아학회, 2021; 김현수, 왕가가, 「미중간 남중국해 통항갈등이 한국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 『법학연구』 25-1, 법학연구소, 2022. 독도분쟁, 이어도분쟁 등을 언급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지배 및 역사성에 있어 영토분쟁으로 설정할 수 없다.

¹⁸⁰ 천병돈, 「예송에 나타난 예 강박관념」, 『양명학』 17, 한국양명학회, 2006, 191~220쪽; 손애리, 「기해예송을 통해 본 17세기 중반 조선 지식관료들의 가와 국 관념」, 『한국학연구』 32, 한국학연구소, 2010, 258~285쪽; 장세호, 「백호 윤휴의 기해 예송관」, 『한국사상과 문화』 76,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205~228쪽; 심순옥, 「조선후기 기해예송의 '사중설'에 드러난 참의미 -송시열-윤휴-정약용의 입장에서 비교 연구」, 『유학연구』 51, 유학연구소, 2020, 79~100쪽.

¹⁸¹ 장세호, 「송시열의 예송관」, 『인문학논총』 5, 인문학연구소, 2002, 409~426쪽; 이희환, 「현종대의 기해 예송」, 『역사학연구』 29, 호남사학회, 2007, 145~169쪽; 김우진, 「기해예송을 통해 본 조선 성리학의 공사론」, 『한국학논집』 81, 한국학연구원, 2020, 249~284쪽. 예송(禮訟)은 조선후기 효종 사후 발생한 복제와 복상기간을 둘러싼 서인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에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나선정벌, 조청 외교 관계 등에 관련하여 조선이 청을 어떠한 관점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전개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조선이 지향하였던 국가운영원리로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은 국가운영을 유학에서 찾았으며, 특히 성리학이 지향했던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왕도정치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성리학의 근본은 예가 근간이 된 질서가 안정화된 이상사회였다. 이에 따라 건국 이후 각종 예제禮制를 정비하고, 예제가 반영된 법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신분질서가 확립된 사회를 추구했다. 신분에 따른 예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차원의 예제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로 정립하고, 모든 백성들도 신분별로 적합한 의례가 준수되었다. 예라는 개념은 상하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부합되는 행동과 의식을 준행할 때 정립되는 개념이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이어지는 양난 이후 조선은 전쟁의 여파로 예적 질서가 붕괴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전 국토가 황폐화된 임진왜란으로 조선 국왕은 전대미문의 파천插遷이란 치욕적인 행동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으며, 전쟁지도의 지엄한 왕명은 그 권위를 상실했다. 이를 회복하고자 전후복구 차원에서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편찬하여 전쟁기억과 전승을 추진했다.¹⁸² 동양 삼국이 전쟁의 승리를 주장하는 임진왜란과 달리 명확하게 청 황제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치욕적인 모습을 보인 병자호란은 기존 국제적인 예적 질서의 붕괴를 보여주었다. 그 동안

과 남인 사이의 정치-예제논쟁이다. 기해예송(1659년)과 갑인예송(1674년)으로 이어진 예송은 조선후기 서인과 남인이 유교를 통치원리로 하는 이상사회 건설 방법론 논쟁이자 정치사건이다. 예제를 기반한 조선의 왕위계승 정통성이 관련되어 학제로 결합된 정치세력이 예제논쟁을 넘어 정치논쟁으로 진행된 사건이다. 양난 이후 조선의 예적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전례와 왕위계승의 종법이 함께 현실 정치세력간 갈등으로 표출된 논쟁이다.

¹⁸² 정일영,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재고찰: 시대적 배경과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17, 국어사학회, 2013, 7~37; 정호훈, 「전쟁의 기억과 정치론, <東國新續三綱行實圖>」, 『한국사상사학』 58, 한국사상사학회, 2018, 97~139쪽.

야만인이자 오랑캐로 여겼던 만주족에 치욕적인 굴욕을 당한 왕실과 지배층은 새로운 통치의 권위를 찾아야 했다. 대외적으로 대명의로론에 입각한 반청의식을 통해 명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였다면, 내부적으로 붕괴된 예적 질서를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시점에 왕실의 의례문제로 예송이 대두한 것이다.

조선시대 예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소모적인 논쟁을 정치영역에서 펼쳐 국가역량을 소진했다는 인식이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시대정신과 시대상황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인식이 있다. 예송은 예론禮論에 대한 논쟁이다. 조선 후기 예송은 예론 가운데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하는 복제服制문제와 관련된다. 1659년 효종이 사망하자 효종의 계모이자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 慈懿大妃 조씨趙氏의 상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입장 차이가 있었다. 이를 담당한 예조는 『국조오례의』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자 대신들의 의견을 들어 진행할 것을 건의했다.

인조의 첫째 아들 소현세자이 사망하고, 둘째 아들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왕위를 계승했다.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가 효종의 사망에 대해 어머니로 장자를 위해 참최복斬衰服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과 『의례주소儀禮註疏』에 따라 기년복青年服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참고로 조선시대 상복제도는 상을 당한 사람과의 혈연, 신분관계에 따라 상복입는 기간은 3년, 1년, 9개월, 7개월, 5개월, 3개월로 구분하고, 입는 상복의 종류를 참최斬衰, 자최齊衰, 세최緦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로 구분하였다. 기간과 상복종류를 연계하여 참최 3년복, 자최 3년복, 자최 장기복(1년, 지팡이), 자최 부장기(1년, 지팡이 없음), 자최 5월복, 자최 3월복, 세최 7월복, 대공 9월복, 소공 5월복, 시마 3월복 등으로 구분한다.¹⁸³

¹⁸³ 김두현, 「오복제도의 연구」, 『진단학보』 5, 진단학회, 1936; 조우현,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0; 조우현, 「유교상복의 조직원리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4, 한국의류학회, 1994; 문광희, 「한국의 상예복에 관한

상복을 어떤 것으로 입을 것인가는 옷의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 효종을 장자로 인정 여부와 임금의 상복제도를 일반적 가례家禮를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전통시대 동아시아에서 상복은 적장자를 구분하여 입었다. 이는 예의 관점에서 장자, 적자는 서열에 있어 차이가 있어 상복도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칫 주자朱子가 정의한 바대로 자의대비가 기년복을 입으면 효종은 왕위계승에서 장자가 아닌 존재가 되며, 자칫 왕통을 이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효종 다음 왕이었던 현종의 왕위계승 정통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예송은 단순한 예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조선후기 지식인이 지향하였던 통치 및 정통성의 방향성을 두고 벌인 치열한 논쟁이었다. 즉, 병자호란이란 전쟁과 전후 조청관계에서 발생한 소현세자의 죽음, 봉림대군의 즉위 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전후 왕실의 정통성을 예적 질서에 따라 재정립해야 하는 시대문제였다.

인조의 세 왕자는 소현세자昭顯世子, 봉림대군鳳林大君, 인평대군麟坪大君은 병자호란의 결과로 심양관에 인질로 잡혀가기도 했다. 귀국한 소현세자가 사망하자 봉림대군이 왕위를 계승하여 효종이 되었다. 효종의 즉위과정에 소현세자의 석철石鐵, 석린石麟, 석견石堅 등 세 아들이 존재하여 이들 가운데 장자를 원손元孫으로 책봉하여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종법에 따른 왕위계승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병자호란 이후 시대분위기에

연구, 『한복문화』 2, 한복문화학회, 1999; 김장향, 은영자, 「전통 상복의 복제 및 종류에 관한 연구」, 『과학논집』 32, 2006; 공병석, 「선진유가의 상복제도-「예기」를 중심으로-」, 『동양예학』 30, 동양예학회, 2013. 조선은 건국과 함께 유교에 따른 통치를 천명한 국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운용체제로 유교의 「禮」를 채용했다. 이런 예에 입각한 국가경영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가전례를 일찍부터 제정했다. 정도전의 『朝鮮經國典』 「禮典」, 세종대 『世宗實錄』 「五禮」, 세조-성종대 『國朝五禮儀』, 조선 후기 『國朝續五禮儀』, 『國朝續五禮儀補』, 『國朝喪禮補編』, 『國朝五禮通編』 등이 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대부의 의례는 朱子의 「家禮」를 기본으로 冠·婚·喪·祭 의례를 적용했다. 조선과 중국은 상복에 대한 인식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凶禮였던 喪禮를 명문화하면 不忠이라 인식하여 명문화하지 않고, 하루를 한 달로 삼아 한 달 만에 삼년상을 종료하는 易月제도를 적용했다. 반면, 조선은 상례절차를 儀註부터 상복·기물에 이르기까지 규정하여 삼년상을 지냈다.

의해 주화파^{主和派}의 지지를 받아 왕위를 이었다. 효종대 나선정벌 등을 통해 청과의 외교관계, 군사관계는 개선하되 내부적으로 반청분위기 속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주도한 인물이 송시열이었다.

한편, 효종의 사망으로 조대비 복제와 복상기간이 논쟁되는 기해예송^{己亥禮訟}이 일어났다. 정태화^{鄭太和}의 주장으로 『경국대전』을 근거로 1년 기년상이 정해지자 허목^{許穆}, 윤선도^{尹善道} 등의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논쟁화되었다. 핵심논쟁은 효종이 왕위를 이었으니 장자로 보아 삼년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송시열, 송준길 등이 비록 왕위를 이은 적자^{嫡子} 이더라도 장자가 아니면 기년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논쟁은 확대되었다. 대청관계의 강경파였던 윤휴^{尹鑰}가 삼년상을 주장하며 예송논쟁은 정치논쟁으로 확대되었다. 전례^{典禮}와 종법문제를 명분으로 왕위를 무시한다는 주장까지 겹쳐 전개되었다가 1667년(현종 8) 이순^{李埈}이 왕세자로 책봉되며 마무리되었다.

1674년(현종 15)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사망하자 장자부^{長子婦}, 차자부^{次子婦}로 대우할 것인가를 두고 갑인예송^{甲寅禮訟}이 발생했다. 서인계열은 차자부로 대우하여 대공^{大功}(9개월)을 주장한 반면, 남인은 장자부로 대우하여 기년을 주장했다. 서인계열 가운데 김우명^{金佑明}, 김석주^{金錫胄}가 기년주장을 동의하여 효종비에 대해 조대비 복제는 기년상으로 결정되었다. 논쟁과정에 현종이 사망하고 숙종이 즉위하자 윤휴, 허목 등 남인이 정권을 장악했다. 김석주 등이 서인계열과 연합하여 남인을 반박하여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예송은 마무리되었다.

정리하면, 예송은 양반 이후 붕괴된 조선의 전후 예적질서를 회복하고 예치에 의한 이상사회를 지향하였던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이다. 단순한 공리공담의 부정적 사건이 아닌 전후 조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념논쟁이자, 현실 정치세력간 모색의 충돌이었다. 즉, 예송은 왕실 전례^{典禮}를 다루지만, 실제 조선의 국가운영원리였던 성리학의 예제논쟁이자 왕

위계승 정통성과 사회구성 근간이었던 종법^{宗法}을 두고 정치세력간에 벌어진 성리학 이념논쟁과 할 것이다.

예송과 군사지도의 연관성은 김수흥^{金壽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병자호란기 강화도에서 순절한 김상용^{金尙容}과 척화론의 기수였던 김상헌^{金尙憲}이 배출된 서인계 명문가 안동 김씨 출신이었던 김수흥은 당시 학연과 가문



〈그림 10〉 『천하고금대총편람도』

(소장 : 서울역사박물관-서울역사013125)

목판본 『천하고금대총편람도』는 김수흥의 발문과 지도 상단에 있는 노정기^{路程記}, 지도제목이 없고, 조선은 많은 차이가 있다. 백두산과 청과의 국경인 압록강두만강이 중요했다.

으로 연결된 관계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다. 이런 김수홍이 주자성리학적 세계관으로 조선후기 중요한 세계지도인 『천하고금대총편람도 天下古今大總便覽圖』를 개인적으로 편찬했다.¹⁸⁴ 김수홍의 『천하고금총편람도』는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지도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던 세계관 및 제작 목표를 잘 보여준다.

서인계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김수홍은 예치禮治이 구현된 천하와 땅을 표현하고자 『천하고금대총편람도』를 제작했다.¹⁸⁵ 조선후기 예송논쟁에 뛰어들었던 한 학자가 그린 지도가 예치의 구현이라 평가할 수 있다. 김수홍의 지도는 중화세계를 꿈꾸었다. 조선시대 지도는 기본적으로 군사지도의 성격이 있어 국가차원에서 통제하여 다른 국가에 유출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명, 청, 일본도 동일하였다.

예송에 깊이 관여된 김수홍이 자신이 구상한 예적 질서의 국제화된 모습으로 지도를 제작한 것이다. 즉, 김수홍에게 예론과 지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았다.¹⁸⁶ 조선후기 지식인들은 지리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통해 지도를 제작하고, 예적질서가 확립되었던 시대로 돌아가고자 했다. 이는 조선후기 지도제작의 큰 흐름이었다.

조선시대 군사지도는 일명 『관방도』라 할 것이다. 조선의 가장 앞선 관방도는 세계지도였던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 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에서 출발한

¹⁸⁴ 김양선, 「韓國古地圖研究抄: 世界地圖」, 『梅山國學散稿』, 송전대학교 박물관, 1972, 223~225쪽; 이찬, 「韓國古地圖의 發達」, 『韓國古地圖』, 한국도서관학연구회, 1977, 203~204쪽; 이호, 「김수홍(金壽弘) 《천하고금대총편람도》 제작 배경 연구」, 『한국학』 46-3,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199~238쪽. 1666년(현종 7) 김수홍이 제작한 『천하고금대총편람도』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職方世界 중심의 세계지도이다. 연구성과에 의하면, 이 지도를 조선에서 중국식 세계지도로 제작된 大明式 천하도로 보고, 중국식 세계지도에 서양 근대 세계지도 지식이 추가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본 지도는 조선후기 중국 중심의 전통적 세계지도로 중국의 역사적인 기록을 해당 지역에 기록하고, 지도와 地誌를 겸하였다. 『大明一統志』 路程記와 唐 杜佑의 『通典』 路程記가 인용되어 있고, 김수홍의 발문이 기재되어 있다.

¹⁸⁵ 배우성, 『조선과 중화』, 돌베개, 2014, 66~69쪽.

¹⁸⁶ 배우성, 『조선과 중화』, 돌베개, 2014, 70쪽.

다.¹⁸⁷ 조선은 건국 이후 강력한 왕권에 의한 중앙집권 통치체제와 국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리지와 지도를 편찬했다. 그 일환으로 태종대에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제작했다. 이 지도의 필사본이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세계 지도 중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세종 때에는 전국 지도로서 팔도도를 만들었고, 세조 때에는 양성지 등이 동국지도를 완성하였다. 16세기에도 많은 지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조선방역지도가 현존하고 있다.

지리지의 편찬도 추진되어 세종 때 『신찬팔도지리지』, 성종 때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다. 여기에는 군현의 연혁, 지세, 인물, 풍속, 산물, 교통 등이 자세히 수록하였다. 그러나 『신찬팔도지리지』는 현재 전하지 않지만, 『동국여지승람』을 보충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중종 때 편찬되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이외에 『조선방역지도 朝鮮方域地圖』¹⁸⁸ 역시 조선의 전국을 상세히 기록하며, 국경문제에 천착하여 백두산을 특별히 강조하여 표기하고 만주에 대한 지리지식을 상세히 포함하기도 했다.

백두산을 포함한 조선후기 국경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만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경문제로 백두산이 주목되는 가운데 또 다른 공간으로 영고탑^{寧古塔}이 있다. 영고탑은 조청관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간이자 청이 선대의 유지가 남아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중시했던 지역이다. 조선은 조청관계가 긴장되면 항상 청이 영고탑으로 회귀할 것이라 판단하고 영고탑에 대한 지리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영고탑의 위치를 『영고탑북정지^{寧古塔北征誌}』 여정을 통해 살펴보면, 훈춘가상^{琿春街上}(3월 6일 : 60리), 발거막

187 『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에 관한 연구성과는 일찍부터 축적되어 이찬, 「한국 고지도의 발달」, 『한국의 고지도』, 문화역사지리 7, 1995, 5~11쪽; 고교정,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연구소사」, 『한국의 고지도』, 문화역사지리 7, 1995, 13~21쪽; 오상학, 「조선시대의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서울대학교박사논문, 2001 등이 참조된다.

188 『朝鮮八道地圖』(등록번호 SJ0000010944 ~ SJ0000010947)는 조선전기의 지도로 현재 『朝鮮方域之圖』(국보 248호)보다 앞선 시기의 지도로 보인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본 지도는 1931년 5월에 촬영된 유리필름자료로 원래 소장은 宗伯爵家舊藏이었지만,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撥車幕(7일 : 20리), 삼한三漢(8일 : 60리), 통덕通德(11일 : 100리), 대감자大
堪子(12일 : 80리), 왕청王淸(13일 : 80리), 오태五台(14일 : 100리), 낙타뇌
자駱駝磊子(15일 : 150리), 삼태三台(16일 : 100리), 마능호리瑪勒瑚里(17일 :
50리), 신작리新窄里(18일 : 50리), 구자溝子(19일 : 100리), 탑성塔城(20일 :
55리)으로 조선에서 15일 일정에 위치했다.¹⁸⁹ 국제정세가 불리해져 청이
군사적으로 후퇴하면 영고탑으로 갈 것이라는 조선의 판단은 실제 왜곡된
것은 아니다. 청이 자신들의 근거지로 인식한 만주로 언제든 회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존재했기 때문이다. 조선이 청의 영고탑 회귀설에 중점
을 두게 된 점은 조선의 정세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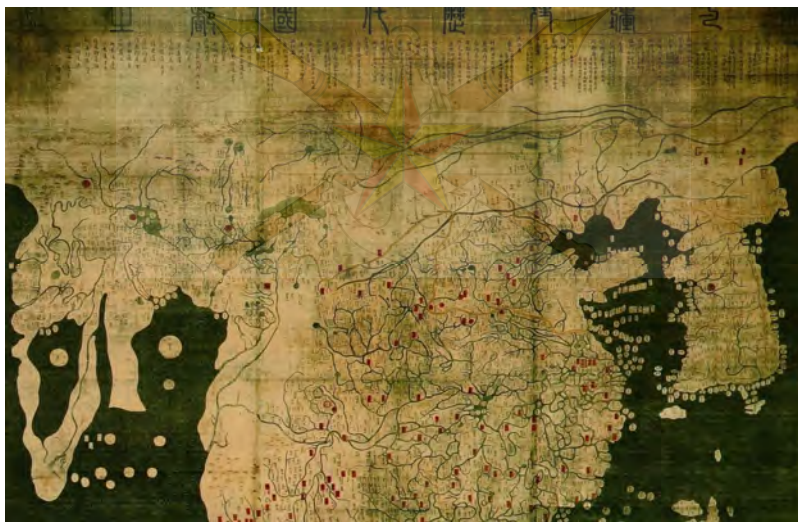
조선에서 제작한 세계지도, 동아시아지도는 두 종류가 있다. ① 조선이 수집
한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편집한 지도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선초기 1402년(태종 2)에 김사형金士衡·이무李茂·
이회李薈 등이 중국대륙과 아라비아 등지까지 포함된 세계지도에 조선과
일본지도를 보충하여 제작한 지도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다.

“천하는 지극히 넓다. 안으로 중국에서 밖으로 사해에 닿아 몇 천
만 리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을, 요약하여 두어 자 되는 폭幅에다
그리니 자세하게 기록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도를 만든 것이
대개 소략疎略한데, 오직 오문吳門 이택민李澤民의 『성교광피도聲教廣被圖』는
매우 상세하게 갖추었으며, 역대 제왕의 국도 연혁國都沿革은 천태승天台僧
청준淸準의 『혼일강리도混一疆理圖』에 갖추 실렸다. 건문建文 4년(1402, 태종2)
여름에 좌정승 상락上洛 김공金公 사형士衡, 우정승 단양丹陽 이공李公 무
茂가 정사를 보살피는 여가에 이 지도를 참고 연구하여 검상檢詳 이
회李薈를 시켜 다시 더 상세히 교정하게 한 다음에 합하여 한 지도
를 만들었다. 요수遼水 동쪽과 우리나라 지역은 이택민의 지도에
도 또한 많이 결략闕略되었으므로,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를

189 『寧古塔北征誌』(想白古951.054-Y42). 1871년(고종 8)에 청의 유민 쇄환요구로 逃民領
回差使員 12명이 조청국경의 주요 지역을 다녀온 기록으로 『영고탑북정지』가 있다.
19세기 후반 조선이 인식한 영고탑을 상세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영고탑북정지』에서
다루는 노정은 두만강 慶源府에서 북만주 寧古塔까지이며, 책 표지에 “北征日錄 自慶
源至寧古塔一千二十五里”라 기재되어 있어 1,024리의 거리를 3월 6일에서 6월 9일까
지 약 3개월 시간을 다루고 있다.

더 넓히고 일본^{日本} 지도까지 붙여 새 지도를 만드니, 조리가 있고 볼 만하여 참으로 문 밖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 수 있다. 대저 지도를 보고서 지역의 멀고 가까움을 아는 것도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한 도움이 되는 것이니, 두 공이 이 지도에 정성을 다한 데에서도 그 규모와 국량의 방대함을 알 수 있다. 근(近)은 변변치 못한 재주로 참찬^{參贊}이 되어 두 공의 뒤를 따라 이 지도가 완성됨을 보고 기뻐하였으며 매우 다행하게 여기는 바다. 평일에 책에서 강구하여 보고자 하던 나의 뜻을 이미 이루었고, 또 내가 다른 날 물러가 시골에 있으면서 누워서 유람하는 뜻을 이루게 됨을 기뻐하며 이 말을 지도 아래 쓴다.”¹⁹⁰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조선시대 뿐만 아니라 한국사에서 최초 세계 지도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조선이 적극적으로 수집한 지리정보를 토대로 조선의 세계관이 투영된 세계지도로 편찬하였다는 점은 조선의 대외 군사정보, 지리정보 수집체계 및 대외인식을 반영한 결과였다. 명 중심 국



〈그림 11〉『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소장 :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일본 류코쿠^{龍谷} 대학 소장본을 대상으로 한 채색 모사본 수증자료로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1402년(태종 2)에 조선이 역대 나라의 수도를 표기하여 제작한 세계지도이다.

190 『양촌집』 권22, 跋語類, 歷代帝王混一疆理圖誌.

제질서의 세계관에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지 않고 혼연일체된 세계를 지향한 점은 ‘혼일^{混一}’이라는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경을 접한 한중일을 넘어 서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반도, 아프리카, 유럽까지 포함한 점은 당시 확보된 전 세계의 지리정보를 집대성한 것이다.

얇은 황갈색의 육지, 녹색의 바다, 청색의 하천 등 지리를 채색으로 구분하고, 원과 사각형의 기호를 통해 국가명과 수도를 표기한 점은 지도제작의 효율성을 보여준다. 전서^{篆書}로 써져 있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제목,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역대제왕국도^{歷代帝王國都}’의 소제목에 수도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당시 참고한 세계지도가 몽골제국에서 제작한 지도였던 점에서 몽골제국 치하의 성^省, 도^道 등이 기재되고, 일부 지명이 명대 지명으로 기재되었다. 중국에 비해 면적이 과장되게 표현된 조선은 중국과 비견되는 모습을 의도한 것이다. 국경, 해안선, 산맥 등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한 점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실용성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현재 전하는 이슬람의 세계지도와는 또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 이슬람 세계지도는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두는 반면,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북쪽을 상단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이슬람 지도에서는 아프리카 남단을 동쪽을 향하도록 그리지만, 「혼일강리역대국도」에서는 지금의 실제 모습에 가깝게 묘사되어 있다. 이미 중국에서 수정된 내용으로 그려졌던 「성교광피도^{聖教廣被圖}」를 바탕으로 하여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지금의 모습에 가까운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그 당시 세계의 가장 정확한 지리정보를 담은 지도로 평가된다.

여진과 국경을 둘러싼 군사충돌이 발생하자 조선은 무기체계를 개선하는 국방정책을 실시했다. 조선은 임진왜란기 일본의 조충에 대응하여 월등히 앞서는 화포를 활용하고 특히 해전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다. 조선의

화약무기에 대한 관심과 국가정책으로 화약무기를 발전시킨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 원나라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하자 귀주龜州 전투에서 포차를 이용하여 돌을 날렸다는 기록도 있는데, 유성룡은 이를 원나라가 사용하던 양양포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명대 척계광이 지은 『기효신서』에 육합포六合炮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구조는 여섯 조각의 나무를 서로 모아 만든 것으로 장벽이나 주함舟艦을 쳐부수는 데 사용하나 그 제조법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임진왜란기 참전한 명군 지휘관 척금戚金은 척계광戚繼光의 친조카로 육합포 제조법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유성룡이 적극적으로 그 제조법을 배우고자 했다. 척금의 지시대로 대포를 만들었지만, 시험사격에서 대포가 터져 사용하지 못했다. 유성룡이 거듭 육합포의 제조법을 배우고자 하였지만, 척금이 명으로 귀국하며 실현되지는 못했다.

유성룡은 『기효신서』를 입수하여 자모포子母砲(불랑기)의 제조법을 확인했다. 유성룡은 자모포가 전쟁에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자모포는 아니지만, 군기시軍器寺 주부主簿 이자해李自海에게 명하여 자신이 고안한 화포를 주조하도록 했다. 유성룡은 자모포의 제조법을 활용하여 조선에서 사용하던 비격진천뢰와 비슷한 화포를 제조했다.¹⁹¹

동아시아 조선, 명, 일본의 무기체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신기비결神器秘訣』은 전통적인 무기체계에서 화약무기 체계로 바뀌었음을 잘 보여준다. 세계사에서 무기는 냉병기와 화약무기로 구분된다. 냉병기는 우리가 잘 아는 칼, 창, 도끼, 활 등과 같이 청동기, 철기 등 차가운 재료를 가공하여 만든 무기이다.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역적으로 특성에 따라 약간의 형식과 재질의 차이를 가진다. 반면에 화약무

191 『서애집』 권16, 雜著, 記火砲之始.

기는 총, 포와 같이 화약을 발사체로 활용하여 돌, 쇠 등의 총알, 포탄을 쏘아 적을 제압하는 무기이다. 냉병기는 현대까지 그 효용성이 높아 여전히 강력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화약은 중국에서 발명된 이후 몽골에 의해 유럽에 전파되고 이후 화약총으로 발전하여 다시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다. 일본이 조총무기로 무장하여 임진왜란 초기 큰 전과를 거두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명나라는 전통적인 화포무기를 더욱 발전시켜 별도의 화약무기부대를 창설하기도 했으며, 특히 왜구소탕에 개인무기로 화통이 활용되기도 했다. 참전한 명군은 화포를 주 무기로 하는 부대를 포함했다. 조선은 건국 이후 화약무기 개발 및 총통이란 개인화약무기로 무장한 부대를 창설하기도 했다. 또한, 임진왜란 이전까지 각종 총통을 비롯한 화포무기를 조선화하여 군사력을 강화했다. 한 마디로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삼국의 화기 각축장이었다고 평가할만큼 치열한 화약무기의 경연장이었다. 참고로 조선이 화약무기에 붙인 이름이 천자총통, 지자총통 등 총통이란 이름인데요, 총통은 원통형 포신의 입구에 화약과 발사물을 장전한 다음 포신 후미에 뚫린 구멍으로 점화, 발사하는 지화식 화약무기로 발사물은 활이나 철환이었다.

조선은 전쟁을 계기로 선진 화약무기를 적극 도입하고, 자체적인 각종 화약무기 개발과 제작에 집중했다. 『신기비결』은 전쟁 이후 조선의 무기 체계 개선과 발전의 분위기에서 편찬된 화약무기 군사고전이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전에도 화약무기가 있었다. 군기시^{軍器寺}라는 군사무기를 담당 한 조직에서 천, 지, 현, 황 등 대형화포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용가능한 화포까지 다양했으며, 화약도 전쟁 직전에 2만7천 근을 보유했다. 비록 화약무기와 화약을 보유했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전술 및 훈련이 부족하여 일본군의 조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지상전에서 이런 패전과 달리 해전에서 월등한 화력과 전술로 연전연승했다. 조선 수군의 판옥선에 다양한 화포가 탑재되어 활용된 점은 다양한 상황과 거리에서 화약무

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신기비결』의 발문에 기재된 내용이다.

“삼수^三江에 1565년에 간행한 『충통식』 한 편이 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나 그 말이 너무 간략하고 서술된 기술이 매우 조잡하다. 게다가 화약 수의 분량이나 탄자^{彈子}의 많고 적음, 화기 장방법, 그리고 군졸 연습법이 모두 상세하지 않다. 그러므로 병졸이 어찌 그 규칙을 알아 묘리를 터득하겠는가? 이에 내가 『충통식』에 약간의 첨삭을 가하고 『기효신서』에 수록된 화기론을 첨가해 신기비결이라 이름지었다.”

『신기비결』은 1603년(선조 36)에 함경도도순찰사 한효순이 화약무기의 장방법과 연습법 등을 정리한 책자이다. 장방법은 화약무기의 성능, 제작법, 제원 등을 포함한 내용이다. 이는 당시까지 화약무기가 국가적으로 매우 민감한 군사비밀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책자로 편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후 화약무기의 제작 및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이를 공식적인 책자로 편찬하게 되었다.

『신기비결』은 1책 71장이며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원 제목은 “신기비결 제가병법부^{神器秘訣 諸家兵法附}”이다. ‘신기’란 무기 가운데 가장 신묘스러운 무기를 말하며, 운용 및 제작의 비결이 포함되었다는 뜻한다. 책은 본문, 부록, 발문으로 되어 있다. 본문은 당시까지 조선이 보유하고나 인지한 화약무기 18종(천자총^{天字銃}, 지자총^{地字銃}, 현자총^{玄字銃}, 황자총^{黃字銃}, 불랑기^{佛狼機}, 조총^{鳥銃}, 쌍안총^{雙眼銃}, 백자총^{百子銃}, 대승총^{大勝銃}, 차승총^{次勝銃}, 소승총^{小勝銃}, 우자총^{宇字銃}, 주자총^{宙字銃}, 홍자총^{洪字銃}, 황자총^{荒字銃}, 일자총^{日字銃}, 영자총^{盈字銃}, 측자총^{戛字銃}),



〈그림 12〉 조선후기의 세총통

을 소개하여 사용되는 화약, 화약선, 발사물의 양을 정리했다. 또한, 중국의 대포, 불랑기, 조총에 대해 소개하였다. 전체 분량 71장 가운데 19장이다. 부록은 ‘제가병법부諸家兵法附’로 장령將領으로서 ‘병兵’을 알지 못하고 군졸로서 ‘전戰’을 알지 못하면 비록 화기를 익혀도 승패에 보탬이 없으므로 고금의 병가兵家에서 중요한 말을 뽑아 덧붙인다는 한효순의 말처럼 태공太公병법에서 21장, 손자병법에서 13장, 율료자尉繚子병법에서 17장, 척계광병법에서 53장을 뽑아 정리한 것이다. 무엇보다 『신기비결』은 화약무기의 장전 및 사격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두었다. 예를 들어, 천자총의 경우, 화약 30냥, 중약선 5치, 중연자中鉛子 1백 개가 소용되며,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① 총의 내부를 소제한다. ② 약선을 넣는다. ③ 화약을 (총통 밑바닥에) 깬다. ④ 종이로 (화약을) 덮는다. ⑤ 송자送子로 가볍게 다진다. ⑥ 격목木馬를 내린다. ⑦ 송자로 격목을 힘주어 때려 화약 앞에 닿게 한다. ⑧ 납탄환을 한 층 채운 뒤 흙을 채우고 송자로 다진다. ⑨ 다시 납탄환을 한 층 채운 뒤 흙을 채우고 송자로 다진다. ⑩ 또다시 납탄환을 한 층 채운 뒤 흙을 채우고 송자로 다진다. ⑪ 총통 부리에 맞는 큰 탄환(섯덩이나 큰 돌덩이) 한 개를 송자로 힘껏 때려 총통 부리 안으로 집어넣는다. 총통을 평평하게 바로 잡은 다음 (약선에) 불을 놓아 발사한다와 같은 방법이었다.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양사차원에서 임진 이후 무기체계의 대변환을 잘 보여주는 군사고전으로 조선의 화기 장방법을 수록한 유일한 병서이자 화기의 장전에서부터 발사에 이르기까지 화약무기의 운용을 실증적으로 설명한 책자이다. 또한, 화약무기의 종류, 그 유래, 장단점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책자로 조선이 인식한 화약무기 사전이자 운용교리의 성격도 있다.

화기도감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화약무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대적으로 화약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조직이었다. 전쟁에서 나는

새로 능히 맞힐 수 있다는 일본의 조총의 위력을 절감하고 조총을 비롯한 각종 화약무기를 개선하여 자체 제조하고자 설치한 조직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무기는 그 성능과 활용도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무엇보다 칼, 창, 활 등은 모두 개인무기이다. 이에 비해 조선과 명이 보유한 화포는 개인무기가 아니라 일정한 병력이 함께 운용하거나 고정하여 운용하는 무기였다. 그러나 조총은 개인이 지참하고 이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원거리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화약무기라는 점에서 강력했다. 전쟁초기 조선군이 조총의 위력과 화력 앞에 연전연패한 것이 그러하고, 참전한 명군이 일본군을 앞잡아보다가 조총의 위력에 급히 화포를 보강하기도 했다. 활은 조총과 동일하게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원거리 무기였지만, 무엇보다 사거리에 한계가 있었으며, 정확한 조준이 조총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활은 대량의 화살을 동시에 발사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다만, 조총도 현대의 총과 달리 매우 정확한 사격이 어려웠지만, 활에 비해 사거리가 길었다. 또한, 장전과 심지를 활용하고, 순차적인 격발을 통해 효과를 거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화약의 재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활용이 제한되는 단점도 있었다.

조선은 선진화기를 도입하기 위해 각종 화기 개발과 제작에 노력을 경주했다. 전쟁 와중에 일본군에게 노획한 조총을 분석하고 조총 제조술을 보유한 항왜^{降倭}를 제조장에 투입했다. 또 명나라 군에게서 새로운 화포 제작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조총 개발에 성공하고, 명나라로부터 삼안총, 호준포, 불랑기포, 백자총통 등을 도입해 자체 제작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임진왜란 이후 화약무기 개발과 제조를 추진하던 조선은 새롭게 성장하던 여진족의 누르하치가 명나라와 전쟁을 일으키자 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더욱 화약무기를 중시했다. 누르하치는 1616년(광해군 8) 1월에 후금

국을 세우고 곧 명나라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조선은 일본뿐만 아니라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여 다량의 화약무기 제조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당시 여진족은 갑옷을 입고 말도 보호대를 착용시켰으므로 화살로 대항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포를 다수 제조하는 것이 오늘날 오랑캐를 방어하는 으뜸 계책이다.”라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해나갔다. 광해군은 대포를 포함한 각종 화포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1614년 7월 14일에 조총별조청鳥銃別造廳을 ‘화기도감’으로 확대, 개편해 화포 제작에 전력했다. 그리고 활·화살·창·칼 등 재래식 무기도 제작하고, 품질 좋은 일본산 칼과 조총 수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화기도감이 설치된 때는 만주 지역에서 누루하치가 후금국을 세우기 1년 6개월 전으로 누루하치의 국력이 신장되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즉, 화기도감의 설치는 전쟁을 막는 차선책이자 최선책이었다. 『화기도감의궤火器都監儀軌』의 서명에는 ‘의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의궤란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의식절차를 빠짐없이 작성한 기록물을 의미한다. 의궤 작성의 주목적은 국가 행사의 의식절차의 시말을 기록하여 차후에 유사한 행사가 있을 때에 이를 참고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행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왕실의 위엄과 존엄을 높이는 목적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화기도감의궤 역시 화기도감의 설립을 낱알이 기록해 후일에 대비하고 이 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화기도감의궤』는 1책 75장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이다. 이 책에 담긴 시기는 1614년(광해군 6) 7월 14일부터 1615년 12월 29일까지이고 내용은 날자 순으로 기록되었다. 총론, 도설圖說, 본문으로 구성되었는데, 본문은 대부분 화기도감에서 왕에게 올린 계문啓文이며, 감결甘結, 품목稟目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에 의궤 제작을 담당한 실무자 6인의 이름이 있다. 1614에 설치된 화기도감의 설립 과정에서부터 화기도감의 무기 제작과정을 생생히 담고 있다. 의궤를 9부 만들어 어람용으로 1부 올리고, 실록청

에 4부, 의정부, 비변사, 춘추관, 예조에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의궤 제작을 주관할 관리와 실무자 그리고 소용 물품 등에 관한 시행 세칙으로 13조가 있다. 도설은 불랑기, 현자^{玄字}, 백자^{百字}, 삼안총, 소승자장가^{小勝字粧家}, 쾌창^{快槍} 등 6종의 무기 그림과 간단한 설명이 있다. 불랑기, 현자, 백자는 동철로 만들고 삼안총, 소승자장가, 쾌창은 정철^{正鐵}로 만들었다. 본문은 도감의 조직과 운영 경비, 무기의 원료와 소요 규모, 무기 생산 과정, 포상 등 화기도감의 설치에서부터 무기 제조 및 공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수록했다. 당시 도감의 구성원은 <좌목>에 따르면, 도제조에 영의정 기자헌, 제조에 유근·박승중·이상의·이수일·이경심, 도청 윤희량·홍방이며, 낭청은 총 4인을 두었다. 『화기도감의궤』에서 주목을 끄는 사항은 총·포에 들어간 철물이나 각종 재료의 조달과 규모이다. 대표적으로 정철이 13,688근 8냥, 동철이 18,015근 10냥이 소요되었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동철과 납철은 각 관청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소금이나 포로 구입했고 철 제련에 소용되는 탄목^{炭木} 등은 수군을 동원해 황해도 백령진과 충청도 대산곶에서 조달했다. 수록된 화약무기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들면, 불랑기는 4호 짜리 50위^位를 제작하였다. 무게는 90근, 길이는 3자^尺 1치^寸 7푼^分이며, 자포^{子砲}는 5문^門씩 총 250문을 만들었다. 『화기도감의궤』는 이를 전후한 시기에 나온 『신기비결』(1603), 『화포식언해』(1635)에 비해 무기의 종류도 적고 관련 내용도 간략하다. 그러나 『화기도감의궤』는 국왕에게 보고된 병서이자 화기도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국왕에게 보고된 내용이었기에 1604~1605년 사이에 진행된 무기 제조에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기 원료는 무엇이며, 이 원료를 어떻게 조달했고 장인은 어느 정도 동원되었으며 하루 작업량은 어떠했는지 등등 무기 생산 과정이 생생하게 실려있다.

『화기도감의궤』에 소개된 승자총 내용을 통해 가치를 알 수 있다. 선조

초에 병마절도사 김지가 기존 총통을 개량시켜 만든 휴대용 소형 화기로 신립^{申稙}이 이 무기를 이용해 여진족을 크게 격파했다. 그런데 승자총은 주조하여 만들었으므로 제작은 쉬우나 발사할 때 총구가 파열되어 인명을 자주 손상시키는 결점이 있었다. 화기도감에서는 승자총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조나 제조기술을 크게 개선했다. 먼저 승자총을 주조하지 않고 정철로 타조^{打造}했다. 구멍을 뚫는 작업이나 가늠쇠^{照星} 제조도 정확하게 했고 장가^{粧家}도 만들었다. 그래서 조총만큼 정밀하지는 않으나 적을 막는 효능은 조총못지 않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화기도감의궤』는 17세기 초 조선의 무기공정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군사고전이며, 실질적인 무기제조 방법은 소략하나 무기제조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사실을 전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화기도감의궤』는 무기생산 과정에 대한 조선 정부의 백서라 할 수 있다.



韓中軍事



— 2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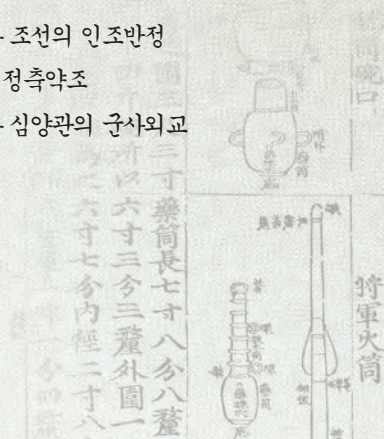
17세기 전반기 명칭 교체와 정묘·병자호란



제1절 후금의 정명전쟁과 조선의 인조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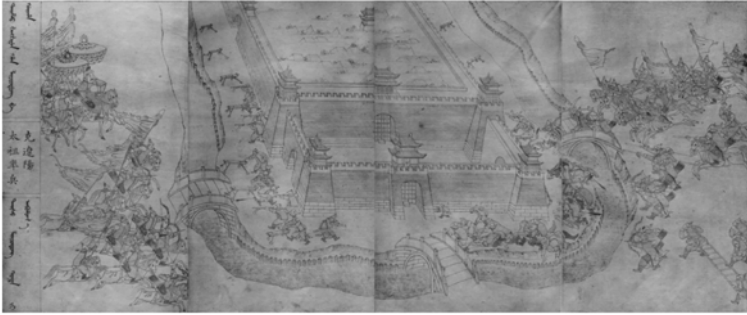
제2절 정묘·병자호란과 정축약조

제3절 조선의 전쟁경험과 심양관의 군사외교



제2장

17세기 전반기 명청 교체와 정묘·병자호란



〈그림 13〉 후금군의 요양성 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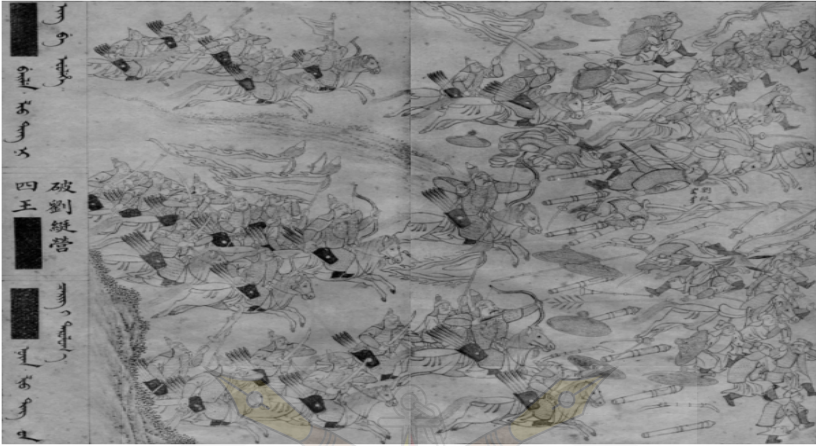
(출처 : 『만주실록』 권2)

명청 교체는 16세기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변화시킨 국제사건으로 조선은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대외정책 및 군사정책 보색에 직면했다. 본 그림은 후금군과 명군의 전투 가운데 결정적 전투로 평가되는 요양성전투 장면으로 후금은 이후 요양으로 수도를 옮긴다.

“두 나라가 서로 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심으로 서로 대 하여 진실하게 거짓이 없는 뒤에야 바야흐로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것 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말에 의한 외면적인 응대만 있게 된다면, 과인이 자신을 속이는 부끄러움만 있을 뿐만이 아니다. 천지신명이 진실로 함께 굽어보시는 바이기에 이에 감히 생 각한 바를 모두 토로하겠는가? 우리나라가 명나라에 사대^{事大}한 지가 2백여 년이어서 명분이 이미 정해졌는데 감히 딴 뜻을 가질 수 있겠 는가? 우리나라가 약소하지만 본시 예의로 일컬어졌는데, 하루아침에 명나라를 저버린다면 귀국도 장차 우리나라를 어떻게 여기겠는가? 대국에 사대하고,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예에는 본시 방도가 있는 것 이다. 지금 우리가 귀국과 화친하는 것은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것이 요, 명나라를 사대하는 것은 대국을 사대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는 아울러 시행되면서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마땅히 각각 봉강^{封疆}을 지켜 두 나라가 도리를 다하여 서로 편안하고 서로 즐거워 하면서 대대로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묘호란시 후금장수에게 보낸 인조의 교서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2월 5일(임인)

제 1 절 후금의 정명^{征明}전쟁과 조선의 인조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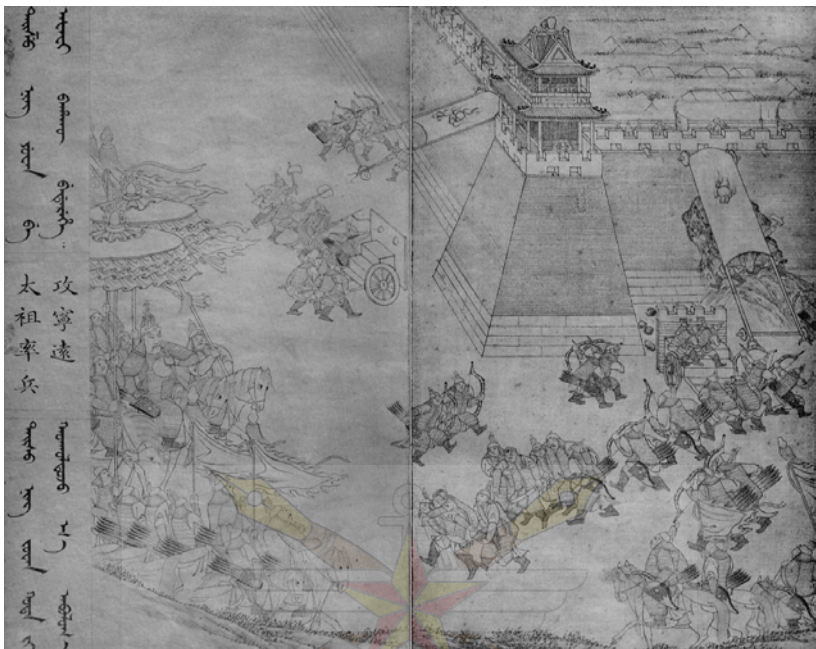


“천하의 일은 미세한 데에서 일어나지 않음이 없다. 天下之事，莫不起於微”

누르하치의 흥기에 대해 선조가 내린 비망기
『선조실록』 권70, 선조 28년 12월 6일(갑진)

1627년(인조 5) 후금의 침입으로 강화도에 급히 피난한 인조가 후금의 강화요구에 대해 진창군^{晉昌君} 강인^{姜綱}을 형조판서라 일컬어 후금진영에 파견하여 화해를 강조하는 교서를 전달했다. 정묘호란의 와중에 조선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중심국가와 관계를 저버리면, 당장 후금마저 조선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라는 논리로 후금군의 철수를 주장했다. 조선은 후금의 정명^{征明}전쟁에 대해 중립적인 대외관계를 강조하며 정묘호란의 전세를 극복하고자 했다.

후금의 건국과 정명^{征明}전쟁의 국제정세



〈그림 14〉 누르하치의 영원성전투 장면

(출처 : 『만주실록』 권8)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는 정명전쟁을 선포하고 요동의 주요 요충지를 공격했다. 정명전쟁에서 난공불락의 최대 전투지였던 영원성전투에서 누르하치는 전사한다.

16세기 건주여진을 통합한 누르하치는 조선에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서계를 보내왔다. 두만강 유역의 여진 번호를 회유할 목적으로 누르하치가 조선에 접근한 것이다. 이후 17세기 초, 혼란 4부를 통합하는 과정에 후금을 건국하고 대명 선전포고를 했다. 당시 조선의 선조는 누르하치의 흥기가 가지는 위험을 인식하고 군사적으로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선조가 언급한 바와 같이 천하의 대세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의미는 당시 명과 조선의 여진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오랑캐 여진이 천하를 혼란으로 이끌 수 있는 사단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조선후기 한중 군사관계는 후금의 정명전쟁에서 본격적인 서막이 시작된다. 건주여진을 통합한 누르하치는 해서여진의 호룬 4부를 통합하는 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 누르하치는 몽골을 제압했다. 최종적으로 여진 전체를 통합하기도 전에 누르하치는 후금을 건국하고 선제적으로 정명전쟁을 선포했다. 누르하치가 정명전쟁을 선포한 것은 여진의 단합을 강조하는 정치, 군사적 수사(修辭)의 표현이면서 후금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전쟁지도(戰爭指導)의 역할도 했다. 후금이 본격적으로 정명전쟁을 벌이자 조선은 군사외교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광해군의 선택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이 선택할 수 있는 고뇌의 결정이었다.

건주여진을 통합한 누르하치는 다음 군사목표를 호룬 4부로 삼았다. 누르하치의 입장에서 호룬 4부를 병합해야 비로소 명과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 호룬 4부는 명으로부터 교역권을 부여받아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였다. 경제적 이익은 곧 군사적 역량 강화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누르하치는 여진 통합전쟁에서 현실적 세력의 격차를 고려해야 했다.¹ 명의 지원을 받는 호룬 4부를 전면전으로 제압할 수는 없었다. 이에 군사지리를 고려하여 세력이 약한 하다(哈達)를 공략하고, 순차적으로 내부 갈등을 조장하며 각개 격파하는 방식을 취했다. 누르하치의 여진 통합전쟁, 후금의 정명전쟁, 병자호란, 청의 대명전쟁, 삼번의 난 진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에서 누르하치(후금, 청)는 전면전보다 제한된 군사력을 집중과 기동성있게 활용하여 상대를 각개 격파하였다.

누르하치의 여진 통합전쟁은 호룬 4부 가운데 가장 세력이 강했던 예허만 남겨두고 한참 진행되었다. 1616년 누르하치는 후금 건국을 선언했다. 예허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진을 통합한 시점에서 예허의 복속은 명과

¹ 김윤순, 「누르하치의 扈倫4部 통합과 후금의 건국」, 『강원사학』 26, 강원사학회, 2014, 147~172쪽. 하다는 세력은 약했지만, 교역권한에 해당하는 칙서(勅書)를 700개 소유한 점에서 누르하치의 공격목표가 되었다. 누르하치는 세력확장을 하며, 명과 교역권을 장악하여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의 전쟁을 통해 가능했기 때문이다. 예허는 해서여진 가운데 가장 명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부족이었다. 이 시점에 누르하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통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진의 제 부족들은 혈연적 기원이 다양하고, 생활 양태도 다양했다. 이러한 여진 제 부족을 단순히 통합한다고 하여 통일된 단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군사적으로 통합된 여진 제 부족을 새로운 제도로 재편해야 지속적인 통치가 가능했다. 누르하치는 이 시점에서 수렵과 공동체 생활을 정치, 군사제도로 혼합한 팔기제를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팔기제를 권위있게 제시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가형태가 필요했다. 이런 이유로 예허의 복속을 달성하지 못한 시점에 누르하치는 후금의 건국을 선포하고 국가체제에 여진 제 부족을 재편하고자 했다.²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는 요동경략에 집중했다. 후금은 세력 확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합된 여진의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 누르하치는 제 부족의 이탈을 방지하고 단합을 위해 군사·행정조직으로 팔기제(八旗制)를 정립했다. 통합된 여진이 이탈하지 않고 팔기제로 전환하는 반대급부로 이미 확보한 요동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여 지급해야 했다. 경제적 이익은 명과의 교역권과 전리품의 지급이었다.

먼저 누르하치는 여진과 몽골을 연합한 경제체제를 형성하여 명을 압박했다. 또한, 예허가 주로 독점한 교역권을 확보하여 경제적 이익을 차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누르하치는 후금을 건국하고 예허와 명을 적으로 하는 선전포고를 하였다.

후금의 세력 확장은 명을 극복해야 가능했다. 여진을 통합하는 단계에서 정명전쟁 선포는 실제 명을 대신하여 중국대륙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통합된 여진을 단결시키고 명을 압박하여 교역권을 독점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수준의 전쟁목표였다. 명을 압박할 정도의

² 이훈, 『만주족 이야기 : 만주의 눈으로 청 제국사를 새로 읽다』, 너머북스, 2018.

군사력이 확보되어야 했다. 군사력 강화는 병력을 확보하고 군수를 비롯한 경제력이 향상되어야 가능했다. 당시 동북아시아의 경제력은 명과의 경제교역을 통해 가능했다. 후금은 경제체제가 동일하였던 몽골을 복속시켜 명을 압박하는 군사력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1619년 후금이 요동으로 진출하면서 몽골과의 관계는 갈등과 연맹으로 이어졌다. 강대국 명을 공격하기 전에 후금은 몽골을 복속시켜 경제체제를 완성하고, 군사력을 지원받으려 했다. 1636년 후금은 몽골을 완전하게 복속시켜 외번으로 편성하고 몽고팔기(蒙古八旗)를 편성했다.³ 몽골을 복속시킨 후금은 요동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본격적인 정명(征明)전쟁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여진, 몽골을 연합한 세력을 체계화하고, 명의 황제 중심 행정체제와 동급의 황제 국가를 천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후금은 청으로 국호를 개정하고 황제를 칭하여 승덕(崇德)이란 연호를 개원했다.⁴

건주여진에서 후금으로, 후금에서 청으로 국가체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개념이 팔기제(八旗制)이다.⁵ 팔기제는 만주, 몽골, 한인을 아우르는 군사·사회조직으로 청의 건국에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근간이 된 병제(兵制)이다. 팔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기인(旗人), 기지

³ 노기식, 「후금시기 만주와 몽골의 연맹 관계」, 『명청사연구』 11, 명청사학회, 1999, 2~16쪽. 당시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몽골은 요동의 경제체제에 종속되어 있었다. 후금이 요동을 장악하면서 명과의 교역체제가 붕괴되자 몽골은 내부적인 혼란을 경험했다. 몽골은 처음 명과 반후금 연맹을 체결하여 명으로부터 경제이익(撫賞銀)을 확보한 립단 한(林丹汗) 세력과 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던 칼가, 코르친 등으로 분열되었다. 후금은 우선 칼가, 코르친 등 몽골 여러 부족과 연맹을 체결하고, 결혼을 매개체로 우호를 강화했다. 또한, 주된 세력에서 소외된 몽골 부족이 후금에 귀순하면 황제로서 賜與를 제공하는 등 세력확장에 집중했다. 물론 후대의 이야기이지만, 만주족의 몽골우대는 라마불교의 보호로 나타나기도 했다. 후금이 요동전역을 장악하자 명과의 연결고리가 상실된 몽골의 립단 한도 후금에 복속되었다.

⁴ 송정수, 「명청왕조의 성립과 정통성 확보」, 『명청사연구』 8, 명청사학회, 1998. 국가를 건국하고, 왕을 칭하는 단계를 넘어 황제를 칭하는 것은 국호개정으로 나타나며, 이는 주변 민족으로 하여금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하도록 하여 청 지배 정통성을 확립하는 방법이 었다.

⁵ 임계순, 『청사』, 도서출판 신서원, 2000, 28~62쪽. 이하 팔기제에 관한 서술에서 별도의 각주가 없으면 본 연구성과를 인용함.

旗地, 니루牛乳, 양람기鑲藍旗, 양백기鑲白旗, 양황기鑲黃旗, 양홍기鑲紅旗, 정람기正藍旗, 정백기正白旗, 정황기正黃旗, 정홍기正紅旗, 몽골팔기蒙古八旗, 한군팔기漢軍八旗 등을 살펴봐야 한다. 팔기제는 청이 제국으로 국가운영에 정착시킨 씨족 제에 입각한 군사·행정제도이다. 건주여진에서 여진족 전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누르하치는 부족 수준의 군사조직을 탈피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에 누르하치는 후금 건국에 공로가 있는 여진, 몽골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는 군대로 조직했다. 청 건국 및 명청전쟁 과정에 여진, 몽골, 한족을 포괄하는 팔기제를 정착시켰다. 누르하치는 건주여진 장악, 여진세력 통합, 몽골복속, 정명전쟁 과정에서 다양한 세 세력을 통합, 관리하면서 상호 간에 별다른 결속 계기가 없음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수립한 제도가 팔기제였다.⁶

팔기는 군기軍旗의 색 및 세력에 따라 여덟 부대로 편제되었다. 팔기는 정황기正黃旗·정백기正白旗·정홍기正紅旗·정람기正藍旗·양황기鑲黃旗·양백기鑲白旗·양홍기鑲紅旗·양람기鑲藍旗, 민족에 따라 만군 이외에 몽고팔기蒙古八旗, 한군팔기漢軍八旗를 설치하여 총 24기가 되었다. 이들 팔기는 일시에 정립되지 않았다. 만주의 세력확장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1607년 건주여진을 장악한 누르하치는 홍, 황, 남, 백의 4기를 조직하고, 국가를 성립한 1616년에 양홍, 양람, 양황, 양백의 4기를 추가 조직하여 초보적인 팔기제를 만들었다. 입관 이후 1642년에 몽고팔기, 한군팔기를 편제하여 24기 팔기제를 완성했다.

팔기에 편제된 사람을 기인旗人이라 하고, 이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토지를 지급했는데 이를 기지旗地라 하였다.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팔기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충성을 유도하여 통치를 튼튼하게 하고자 했다.⁷ 팔기제의 기본단위는 니루牛乳이다. 니루는 화살이란 의미를

6 김두현, 「청조정권의 성립과 발전」, 『강좌중국사』IV, 지식산업사, 1989.

7 이지영, 「청말(1907~1911) 길림성의 旗地 墾墾과 旗人 生계의 도모」, 『동양사학연구』 152, 동양사학회, 2020, 425~465쪽; 김선민, 「청대 길림지역의 기인과 토지 개간」, 『史叢』

가진 조직으로 공통 수렵생활을 하던 만주족의 습속에서 출발한다. 니루는 시기별로 발전하였는데, 처음엔 한 니루가 혈연으로 결합된 10명으로 구성되었지만, 점차 확대되어 300명을 단위로 했다. 300명의 한 니루는 니루어전^{牛泉額真}이 지휘했으며, 다섯 니루가 모여 1,500명 규모의 잘란^{甲喇}이 구성되며, 잘란어전^{甲喇額真}이 지휘했다. 다섯 잘란이 모여 7,500명 규모의 구사^{固山(旗)}가 구성되며, 구사어전^{固山額真}이 지휘했다.

팔기는 누르하치의 설치 이후 팔기의 기주^{旗主}인 호쇼이 버일러^{和碩貝勒}는 누르하치 직계에게 집중되고, 후금을 이어 건국된 청 황실에서 권력관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했다. 다르게 말하면 팔기는 청 제국의 기본 사회, 군사, 정치체제이자 청 황실의 권력기반이었다.

〈표 7〉 청 황위 계승도

대수	묘호	이름	재위	연호	능호
1대	태조	누르하치 ^{努爾哈赤}	1616~1626	천명	복릉 ^{福陵}
2대	태종	홍타이지 ^{皇太極}	1636~1643	송덕	소릉 ^{昭陵}
		도르곤 ^{多爾袞}	홍타이지 사후 집정		
3대	세조	푸린 ^{福臨}	1643~1661	순치	효릉 ^{孝陵}
4대	성조	히오완예이 ^{玄燁}	1661~1722	강희	경릉 ^{景陵}
5대	세종	인진 ^{胤禛}	1722~1735	옹정	태릉 ^{泰陵}
6대	고종	홍리 ^{弘曆}	1735~1795	건륭	유릉 ^{裕陵}
7대	인종	용안 ^{顥琰}	1795~1820	가경	창릉 ^{昌陵}
8대	선종	민닝 ^{旻寧}	1820~1850	도광	모릉 ^{慕陵}
9대	문종	이주 ^{奕訖}	1850~1861	함풍	정릉 ^{定陵}
10대	목종	자이순 ^{載淳}	1861~1875	동치	혜릉 ^{惠陵}
11대	덕종	자이티안 ^{載湉}	1875~1908	광서	송릉 ^{崇陵}
12대		푸이 ^{溥儀}	1908~1912	선통	

누르하치는 후금을 건국한 뒤 주요 인물을 팔기의 지휘권을 맡겼다. 주로 자신의 아들과 형제에게 주었으며, 뒤이어 황위를 계승하며 점차 팔기의 지휘권은 황제에게 집중되었다. 자신의 탐목파연^{塔木巴宴}의 딸, 원비^{元妃}

110, 역사연구소, 2023, 175~226쪽; 임경준, 「遼人에서 旗人으로 -清代の 漢軍旗人 李永芳 일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65, 효원사학회, 2024, 101~140쪽.

효원고황후 孝元高皇后 동가씨 佟佳氏와 사이에 광략패륵 廣略貝勒 추연 椿英, 예열친왕 禮烈親王 다이산 代善을 두었다. 망새두제호 莽塞杜諸祜의 딸, 계비 繼妃 효선고황후 孝宣高皇后 부찰씨 富察氏와 사이에 망구르타이 莽古爾泰, 더걸러이 德格類, 피양구 費揚果를 두었다. 오랍패륵 烏拉貝勒 만태 滿泰의 딸, 대비 大妃 오랍나랍씨 烏拉那拉氏와 사이에 영친왕 英親王 아지거 阿濟格, 예충친왕 睿忠親王 도르곤 多爾袞, 예통친왕 豫通親王 도도 多鐸를 두었으며, 엽赫패륵 葉赫貝勒 양길노 楊吉弩의 딸, 효자고황후 孝慈高皇后 엽赫나랍씨 葉赫那拉氏와 사이에 태종 太宗 홍타이지 皇太極를 두었다. 합달패륵 哈達貝勒 호이간 扈爾幹의 딸, 측비 側妃 합달납라씨 哈達納喇氏와 사이에 요여민군왕 饒餘敏郡王 아바타이 阿巴泰를 두었으며, 나극달 喇克達의 딸, 서비 庶妃 조가씨 兆佳氏와 사이에 진국근민공 鎮國勤敏公 아바이 阿拜를 두었다. 박극첨 博克瞻의 딸, 서비 庶妃 뉴호록씨 鈕祜祿氏와 사이에 진국극결장군 鎮國克潔將軍 탕구다이 湯古代, 보국각후공 輔國愨厚公 타바이 塔拜를 두었으며, 패혼파언 貝渾巴彥의 딸, 서비 가목호각라씨 嘉穆瑚覺羅氏와의 사이에 진국각희공 鎮國恪僖公 바부타이 巴布泰, 바부하이 巴布海를 두었고, 분두리합사호 奮杜裏哈斯祜의 딸, 서비 서림각라씨 西林覺羅氏와의 사이에 보국개직공 輔國介直公 라이무부 賴慕布를 두었다. 이들 가운데 후금시대에 팔기군의 지휘권은 누르하치와 그 형제, 몇 명의 아들에게 한정되었다.

누르하치는 후금을 건국하고 팔기제를 편제하며 모든 인구를 남녀노소 없이 팔기 구성원으로 등록하고 기인 旗人으로 삼았다. 누르하치는 해서여진을 복속시키고 그들을 후금의 수도 허투아라 인근으로 이주시켜 팔기제에 편입시켰다. 누르하치는 팔기 8개 가운데 2개를 차지하고, 나머지 6개 팔기의 관리를 자식과 조카에게 배분했다. 팔기제를 통해 누르하치는 절대 권력을 확보하고 보다 강력하게 정명전쟁을 추진했다.

누르하치의 정명전쟁에서 몽골에 대한 영향력은 필수적이었다. 건주여진을 통합한 누르하치를 공략하기 위해 몽골 코르친부와 여러 여진 부족이 연합한 사건이 있었다. 9부 연합군의 일원으로 초기에 누르하치에 적대적이었던 몽골 코르친부는 1593년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지속적으로

누르하치에 의해 복속이 강화되었다. 누르하치가 몽골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던 이유는 북방 유목민족에 있어 원나라의 대몽골제국 경험의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몽골제국의 대칸이 한^汗을 지정하고 인정하면 제 북방족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1606년, 내칼카 5부의 바유티부가 누르하치에게 ‘쿤둘런 한^{Kundulen Han}(존경스러운 임금)’이란 존호를 헌상하자 누르하치는 이후 한 호칭을 사용했다. 명실상부하게 여진과 몽골 전체에 천하를 다스리는 권위를 강화하게 되었다.

한편,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는 남은 여진세력이었던 예허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예허는 누르하치의 공세에 대응하여 누르하치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통합을 중시하였던 누르하치와 예허는 여러 차례 군사적으로 충돌했다. 그러나 예허는 일방적으로 패배하지 않았다. 이는 예허의 세력이 강했던 점도 있지만, 명이 누르하치를 경계하여 예허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명은 누르하치의 세력 확장에 위협을 인지하고, 조선, 예허 등의 병력을 연합하여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 1619년 사르후전투^{薩爾滸之戰}이며, 결과는 누르하치의 압승이었으며, 여세를 몰아 누르하치는 예허를 정벌하여 복속시켰다.

명은 누르하치의 성장에 지속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정책을 시행했다. 1588년(만력 16) 누르하치가 건주여진을 통합하자 요동도사를 통해 견제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1616년(만력 44) 누르하치는 후금을 건국하고, 팔기군으로 군사체제로 편성하는 등 정명전쟁을 준비했다. 1618년(만력 46) 4월, 후금의 누르하치는 보병, 기병 2만 명이 집결한 자리에서 “칠대한^{七大恨}”을 공표하여 정명전쟁의 시작을 선언했다.⁸

칠대한은 실제 누르하치의 여진통합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고, 명의 요동과 여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반응이라 할 것이다. 칠대한에서 제시된

⁸ 『만주실록』 권4, 천명 3년 4월 13일(임인).

〈표 8〉 누르하치가 정명전쟁을 시작하며 공표한 칠대한^{七大恨}

1. 명이 조부 교창가^{覺昌安}와 부 타쿠시^{塔克世}를 이유없이 죽인 한.
2. 명이 건주여진을 학대하고 예허^{葉赫}과 하다^{哈達}를 편애한 한.
3. 명이 영토 협상을 부인하고 쳐들어와 살인을 자행한 한.
4. 명이 건주여진을 막기 위해 예허부락에 군대를 파병한 한.
5. 예허같은 여진으로 신의를 저버리고 명 앞잡이가 되어 약한녀를 몽골부족에 강제로 보낸 한.
6. 명이 누르하치에게 영토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한.
7. 명 요동총독 소백지^{蕭伯芝}가 권한남용하여 건주여진인을 착복해 도탄에 빠트린 한.

누르하치의 정명전쟁 범위는 공간적으로 요동에 한정되며, 시간적으로 자신의 선대에서 명의 대여진정책 변화의 시점까지였으며, 인간적으로 여진계 부족, 명의 요동관원, 몽골까지 포함했다. 이런 점에서 후금의 정명전쟁은 요동을 장악하고 명을 압박하여 요동과 만주의 지배자로 굴림하는 범위라 할 것이다. 누르하치도 후금의 국력과 군사력으로 중국 대륙의 패자였던 명을 전면전으로 상대하는 어려움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은 그 결과를 모른다. 전쟁을 전개하는 동안 정세와 전황은 급변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국면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정명전쟁의 실제 전투는 후금이 무순^{撫順}을 공격하며 시작되었다. 후금의 공략에 무순은 쉽게 점령되었다. 후금은 지속적으로 요동의 주요 군사기지를 점령하며 명을 압박했다. 이에 명은 양호^{楊鎬}를 경략으로 삼아 후금군을 제압하도록 했다. 1619년(만력 47), 10만 명의 명군이 허투아라^{赫圖阿拉}를 공격하고자 했다. 명은 예허, 조선의 군대를 연합하여 명군 8만8천 명, 조선군 1만5천 명, 예허군 2천 명을 동원했다. 두송^{杜松}, 마림^{馬林}, 이여백^{李如柏}, 유정^{劉綎} 등이 지휘하는 4로군은 각지를 거쳐 허투아라로 진격했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후금의 보병, 기병을 집중과 기동으로 명군을 각개 격파하였다. 유정, 마림, 두송의 부대가 격퇴되자 이여백은 군대를 회군했다. 명청전쟁에서 한 획을 그은 사르후전투^{薩爾滸之戰}에서 후금은 압

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⁹

사르후전투의 결과는 참혹했다. 명군은 이후 철저히 수세적으로 전환되었으며, 예허는 후금에 복속되었으며, 조선에서 파견하였던 강홍립이 지휘하는 조선군은 후금에 투항했다. 참전 병력의 절반을 잃은 명은 불리한 전세가 보고되자 중앙 정치에 내부 혼란이 발생했다. 조선의 입장에서 뒤에 정묘호란, 병자호란의 발발 원인이 된 전투였다.

조선의 병자호란 기억과 인식은 근본적으로 후금에서 청으로 이어지는 만주족에 대한 조선의 입장과 관련된다. 조선이 후금과 실제 대규모 전쟁으로 충돌한 것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아니라 사르후전투에서 명군과 연합하여 후금군과 싸운 전투이다. 이에 참전한 조선군은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원하지 않은 전투로 후금군과 조우했다. 사르후전투에 대한 기억과 전승은 조선의 병자호란 기억과 인식의 저변을 형성했다.

조선군이 명군, 예허군과 함께 누르하치의 여진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인 1619년(광해군 11)의 사르후전투는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후 조선후기 조청군사관계의 근원적인 군사사건이었다. 1616년(광해군 8)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는 정명전쟁을 일으켰다. 후금은 명의 요동군사거점이었던 무순撫順을 점령한 뒤 요동경략遼東經略 양호楊鎬의 군대를 격파했다. 양호의 군대와 후금군의 전투가 사르후전투이다.

급성장하는 누르하치의 후금을 제압하기 위해 요동경략에 임명된 양호는 후금 북방의 예허, 남방의 조선에 군대파견을 강요하여 연합군을 구성하여 후금을 압박하고자 했다. 명의 파병요구를 받은 조선의 광해군은 임진왜란시 명군 참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원수 강홍립이 지휘하는 1만

⁹ 최형국, 「17세기 대북방 전쟁과 조선군의 전술 변화 -심하전투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133, 육군군사연구소, 2012, 109~136쪽; 박현규, 「강홍립 조선군의 심하전투 참전지리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63, 한중인문학회, 2019, 101~1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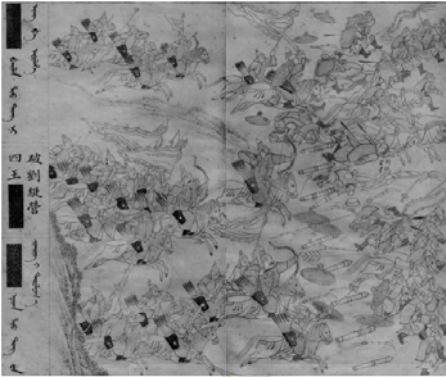
병력을 파견했다.¹⁰ 양호는 전체 병력을 사로군(四路軍)으로 편성하여 후금의 본거지 허투아라를 포위하여 공략하고자 했다. 북로군은 개원총병(開原總兵) 마림(馬林)이 예허군을 배속시켜 지휘했고, 서로군은 산해관총병(山海關總兵) 두송(杜松)이 2만 5천 명을 지휘했는데, 이들 북로군과 서로군은 사르후에서 양호의 군대에 합세하여 허투아라를 향해 진격할 계획이었다. 남로군은 요동총병(遼東總兵) 이여백(李如柏)이 요양에서 진격하고, 동로군은 요양총병(遼陽總兵) 유정(劉綎)이 명군과 조선군을 함께 지휘하여 단동에서 북상하여 허투아라로 진격할 계획이었다. 경략 양호는 예비병력을 지휘하여 심양에서 전군을 지휘했다.

양호는 후금군의 기병 중심 기동력있는 전투양상을 고려하지 못하고 군사지휘했다. 후금군은 허투아라의 북방 사르후에서 명군이 병력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개 격파하고자 했다. 1619년 3월 1일, 제일 먼저 사르후에 도착한 서로군의 두송은 병력의 우세를 믿고 후금군을 선제 공격했다. 두송은 사르후에 1만 명으로 방어하도록 하고, 1만 5천 명을 지휘하여 후금군을 공격했다. 누르하치는 두송의 공세에 8기의 병력 가운데 2기를 투입하여 방어하고, 6기를 지휘하여 사르후의 명군을 공격했다. 사르후의 명군이 후금군의 기습공격에 붕괴되자 두송의 공격군은 앞뒤로 후금군의 공격을 받아 괴멸되었다.

북로군 마림의 군대는 서로군이 괴멸되는 시기에 사르후 북쪽에 도착했다. 3월 2일, 두송군의 패전소식을 들은 마림은 방어전을 준비했다. 후금군과 명군의 격전이 벌어졌지만, 명군의 후속부대였던 반종안의 군대가

¹⁰ 『광해군일기』 권130, 광해 10년 7월 4일(경인). 광해군은 명의 파병요구에 대해 경략 양호에게 자문을 보내며, 문서제목을 “朝鮮國王爲興師討逆事”라고 하여 명의 토역에 대한 군사외교사건으로 인식하였음을 명확하게 했다. 즉, 조명관계에서 중심국가 명의討逆에 대해 조선은 勤王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실천한다는 논리였다. 또한, 조선군의 참전은 단순한 군사정책이 아니다. 병력의 조발, 병력의 이동, 지휘체계 협조, 군수지원, 대규모 병력의 참전으로 인한 기존 방어체제의 보완, 명군의 군량 및 군마조달 요구시 대응책 등 조선의 국력이 집중되는 문제였다. 조선군의 대후금전투 참전에 대한 상세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구원하지 않아 결국 북로군은 패배하고 후퇴했다. 후금군은 북로군을 뒤쫓아 후속부대 반종안의 군대까지 격퇴시켰다. 북로군의 패배소식을 들은 예허군은 철수했다.



〈그림 15〉 유정의 사르후전투 장면

(출처 : 『만주실록』 권4)

조선군은 사르후전투에 참전하며 유정군에 배속되었다. 유정이 본진을 이끌고 후금군과 전투하는 동안 조선군은 후진부대와 함께 있었다. 유정의 본진을 격파한 후금군이 조선군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조선군이 결국 항복했다.

양호는 서로군과 북로군의 패배를 보고반자 남로군과 동로군의 진격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문제는 동로군이 진격속도가 빨라 양호의 명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유정이 지휘하는 동로군은 초전에 허투아라 남쪽의 후금군을 격파하고 진격했다. 누르하치는 후금 전군을 재집결시켜 동로군에 대응했다. 3월 4일, 후금 선발대가 동로군과 접전하였는데, 이어 후금 본진이 동로군의 후방을 포위하여 공격하자 명군은 괴멸되었다.

당시 조선군은 유정의 동로군에 배속되었다. 동로군의 본진이 유정이 지휘하여 먼저 출발하자 조선군은 후방부대와 함께 이동했다. 동로군 본진이 후금군과 전투를 할 때, 조선군은 부차(富察)에 주둔하고 있었다. 동로군 본진을 격파한 후금군은 홍타이지를 선봉으로 하여 부차에 도착하여 조선군과 접전했다. 강홍립은 후금군의 기병에 대비하여 조총과 장창으로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역풍으로 조총이 무용지물이 되자 김응하(金應河)가 지휘하던 좌영이 먼저 붕괴되었다. 고지대에 주둔하던 강홍립의 본영은 이 틈간 격렬한 전투를 벌였지만, 식량과 식수 부족으로 결국 후금군에 항복했다.

명의 참전 요구가 있자 조선군은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징발된 1만 명의 포수로 구성되었다. 즉, 당시 조선의 정예 병력이었으며, 조총을 비롯한 화약무기로 무장한 병력이었다. 이들 병력이 참전하여 절반이 전사하고, 절반이 후금에 항복한 것이다. 병력도 문제였지만, 김응하를 비롯한 많은 장수가 전사했다.¹¹ 항복한 강홍립, 김경서 등은 비록 조선의 사정을 후금에 적극적으로 항변했지만, 조선군의 참전은 조선과 후금의 군사충돌의 빌미가 되었다. 조선은 사르후전투 이후 평안도에 대한 방어를 강화했지만, 정예병력을 소모한 상황이라 내실있는 정책시행은 어려웠다.

병자호란 이후 사르후전투에서 전사한 김응하에 대한 현창^{顯彰} 과정은 조선의 후금인식을 잘 보여준다. 3월 3일에 사르후전투가 있었으며, 9일이 경과한 3월 12일, 평안감사가 전투경과와 패배 사실을 광해군에게 보고한다. 광해군은 전사한 김응하를 증직^{贈職}하고, 사르후전투에서 전사한 장병을 위해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이후 4월에 강홍립의 논죄논쟁이 벌어졌으며, 비변사에서 김응하의 장례 및 판서로 추증^{追贈}을 건의하자 광해군은 제수^{祭需}를 하사했다.¹²

광해군은 의주에 김응하의 사당을 세우도록 명하자 예조에서 사당 건립 계획을 보고하고, 사당에 ‘충렬^{忠烈}’이란 편액을 하사했다. 뒤이어 김응하는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¹³ 사르후에서 전사한 김응하의 현창작업은 조선이

¹¹ 유미나, 「深河戰鬪의 名將 金應河와 "忠烈錄" 판화」, 『이문학연구』 1 2-1, 인문학연구소 열린정신, 2011, 97~147쪽.

¹² 『광해군일기』 권138, 광해군 11년 3월 12일(을미); 19일(임인); 21일(갑진); 139권, 4월 26일(기묘). 평안감사의 보고에 의하면, 참전한 지휘관 가운데 평안도의 지방관은 定州牧使 文希聖, 昌城府使 朴蘭英, 宣川郡守 金應河, 順川郡守 李一元, 雲山郡守 李繼宗, 永柔縣令 李有吉, 江西縣令 黃德鎡 등 7개 고을 수령이었다. 이들 가운데 김응하, 이계종, 이우길은 전사하고, 나머지 4명은 항복했다. 이에 광해군은 순변사 禹致禧를 평안병사로 임명하여 긴급하게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도록 했다. 광해군의 지시를 받은 비변사에서 사르후에서 돌아온 愼己男과 韓忠立의 공초에 의거하여 김응하, 李有吉, 李繼宗이 전사했음과 전사한 장수가 더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계속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실상을 확인한 뒤 조치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김응하의 아우였던 검선전관 金應海에게 김응하의 가족을 데려오도록 했다.

¹³ 『광해군일기』 권140, 광해군 11년 5월 6일(무자); 18일(경자); 권141, 6월 21일(임신);

후금, 청을 어떻게 인식하고, 병자호란 이후 관련 전사상자에 대한 현장작업으로 이어졌음을 통해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에 대한 조선의 인식흐름을 보여준다.

1616년 정월 초하루 후금의 건국을 선포한 누르하치는 정명전쟁에 앞서 2년 동안 일부 군사력을 동북 방면으로 파견하여 흑룡강 중류에서 무단강 동쪽까지 평정하고 변방을 안정시켰다. 이는 후금의 전형적인 전쟁수행 방식이었다. 후방이 안정되자 누르하치는 1618년 칠대한을 반포하여 공식적으로 정명전쟁을 시작했다. 누르하치를 대신하여 후금의 한이 된 홍타이지가 먼저 조선을 제압하기 위해 정묘호란을 일으킨 것과 청을 건국한 뒤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을 청의 국제질서에 편입시킨 뒤 명청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점도 후방을 안정시킨 뒤 주력 전쟁을 수행하는 청의 전쟁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명은 즉시 전쟁 준비에 돌입하여 국내 각지에서 8만여의 병력을 동원했다. 그리고 파견에 소극적인 조선을 압박하여 동원한 조선군 1만 3천 명, 해서여진 4개 부 가운데 마지막까지 후금에 저항하던 예허에서 동원한 병사 2천 명을 합하여 총 10여만 명의 연합군을 준비했고 4개 부대로 분산하여 후금을 공격했다. 이 사르후전투는 누르하치 인생의 최대 위기였다. 전투에 동원된 후금군은 4~7만 명이였다. 소수의 군대로 다수의 적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전략이 필요했다. 누르하치는 후금군을 최소한으로 분산 주둔시키고, 필요하면 분산된 병력을 신속하게 집중하여 연합군을 사방에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투했다. 또한, 후금군의 전술을 고려하지 않고 기세 당당하게 진격하는 연합군을 척후병을 통해 파악하고 각개 격파하였다. 사르후전투 결과는 처참했다. 사르후전투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명청 교체의 역사적 흐름이 본격화된 것이다.

『忠烈錄』(奎12020).

한편, 사르후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금은 1621년에 심양, 요양 등 요동의 주요 군사요충지를 점령하고, 명군을 산해관 근처로 압박했다. 이에 누르하치는 1625년 요양에서 심양으로 천도했다. 사르후 전투가 끝난 직후 누르하치는 승전의 여세를 몰아서 명의 개원과 철령을 함락했으며 해서여진 가운데 마지막 남은 예허를 멸망시켰다. 1621년 허투아라에서 요양으로 수도를 이동했다. 신생국가인 아이신 구룬이 피정복 부락에서 끌고 온 인구를 부양하고 국가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산지에 위치한 허투알라에서 광활한 평야지대이자 농업생산의 중심지인 요양으로 천도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1622년(천명 7) 누르하치는 기존의 요양성 동쪽 태자하太子河 유역에 동경성東京城을 건설하여 천도하고, 요양을 중심으로 요동을 지배했다.¹⁴ 누르하치는 요양 천도를 언급하며, 북쪽의 몽골, 동남쪽의 조선이 후금 건국 및 내조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정명전쟁이 마무리되면 때를 타서 정벌하겠다고 했다. 후금이 전력을 집중하여 정명전쟁을 수행하지만, 항상 조선이 명과 연계하여 군사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후금이 요양에 천도하며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다. 건주여진 통합, 여진 통합, 후금 건국 등 긴박한 누르하치의 정명전쟁 과정은 수도를 허투아라에 두었다. 그러나 요동의 중심지인 요양으로 천도하며 한족을 지배하는 과정에 각종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생활습속의 차이도 있지만, 많은 여진인이 요양으로 이주하자 거주공간 및 각종 물자가 부족했다. 여진에 대한 한족의 거부감과 천시함도 문제였으며, 여진의 한족에 대한 강압도 문제였다. 결국 후금은 허투아라에서 이주해 온 여진인을 한족과 한 집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만한동거滿漢同居 정책을 추진했다. 결국 한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상호 가해를 입히는 사태가 빈발했다. 후금을 건국하고 정명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누르하치의 입장에서 여진에 대한 지지를

¹⁴ 『청태조실록』 권8. 천명 7년 3월 3일(을해).

천명할 수 밖에 없었다.

누르하치는 수도를 요양에서 심양으로 옮기고 대규모 궁궐을 조성했다. 명에 비해 통치체제가 미흡하고, 각종 물자, 병력 등이 모두 부족했다. 그럼에도 전투에서 승리하는 상황에서 후금은 수도를 허투아라에서 요양으로, 심양으로 옮기며 통치의 권위를 갖추고자 했다. 여진의 제 부족과 몽골 등에게 후금의 통치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후금은 최대한 병력과 자산을 징발하고 주변 세력을 통합하여 정명전쟁을 추진했다.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을 상대로 전쟁을 도발하여 여진을 통합한 후금은 결코 정명전쟁을 중단할 수 없었다. 사르후전투 등을 승리로 이끈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정명전쟁을 중단하면 명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정벌할 것은 명약관화했다. 또한 기존에 통합하였던 여진의 제 부족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여 상호 갈등하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다. 1625년 심양으로 천도한 누르하치는 요동을 넘어 중국 대륙을 향한 정명전쟁을 재개했다.

요동 전역을 장악했지만, 조선의 가도에 주둔한 명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후금의 배후를 공격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 시기부터 후금은 배후의 모문룡을 눈의 가시로 여겼다. 모문룡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행할 수도 있었지만, 후금의 당면과제는 신속하게 산해관을 넘어 북경으로 진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군사요충지 영원성(寧遠城)을 제압해야 했다. 영원성은 명의 원숭환(袁崇煥)이 방어하였다. 원숭환은 후금군의 기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종 화포로 무장하여 수성전을 준비했다. 이때 명군은 홍이포(紅夷砲)를 준비했다.

당시 후금이 동원할 수 있는 가용전력을 집중한 누르하치는 1626년 음력 1월 24일 새벽에 영원성을 공격했다. 기습공격으로 성을 함락시키려는 후금군의 공세에 명군은 화포와 개인화기로 응사했다. 당시 원숭환은 서양에서 구입한 홍이포를 비롯한 신식화포와 전통적인 명의 화포를 성벽에

배치하여 후금군의 접근을 방지하고, 기동성 있는 기병을 제압하기 위해 개인화기로 무장했다. 1차 공격은 후금군의 패배였으며, 후금군은 방패차를 활용하여 영원성에 접근하고자 했다. 원숭환은 홍이포 등 화포로 원거리 후금군을 공격하고, 근접한 병력은 개인화기를 활용하였으며, 공성장비에 대해 수성에 필요한 화약과 기름을 활용하여 방어했다. 후금군의 병력 우세에도 불구하고 영원성전투는 일방적으로 후금군에 불리했다.

처음 누르하치는 영원성전투에 대해 매우 낙관하였다. 여진 통합전쟁을 여러차례 치르며 기병에 의한 평지전투뿐만 아니라 요동의 여러 성을 공략할 때 공성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원숭환이 지휘하는 명군은 영원성전투를 준비하며, 10여 문의 홍이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포를 준비하고, 소화기로 개인화기를 성첩에 준비하고, 각종 인화물질과 화약을 성벽과 성문 방어에 활용했다. 실제 후금군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화약무기의 전투였다.

계요총독 薊遼總督 왕지신 王之臣이 천계제에게 올린 보고서에 영원성전투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날 다시 전날과 같은 싸움이 벌어졌다. 미시에서 신시에 이르기까지 적은 감히 성 가까이 오지 못했다. 그리하여 주장이 직접 병사를 성 아래로 몰아붙이고 돌아갔다. 하지만 적의 사상자는 전날보다도 많이 나왔다. 서문 밖 벽돌가마에 수습한 시신을 쌓아 주변 민가를 헐어 태웠다. 누런 연기가 들판을 덮었다. 그날 적은 공성기계를 이용해 밤새 공격을 해왔으나, 우리 병사들은 이를 뺏거나 노획했고, 전날처럼 많은 수급을 얻었다.”¹⁵

왕지신은 영원성전투를 보고하며 상으로 은 18,366냥을 하사할 것을

¹⁵ 『명희종실록』 권70, 천계 6년 4월 19일(신묘).

긴의했다. 영원성전투는 누르하치가 처음으로 패배한 전투이자 부상을 입고 사망하는 계기가 된 전투이다. 또한, 영원성전투로 누르하치를 이어 즉위한 홍타이지는 조선에 후금군을 보내 정묘호란을 일으켰다. 조선의 입장에서 영원성전투 결과에 따라 조선이 후금의 공격을 받았다.

영원성전투의 군사사적 의미는 누르하치의 사망이었다. 여진의 통합, 정명전쟁 등 산적한 정치, 군사적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1626년 8월에 누르하치가 사망했다. 건주여진의 통합, 여진 통합, 정명전쟁 등으로 소수 부족에서 동북아시아 강국으로 후금을 이끌었던 누르하치의 사망은 후금의 위기였다. 심각한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주변 세력을 제압하여 후금의 위기를 해결할 과제를 안고 홍타이지가 즉위했다. 내부적으로 여진 세력 간 갈등은 고질적인 문제였으며, 몽골, 한족과 공존의 문제 등도 심각한 현안이었으며, 대외적으로 주변 세력과의 마찰을 해결하고 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야 했다.

누르하치 사후 한을 이어받은 홍타이지는 대내외 현안을 해결하는 지향점을 정명전쟁에 두었다. 대외 정복전쟁은 여러 현안을 흡수하는 가장 큰 명분이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치열한 정명전쟁이 지속되자 병력의 충원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확대되는 점령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인구의 유입이 필요했다. 이는 후금의 운명을 좌우할 문제였다. 정치적으로 홍타이지는 절대권력자가 아니었다. 비록 한으로 추대되었지만, 다양한 부족 연합체의 우두머리일 뿐이었다. 이는 팔기제의 구성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팔기 가운데 후금의 한에게 소속된 팔기는 3개였다. 나머지 팔기의 수장이 연합하면 언제든 권력쟁탈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었다. 이에 홍타이지는 누르하치시기에 추진했던 인구 유입을 위한 원정을 실시했다.

누르하치의 여진 통합은 실제 동해여진이 제외되었다. 건주여진에서 시작된 통합전쟁은 요동과 인접한 해서여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후금은 초기에 예허를 견제할 목적으로 동해여진을 정복했다. 그러나 후금은 여

진을 통합한 뒤 정명전쟁에 실질적인 병력의 부족이 발생하자 동해여진 인구의 유입을 목적으로 후금 건국 이후 입관 전까지 총 24번의 동해여진 원정을 단행하여 인구를 이주시켰다. 이렇게 유입된 동해여진의 인구는 후금의 팔기제 성립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홍타이지는 동해여진 원정을 통해 총 3만 명(남정男丁은 1만 명)을 넘는 인구를 유입했다.

후금은 빈번한 정명전쟁에 대한 반대급부로 노획물을 보수 개념으로 지급했다. 일례로 후금이 동해여진을 원정했을 때 노획한 것은 호구戶口: boigon와 전리품物利: olji으로 구분되었다. 호구는 남정과 그에 딸린 여자, 아이, 말, 소 등이며, 전리품은 모피와 의류, 은, 인삼 등 물품과 주인되는 남정이 없는 여자, 아이, 말, 소가 포함되었다. 이때 전리품은 출정한 팔기군과 병사들에게 보수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급되는 전리품은 팔기군의 보수로 많이 부족했다. 후금은 원정으로 유입된 호구를 팔기에 편입시키며 정착을 위한 일체의 물품을 지급해야 했다. 즉, 동해여진 원정은 후금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되었다.

홍타이지는 이런 재정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유입된 동해여진 호구를 팔기가 균분하던 방식을 바꿔 남정이 부족한 구사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처음 팔기제를 만들고 난 뒤 지속적으로 구사의 휘하에 니루의 수가 불균형한 폐단이 있었다. 홍타이지는 팔기의 니루 수를 30개로 통일하고, 남는 니루는 해체하여 부족한 구사에게 주자는 개혁을 추진했다. 홍타이지는 잉여 니루를 이용한 팔기제의 전반적인 재정비를 추진했다. 홍타이지는 필요한 유입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1634년 대규모 동해여진 원정을 단행했다. 홍타이지는 신설된 18개 니루 가운데 13개를 자신이 지휘하는 팔기에 분배하여 권력 재편의 계기로 활용하기도 했다.¹⁶

홍타이지는 즉위 후 여진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몽골, 한족의 불만

¹⁶ 이옥지, 「천총 8-9년 후금의 동해여진 원정과 홍타이지의 팔기 개혁」, 서울대석사학위논문, 2019.

을 무마할 목적으로 정명전쟁을 보다 강화했다. 영원성전투의 타격이 여전하였던 상황에서 후금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정명전쟁에 집중하기 위해 홍타이지는 요동의 동남쪽에 위치하여 친명의 정책을 가졌던 조선을 공격했다.

1627년 홍타이지는 3만 5천 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조선을 침입하여 정묘호란을 일으켰다. 건주여진 통합에서 영원성전투까지 실전 경험이 풍부한 후금군은 조선군을 일방적으로 공략했다. 의주에서 시작하여 한양까지 진격한 후금군은 조선군을 일방적으로 공략하여 형제지맹(兄弟之盟)을 맺고 철군했다.

정묘호란으로 조선의 친명 활동을 제약한 홍타이지는 1629년(천총 3) 내몽골의 차하르를 공략하여 만주 전역을 장악했다. 후금의 정명전쟁에 극적인 장면 중 하나는 한족 명장(明將)의 투항이다. 1633년(천총 7)에 공유타(孔有德)와 경중명(耿仲明)이 명군을 이끌고 후금에 투항했다.¹⁷ 명장이 투항하자 명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후금이 상대적으로 월등하였던 명군의 무기체계를 흡수하였다.

약 10년의 후금 정비 및 통치체제를 정립하는 기간을 가졌던 홍타이지는 1636년 청을 건국했다. 청의 건국은 국가 위상을 명과 동급으로 하여 주변 세력에 과시하는 효과도 있고, 내부적으로 세력 갈등을 무마하고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행정체제를 갖추어 통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명분과 제도의 마련이란 의미가 있다. 명 황제와 같은 황제로 홍타이지는 기존의 정명전쟁을 명청전쟁으로 바꾸어 전면전을 시행했다.

청 홍타이지는 명청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전쟁으로 조선의 병합을 추진했다. 여전히 원만한 조명관계를 유지하는 조선을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시켜 군사, 경제, 정치적 지원을 확보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명을 동북

¹⁷ 『명승정실록』 附錄, 승정 6년 4월 5일(병인).

아시아에서 고립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1637년 홍타이지는 기존 조선과의 전쟁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청의 군사 장점을 활용한 전쟁을 벌였다. 기동력을 활용한 기습공격으로 조선 국왕을 고립시키고 구원하는 군대를 각개 격파하는 여진 특유의 군사작전이 었다. 병자호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선발대에 이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청은 3개월의 병자호란으로 조선을 완전히 제압했다. 조선 인조의 삼전도 굴욕을 통해 조선을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시킨 홍타이지는 본격적인 명청전쟁을 전개했다.

명청전쟁의 선봉이었던 도르곤^{多爾袞}은 청군을 지휘하여 관외 대부분 지역을 점령했다. 그 결과 산해관을 두고 명청전쟁의 절정적인 장면이 이어진다. 천혜의 요충지 산해관을 점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전투이다. 이 상황에서 청의 큰 사건이 발생했다. 1643년(숭덕 8) 홍타이지가 사망한 것이다. 누르하치 이후 그나마 절대 권위를 가지고 청을 건국하는 등 일련의 개혁작업을 추진하던 홍타이지가 사망하자 청은 다시 권력 갈등의 혼란에 빠졌다. 홍타이지를 이어 어린 순치제가 즉위하자 당시 최고 권력자 도르곤이 보좌하는 형식의 국정운영이 이루어졌다.¹⁸

청군과 산해관에서 대치하던 명은 내부의 반란으로 붕괴되었다. 명의 멸망은 이미 오랜 전조현상이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농민반란이다. 농민반란은 벼랑에 몰린 농민의 마지막 수단이었던 반란을 선택한 역사사건이라 할 것이다. 중국사에서 역사 농민반란은 역사의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진나라에 대해 진승과 오광의 난, 한나라 말에 일어난 황건적의 난, 당나라 멸망의 원인이 된 황소의 난, 송나라 말기의 방랍의 난, 명대 등무칠과 유육·유칠의 난 등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혼란을 배경으로 발생한 농민반란은 그 조직력이나 군사력의 한계로 대부분 실패하

¹⁸ 박민수, 「홍타이지 시기(1627-1643) 만주의 對 중국 전략」, 『군사』 107, 2018, 193-235쪽.

지만, 일부는 국가의 교체라는 역사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당연히, 명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가 내부 반란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가 없지만, 명은 특히 심했다. 만력제 이후 주요 농민의 난은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는 명의 통치질서가 이완되었음을 보여준다.

명은 환관정치, 내각정치로 대표되듯이 환관과 내각이 국가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운영되었다. 명말에 정치부패, 군 기강 해이, 막대한 전비 지출, 황제의 대규모 공사 남발 등이 겹쳐 국가재정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혹한 수탈을 전국적으로 자행했다. 문제는 수탈의 피해자는 일반 백성들이었으며, 그 대부분이 농민이었다. 이에 연이은 자연재해는 더욱 농민을 곤궁으로 몰아갔다.

후금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하여 공격했음에도 영원성전투에서 패배하여 누르하치가 사망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명의 서쪽 지방에서 또 다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섬서陝西성에서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 반란으로 평가받는 이자성의 난이 일어났다. 섬서성에서 이자성의 난은 어찌 보면 2차 반란이라 할 것이다.

섬서성은 몽골과 서방 세력을 방어하는 군사 요충지역으로 험난한 지형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던 지역이다. 섬서성에 대기근이 발생하자 막다른 절망감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농민반란은 그 시작은 대부분 폭동의 형태였다. 기근이 들어 곤궁한데 가혹한 수탈이 가해지면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였다. 폭동에 대해 국가에서 구호 내지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곧 해결되었지만, 실제 대부분 농민폭동에 대해 국가는 원인을 살피기보다 강경한 진압으로 대응했다. 결국 폭동은 국가를 대상으로 반란이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지만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던 섬서성에 연속 3년간 가뭄이 들자 백성들의 삶은 붕괴되고, 관리들의 탐학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1627년(천제 7) 3월 백수白水의 농민 왕

이^{王二}, 정언천^{鄭彦天}이 굶주린 농민을 인솔하고 현청이 있던 등성^{澄城}에서 지방관 지현^{知縣}을 죽이고 봉기했다. 명의 멸망을 초래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명말 농민반란의 서막이었다.

또한 명의 전쟁과 관련된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었다. 당시 명은 만력 연간에 발생한 재정난을 타개하고 요동에서 누르하치에 의해 일어난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자 전국의 역참^{驛站}을 폐지하였다. 요동의 전쟁에 필요한 비용은 후금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더욱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매년 군사 비용으로 은^銀 280만 냥에서 2천만 냥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농민에게 그 부담이 갔지만, 명은 역참의 폐지라는 조치까지 취하였다. 역참 폐지는 업무를 보던 역졸^{驛卒}과 군인의 반발을 초래했다. 역졸과 군인의 반발은 결국 반란으로 확대되어 여러 지역으로 번졌다. 왕가윤^{王嘉胤}·고영상^{高迎祥} 등이 지휘한 반란군은 3~4만 명의 병력 규모로 산서, 하남 등지로 세력을 확장했다.

섬서성의 농민, 역졸 등으로 구성된 여러 반란군은 왕가윤, 고영상 이외에 왕대량^{王大梁}, 장존맹^{張存孟} 등이 지휘했다. 섬서성에 반란이 확대되자 명은 북경방어를 위해 1629년, 산서, 연수^{延綏}, 감숙^{甘肅} 등지의 병력을 차출했다. 그러나 명대 군역체계에서 엄연히 군역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재정이 부족하여 이를 낮게 지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각지에서 차출된 병력은 국경방어를 위해 이동하는 중, 반대급부가 너무 낮다는 이유를 들어 각지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반란군에 가담하기도 했다.

원래 산서성 연안^{延安}의 중농^{中農} 출신이었던 이자성은 가세가 기울어 목동·역졸·군인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반란에 참가했다. 사람을 지휘하는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낸 이자성은 1631년 부대장으로 승진하고, 1636년 고영상이 전사하자 수령을 계승하고 틈왕^{闡王}이라 자처했다. 일반적으로 반란은 군사반란이 아니면 대부분 성공하기 어렵다. 이는 반란군이 직업 군인이 아닌 농민이나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군사작전에 익숙하지 않았다.

반면 진압군은 전문 군인집단이다. 그러므로 전통시대 반란은 국가에 의해 진압되는 역사적 결말을 맞이한다. 그러나 이자성은 다른 반란군이 명군에 투항하였음에도 계속 항쟁을 이어갔다. 농민반란의 과정을 정리해보면, 1630년 2월 연수를 방어하던 명군 신일원^{神一元}과 신일괴^{神一魁} 등이 반란군에 합류하는 등 반란군의 세력이 확장되었다.

섬서성의 반란군이 세력을 확장하자 명은 후금군을 대응하던 병력을 옮길 수는 없어 농민을 회유와 설득하는 정책을 펼쳤다. 반란군의 확대를 막는 임무는 삼변총독^{三邊總督} 양학^{楊鶴}이 맡았다. 그러나 성난 농민의 기세를 무마하지는 못했다. 양학을 이어 섬서총독으로 취임한 홍승주^{洪承疇}는 강경 진압을 천명하고 농민군을 공격했다.

진압군의 출정에 반란군은 섬서에서 산서성으로 이동하여 장헌충^{張獻忠}, 나여재^{羅汝才}, 마광옥^{馬光玉}, 왕자용^{王自用} 등 개별 부대별로 분산 활동했다. 이 시점에 이자성이 고영상의 부대에 몸을 담았다. 1633년 반란군은 하북지방 자현^{磁縣}에서 진압군과 격전을 벌였다. 진압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반란군을 취합한 이자성은 독립적인 반란군 수장으로 등장했다.

고영상, 이자성을 비롯한 반란군은 10여만 명의 병력을 모았지만, 여전히 명군을 전면적으로 대항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모색한 방안이 지역에 한정된 지휘권과 작전권을 부여받은 명군의 성격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을 넘어 명군을 공격하는 작전을 펼쳤다. 반란군이 이러한 작전개념을 세우자 명은 진기유^{陳奇瑜}를 섬서, 산서, 하남, 호광, 사천의 지휘권을 일원적으로 갖는 오성총독^{五省總督}으로 임명하여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했다.

진압군의 소집 및 진격 속도보다 반란군의 이동 및 점령속도가 높아 반란군의 세력확대는 계속되었다. 이자성은 하남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1641년에 낙양을 점령했다. 이자성의 반란군이 승리하였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엄정한 군기였다. 또한 점령한 지역을 행정적으로 지배하는 실효적 조치를 취한 점이다. 이는 점령지 민심을 사로잡는 원인으로 군전제

均田制 실시, 조세租稅 철폐 등 획기적인 지배정책을 펼쳤다. 이들 정책은 단기간의 민심을 얻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정상적인 국가경영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 실시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이자성은 1643년 서안을 점령하고 대순大順을 건국했다. 국가 건국에 따라 관제를 정비하고 화폐를 발행했다. 이자성은 섬서성을 근거지로 하는 세력이므로 물자와 인구가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여 북경을 향해 군사력을 몰아갔다. 명군이 체계적으로 전력을 정비하여 진압한다면 자신에게 승산이 없다고 이자성은 판단했다. 이에 이자성은 자신의 세력이 건국의 분위기에 취한 상태에 있을 때, 명 황실을 몰아낸다는 명분을 내걸고 북경으로 전력을 집중했다.

당시 명군의 주력은 청군과 대치한 산해관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력뿐만 아니라 명의 군사체제에서 각종 군수물자 등도 청군 방어에 집중되어 명의 잔여 군사력은 지역방어도 힘든 실정이었다. 이자성의 군대는 별다른 전투없이 쉽게 북경에 진입했다. 이자성군의 진격에 직면한 북경의 방어군은 흩어져 도망했다. 1644년 명 숭정제崇禎帝가 자살하면서 명은 멸망했다.

북경을 점령한 이자성은 산해관을 지키는 오삼계吳三桂의 투항을 권고했다. 물론 오삼계는 이를 거부했다. 비록 북경을 점령하고 명 황실을 무너뜨렸다고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오삼계의 투항이 없으면 이자성의 통일전쟁은 불가능했다. 이에 이자성은 군대를 산해관으로 보내 오삼계를 공격했다.

1644년(순치 1) 이자성李自成의 반란으로 서안, 개봉, 낙양 등지가 점령되고 북경마저 점령되었다. 산해관을 지키던 오삼계吳三桂는 군사적 선택에 직면했다. 오삼계는 내부에서 이자성의 반란군을, 외부로 청군을 대응해야 했다. 이자성의 군대를 직면한 오삼계는 청과 교섭했다. 이 교섭은 청이 명 정세를 파악하고 먼저 제안했다. 오삼계는 현실적으로 강력한 청군과

연합하여 명분적으로 역도^{逆徒} 이자성을 진압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오삼계의 4만 병력과 도르곤의 18만 병력은 북경을 점령하고 이자성을 서북쪽으로 몰아냈다. 이자성은 산해관에서 오삼계와 전투를 벌였지만, 청군과 연합한 오삼계군에 의해 대패했다. 오삼계는 청에 투항하여 이자성의 군대를 추격했다.¹⁹

이자성은 산해관전투에서 대패하자 북경으로 퇴각했다가 바로 서안으로 후퇴했다. 청군은 오삼계 등 투항한 한족 장수들에게 이자성을 추격하도록 하였다. 이자성은 결국 호북성까지 퇴각하다 자살했다. 비록 이자성은 사망했지만, 농민반란 잔존세력은 남명에 투항하여 반청세력으로 투쟁했다.

청의 산해관전투, 이자성의 반란, 청군의 입관과 북경점령, 청의 북경천도 등은 병자호란 이후 조청관계에 큰 충격을 준 군사사건이다. 이를 일자의 관점에서 보면, 1644년(순치 1) 4월 9일, 도르곤이 지휘하는 청군은 성경^{盛京}을 출발하여 4월 22일, 산해관을 넘어 5월 2일, 이자성군이 빠져나간 북경에 입성했다. 순치제가 북경 천도를 선언하고, 8월 20일, 성경을 출발하여 9월 19일, 북경에 입성하고, 10월 1일, 자금성^{紫禁城}에서 새로 대청제국의 황제로 즉위식을 거행했다.²⁰ 순치제가 북경에서 즉위식을 거행하여 청의 명청전쟁은 승전으로 마무리되었다.

광해군의 군사정책과 인조반정

조선은 정묘호란, 병자호란의 패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조선은 나름대로 전쟁에 대비했다. 조선의 대비책은 광해군 말기 상황에서 시작된다. 1623년(광해 15) 조선의 정세는 격변기였다. 서인의 주도로 광해군의 폐모살제^{廢母殺弟}와 후금과의 화친정책을 명분으로 인조반정^{仁祖反正}이 발생했

¹⁹ 박민수, 「1644년 山海關 전투와 淸軍의 北京 입성」, 『중국사연구』 110, 2017, 103~145쪽.

²⁰ 박민수, 「攝政王 도르곤의 北京 점령과 遷都의 실행」, 『명청사연구』 48, 2017, 455~501쪽.

다. 인조는 조선의 정책을 승명배금(崇明排金)으로 결정하고 광해군대 전반에 대해 개혁을 천명했다.²¹ 성리학적 정치이념에서 반정은 매우 위험한 정치 행위이다. 반정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천명과 달리 현실적으로 인조정권 역시 세력을 확장하는 후금을 마냥 적대시할 수 없었다. 다만 공세적 태도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광해군의 화의론(和議論)과 기미책(羈縻策)을 유지하고자 했다.²²

임진왜란 이후 선조는 파천(播遷)과 명군 참전으로 인해 추락한 통치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가졌다. 전쟁 피해와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은 국왕에게 있었다. 선조는 전쟁기 조선군의 패전 책임은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사회에 있으며, 자신이 지성 사대(事大)하여 명군의 참전을 유도하고 일본군을 몰아냈다고 인식했다. 선조의 이런 시대인식은 선무공신(宣武功臣)보다 호종공신(扈從功臣)을 중시하는 책봉에 반영되었다.²³

조선은 전쟁이란 국가 경험을 통해 통치질서 개념을 변화시켰다. 국가의 지향은 유교적 왕도정치였지만, 전쟁이란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면 유교적 지배질서를 표방하면서도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체제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필요했다.²⁴ 즉, 임진왜란이란 국제전쟁을 겪고 통치권위가 무너지고 전국이 황폐되었지만,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체제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대외관계는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재조지은의 인식이 강화되어 더욱 친명 경향으로 진행되었다.

선조를 계승하여 즉위한 광해군은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대륙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집중하여 대응하고자 했다. 조선의 관점에서 보면, 조선·여진관계, 조선 후기 조정 군사관계는 광해군대 군사상황과 군사

²¹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 3월 14일(갑진).

²²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353~373쪽.

²³ 김경록, 「임진전쟁 이후 유몽인의 시대인식과 <여우야담> 편찬」, 『동아시아문화연구』 95, 2023.

²⁴ 허남린, 「규율과 질서 : 임진왜란과 유교적 사회질서」, 『국학연구』 14, 2009.

정책에서 시작된다. 광해군은 조선 15대 군주로 선조의 둘째 아들이다. 문제는 선조의 후궁 공빈 恭嬪 김씨 金氏 소생, 즉 왕비의 소생이 아니란 점이다. 광해군은 즉위 이후 대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빈 김씨를 공성왕후로 격상시켜 종묘에 위패를 모셨다. 이는 정실 소생이 아닌 점으로 자신의 정통성에 반발할 수 있는 시각을 차단하려는 광해군의 정치적 행위였다.²⁵

한편, 친형 임해군 臨海君이 있었지만, 이미 임진왜란기 세자에 책봉되어 분조를 이끌었던 점에서 왕위계승의 책임자는 광해군이었다.²⁶ 이때 광해군은 18살이었다. 광해군의 분조는 전쟁기 백성들에게 조정의 존재를 알려 민심을 수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쟁 이후 광해군의 입지는 매우 위태로웠다. 광해군에게 여진은 함경도로 피난한 친형 임해군 등을 사로잡아 일본군에 넘긴 국경인 鞠景仁의 반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각인되었다.²⁷

명군이 참전하며 임진왜란의 전황은 급변했다. 그러나 명군은 강화협상에 방점을 두고 전투의지가 없었다. 1593년 10월, 명군은 분조 활동을 하였던 광해군으로 하여금 선조를 대신하여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군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광해군은 삼정승을 위시한 대신이 소속된 무군사 撫軍司를 이끌고 전라, 충청도 일원에서 병력소집, 군량조달의 일을 관장했다. 국왕 선조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세자 광해군의 정치적 입장은 매우 위태로웠다. 선조의 양위 讓位소동이 15번이나 있었던 점에서 확인된다.

무엇보다 광해군의 정치적 위상을 위협하는 일은 1606년 인목왕후 仁穆王后

²⁵ 『광해군일기』 권26, 광해 2년 3월 29일(을사); 권27, 윤3월 16일(신유); 권28, 4월 3일(무인); 권73, 5년 12월 11일(갑오); 권91, 7년 6월 13일(무자). 광해군은 공빈 김씨를 慈淑端仁恭聖王后로 추존하고, 殿을 奉慈殿으로, 陵을 成陵으로 하였다. 이를 別廟와 永慕殿에 고하고, 공성왕후의 3대를 追贈했다. 명에 策封奏請使 朴弘壽·李志完을 파견하여 고명을 청했는데, 고명은 사은사 尹昉이 가지고 왔다.

²⁶ 김경록, 「임진전쟁 초기 선조의 전쟁인식과 播遷논쟁」, 『민족문화연구』 92, 2021.

²⁷ 『선조실록』 권36, 선조 26년 3월 11일(병인).

가 영창대군 永昌大君을 낳으며 시작되었다. 선조의 병이 악화되어 섭정논의가 있자 영의정 유영경 柳永慶 등이 선조의 비망기가 있음에도 광해군을 견제했다. 1608년 선조가 사망한 뒤 인목대비의 승인으로 즉위한 광해군은 명으로부터 세자책봉을 받지 못한 점, 적자 영창대군 등 이유로 조정에 권력갈등이 존재하여 권력기반이 취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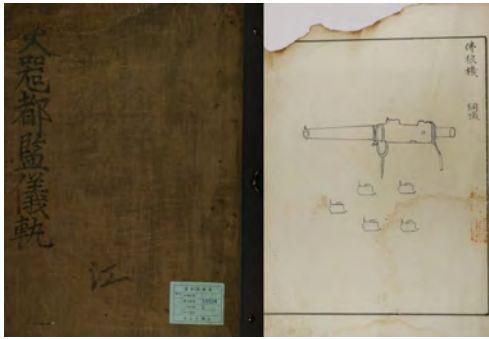
광해군은 정치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파를 초월한 인재등용을 강조했다. 주류였던 대북 이외에도 영의정에 남인 이원익 李元翼을, 비변사에 이항복과 이덕형 李德馨을 맡기고, 서인과 남인의 소장파 이귀 李貴, 김류 金瑬, 정경세 鄭經世 등을 등용했다. 전후복구의 시대사명을 인식한 광해군은 1606년 5월, 경기도에 시행된 대동법 大同法을 확대하고자 했다. 과도한 공물 납부를 줄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1613년(광해군 5) 『동의보감 東醫寶鑑』을 간행하여 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광해군은 전후 사회질서가 붕괴된 점을 예, 충, 절의를 통해 백성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1617년에 『동국신속삼강행실도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을 간행되었다.

그러나 광해군의 통치 의지는 초기부터 정치상황에 따라 좌절되었다. 1610년(광해군 2) 김굉필 金宏弼, 정여창 鄭汝昌, 조광조 趙光祖, 이언적 李彦迪, 이황 李滉을 문묘에 배향하는 문제로 회퇴변척 晦退辨斥이란 논쟁이 발생했다. 문제를 제기한 정인홍에 대해 유생들의 명부인 『청금록 靑衿錄』에서 삭제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즉, 붕당의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뒤이어 1612년(광해군 4) 역모사건이 발생했다. 역모사건은 엉뚱한 사건에서 불거졌다. 국왕의 도장을 위조한 죄를 조사하는 과정에 순화군 順和君의 장인 황혁 黃赫이 순화군의 양자 진릉군 晉陵君을 추대하려고 역모를 꾀한다는 자백이 나온 것이다. 물론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사과정에 주요 대신들이 관여되었다. 역모사건으로 서인과 남인이 축출되고 북인이 정권을 장악했다. 순화군이 연관된 역모사건은 명확한 실체가 없는 사건으로 정치적 피해만 남기고 종결되었다.

1613년에 광해군 치세에 결정적인 정치사건이자 역모사건이 발생하여 계축옥사^{癸丑獄事}라는 비극이 잉태되었다. 칠서^{七庶}로 불리던 명문가 서자들이 서얼금고 폐지를 건의하였지만 거부되었다. 이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화적질하다 은상 살인사건을 저지른다. 이들을 치죄^{治罪}하는 과정에 이이첨^{李爾瞻} 등이 모의하여 영창대군 옹립이란 역모사건으로 변질시켰다. 심문과정에 역모사건을 영창군의 외조부이자 인목대비의 생부 김제남^(金悌男)이 주도했다는 자백이 나왔다. 많은 대신들이 연관되어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최종 결론은 김제남은 사사되고, 영창대군은 교동에 유배되었다가 살해당했다. 문제는 인목대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폐모논쟁이 벌어져 결국 인목대비가 서궁에 사실상 강금되었다.

계축옥사는 광해군의 정치, 도덕적 위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왔다. 폐모살제의 비윤리적 굴레가 씌워진 것이다. 광해군은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권력강화를 뒷받침하는 권위를 높이려고 했다. 존호를 과도하게 받았으며, 임진왜란으로 파괴된 궁궐 조성에 집착했다. 창덕궁을 중건하고, 창경궁을 중수하기도 했다. 궁궐 조성에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달될 수 없었다. 강압적으로 징수를 위한 각종 악습이 시행되어 민심의 이반을 초래했다.

정치,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광해군은 국제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자 했다. 건주여진을 통합한 누르하치가 임진왜란 중에 조선에 접근하여 여진 변호를 회유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이를 인지하였던 광해군은 누르하치의 성장에 주목했다. 누르하치의 침입에 대비하여 유능한 장수를 북방에 파견하여 방어를 강화하고, 부족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수사^{內需司}의 노비를 군인으로 선발하고, 승군을 정비했다. 병력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였던 광해군은 화약무기의 강화에 주력했다. 1614년 조총청^{鳥銃廳}을 화기도감^{火器都監}으로 확대 개



〈그림 16〉『화기도감의궤』

(소장 :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광해군대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여 화포무기를 강화하고자 조총청을 확대 개편한 화기도감은 불랑기를 비롯한 다양한 화포를 주조하여 조선군의 무장을 강화했다.

요구하는 외교문서의 질차, 형식 등을 문제삼아 거부했다. 그러나 명은 지속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군의 파병을 강제했다. 파병을 주장하는 대신들과 명의 요구를 대내적으로 직면한 광해군은 강홍립(姜弘立)을 도원수로 임명하여 1만 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파병된 조선군은 동로군의 유정 휘하에 배치되었다. 1619년 음력 3월에 있었던 사르후전투에서 후금군을 앞잡아본 유정은 본진을 출정시켜 후금의 수도를 점령하고자 했다. 그러나 기병 중심의 기습공격에 전멸하고 후발 지원부대와 함께 뒤에 주둔한 조선군은 후금군과의 격전 끝에 투항했다.

조선군의 파병과 패배는 조선의 군사력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투항한 강홍립은 후금의 군사상황을 계속하여 조선에 알려왔다. 사르후전투 이후 명은 조선군의 재파병을 요구했다. 광해군은 후금의 후방에서 조선이 압

편하고, 파진포(破陣砲)라는 신무기도 생산했다.²⁸ 조총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 비밀리에 교섭하기도 했다.

광해군이 이렇게 누르하치의 세력확대를 경계하는 와중에 명에서 조선군의 파병을 요구했다. 임진왜란의 재조지은을 명분으로 강요된 파병요구는 광해군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다. 광해군은 파병을

²⁸ 『火器都監儀軌』(奎14596). 1614년(광해군 6)부터 1615년까지 사이에 화기도감에서 대포를 만들 때의 기록이다. 내용은 圖說·座目·啓辭·稟目·論賞 순이며, 圖說에는 銅鐵로 만든 佛狼機·玄字·百字와 正鐵로 만든 三眼銃·小勝字粧家·快鎗의 그림과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1614년 7월 14일 화약무기를 준비하여 후금의 방어책으로 활용하고자 鳥銃廳을 화기도감으로 고쳤다. 都提調에 領議政 奇自獻, 提調에 柳根 朴承宗 李尙毅 李守一 李慶梁이고, 都廳에 柳希亮 외 1인이고, 郎廳은 左邊과 右邊이 각각 2인이었다.

록강 이남을 잘 지키는 것이 전략적이라 주장하며 파병요구를 거부했다. 명의 파병요구를 거듭 거절하는 광해군은 조명관계에서 대외적 압박을 받았으며, 그 여파는 자연스럽게 국내 정세에서 오랫동안 정권에서 소외된 서인과 남인의 공세가 강화되었다.

결국 1623년 3월 서인이 주도하는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조선후기 한중 군사관계사에서 인조반정은 결정적인 역사사건이다. 반정이 천명 남짓의 병력으로 성공한 점도 그러하지만, 대내외 정책 변화가 중요하다. 먼저 조명관계가 광해군대와 달리 현실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인조대 대외정책에 반정의 명분이 발목을 잡는 현상이 수시로 발생했다. 성공적으로 정명전쟁을 수행하여 세력을 확장하던 후금과 급속한 관계 악화를 초래하여 정묘, 병자호란을 발생시켰다. 이후 초청관계에 반청의식으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남기는 대외정책을 지속했다. 인조반정 이후 반정세력은 평안감사 박엽^{朴燁}과 의주부윤 정준^{鄭遵} 등 광해군대 대외관계를 담당하였던 주요 인물을 축출시켜 현장감 있는 정책의 수행이 불가능했다.

인조정권은 반정의 명분에 따라 정치적으로 승명배금을 지향했지만, 정명전쟁에서 승리하던 후금에 대해 적대시할 현실적 군사력이 부족했다. 한양 도성에서 반정을 일으킬 수준의 병력이었지만, 대규모 후금군 침입에 대응할 군사력은 부족했다. 이에 국제정세의 불안에 대비할 군비강화는 모든 정치세력이 인정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군사체제 전반을 개혁할 역량이 부족했다.

1619년(광해 11) 명의 파병요구로 출병한 조선군이 후금군과의 현격한 군사력 차이를 확인한 군사사건이 사르후전투였다.²⁹ 실제 파병 자체를 반대하였던 광해군과 주요 대신들은 조선군의 역량을 자신하지 못했다.³⁰ 조선은 파병시 조선군의 피해를 예견하면서도 대명의리의 차원에서 불가피

29 육군대학역, 『기동전-사르후전』, 『군사평론』 337, 부록, 1998, 191~203쪽.

30 『광해군일기』 권1, 광해군 10년 윤4월 24일(임오); 권161, 13년 2월 11일(계축).

한 파병을 전개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전까지 조선의 전쟁대비는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승리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수준이었다.³¹ 당시 영향력이 컸던 이원익李元翼은 조선군이 후금을 방비해야 하는데, 명군을 지원하기 어렵고, 파병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고갈되고 백성이 도탄에 빠질 것이라 예상했다. 가능하다면 병력 파견보다 보급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국제정세에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³²

이원익의 입장은 인조를 비롯한 당시 조선의 공통된 입장이었다.³³ 병력을 집결시켜 수성守城하는 방안이 최선책이었다.³⁴ 무엇보다 기병 위주의 후금군에 비해 조선군은 군정軍政의 혼란으로 훈련마저 부족하여 군사역량이 낮았다.³⁵ 실제 조선군은 정군正軍의 훈련부족, 주방赴防에 대역代役 만연, 훈련도감군에 천인이 사역使役하고 노약자가 충원되고, 장관將官·별무사別武士·금군별대禁軍別隊 등 마병馬兵이지만 말이 없어 훈련이 부족하고, 무장들의 지휘능력도 부족했다.³⁶

인조반정 이후 군비강화를 위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이귀李貴의 군무개혁안은 주목된다.³⁷ 이귀는 조선군과 후금군을 비교평가하여 군사력 전반에 해당되는 전투의지, 공수攻守능력, 무기체계, 군량보급, 군사정보능력 등에 조선군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한 정된 상황 속에서 군사자원을 최적화하여 후금군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했

31 허태구,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군사력 강화 시도와 그 한계 -인조대 초반 병력 확보와 군량 공급을 중심으로-」, 『군사』 109, 군사편찬연구소, 2018, 245~280쪽.

32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 3월 22일(임자).

33 『선조실록』 권193, 선조 38년 11월 3일(계유); 『인조실록』 권2, 인조 1년 7월 7일(을미).

34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 4월 2일(신유); 권2, 7월 3일(신묘); 권5, 2년 3월 14일(무진).

35 『광해군일기』 권128, 광해군 10년 5월 5일(임진).

36 『선조실록』 권142, 선조 34년 10월 28일(임진); 『광해군일기』 권39, 광해군 3년 3월 27일(정묘); 권73, 5년 12월 13일(병신); 권106, 8년 8월 21일(기미);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 4월 2일(신유).

37 허태구,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군사력 강화 시도와 그 한계 -인조대 초반 병력 확보와 군량 공급을 중심으로-」, 『군사』 109, 군사편찬연구소, 2018, 245~280쪽.

다. 당시 조선군은 병력규모에 있어 도원수 장만^{張晩}은 5만~10만 명 규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안주목사 정충신^{鄭忠信}은 9만 명의 후금군을 대응하기 위해 10만 명의 병력을 주장했다.³⁸ 문제는 훈련된 병력을 단시일에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후금군이 침입하면 필수적으로 서북방, 강화도, 남한산성 등 여러 곳의 주요 군사거점에 방어력 강화가 필요했다.

1623년(인조 1) 8월에 조선은 이괄^{李适}을 부원수로 평북 영변에 주력을 주둔시켜 후금군의 침입에 대비했다.³⁹ 문제는 이괄의 난으로 인조초기 조성되었던 그나마 조선의 주력군이 소모되었다.⁴⁰ 이괄은 기병한지 20여 일만에 도성이 점령하고, 인조는 피난했다. 이는 당시 도성방어력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⁴¹ 이괄의 난으로 노출된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은 호위청^{扈衛廳}, 어영청^{御營廳}을 1천 명 병력으로 강화하고, 경기도 방어를 위한 총융청^{摠戎廳}을 2만 명 병력으로 신설했다.⁴²

이괄의 난이 가져온 군사적 문제는 국왕과 조정의 무장에 대한 불신감이다. 지역이든 경기가든 군사지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동원 등에 관련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를 철저히 감시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는 조선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군사지휘관의 군사지휘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⁴³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전쟁은 전쟁명분이 필요하다. 근현대에는 이를 선전포고의 형식으로 하지만, 전통시대에는 격문^{檄文}을 반포하는 형식이다. 물론 전쟁은 자국의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력적 국가 행위일 뿐이다. 정명전쟁을 수행하면서 호시탐탐 후방의 조선에 대한 침

38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 4월 12일(신미); 권5, 2년 3월 14일(무진).

39 『인조실록』 권2, 인조 1년 8월 17일(을해).

40 노영구, 「대후궁 방어전략과 이괄의 난」, 『한국군사사』 7-조선후기 I, 육군본부, 2012.

41 『인조실록』 권4, 인조 2년 1월 28일(계미).

42 유재성, 『병자호란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29~33쪽.

43 허태구,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군사력 강화 시도와 그 한계 -인조대 초반 병력 확보와 군량 공급을 중심으로-」, 『군사』 109, 군사편찬연구소, 2018, 245~280쪽. 참조.

범을 노리던 후금은 1623년 인조반정, 1624년 이괄의 난, 1626년 제1차 영원성전투 등 정세변화를 명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조선의 왕위계승에 일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시대구분으로 평가되는 인조반정은 그 역사적 의미와 상관없이 현실적인 문제를 노출했다. 반정주도세력의 논공행상^{論功行賞}은 첨예한 현실 정치문였다. 반정을 주도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참여했다. 특히 군사력을 동원했던 이들은 정치적 부담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논공에 비해 행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 논공^{論功}과 달리 행상^{行賞}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조선의 관직은 『경국대전』 제정 이후 지배층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정되었다. 이를 두고 수많은 사대부들이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주요 가문을 위주로 하는 세력만이 독자지할 뿐이다. 평소에 과거를 통하거나 음직을 통한 관직진출은 어느정도 제한된 출사^{出仕}의 길이다.

반정이란 비상한 결정을 하고, 개인과 가문의 운명을 걸고 실행하는 이들은 행상에 민감했다. 반정이 아닌 다른 평소의 관직생활에서는 결코 가져볼 수 없는 수준을 희망하게 된다. 반정은 늘 그렇다. 반정의 결과, 행상에 불만이 있는 이들은 한번 성공했던 위험한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이괄의 난은 그 과정에 일어났다. 문제는 반정 이후 조선의 주력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누적된 훈련부족, 재정부족, 무기체계 부실, 병력조달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후금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최강의 병력을 집중하여 주둔했던 평북의 병력을 이괄이 지휘했다. 반란의 결과, 도성은 쉽게 점령되었다. 강력한 반란군도 집권 명분에 취약점이 있었다. 명분을 상실한 군대는 쉽게 무너진다. 비록 도성을 점령하고 새로운 군주를 옹립했지만, 새로운 군주가 즉위해야 하는가를 설득하지 못했다. 이괄은 새로운 군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설득을 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지향점도 없었기 때문이다.

1624년 이괄의 난은 진압되었지만, 반란군 한명련(韓明連)의 아들, 한윤(韓潤)은 유일하게 도망할 수 있었던 후금으로 귀순했다. 이들은 귀순 명분으로 광해군 폐위, 인조반정의 부당성, 조선군의 현실, 가도의 모문룡 군대의 현황 등을 제시하며 부당한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금은 당시 영원성(寧遠城) 전투에 집중하였다. 1626년 영원성 전투에서 화포의 위력을 절감한 후금군이 대패하고, 누르하치가 뒤이어 사망하는 위기상황이 초래되었다. 누르하치를 계승한 홍타이지는 군주로서 획기적인 전공을 거두어야 했다. 이를 통해 여러 정치세력에 대해 강력한 군주권을 표방해야 했다. 이에 홍타이지는 본격적인 정명전쟁을 위한 선제조치로 후방의 조선을 정벌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의 사회복구사업 등으로 병력증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이괄의 난으로 인한 16,000명의 북방군의 손실은 매우 큰 타격이었다. 당시 사영군(四營軍)을 제외한 정규군은 북방군이 유일했는데, 이괄의 난 때문에 7,500명의 정예병이 손실되었고, 수천의 속오군 병력도 피해를 입어 조선군의 전력이 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인조의 국방정책으로 조선군은 1만 명의 훈련도감군, 2만 명의 충용군, 1만4천 명의 수어군을 확보하게 된다. 7천 명의 어영군은 전국에 분산되어 속오군에 편제되며, 속오군의 전력을 더 강화시켰다. 전국적으로 약 9만 명이 속오군이 마련되며, 3만 명의 수군과 약 6백 척의 전선을 확보했다.

제 2 절 정묘·병자호란과 정축약조



“(조선이) 감히 맞서지 못하여 군신의 처자들은 모두 강화도에 숨고 국왕은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했다. 동남도의 병장들이 서로 이어져 무너졌고 서북도에서는 협곡에 둘러싸여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다. 우리 조선 국왕은 안으로 군량이 없고 밖으로 원병이 없었으며 형세는 궁하고 힘은 다하였다. 강화도에 있던 우리 군신의 처자들은 모두 황상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황제께서 만물을 포용하는 마음이짐으로 우리 군신의 처자에 대해 장병들이 침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조선 관원으로 하여금 태감과 더불어 간수하게 하였다. 황제께서 칙서를 내려 죄를 사하여 주시니, 우리 조선의 군신과 백성들이 큰 가뭄에 비를 만난 듯, 물에 빠져다가 구해진 듯하며, 기뻐하고 두려워하여 황제의 군대 앞에 나아가 죄를 청하였다. 은상이 우리 군신에게 두루 미쳤으며, 붙잡힌 처자들은 모두 도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었으니, 이미 끊어진 종사가 다시 이어지고 이미 무너진 조선이 50일 만에 다시 서게 되었다.”

청 태종의 강요로 조선에서 세운 청의 전승비인 삼전도비 일부분

정묘호란과 조선·후금의 약조

영원성 전투에서 누르하치가 사망하자 1626년 홍타이지는 새로운 한으로 후금의 체제를 개편했다.⁴⁴ 대체적으로 명의 제도를 모방한 형태였지만, 후금의 통치체제를 개편했다. 부족장의 신분이었던 누르하치의 여러 아들과 후손을 친왕으로 분봉^{分封}하여 정명전쟁의 선봉으로 삼았다. 또한 이들은 각종 개혁작업에 크게 활약했다.⁴⁵ 구체적으로 홍타이지는 여러 왕족과 귀족의 사치와 부패를 엄단한다는 칙유^{勅諭}를 반포하여 후금의 전력을 집중하여 정명전쟁을 총력전으로 치르고자 했다.⁴⁶ 홍타이지는 정명전쟁에 참전하는 반대급부로 친왕을 분봉하고, 투항한 몽골인에게 세직^{世職}을 하사했다.

홍타이지는 정치를 개혁하고 본격적으로 정명전쟁을 치르기 전에 조선을 필수적으로 복속시키고자 했다. 후금이 요동 전역을 장악하고, 몽골을 복속시켜야 하는 현안이 많았지만, 조선과 명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조선을 후금세력의 영향에 편입시켜야 했다. 그 결과는 1627년(천총 원년)에 가도^{蝦島}의 모문룡^{毛文龍} 문제를 핑계로 일어난 정묘호란이었다.⁴⁷ 홍타이

44 『청태종실록』 권28, 천총 10년 4월 을유; 병술: 『청사고』 권3, 태종2 승덕 원년 4월 을유; 병술. 홍타이지는 始祖(澤王), 高祖(慶王), 曾祖(昌王), 祖(福王)를 추존하고, 廟號를 太祖, 福陵을 두었다.

45 『청사고』 권3, 태종2 승덕 원년 4월 기축; 정유. 홍타이지가 친왕으로 분봉한 이들은 만주족 친왕뿐만 아니라 복속한 몽골추장과 귀순한 명나라 장수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친왕으로 분봉한 것은 이들을 특별히 우대함으로써 대명전쟁에 군사력을 집중하고자 함과 동시에 요동지역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한 조치였다. 구체적인 친왕분봉은 다음과 같다. 和碩兄禮親王 代善, 和碩鄭親王 濟爾哈朗, 和碩睿親王 多爾袞, 和碩豫親王 多鐸, 和碩肅親王 豪格, 和碩成親王 岳託, 多羅武英郡王 阿濟格, 多羅安平貝勒 杜度, 多羅饒餘貝勒 阿巴泰, 和碩穎親王 薩哈廉, 和碩土謝圖親王 巴達禮, 和碩卓禮克圖親王 吳克善, 和碩親王 固倫額駙額哲, 多羅札薩克圖郡王 布塔齊, 多羅巴圖魯郡王 滿朱習禮, 多羅達爾漢郡王 袞出斯巴圖魯, 多羅杜稜郡王 孫杜稜, 多羅郡王 固倫額駙班第, 冰圖王 孔果爾, 多羅達爾漢戴青 東, 多羅達爾漢卓禮克圖 俄木布, 多羅杜稜 古魯思轄布, 達爾漢 單把, 多羅貝勒 耿格爾, 恭順王 孔有德, 懷順王 耿仲明, 智順王 尚可喜이다.

46 『淸史稿』 권3, 본기3, 태종2, 승덕 원년 5월 정사; 경오; 8월 계미. 홍타이지는 각종 통치 업무와 전쟁업무를 구분하여 대명전쟁은 처음 阿濟格, 阿巴泰, 公揚古利 등에게 부여했다. 多爾袞, 多鐸, 岳託, 豪格 등에게 부여했다. 『淸史稿』 권3, 본기3, 태종2, 승덕 원년 6월 기묘. 이와 함께 多鐸은 예부업무를, 肅親王 豪格은 호부업무를 관장토록 했다.

47 『청태종실록』 권2, 천총 원년 정월 병자.

지는 요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몽골을 복속시킨 뒤 1636년 대청^{大清}을 세웠다. 승덕^{崇德}이란 연호를 정립하여 황제로써 직접 천지^{天地}에 제사지내고 조선을 완전히 복속시키기 위한 병자호란을 일으켰다.⁴⁸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후금·청의 정명전쟁을 위한 조선 건제가 목적이었던 전쟁이었다.

처음 홍타이지가 청을 건국하고 황제의 지위로 조상을 추존^{追尊}할 때, 조선에서 파견된 사신이 예를 표현하는 것을 거부하자 사신을 질책하고 그 책임을 조선 국왕에게 물었다. 이는 세자와 인질을 요구하는 칙유^{勅諭}로 조선에 전달되었다.⁴⁹ 1626년까지 심양 등 요동의 전략요충지를 점령한 후금은 정명전쟁에 투입한 주력을 분산할 수 없었다. 이에 조선을 회유하여 우호관계를 맺어 조선과 명의 연합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목표를 세웠다.⁵⁰ 후금은 조선에 교역을 확대하고, 명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이 반대하자 위압적인 자세로 변하여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정묘호란으로 체결된 강도약서^{江都約誓},⁵¹ 평양약서^{平壤約誓}를 통해 후금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정묘호란을 통해 조선의 군사력을 파악한 후금은 보다 강경한 군사정책을 채택했다. 양국간에 체결된 약서를 통해 정묘호란 및 병자호란에 대한 청의 대조선인식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48 『청태종실록』 권32, 승덕 원년 11월 기미; 을축; 기사; 임신.

49 『청태종실록』 권28, 천총 10년 4월 을유. 당시 조선에서 파견된 사신은 참의 羅德憲, 참판 李廓이다.

50 김종원,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해안, 1999, 84~85쪽.

51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3월 3일(경오). 정묘호란 당시 조선과 후금 사이에 체결된 각종 내용을 명확하게 어떻게 호칭할 것인가 역시 중요하다. 강화도에서 맺어진 맹서는 “江都約誓”라 사료에 표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한다. 인조의 誓文에 “約誓”, 후금 이 왕자에게 전달된 인조의 揭帖에 “信誓”라 적혔다. 전체적으로 조선과 후금이 약속하였다는 의미이며, 인조가 맹서를 하늘에 아뢰는 의식이 있고, 문서로 교환한 점에서 전통시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맹약, 회맹 등으로 불려도 될 것이다.

1627년(인조 5) 3월에 홍타이지는 한운 등이 제공한 군사정보를 명분으로 조선을 침입했다. 한운이 후금에 전달한 조선의 군사정세는 조선이 군사력을 소집하고, 가도의 모문룡과 연합하여 후금을 공격할 것이란 내용이었다. 홍타이지의 명령을 받은 아민^{阿敏}은 3만 명 병력으로 조선을 침입했다. 후금은 가도의 모문룡을 견제하고, 의주, 정주, 안주, 평양 등을 점령하고 한양을 목표로 신속하게 진격했다. 조선군은 이괄의 난 이후 부실화 되었지만, 최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의주에서부터 방어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기동력이 뛰어난 후금군을 제어하지 못했다. 긴급하게 인조는 세자는 전주로, 자신과 조정은 강화도로 피난하여 결사 항전했다.

조선군은 후금군과 각지에서 치열하게 전투했다. 후금군이 중요 군사거점을 확보하며 진격하는 동안, 하삼도를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나 근왕하고, 평안도의 정봉수^{鄭鳳壽}가 용골산성에서 후금군을 대패시키고, 이립^{李立}이 용천에서 후금군을 격파하는 등 혼전이 벌어졌다. 후금군은 군사축선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평안도·황해도의 보급선이 차단되는 것을 고려하여 조선의 항복을 받는 수준에서 철수하고자 했다. 이에 상호 화의가 제안되어 1627년 4월, 강화협상이 체결되었다.

정묘호란은 군사사 측면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영원성전투에서 패배한 후금이 홍타이지의 정치적 목적으로 일으킨 전쟁으로 정치적 목적이 군사목적보다 중요했던 전쟁이다. 홍타이지의 군주권을 대내외에 표방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후금은 형식적이더라도 조선을 굴복시키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후금군의 철군이 의외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둘째, 군사관점에서 조선과 후금의 전쟁 준비가 모두 미흡했다. 조선은 오랫동안 누적된 군사력의 부실화 현상과 그나마 정예 병력으로 양성한 군대가 이괄의 난으로 소모된 상황에서 가용할 전력이 부족했다. 이괄의 난 이후 국왕과 대신들의 무장에 대한 불신은 더욱 조선의 군사력 강화에

방해가 되었다. 이런 시점에 정묘호란이 발발했다. 후금 역시 준비가 미흡했다. 후금은 영원성전투로 큰 피해를 입어 전력손실이 막대했다. 또한, 화포를 비롯한 무기체계의 전면적인 개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정묘호란을 일으켜 실제 성과는 높지 않았다.

셋째, 양국의 향후 전쟁에 대한 사전 경험으로 작용했다. 조선은 후금의 기병에 대비하고, 변방에서 도성방위로 이어지는 방위체제를 강화했다. 산성과 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성방어를 강화하고, 도성방위를 위해 강화도와 남한산성과 같은 보장처^{保障處}를 강화했다. 후금은 중요 거점점령을 통한 전쟁수행에 한계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기동력을 활용하여 도성과 국왕을 압박하는 전술 전환을 절감했다. 이는 병자호란에서 청군의 신속한 도성압박 및 남한산성 포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묘호란을 통해 조선과 후금의 군사지리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후금군이 한양을 압박하자 조선은 1627년(인조 5) 3월, 강도약서를 체결하였다. 체결과정을 살펴보면, 조선과 후금이 화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좌부승지 이명한^{李明漢}이 맹세문을 읽었다.⁵²

〈표 9〉 정묘호란으로 인한 강도약서

- ① 양국은 이 시간 이후 화친^{和親}한다.
- ② 양국은 화친의 맹약을 준수한다.
- ③ 조선은 후금을 적대시 하지 않는다.
- ④ 조선은 병마^{兵馬}를 정돈하거나 성보^{城堡}를 신축하여 후금에 맞서지 않는다.
- ⑤ 후금군이 화친을 요구한 곳이 정주^{定州}이니, 평산^{平山} 이북으로 즉시 철수한다.
- ⑥ 양국은 이후 압록강을 경계로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 ⑦ 왕제^{王弟}는 맹약이 체결되면 볼모에서 귀환한다.
- ⑧ 형제의 의^{兄弟之誼}를 맺어 후금이 형의 국가, 조선이 아우의 국가가 된다.
- ⑨ 세폐^{歲幣}는 조선국왕이 스스로 정한다.

정묘호란의 종결을 위한 입장은 조선과 후금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⁵²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3월 3일(경오). 당시 조선과 후금의 강화는 인조의 팔문과揭帖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전쟁대비가 부실하였던 상황에서 여러 전투에서 패하자 국왕 명의의 서문교환으로 화친을 체결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판단했다. 반면, 후금은 비록 국왕을 사로잡지는 못했지만 전투에서 승리하고, 조명관계 단절, 후금에 대한 적대행위 금지 등 조선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는 점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했다.

정묘호란에 출전한 후금의 지휘부는 당시 독단적으로 강화를 결정할 수 없었다. 후금 홍타이지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했는데, 전황을 보고받은 홍타이지도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⁵³ 강화를 보고받은 홍타이지는 무엇보다 명 모문룡을 견제하는 후금 군대가 의주와 진강(鎭江)에 주둔해야 한다고 했다.⁵⁴ 홍타이지의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아민과 조선 사이에 강도약서가 원만하게 체결되었다. 그러나 홍타이지의 명령이 하달된 뒤 후금은 철군하다가 평양에서 태도를 바꾸어 평양약서를 강압적으로 체결했다.

처음 강도약서가 체결되자 후금군은 철수를 시작했다. 조선은 조선 종실이었던 이각(李覺)을 거짓으로 국왕의 동생이라 하며 철수하는 후금 군대와 함께 심양에 보냈다. 그러나 홍타이지의 명령을 받은 아민(阿敏)이 평양에서 이각을 겁박하여 평양약서(平壤約誓)를 체결했다.⁵⁵

평양약서에 추가된 내용은 이후 양국 사이에 도망자를 상호 쇄환하고, 후금의 사신을 명사(明使)와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내용이었다.⁵⁶ 이 가운데 후금은 쇄환을 강조했다. 후금이 정명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많은 한족이 요동에서 조선으로 도망하였는데, 이들의 쇄환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

53 『청태종실록』 권2, 천총 원년 3월 신사. 조선 정벌군의 지휘관이었던 아민은 전황, 강화조건을 홍타이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팔기대신 회의를 소집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결국 강화를 허락했다.

54 『청태종실록』 권2, 천총 원년 3월 을유. 실제 후금은 주력을 철수하면서 후금군 1,000명, 몽골군 2,000명을 의주에 주둔시키고, 후금군 300명, 몽골군 1,000명을 진강에 주둔시켰다.

55 『청태종실록』 권10, 천총 원년 5월 경오.

56 『청태종실록』 권2, 천총 원년 3월 을유.

로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후금에 잡혔던 조선인이 조선으로 돌아오면 이를 쇄환하도록 강요했다.

후금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평양약서는 후금의 강압에 의해 체결되고, 인조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조·후금관계에서 외교갈등을 초래했다.⁵⁷ 또한, 조선은 도망온 중국인과 잡혔다가 돌아온 조선인을 후금에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 이를 강압적으로 약속한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쇄환은 국경문제와 연관된다. 정묘호란을 일으킨 후금에게 몽골은 매우 민감한 정치·군사 세력이지만, 조선은 후금을 직접 위협할 세력은 아니었다. 다만 명 장수 모문룡이 조선의 영역 내에 주둔한 점은 위협적이었다. 즉, 후금의 입장에서 전쟁을 통해 조선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필요했다. 조선에서 물자를 획득하면 명의 포괄적인 경제봉쇄로 곤란했던 각종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⁵⁸ 한족과 잡힌 조선인을 조선에서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하면 쇄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후금의 여러 세력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었다. 조선에서 거둔 경제적 이익은 몽골에서 군마(軍馬)를 사올 수 있고, 군마를 통해 기병을 양성하여 정명전쟁에 투입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에서 유입되는 소와 농기구 등 후금의 농업발전에 필수적이었다.⁵⁹

정묘호란으로 후금은 정명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다. 철옹성의 산해관을 우회하는 전략을 채택하자 전선이 확대되었다. 각종 군사자원이 더 투입되어야 했다. 이에 후금은 조선에 군사적 요구를 확대했다. 식량지원, 병선의 제공, 가도의 모문룡세력 견제 등이었는데, 거부하면 전쟁이 재발될 것이 명확했다. 조선은 현실적으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외교교섭을

57 陳捷先, 「略論天聰年間後金與朝鮮的關係」, 『東方學志』 23-24, 1980, 331쪽.

58 張存武, 「清入關前與朝鮮的貿易(1627-1636)」, 『東方學志』 21, 1979, 187쪽.

59 김종원, 1999, 위 책. 60~85쪽.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정묘호란 이후 양국 사이에 사신왕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자 조선은 사신왕래를 적극 활용하여 군사외교를 전개했다. 이와 함께 조선 내부적으로 주자학적 명분론에 따른 척화론이 강화되었다. 요동반도까지 평정한 홍타이지는 내몽골을 평정하고 제국으로 위상을 보이고자 청을 건국하고 조선의 입조를 요구했다.

1636년(인조 14) 3월, 잉골다이(龍骨大), 마푸타(馬福大) 등이 입조를 요구하는 칙서를 가져왔다. 조선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 과정에 조선은 내부적으로 주화론과 척화론이 격화되어 논쟁이 확대되었다. 조선은 청의 침입을 예상하고 전쟁대비를 강화했다. 5월에 청 홍타이지의 칭제(稱帝)와 선포행사에 참석한 조선사신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조선사신의 태도를 통해 조선의 입장을 확인한 청은 조선정벌을 준비했다.

병자호란과 조선·청의 약조

조선은 정묘호란 이후 후금과 형제의 관계를 맺었지만, 강화조약에 따라 조명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았다. 홍타이지가 청 건국을 결심하고 사전에 조선에 보낸 사신은 인조의 접견 거부로 만나지도 못했다.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식에 참석한 조선 사신은 홍타이지에게 배례(拜禮)를 하지 않았다.

조선이 친명정책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홍타이지는 명청전쟁 이전에 조선을 확실히 굴복시켜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했다. 당시, 조선의 대청 방어전략은 청야전벽(淸野堅壁)으로, 강한 청의 기병과 직접 싸우기보다 침공로 주변의 성에 군사를 집결시켜 수성전으로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이 전략은 명을 전면에 두고 배후의 조선에서 장기전을 벌이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었다. 유사시 수전에 약한 청군을 피하고자 강화도에 파천하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정묘호란 당시 인조가 강화도로 파천하는 것을 청은 이미 경험했다.



〈그림 17〉 『고지도첩』 남한산성

(소장 : 영남대학교박물관(소장10137-3))

남한산성 행궁은 후금의 위협과 이괄의 난 후 남한산성이 본격적으로 축성되면서 성곽과 함께 건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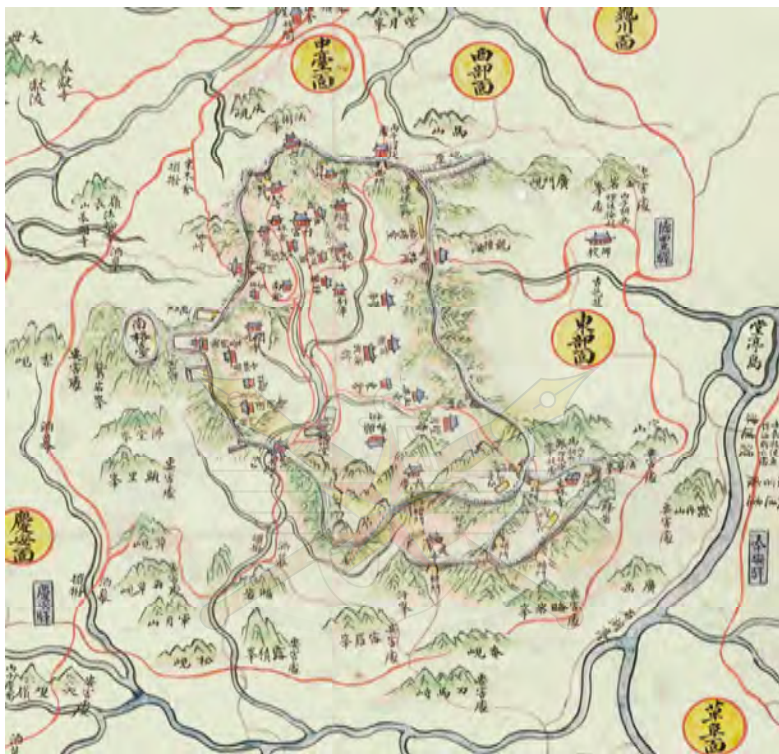
청은 조선군이 지키고 있던 산성을 우회하고, 선발대부터 한양으로 신속히 남하하여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하는 길을 차단하였다. 당시 봉화를 통한 긴급 통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청 선발대가 한양에 근접하고 국왕은 청군의 침입보고를 받았다. 인조는 청군을 피해 강화도로 들어가려다가 청군과 도중에 조우할 것을 고려하여 남한산성으로 피했다.

병자호란의 경과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전체 개관, 구체적인 사건 및 역사 의미를 살펴본다. 전체 개관은 양력을 기준으로 정리한다.⁶⁰ 1636년 12월 27일, 인조는 군사충돌을 방지하고자 박로^{朴魯}를 사신으로 청에 파견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청군이 이미 출병하였음을 몰랐다.

박로가 출발한 다음 날 12월 29일, 조선 조정은 척화와 화해를 두고

⁶⁰ 이하 서술은 구범진,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 까치, 2019. 참조.

논쟁했다. 척화론을 주장한 김상헌^{金尙憲}은 청에 보낸 사신을 귀국시키고, 방비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박로의 귀환은 인조에게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림 18〉 조선 후기 광주부의 남한산성

(소장 :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357))

광주부는 조선시대 도성을 방위하는 유수부 가운데 하나로 북방과 남방으로부터 침략에 대비하는 유용한 행궁역할을 하였다.

다음해 1637년 1월 3일, 청군의 선발대가 압록강을 은밀히 도강하여 남쪽으로 진격했다. 청군 선발대의 도강을 인지한 조선군은 긴급하게 청군의 침입을 보고하는 파발을 보냈다. 그러나 긴급 파발이 도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청군은 1월 8일에 안주에 도달하고, 다음 날 개성에 나타났다.

청군 선발대가 개성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조선은 긴급사태를 논의하여 강화도에 종묘의 신주^{神主}와 세자빈을 먼저 보냈다. 그리고 인조는 강화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긴급하게 남한산성에 입성했다. 당시 인조 역시 강화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지만, 청군의 진격로와 겹쳐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자 남한산성으로 피난했다.

남한산성에 입성한 다음 날인 1월 10일에 인조는 최명길^{崔鳴吉}을 청군 진영에 보내 청군의 사정을 파악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명길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남한산성을 포위한 청군은 1월 11일부터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청군은 왕실의 왕자 등을 인질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난영^{朴蘭英}을 보내 조선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마푸타^{馬夫大}가 박난영을 살해했다. 1월 12일부터 청군의 침입 소식을 들은 가장 인접한 강원도, 평안도 근왕병이 출병했다. 그러나 청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하여 근왕병 출병소식은 실제 남한산성의 인조에게 보고되지 못했다.

남한산성의 인조는 근왕병의 구원을 기대했지만, 정작 각지에서 소집된 근왕병을 총지휘한 도원수 김자점^{金自點}은 경기도 양평에서 적극적인 구원 작전을 전개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각지에서 소집된 근왕병은 청군에 의해 각개 격파되었다. 함경감사 민성휘^{閔聖徽}, 북병사 서우신^{徐佑申} 등이 지휘하는 북방병력은 정예병으로 전투능력이 뛰어났지만, 김자점 휘하로 들어가 별다른 전투를 벌이지 못했다. 김자점은 전체 병력 2만 3천 명을 확보했지만, 청군의 위세에 눌려 구원작전을 펼치지 못했다.

충청병력은 남한산성에 직접 연결하고자 시도했지만, 청군에 의해 패하였다. 평안감사 홍명구^{洪命耆}와 병사 유림^{柳琳}이 지휘하는 평안병력은 철원, 연천 등지에서 청군의 별동대에 의해 남진이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남한산성으로 진격한 평안병력은 삼전도의 항복을 듣고 서울로 회군했다. 전라병력은 전라감사 이시방^{李時昉}, 병사 김준용^{金俊龍}이 지휘하여 광교산까지 진격했지만, 청군 별동대와와의 전투에 패배하여 수원, 공주 등지로 물러나

주둔했다. 경상병력은 경상감사 심연^{沈演}, 좌병사 허완^{許完}, 우병사 민영^{閔楳}이 지휘하는 총 4만 명 병력이었다. 8천 명 병력이 광주에서 쌍령전투를 벌였지만, 훈련부족으로 청 기병대에 의해 패배했다. 허완, 민영이 전사하고 대부분의 병력이 전사했다.

남한산성은 천혜의 요새로 1만 3천여 명의 조선군이 수성에 나서 청군이 이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았으나, 사전에 방어를 위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터라 한 달 남짓 버틸 수 있는 군량밖에 없어 장기전을 도모하기 어려웠다. 조정은 남한산성과 강화도가 항전하는 동안 전국 각지의 관군이 집결하여 청군의 포위를 풀 것을 기대했다.

충청도 근왕병의 진격이 죽산에서 멈추었고, 청군에게 패배하였으며 수원 광교산 전투에서 청군에게 승리를 거둔 전라도 근왕병마저 탄약 부족으로 퇴각함으로써 남한산성의 고립은 심화되었다. 한편,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청야전벽 전략에 따라 수성을 준비하다 허를 찔린 조선군은 청군의 뒤를 쫓아 남하했다. 그러나 도르곤이 이끄는 청의 우익군에게 기습을 당하여 양근과 미원으로 퇴각하였다. 양근과 미원에는 약 1만 7천여 명의 조선군이 집결하였으나 청군과 정면으로 대결하지 못하였다.

1월 14일에 청군은 남한산성을 공략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격을 해왔다. 그러나 조선군은 화포를 중심으로 이를 물리쳤다. 조선군과 청군 사이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은 홍타이지의 등장이었다. 홍타이지는 청 본진을 지휘하여 1월 15일, 개성에 도착하고, 다음 날 한양에 도착했다. 이에 조선은 적극적으로 화해를 요청하여 1월 16일, 마푸타와 최명길의 회동이 남한산성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척화파의 주장이 강하여 갈등이 고조되었다. 강력한 근왕병이었던 경상도 근왕병이 충주에 도착한 시점은 1월 18일이며, 여전히 남한산성은 청군의 공세에 시달렸다. 이에 인조는 하늘에 제사지내고 사기를 고취시키고자 했다. 1월 20일을 경과하면서 충청도, 강원도 근왕병이 남한산성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청군

의 기동작전에 각개 격파되었다.⁶¹ 인조는 청군에 화해를 요청하였지만, 청군은 이를 거부하며 남한산성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1월 23일이 지나며 남한산성의 조선 조정에서 강화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최명길을 주축으로 한 강화론자들은 종묘사직의 보존을 위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강경한 여론에 따라 남한산성의 조선군은 출정을 결정하고, 1월 24일, 김류^{金瑬}가 지휘하는 조선군이 산성을 내려가 청군과 조우했지만 대패하였다. 이에 김상헌을 중심으로 한 척화론자들은 치열한 전투가 있으므로 강화사신의 파견을 반대했다.

1월 26일, 청 황제 홍타이지가 남한산성 주변에 도착하자 남한산성에 대한 청군의 공세가 강화되었다. 홍타이지는 남한산성 공세를 강화하면서 한편 청군의 주요 부대를 각지에 파견하여 충청도 근왕병을 공주방면으로 퇴각시키고, 경상도 근왕병을 쌍령전투에서 패배시켰다. 청군의 승리를 보고받은 홍타이지는 남한산성의 인조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때 조선군의 패배를 함께 알려주며 조선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자 했다. 홍타이지의 서한을 접한 조선 조정은 척화와 강화로 논쟁했다. 척화론자들은 홍타이지의 서한을 불태우고 결사 항전할 것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 조선의 논쟁을 가열시킨 것은 전라도 근왕병이 광교산전투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과 함경도 근왕병이 강원도에 도착하였다는 장계였다. 이에 인조는 남한산성을 수비하는 장졸들을 위무했다. 그러나 이미 조선군이 항전하기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 식량과 겨울철 전투장비가 부족했다. 2월 초에 접어들면서 다시 강화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척화론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혼란을 거듭하다 2월 3일, 인조는 최명길로 하여금 국서를 청군에 전달하도록 결정했다. 2월 7일, 드디어 최명길이 국서를

⁶¹ 장정수, 「병자호란시 조선 勤王軍의 남한산성 집결 시도와 활동」, 『한국사연구』 173, 한국사연구회, 2016, 161~211쪽.

가지고 청군 진영에 파견되었으며, 최명길은 적극적으로 청군 장수들에게 현재 상황이 불가피하였음을 강조하며 강화를 요구했다.

2월 8일에 조선군은 항전에 한계를 느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동사하는 조선군이 발생하였으며, 팔도의 근왕병이 거의 패배하여 실질적인 근왕을 할 수 없다는 현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 인조는 최명길을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강화를 요구했지만, 청군은 강화가 아닌 항복을 요구했다. 항복을 요구하는 홍타이지의 서한이 거듭 남한산성에 전달되자 조선 조정은 강화와 척화를 두고 다시 논쟁했다. 홍타이지는 남한산성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홍이포를 배치하여 성내를 포격했으며, 이 공격으로 조선은 피해를 많이 입었다.

조선이 강화를 거듭 요구하자 조선의 패배를 인정한 홍타이지는 구체적인 항복조건을 남한산성에 전달하여 압박했다. 청군이 공세를 강화하고 조선군의 전력이 열악해지자 세자가 인조를 대신하여 성을 내려가는 방안도 주장되었다. 이런 시점에 2월 16일, 결정적인 소식이 남한산성에 전달되었다. 강화도가 점령되고 피신한 왕족과 대신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물론 이 소식은 청군이 조선군에 알려준 것이었다. 청군은 강화도 함락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며, 한편으로 공세를 강화하여 인조의 항복을 압박했다. 남한산성의 조선 조정에서 척화파를 내려보내겠다는 국서를 작성할 즈음, 청군은 홍이포를 동원한 대대적인 공세를 강화하여 행궁이 포격했다.

당시 강화도에는 세자빈(소현세자의 부인)과 봉림대군(후일 효종)을 비롯하여 왕실과 역대 임금의 신주가 피난해 있었다. 인조와 조정은 수전의 경험이 적은 청군이 강화도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군은 명 수군 출신의 공유태과 경중명 등을 앞세워 강화도를 공격하였다. 홍타이지는 인조가 항복하지 않자 강화도 공격을 명령하였고, 청군은 강화도 상륙을 시도하여 강화산성을 함락시켰다. 강화도의 조선군은 병력이

적였을 뿐만 아니라 강화검찰사 김정징(金慶徵)과 강화유수 장신(張紳)이 지휘권을 두고 갈등했다. 청군의 1차 강화도 공격은 충청수사 강진흔(姜晉昕)이 격퇴했다. 그러나 항복한 한족 장수들이 지휘하는 청군이 시도한 2차 공격에 결국 점령되었다. 청군은 세자빈, 봉림대군을 인질로 잡고 인조의 항복을 요구했다.

2월 19일, 청군의 포격에 많은 남한산성의 방어시설이 허물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조선군의 사기는 더욱 땅에 떨어졌다. 이 시점에 항복을 압박하는 최후의 행위로 청군은 그 동안 조선이 보낸 모든 국서를 남한산성 성문에 던졌다. 이 무렵 평안도 근왕병이 김화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고립된 남한산성은 인지하지 못했다. 조선군 내부에서 강화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훈련도감과 여영청의 병력이 척화신을 내보자는 시위를 벌였다. 또한, 강화도의 패배 소식마저 알려지자 인조는 결국 항복을 결정했다.

2월 21일, 조선은 항복을 결정하고 국왕 인조의 생명을 홍타이지로부터 약속받고자 국서를 청군에 전달했다. 다음 날 홍타이지의 칙서가 남한산성에 전달되었다. 남한산성의 조선 조정은 청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을 소각하는 등 항복을 위한 절차를 들어갔다. 결국 2월 24일, 일명 정축하성(丁丑下城)의 사건이 벌어졌다. 인조와 대신들이 삼전도까지 내려가서 홍타이지에게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하고 항복했다.

이상과 같이 병자호란의 전쟁경과를 정리하면, 정묘호란 이후 후금은 정묘전쟁을 본격화하여 요동의 주요 군사전략지를 확보했다. 병자호란(丙子胡亂)은 1636년 12월 28일부터 1637년 2월 24일까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청 홍타이지가 명을 공격하기 이전에 배후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선을 침공하였고, 인조와 조정이 남한산성에서 항전했다. 청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하자 굶주림과 추위, 왕실이 피난한 강화도의 함락, 근왕군의 작전 실패 등으로 결국 인조는 항복하였다.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명청 교체체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며, 조선으로서는 짧은 전쟁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쟁 포로로 수십 만의 백성이 청으로 끌려가 그 사회적 피해가 유례없이 컸다.

그럼에도 병자호란에서 김준룡(金俊龍)의 광교산전투, 평안병사 유림(柳琳)의 김화전투 등의 주목되는 전투가 있었다. 병자호란의 군사사적 의미를 정리하면, 첫째, 철저히 준비된 전쟁이었다. 청은 정묘호란을 통해 주요 군사축선을 확인하고, 귀순한 이들을 통해 조선의 군사지리를 사전에 파악했다. 또한 주요 군사거점 확보가 아닌 매우 신속한 기동력으로 도성과 국왕 생포를 목표로 전쟁을 지도했다. 반면, 조선은 정묘호란 이후 비록 전쟁대비를 갖추었지만, 산성 중심 방어체제를 갖춰 이를 회피하는 청 기병을 따라잡지 못했다. 또한, 남한산성과 근왕병의 긴밀한 연결이 단절되어 병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못했다.

둘째, 정치와 군사목적이 결합된 전쟁이었다. 조선은 청의 침입을 예상하면서 정묘호란과 유사한 전쟁을 예상했다. 이는 국제정세를 간과한 결과이다. 정묘호란은 영원성전투 패배 이후 조선을 명과 차단하는 수준이 군사목적이었다. 반면, 병자호란은 요동반도까지 확보한 청이 화약무기를 강화하고, 투항한 한족 장수를 통해 전술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산해관전투를 앞두고 전력을 집중하여 국왕의 생포 내지 항복이란 군사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셋째, 군사자원의 집중과 기동성이 강조된 전쟁이다. 청군은 선발대와 본대의 운용, 제한된 별동대를 각 지역별 기동성 있는 운용 등으로 많은 조선군을 격파했다. 압록강에서 도성과 남한산성까지 조선을 압박한 실제 병력은 소규모 부대였다. 그럼에도 청군이 한양 북쪽에 나타났다는 소문만으로도 조선군과 조선인의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사르후전투에서 누르하치가 적은 병력으로 명의 많은 병력을 각개 격파하였듯이 청군의 별동대는 상대적으로 많은 병력의 조선 근왕군을 각지를 신속하게 이동하여 각개 격파했다.

넷째, 화약무기가 전쟁에 적극 활용되었다. 청군의 화포 공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쟁이다. 남한산성을 포위한 청군은 주요 위치에 홍이포를 설치하여 산성을 공격했다. 조선군의 반격이 있었지만, 군수물자의 부족으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반면에 청군의 화포 공격은 조선군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다. 강화도 점령소식이 전해지자 강화논의가 본격화되어 결국 인조가 남한산성을 나와 추운 겨울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의식을 행했다.

병자호란의 결과는 가혹했다. 조선의 첫 국왕 항복이었다. 천명을 받들었다는 국왕의 통치 정통성은 상실되었다. 국왕을 비롯한 지배층의 지배체제가 붕괴된 것이다. 전쟁에서 시련을 경험한 국왕은 새로운 대응논리를 만들어낸다. 임진왜란기 의주까지 피난했던 선조는 명군의 구원을 전쟁극복 원동력이라 강조하며, 조선의 원래 무능함을 상쇄시키고자 했다. 절의節義를 강조하여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동국삼강행실도東國三綱行實圖』로 확대하여 편찬하여 통치질서를 재건하고자 했다. 그래도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 하더라도 항복하지는 않았다. 전쟁이 끝난 뒤 침입하였던 일본군을 물리쳤다고 억지논리를 제시할 수 있었다.

반면, 인조는 다르다.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 의식을 홍타이지에게 행했다. 그것도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치욕을 당했다. 그렇다고 왕위에서 물러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누군가 책임을 지는 대상이나 논리가 필요했다. 그 대상은 반청의식으로 표출될 수 있지만, 오히려 정반대 논리로 나타날 수 있다. 청의 강대함과 우월함을 강조하여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논리가 되어야 했다. 물론 조선의 관원과 백성들에게 내놓고 그럴 수는 없다. 이후 인조의 정치행로를 보면 반청과 친청의 위험스러운 줄타기에 가까웠다. 병자호란 이후 인조와 지배층에게 반청과 친청의 미묘한 경계점에 있는 사람, 사건, 집단이라면 그 책임전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어쩌면 심양관에 인질로 고초를 겪었던 소현세자와 그 종사관들이 가장

적합한 대상이었을 개연성도 있다. 자칫 전쟁 이후 결과에 대한 억지 책임추궁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다.

청을 건국한 홍타이지는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병자호란시 청군의 출병은 매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⁶² 병자호란 결과는 병자호란 중에 홍타이지의 조유^{詔諭}를 통해 그 내용을 보였다.⁶³ 잉골다이^{龍骨大}가 조선에 전달한 홍타이지의 조유는 다음과 같다.

〈표 10〉 청 태종의 조유에서 제시된 정축약조

- ① 규례^{規例}를 상세하게 정하여 군신^{君臣}의 신의^{信義}로 맺는다.
 - ② 명의 고명^{誥命}과 책인^{冊印}을 청에 헌납하고, 명과 수호^{修好}를 끊고, 명의 연호를 버린다.
 - ④ 일체 공문은 후금 정식^{正朔}을 받든다.
 - ⑤ 국왕의 장자 및 재일자^{再一子}, 여러 대신의 자제를 인질로 보낸다.
 - ⑥ 정명^{證明}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보병·기병·수군을 조발한다.
 - ⑦ 가도^{槓島} 공격에 배 50척, 수군·창포^{槍砲}·궁전^{弓箭}을 보낸다.
 - ⑧ 청군의 철병에 호군^{稿軍}한다.
 - ⑨ 성절^{聖節}·정조^{正朝}·동지·중궁천추^{中宮千秋}·태자천주^{太子千秋}, 경조^{慶吊}에 사신을 파견한다.
 - ⑩ 표전문^{表箋文} 정식^{程式}과 칙사 근송계사^{近送饋使} 예를 명나라와 동일하게 한다.
 - ⑪ 군중^{軍中} 포로는 쇠환하고, 속환^{贖還}은 본주^{本主}의 편의대로 한다.
 - ⑫ 내외의 제신^{諸臣}과 화혼^{和婚}한다.
 - ⑬ 신구^{新舊} 성벽은 수리·신축하지 않는다.
 - ⑭ 조선내의 올랑합^{兀良哈} 사람은 모두 쇠환한다.
 - ⑮ 일본과 교역은 허락하지만, 일본사신을 인도하여 조회시킨다.
- 기타 세폐^{歲幣} 관련 조항⁶⁴

⁶² 구법진, 「병자호란 전야 외교 접촉의 실상과 청의 기만 작전, 그리고 <청태종실록>의 기록 조작」, 『동양사학연구』 150, 2020, 253~292쪽.

⁶³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1월 무진.

⁶⁴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1월 무진. 청이 요구한 세폐는 황금 100냥, 백은 1,000냥, 수우각궁면 200부, 표피 1백장, 차 1,000포, 수피 400장, 청서피 300장, 호초 10두, 호요도 26파, 소목 200근, 호대지 1,000권, 순도 10파, 호소지 1,500권, 오조룡석 4령, 각종 화석 40령, 백저포 200필, 각색 면주 2,000필, 각색 세마포 400필, 각색 세포 10,000필, 포 1,400필, 쌀 10,000포였다. 물론 조선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량이었는데,

정축약조는 세폐관련 조항을 제외하면, 모든 15가지 조목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은 조명관계를 단절하고, 청의 대명전쟁에 참전과 군수지원을 한다는 핵심내용이었다.⁶⁵ 청은 조선의 정축약조 준수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 세자를 인질로 심양에 잡아두었다. 즉, 병자호란의 결과로 정축약조가 조청 군사관계를 ‘정축약조체제’라 부를 수 있다.

그럼 정축약조에 의한 조청 군사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조선은 정묘호란, 병자호란에 나뉘는 조선의 시대상황에서 대비했다. 만력 연간 이후 명은 비록 대외적으로 명 중심 국제질서를 유지했지만,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잦은 전쟁으로 인한 국력의 고갈이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반면 여진은 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에 의해 오랫동안 지속된 분열을 청산하고, 누르하치에 의해 건주여진, 여진 통합이란 결과를 맺었다.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는 정명전쟁을 치밀하게 전개하여 먼저 몽골을 먼저 복속시키고, 전쟁을 확대했다. 누르하치를 계승한 홍타이지는 당시 국제정세를 면밀히 파악하여 명의 경제붕괴를 타파하고자 몽골, 조선을 복속시켰다. 이 과정에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발생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전후복구에 집중하며 후금의 흥기를 주목하여 군사 대응을 준비했지만, 내부적으로 인조반정의 정세변화에 경험했다. 대외적으로 명 중심 국제질서의 세계관에 집착하여 국제정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병자호란의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했다.

정묘·병자호란 직후 조청관계는 전시대에 비하여 매우 긴박하였으며, 그 어느 시기보다 강한 예측성을 지녔다. 1644년 입관(入關)한 청은 중국 전역의 평정과 몽고문제에 주력하면서 조선정책은 다소 완화된 면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조청관계는 청이 주도하였다. 국제정세와 청 내부의 권력갈등 등이 반영되었지만,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강압적인 청의 조선

전쟁배상금의 성격이 있었다. 청이 입관 이후 점진적으로 세폐는 감소되었다.

⁶⁵ 전해중, 「청대 한중관계의 일고찰」, 『동양학』 1,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71, 230~231쪽.

정책은 정축약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병자호란 이후 조청관계에 군사적인 큰 충돌은 없었지만, 조선의 나선^{羅禪}정벌 파견, 백두산 정계 등이 모두 정축약조에 따라 조선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군사사건이었다.

정축약조의 군사역사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정묘호란 결과로 조·후금 사이에 체결된 약조와 비교해야 한다. 1627년(인조 5)의 정묘호란으로 국제체제는 명 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지하였지만, 조·후금관계는 변화하였다. 후금은 요동을 장악한 뒤, 가장 큰 위협세력이었던 몽고에 대해 투항을 유도하며, 반명 연합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대몽고 영향력을 강화하였다.⁶⁶ 전면적인 대명전쟁을 시작하기 전, 후금은 조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에서 전격적으로 정묘호란을 일으켰다.⁶⁷ 이 시기 조·후금관계는 정묘호란으로 체결된 약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평산^{平山}에 진주한 아민^{阿敏}의 후금군은 호차^{胡差} 유해^{劉海}를 통해 강화도의 조선을 압박하여 인조의 고천의식^{告天儀式}을 강요하고, 강도약서^{江都約誓}를 체결했다.⁶⁸

강화도에서 인조의 서문^{誓文}, 유해와 조선의 대신 사이에 서문 등을 읽는 것으로 약조의식은 진행되었다. 이때 서문의 내용 가운데, 조·후금 양국은 상호간에 화호를 강정^{講定}하고 각자의 영토를 수호하여 전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사적 불침범의 내용이다. 특히, 각수봉강^{各守封疆}하여 천명으로 부여받은 봉강^{封疆}을 지키자는 내용은 봉전^{封典}의 강역^{疆域}을 의미한다. 봉전은 원래 책봉국으로부터 제후국이 국왕으로 책봉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봉전에 따라 부여받은 강역이 규정된다. 즉, 여전히 명을 중심국가로 상정한 약서였다. 조선은 강도약서를 후금과 체결하면서 책봉국으로 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같은 조공국으로 후금을 인정하고자 하였던 의도

66 노기식, 「후금시기 만주와 몽골의 연맹 관계」, 『명청사연구』 11, 1999, 14~26쪽.

67 김종원,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해안, 1999, 84~85쪽.

68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3월 3일(경오). “朝鮮國王 以今丁卯年某月日 與金國立誓 我兩國已講定和好 今後各遵約誓 各守封疆 毋爭競細故 非理徵求 若我國 與金國計仇 違背和好 興兵侵伐 則亦皇天降災 若金國仍起不良之心 違背和好 興兵侵伐 則亦皇天降禍 兩國君臣 各守信心 共享太平 皇天后土 嶽瀆神祇 監聽此誓”.

였다. 이는 후금이 정묘호란을 통하여 의도하였던 외교적 목적이 강정화호 講定和好 하여 각수봉강 各守封疆 함으로써 기존 명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후금의 국제적 위상을 상승시키고 조선에 대한 견제였음을 의미한다.

강도약서 이후 철군과정에서 후금이 강요하여 체결된 평양약서 平壤約誓는 외교적 성과를 추가하고자하는 후금의 의도를 보여준다.⁶⁹ 철군하던 후금군은 홍타이지에게 강도약서의 내용을 보고했다. 당시 후금은 조선과의 강화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⁷⁰ 홍타이지는 모문룡을 견제할 군대를 의주, 진강 鎭江 등지에 주둔시키도록 했다.⁷¹ 아민은 조선의 왕제 王弟로 가칭 假稱하여 심양에 인질로 데려가던 종실 이각 李覺을 평양에서 위협하며, 추가 요구조건을 담은 약서를 체결하였다.⁷²

추가조항의 요지는 향후 명사 明使와 동등한 후금사신 대우, 군사력 강화 금지, 만주에서 도망한 사람의 쇄환 刷還, 명과 단교 등이었다.⁷³ 이 가운데 실질적인 후금의 관심사는 쇄환문제였다. 당시 후금은 요동을 장악하고, 정명전쟁에 필요한 인구확보가 최우선 과제였다. 실제 요동에 거주하던 한족과 조선에서 사로잡은 조선인이 조선으로 도망하는 일이 많아 이를 쇄환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절차에서 평양약서는 인질로 잡혀가던 이각을 강압하여 체결한 것으로

69 평양약서의 작성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강도약서의 작성시기가 3월 3일이며, 청의 서문 등본이 21일에 조선에 전달되었다. 아민이 청천강을 건넌 시기가 17일이란 점에서 17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70 『청태종실록』 권2, 천총 원년 3월 14일(신사). 조선정벌군의 전황과 강화내용이 홍타이지에게 보고되자 홍타이지는 팔기대신들과 회의하였지만, 그 내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여 결론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결국 강화를 허락하였다.

71 『청태종실록』 권2, 천총 원년 3월 18일(을유). 아민은 철군하며, 의주에 1,000명의 후금군, 2,000명의 몽골군을 주둔시키고, 진강에 300명의 후금군, 1,000명의 몽골군을 주둔시켰다.

72 『청태종실록』 권10, 천총 원년 5월 5일(경오).

73 『청태종실록』 권2, 천총 원년 3월 18일(을유). 후금의 홍타이지로부터 불만스러운 의견을 전달받은 아민은 평양에서 서문을 개정했다. 명본은 조선군의 위협으로 조선의 약서 불이행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쇄환과 외교관계에서 명과 동등한 대우였다. 이를 통해 아민이 체결한 강도약서가 매우 불만스러운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후금이 성취한 성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국왕의 승인을 획득하지 않아 이후 조청 양국간에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키는 요소였다.⁷⁴ 조선은 정묘호란의 2개 약조가 불리한 정세 때문에 체결한 것으로 약서의 내용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평양약서를 보고받은 인조가 대신과 인견한 자리에서 강도약서와 평양약서의 내용이 차이가 많다고 지적하자 최명길은 후금도 조선이 약서내용을 따르지 않을 것을 알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⁷⁵ 결국 조선은 명 중심의 조공체제를 유지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후금의 공세를 무마시키고자 했다. 후금은 조선을 압박하여 조·명 공조를 와해시키고 형식적이지만 조·후금의 화호체제를 맺어 피로인 쇄환 등 현실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였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청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되면서 조청관계의 새로운 외교체제가 형성되었다. 병자호란으로 새로운 조공체제로의 편입되자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정치적으로 삼전도의 치욕적인 항복의식은 국왕 인조의 정치적 권위를 붕괴시켰다. 인조는 반청의식을 강조하던 척화파를 배척하고, 김자점 등 친청파 반정공신을 중용하였다. 소현세자를 비롯한 인질은 조청관계에서 갈등요소였다.⁷⁶ 병자호란 여파는 조선의 대일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⁷⁷

병자호란의 결과로 체결된 정축약조(丁丑約條)는 청 태종의 조유(詔諭)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평양약조에 비하여 매우 강력하고, 구체적이란 특징이 있다. 정축약조를 요약하면 ① 군신의 신의, ② 명과 단절, ④ 후금의 정삭(正朔)을 받들 것, ⑤ 세자와 대신의 자제를 인질로 삼음, ⑥ 정명전쟁에 구원, ⑦ 가도(槓島) 공격에 구원, ⑧ 청군의 철병에 호군(稿軍), ⑨ 후금에 사신 파견, ⑩ 명과 동일한 의례준수, ⑪ 속환·쇄환, ⑫ 후금의 제신(諸臣)과 화혼

⁷⁴ 陳捷先, 「略論天聰年間後金與朝鮮的關係」, 『東方學志』 23-24, 1980, 331쪽.

⁷⁵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3월 21일(무자).

⁷⁶ 한명기, 「병자호란 패전의 정치적 파장 -청의 조선 압박과 인조의 대응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19, 2003, 73~82쪽.

⁷⁷ 한명기, 「영조대 왜관문제와 이이장」, 『역사문화논총』 3, 2007, 118~122쪽.

和婚, ⑬ 축성築城 금지, ⑭ 올랑합兀良哈 쇄환, ⑮ 일본을 조회하도록 할 것 등이다.⁷⁸

홍타이지의 문서에서 나열된 내용으로 구성된 정축약조는 일면, 조청관계의 외교적 문제로 보이지만, 철저히 군사적 내용이었다. 승전한 황제, 홍타이지의 의례적인 요구가 아닌 국제관계에서 구체적인 군사관계를 상세하고 주도면밀하게 강요한 것이다. 당연히 승리한 입장에서 패전한 조선에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마치 외교적이고 의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든 조항이 군사문제로 직결된다.

군신의 신의, 명과 단절, 후금 정삭을 받든다는 것으로 조선이 청에 대해 사대事大함을 의미한다. 조선이 외교적으로 청의 봉전封典을 받고, 조선은 사행을 파견하여 조근朝覲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조청관계가 맺어졌다는 점은 상호간에 의무와 권리가 존재한다. 권리를 먼저 살펴보면, 청은 조선에 근왕勤王을 요구할 수 있고, 조선은 청에 외부의 침입에 대해 정토征討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청은 조선에서 요구하는 봉전에 대해 책봉을 시행해야 하며, 조선은 청에 대해 조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군사적으로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의 근왕 요구에 따라 명청전쟁에 조선군을 파견하고 군량을 지원했다.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이 청에 정토의 군대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조선은 청의 근왕군 파견 요구에 대해 적극 임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⁷⁹ 이런 조청 군사관계는 청의 명청전쟁 참전 요구와 조선의 개항기,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위해 청군 파견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으로 청은 조선 스스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금지했다. 조선이 전통적으로 청과 같은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⁷⁸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1월 28일(무진).

⁷⁹ 김경록,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한중관계의 전개양상」, 『중국학보』 60, 중국학회, 2009, 287~311쪽.

성곽중심의 방어체제를 갖추었던 점에 착안하여 철저하게 축성을 금지시켰다. 특히 산성체제에서 산성을 축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선이 군사력을 몰래 양성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전국에 분포한 산성에 목장과 병기를 숨겨 군사력을 양성한다면 청의 입장에서 조선의 반대세력화로 나아갈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청은 조선의 주변 세력으로 일본이 군사적 위협으로 등장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에 조선으로 하여금 일본과 교역하며 일본이 청에 입조하도록 할 것을 강요했다. 실제 청은 중국대륙에서 명과 전쟁하는 것에 집중하여 별다른 여력이 없었다. 일본이 명과 해양으로 연계될 위협이 있어 청에 조공하면 국제적으로 큰 지원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조선이 중간에서 일본의 입조하도록 강요했다.

결론적으로 정축약조는 병자호란의 결과로 승전국 청이 패전국 조선에 강요하는 군사외교적 강제였다. 정축약조의 본질은 철저히 향후 형성될 조청 군사관계의 전형을 상세히 강요한 것이다. 정축약조의 여러 조항은 이후 오랜기간 유지되었으며, 조선의 안정적인 대청관계 변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된 이후에 서서히 변화되었다.

정축약조와 조선의 군사변화

이상과 같이 정축약조체제가 성립된 이후 조청관계는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전형적인 조공책봉관계를 맺었다. 청 중심 국제질서 하에서 청은 조선에 대해 강압적인 군사외교를 전개하였으며, 조선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청에 의해 국방력 강화를 철저히 통제받는 과정에서 조선은 병자호란의 전쟁경험을 바탕으로 군사변화가 이루어졌다.

조선 인조대 국방전략은 서북방을 방어하고, 도성방어체제를 강화하는 체제였다. 이를 위해 체찰사부(體察使府)를 두어 전국적인 군사지휘체제를 갖

추었다. 서북방의 방어를 강조하여 도원수와 부원수를 평안도, 황해도에 파견하여 군사력을 통합 지휘하도록 했다. 서북방에서 침입하는 적을 방어하는 체제가 무너지면 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의 방어선을 구축하여 지구전을 염두에 두었다. 도성방어체제는 강화도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방어시설을 확장하고, 수원, 개성 등지를 중요 군사축선으로 삼아 군사체제를 강화했다.⁸⁰

구체적으로 야전에서 기병중심의 후금군과 조우를 대비하고, 군사요충지를 근거로 방어시설을 확장했다. 또한, 기병중심 후금군과 일대 회전을 염두에 두고, 기병과의 전투에 유리한 전차를 확보하고, 화력을 강화했다. 또한, 수레에 화포를 실은 포차의 운용도 모색되었다. 이는 산성체제의 한계를 인정하며, 야전에서 후금의 기병을 대적하기 위한 전술적 대비였다.

인조초반 조선은 국제정세에 대한 군사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군사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 방어적인 전차, 포차의 운영뿐만 아니라 10여 만명의 군사를 확보하여 요동지역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1624년(인조 2) 정충신의 주장으로 등장한 10만 병력확보 주장은 명·후금전쟁의 격화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의 군사적 지향 가운데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인조초반 국제정세에 따른 군사대응은 이괄의 난으로 급격하게 전술적 변화를 가져왔다. 인조는 즉위기간 모두 세 차례 도성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유일한 국왕이다.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다. 특히 즉위한지 2년만에 자신을 추대하였던 이괄이 일으킨 반란으로 피난하였던 경험은 국왕 인조에게 큰 위기감을 주었다. 또한,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은 기병의 기동성이 가지는 군사적 위협을 조선이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병이 주축을 이룬 이괄의 난을 진압한 조선은 기병을 양성하기

⁸⁰ 노영구, 「조선-청 전쟁(병자호란)과 조선의 군사적 대응」, 『한국군사사』 7, 육군본부, 2012, 303~357쪽.

위해 노력했다.⁸¹ 그러나 기병의 기본전제인 군마 조달에 한계를 보였다.

일정한 규모의 기병이 당시 양성되어 기병과 보병을 혼합한 전술이 모색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귀^{李貴}가 전차를 중심으로 기병과 보병을 혼합하여 전투를 구사하는 『연병실기^{練兵實紀}』를 군사지휘관으로 하여금 익히도록 하였다. 이런 주장은 조선이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여 후금의 군사력을 파악하고 대응한 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의 군사적 준비는 후금의 기병을 감안하면서도 그 정도에 있어 차이점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 조선이 준비한 군사력으로 후금의 강력한 기병을 막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조선은 정묘호란 직전까지 전통적인 거점 중심의 방어전략을 시행했다. 즉, 대후금 방어전략으로 서북면의 거점방어, 도성방어체제, 반격전략 등을 구상했다. 그러나 정묘호란에 조선군은 거점방어에 실패하고, 도성방어체제가 붕괴되었으며, 적극적인 반격전략도 구사하지 못했다. 이에 조선은 새로운 전술에 관심을 가졌다.

첫째, 근접전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조선군이 야간습격, 편곤수 등을 활용한 근접전에 후금군을 제압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문제는 실제 기습적인 근접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기병으로 기동성을 강조하는 후금군을 조선군이 습격하기란 어려웠다.

둘째, 사수와 포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근접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먼거리의 후금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조선군의 공격력이 필요했다. 가장 효과적인 군사력은 조총수를 활용한 공격력이었다. 조선군은 대대적으로 조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포수를 양성하고자 했다.

셋째, 부대구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정묘호란 이후 조선군은 포수중심으로 사수, 살수를 구성하고, 기병을 편성하여 포대, 사대, 살수,

⁸¹ 『인조실록』 권4, 인조 2년 3월 5일(기미).

편군, 기사 등의 순서로 적을 공격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전술적 변화와 병종의 혼합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병자호란은 조선군의 방어전략을 완전히 마비시킨 전쟁이었다. 신속하게 도성을 향해 질주하는 선봉대를 이어 본진이 조선의 주요 거점을 회피하여 도성으로 진격했다. 거점방어, 도성방어체제 등이 일시에 무너진 것이다. 실질적인 전투마저 없었던 병자호란은 남한산성에서 농성전을 하는 것밖에 조선군의 군사활동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은 병자호란의 패배에 대한 원인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조선군의 전술변화를 시도했다. 조선은 군사전략적으로 산성 중심의 수세적 방어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에 있어 조선군이 산성에 입보하여 방어체제를 구축하였지만, 청군이 산성을 우회하여 신속하게 도성을 공략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비록 조선군이 병력과 화력을 갖추었더라도 청군을 결코 제어할 수 없었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에 조선은 우회하는 산성 중심 방어체제를 탈피하여 평지에서 기병을 강화하여 방어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묘호란 이후 기병을 강화하고자 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험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에 강화된 기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성 중심 방어체제로 회귀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조선이 제기한 방안은 전차를 활용한 방어체제 강화였다.⁸²

82 『礪溪隱錄』 권22, 兵制後錄, 兵車. “兵車宜審度形便量宜造備以爲軍用.(凡兵騎爲上, 步次之, 而用騎步之法, 莫如攝之以車. 中國在處, 皆可用車, 而本國, 則山溪多阻, 不如中國之便易. 然欲制虜騎, 捨車不可, 宜審度形便, 如平壤安州義州咸興鏡城會寧鍾城或慶源等處, 及他藩鎮地形便宜處. 可設一陣車以備緩急爲當. 若然則不徒藏置, 待變而已. 在平日宜依陣法, 配以騎步定爲約束, 而操鍊時, 車亦同出, 習陣又凡有載運輸, 將之事去, 其木牌兵械, 用此運輸, 亦有益矣. 凡制南倭, 莫如舟師, 制北虜, 莫如車戰. 謀國者, 不可不深爲講究也.) (중략) 頃在丙子之難, 虜直抵京都, 西路諸帥, 皆入山城, 虜騎睨而過之, 而不敢下城出戰. 若令有車, 則塞路結陣, 欲戰則戰, 欲守則守, 戰守皆在我爲一事, 虜人焉敢直過. 此可見設險禦衝, 何便出奇, 莫如車, 況治國家事力, 完復將興師出塞, 躡虜庭而問渠酋之罪, 則非車以行師, 不可以有濟也.(古人謂車爲一陣之介, 有脚之城, 是實驗之言也.)”

조선은 정축약조에서 강력하게 제약되었던 무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무기체계는 국가의 군국지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국가의 통제사항으로 다루었다. 개별 무기뿐만 아니라 무기의 재료가 되는 생산물에 대해서도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 전래되거나 반출되는 것을 통제했다. 이런 통제를 조선시대 대중국관계에서 살펴보면 금물禁物이라 표현하여 국가간의 관계에서 명시적으로 표기되었다.⁸³ 국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관원이나 상인이 이익을 노리고 몰래 교역하면 명과 청은 황제의 명령을 어긴 중한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했다.

한편, 전통적인 냉병기 가운데 수우각水牛角 수입문제가 있고, 화약무기의 재료가 되는 화약제조술의 도입문제가 있다. 먼저 수우각 수입문제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무기체계에서 최강의 무기로 평가할 수 있는 활은 그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나무로 만든 목궁, 대나무로 만든 죽궁은 만들기 쉽고 재료가 주변에 많아 활용도가 높지만, 문제는 단단하기와 탄력이었다. 활쏘는 군사가 손에 익을 때면 목궁과 죽궁은 이미 탄력이 떨어져 활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사거리도 문제였다. 소 뿔과 쇠심줄을 활대에 덧대어 제작하면 화살이 멀리 나가는 강궁强弓이 된다. 활 시위의 탄력을 높여주는 것은 짐승의 뿔 중에서 물소 뿔이다. 물소 뿔은 한 개의 길이가 최대 2미터나 큰 활을 제작할 수 있다. 향각과 녹각은 3개의 뿔을 덧대야 한 개의 활을 완성할 수 있어 근본적으로 탄력에 한계가 있었다.

활 가운데 각궁角弓의 재료였던 수우각을 확보하기 위한 조선의 외교활동은 초기부터 지속되었다. 각궁은 그 정확도와 사정거리가 멀어 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로 평가된다. 이런 각궁은 그 재료가 되는 뿔이 원활

⁸³ 『대명회전』 권111, 예부, 給賜2. “會同館開市，禮部出給告示，除違禁物，不許貿易。其(土商)絹布疋，聽於街市，與官員軍民人等，兩平買賣。” 금지물품은 수우각, 지도, 화약, 특정 서적 등 다양했다. 명대의 사행제도를 계승한 청 역시 대외적으로 금지물품이 사행 내지 국경에서 교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히 공급되어야 한다. 뿔 역시 활을 제조하는데 적합한 크기와 탄력을 가져야 했다. 전통적으로 최고의 뿔은 물소뿔이었다. 물소뿔은 일명 흑각(黑角)이라 불리는 검은 빛깔의 뿔이며, 예제(禮制)를 중시한 조선에서 활 이외에도 다양한 쓰임새가 있었다. 일반 소뿔에 비해 크고 탄력도 뛰어났다. 조선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소뿔을 공급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수우각 무역을 전개했다.



〈그림 19〉 조선 후기 각궁

(소장 : 육군박물관)

우수한 각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물소 뿔을 수입해야 하는데, 명은 물소 뿔을 군사물품으로 지정하여 국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공식적인 수입이 차단되자 결국 사적으로 몰래 매입하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발각되면 처벌받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교역수량도 적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밑수에 해당되는 거래였다. 자연히 요동에서 요구한 댓가는 조선에서 가장 화폐가치가 높은 면주(綿紬·인삼人蔘)·

피물(皮物) 등이었다. 이는 조선에서 상공업의 수준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특산물로 국가에 납부하는 한정된 생산물이었다.⁸⁴

조명관계, 조청관계에서 무기뿐만 아니라 무기에 대한 정보가 조선에 유출되는 것도 엄격하게 통제할 정도였다. 일례로 명대 황제, 내각, 환관 등 명 권력층 전반을 대상으로 조선사신이 북경에서 활발하게 외교활동을

⁸⁴ 『단종실록』 권2. 단종 즉위년 7월 13일(갑진). 당시 조선에서 別例弓을 만들지 말고, 평안도에서 생산되는 綿紬·人蔘·皮物을 북경에 가는 사신에게 부쳐 보내어 요동의 수우각을 사서 만들도록 하였다. 이때 북경까지 가는 대명사행에게 물품을 주어 이들이 귀국하는 길에 요동에서 수우각을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북경에서 조선사행의 물품검사가 엄격하였기 때문이었다.

별이며, 각종 무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면 이에 정보를 누설한 관원을 강하게 처벌하기도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기와 군수물자는 한 국가의 대외정책, 군사정책, 군수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국가발전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무기에 관련된 물품은 단순 물품의 교역 차원이 아니라 기술유출이라는 무기체계와 연관된다. 조선의 경우, 비록 물소뿔은 생산되지 않았지만, 수우각을 이용한 각궁 제조기술은 매우 높았다.

조선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소 뿔을 가공하여 우수한 각궁을 만들었던 사실은 일찍부터 중국에 알려졌다. 각궁제조 기술의 우수성은 명나라뿐만 아니라 청나라까지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후금^{後金}은 초기 상황에서 환골탈태하여 본격적으로 명과의 전쟁에 전념하기 위해 국호를 청^淸으로 고치고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이와 동시에 친명 외교정책 기조를 가졌던 조선을 제압하기 위해 청 태종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여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병자호란은 삼전도^{三田渡}의 치욕으로 종결되어 조선은 청의 강압에 의해 정축약조^{丁丑約條}를 체결하였다. 정축약조의 한 조항은 매년 받쳐야 하는 세폐^{歲幣}를 규정하였는데, 조선은 황금 100냥, 백은^{白銀} 100냥, 수우각궁면^{水牛角弓面} 200부^副 등을 받치도록 강요받았다. 조선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우각을 재료로 강력한 무기였던 각궁을 생산하였다. 이의 우수성을 인정한 청나라는 조선에서 각궁을 조공물품으로 받고자 하였다. 재료는 자체 생산이 없지만, 이를 활용하여 첨단 무기였던 각궁의 제조기술은 조선이 매우 우수하였다.⁸⁵

각궁의 100부는 1647년(인조 25)에 감면되고, 100부는 1654년(효종 5)에 호대지^{好大紙} 1,000권과 호소지^{好小紙} 1,500권으로 대신하였다. 이후 조선은 청나라와 각궁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⁸⁵ 『연려실기술』별집 제5권, 사대전고(事大典故), 공헌(貢獻).

물소 뿔은 빛이 검다고 하여 ‘흑각^{黑角}’,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였기 때문에 ‘당각^{唐角}’, 활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궁각^{弓角}’, 소뿔이라는 의미에서 ‘우각^{牛角}’, ‘수우각^{水牛角}’ 등으로 불렸다. 물소는 중국의 남부지방에서 주로 서식하여 일찍이 중국에서 물소 뿔을 의복의 요대에 사용하였다. 자연스럽게 의례에 반영되어 각종 복식^{服飾}에 있어 물소 뿔을 활용한 각대^{角帶}가 사용되었다. 중국의 의례를 수입한 조선은 물소 뿔을 조복^{朝服}의 각대, 말 안장^{馬鞍橋}의 장식용으로 폭 넓게 사용하였다.

물소 뿔의 다양한 쓰임새는 관복제도의 정비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뒤 조공체제의 국제질서를 고려하여 황제국이었던 명의 관복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당시 명이 정한 관복제도는 1품은 홍포^{紅袍}·서대^{犀帶}, 2품은 홍포^{紅袍}·여지금대^{荔枝金帶}, 3·4품은 청포^{靑袍}·흑각^{黑角}·흑각대^{黑角帶}·상홀^{象笏}, 5·6품은 청포^{靑袍}·흑각^{黑角}·흑각대^{黑角帶}·목홀^{木笏}, 7품 이하는 녹포^{綠袍}·흑각^{黑角}·흑각대^{黑角帶}·목홀^{木笏}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례^{喪禮}에 있어 문무백관은 소복^{素服}·흑각대^{黑角帶}·오사모^{烏紗帽}를 착용하도록 정하였다.⁸⁶ 이러한 흑각대의 사용은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

흑각대는 명의 복제^{服制}뿐만 아니라 유교사회에서 대표적인 예서^{禮書}였던 주자의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상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은 1410년(태종 10) 8월에 의례정비를 위한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를 설치하고 1416년(태종 16) 1월에 관복색^{冠服色}을 설치하여 문무관원의 조복^{朝服}제도를 마련하였다.⁸⁷ 이때 조선은 관복의 색깔과 사모, 흉배, 띠 등으로 품계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복제정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흑각^{黑角}이라는 물소 뿔이었다.

※ 관복제도 : 조선시대 공복^{公服}에는 조복^{朝服}·관복^{冠服}·시복^{時服}·제복^{祭服}·상복^{喪服}·군복^{軍服}·융복^{戎服}·갑주^{甲冑} 등이 있었다. 이들 복색은 시기와 성

⁸⁶ 『태조실록』 권2, 태조 1년 12월 무오;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5월 임신.

⁸⁷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8월 임술; 권31, 16년 1월 병오.

격에 따른 구분으로 예치禮治사회였던 조선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특히, 관복은 상복常服이라 하여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착용하는 의복으로 사모紗帽·흑단령黑團領·흉배胸背·띠帶·패수牌綬·화靴 등을 갖추어서 입어야 했다. 구체적으로 품계는 사모·흉배·띠 등으로 구별하였다. 사모는 1~3품은 협각사모挾角紗帽, 4~9품은 단각사모單角紗帽를 썼다. 흉배는 옷과 같은 색인데, 사紗 혹은 단緞에 수를 놓아 사용하였으며, 띠는 금관조복金冠朝服의 경우와 같은데, 1품은 서대犀帶, 정2품은 삼금대緞金帶, 종2품은 소금대素金帶 또는 여지금대枝金帶, 정3품은 삼은대緞銀帶, 종3~4품은 소은대素銀帶, 5~9품까지는 각대角帶를 착용하였다.

※ 혁대革帶는 관복의 허리에 차는 띠. 2품品 이상은 금金을 쓰고, 3품品에서 4품까지는 은銀) 쓰고, 5품 이하는 동銅을 쓴다.

정축약조에 따라 청은 조선의 화약무기 제조 역시 제약했다. 조선군의 무기체제에서 개인 화약무기는 중요하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군은 개인 화약무기로 조총을 도입하여 편제화하였다. 조선 조총수의 활약상은 나선정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개인 화약무기를 살펴보면, 조선은 기존 조총을 최대한 활용했다.

재래의 칼과 활 등 냉병기를 활용한 전투는 병력의 숫자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화약무기가 개발되면서 전투양상은 동서양을 통틀어 공동적으로 적용되었다. 처음 중국에서 시작된 화약은 서양으로 전래되고 개인 화약무기를 개발하여 다시 동양사회에 전래되었다. 동양사회에 물론 개인화기가 있었다. 조총은 화승총火繩銃으로 유럽에서 발달했다. 12세기 중국의 대포가 유럽에 전래되고, 13세기 개인화기 화승총이 또한 유럽으로 전래했다. 15세기에 유럽에서 개인화기에 방아쇠를 도입하며 화승총이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16세기 초반, 스페인에서 개발된 아퀴버스arcabuz에서 유래된 조총은 16세기 중엽에 일본에 전래되고 동양사회 전반에 퍼졌다.

1543년 다네가시마種子島에 중국 해적선이 난파되었다. 해적 두목 왕직

의 난파된 배에 포르투갈인 3명이 탑승하였는데, 이들이 조총을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다. 조총을 입수한 다네가시마는 제철업이 발달했었던 섬이다. 다네가시마는 조총 제작을 시도하여 성공하여 일본식 조총인 ‘다네가시마총(種子島銃)’을 만들었다.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 전국적으로 조총이 활용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조총 부대를 별도로 편성하기도 했다.

조총은 전쟁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인 전쟁이 임진왜란이다. 조선군이 보유한 개인화기는 총통이었다. 총통은 화기가 화약선(심지)에 직접 불을 붙이는 방식인 지화식(指火式) 화기인 반면, 조총은 격발장치가 있어 방아쇠를 당기면 용두에 끼워져 있는 화승이 화약에 불을 붙여줌으로써 탄환이 발사되는 방식의 화승식 소총이었다. 조선이 조총을 처음 접한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589년(선조 22) 7월, 대마도주였던 소 요시토시(宗義智)가 조선에 몇 개의 조총을 진상하며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선은 조총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군기시에 보관하여 사장시켰다. 임진왜란에서 조총의 위력을 확인한 조선은 명군과 항복한 일본군을 통해 조총의 제작, 사격술을 도입하고자 했다. 조선의 조총 제작에 있어 철을 재료로 하는 조총의 총신 제조가 어려워 난관을 겪었다. 조총 제작에 획기적 발전은 광해군에 의해 진행되었다. 1614년(광해군 6) 광해군은 화기도감이라는 전문 화약무기 제조기관을 설치하여 조총, 불랑기, 백자총, 삼안총, 소승자총통 등을 제작하도록 했다. 화기도감에서의 조총 제조는 초기 숙련된 장인을 중심으로 제작하는 1인 공장 체제가 아닌 장인들의 생산능력을 기초로 하여 생산 공정을 짜서 분업적 협업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조총 제작 공정에는 소로장, 야장, 찬혈장, 나사정장, 연마장, 조성장, 이약통장 등의 철장과 초련목수장, 조가장, 장가장, 찬혈장, 취색장, 기화장, 염장, 피장 등의 다양한 장인이 참여하였다.

조총 제조에 가장 어려운 공정은 총열 제작이었다. 총열은 조총의 성능과도 직결되는데, 총열의 면이 고르고, 곧게 형성되어야 사격시 사거리와

명중률이 높아진다. 조선의 조총 제작 노력은 결과를 보아 1627년(인조 5)에 연간 1천 정을 생산하였으며, 1637년에는 연간 2천 정을 생산하여 조선군의 주력무기로 사용되었다.



〈그림 20〉 조총 발사장치

(소장 : 국립진주박물관)

조총은 화약과 탄환을 총구에 장전하여 손
잡이 부분에 마련된 점화구 심지에 불을
붙여 발사한다.

〈그림 20〉 소총 발사장치

(소장 : 국립민주박물관)

조총은 화약과 탄환을 총구에 장전하여 손잡이 부분에 마련된 점화구 심지에 불을 붙여 발사한다.

도 빠르기 때문에 이미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를 개발하여 사용했다. 나선정벌에서 러시아군의 소총을 노획했지만 청군의 압력으로 가져오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신유는 새로운 총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군 지휘관과 교섭하여 한 자루를 입수했다. 이처럼 조선은 초기부터 총통과 같은 개인화기를 사용하였으며, 임진왜란을 거쳐 조총을 수용하고 주요 개인화기로 활용했다. 조총은 16세기 초 포르투갈이 아시아에 진출하며 서구의 화약무기 기술과 아시아의 자체적인 총기가 결합되어 화승식 개인화기로 제조되고 보급되었다.

화승식(火繩式) 조총은 기존 냉병기와 달리 개인 화약무기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비와 바람에 취약하고, 개인휴대하기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비해 서구의 화약무기는 수석식(燧石式) 소총(小銃), 후장식(後裝式) 소총 등으로 발사속도와 상대적으로 비·바람에 영향을 덜 받는 장점이 있었다.⁸⁸

⁸⁸ 이강칠, 「조선효종조 나선정벌과 피아 조총에 대한 소고」, 『고문화』 20, 한국대학박물관 협회, 1982, 15~28쪽.



〈그림 21〉 수석식 소총의 발사장치

(소장 : 전쟁기념관)

수석식 소총은 플린트락(Flintlock)이라 불리는데, 플린트는 부싷돌을 의미한다. 부싷돌의 마찰을 통해 화약에 불을 붙여 격발하는 방식이다.

현대에 일반적으로 화약이란 열, 전기, 충격 따위의 가벼운 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연소 또는 분해 반응을 일으키고 높은 온도의 열과 압력을 가진 가스를 발생시켜 파괴, 추진 따위의 작용하는 화합물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이런 화약은 폭발성을 가진 물질에 외부의 자극이 가해져 폭발력으로 화살, 환 등을 목표

물을 향해 발사하는 무기의 핵심요소이다. 화약폭발의 원리는 주로 산화 반응, 즉 연소가 일어나는데 연소속도가 빠르고 높은 온도가 되며 급격한 가스팽창에 의해서 음향과 파괴력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폭발은 압력의 급격한 해방을 말하지만, 화약류의 폭발은 폭발속도, 즉, 화염의 전파속도가 음속보다 작을 때는 연소라 하고, 폭발로 인한 충격을 폭발이라 한다. 그러므로 연소와 폭발을 합하여 폭발이라 한다.

화약무기는 화약과 화포 자체의 제작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화약은 뒤에 설명하고, 먼저 화약의 폭발력을 견뎌야 했던 화포 제작도 무기 발전에 중요하다. 화포는 청동을 소재로 구리-주석-납을 주성분으로 주조하였으며, 화포의 종류에 따라 합금비율에서 차이가 있다. 소형 화포인 승자총통에는 주석과 납이 적게 포함되고, 중대형 화포인 불랑기 자포에는 8%를 상회하는 많은 함량의 납이 포함된다. 화포는 청동합금을 주조틀에 부은 뒤 천천히 냉각시켜 제작했다. 화포 제작에 불순물이 포함되면 폭발력을 이기지 못하고 화포 자체가 터져 발사자와 조선군이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한편, 철을 소재로 제작된 화포는 단조로 제작되었다. 철제 총통 제작은 철 소재를 저온환원법으로 생산된 괴련철이나 해면철을 사용한 것

으로 보인다. 철을 소재로 중대형 화포를 제작할 경우 총신이 두꺼워 화약 폭발에 의한 고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주조방법이 용이했다. 하지만 총신이 가는 소형 철제총통은 파열되기 쉬우므로 강한 인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단조 기술이 필요했다. 이처럼 조선은 화약무기로 화포를 제작하며 철, 청동, 납 등 다양한 재질의 금속을 활용했다.⁸⁹

조선후기 화약을 살펴볼 때, 현대의 화약분류에서 용도에 의한 분류가 적용될 수 있다. 화약은 용도에 따라 화약류의 연소에 의해 추진효과만을 내는 화약류를 추진약^{properllant}이라 하고, 폭발반응의 파괴작용을 이용하는 화약류를 파괴약^{Disruptive explosive}이라 한다. 이런 분류에서 조선후기 화약은 대체로 추진약에 해당한다.

조선의 화약무기에 큰 영향을 준 중국의 화약발달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구준^{丘濬}의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에 화약을 구리철 가운데에 넣어 불을 붙여 터뜨린 것은 근세에 시작되어 이르렀으며, 하늘이 국가에 복을 내려 자고로 없는 화약무기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명대 화포의 무기체계가 갖추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⁰

중국에서 화포의 본격적인 무기체계화는 원대에 이루어졌다. 원이 송의 변경^{汴京}을 공격할 때 찬죽포^{攢竹砲}, 진천뢰^{震天雷} 등을 활용하였으며,⁹¹ 양양^{襄陽}을 공격할 때 회회^{回回}인이 만든 포를 사용했는데, 큰 돌을 쏘아 성벽을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양양포^{襄陽礮}라 한다.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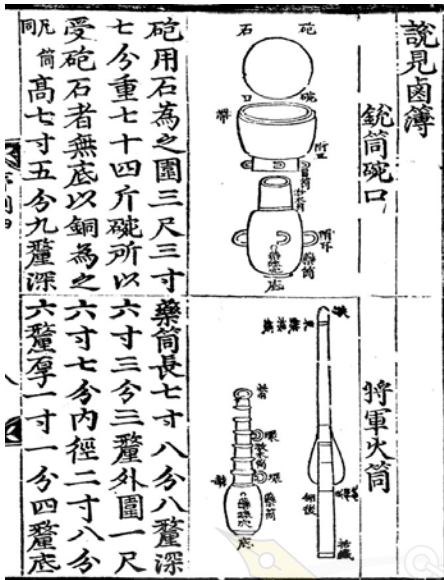
한국사에서 화약무기는 고려말 원에서 전래되면서 시작되었다. 고려는 화통도감^{火桶都監}을 설치하여 화약무기를 고려군에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최무선^{崔茂宣}에 의해 화약 제조기술이 도입된 이후 1377년(우왕 3) 최무선의

⁸⁹ 이재성, 백승희, 「임진왜란기 화약 무기의 제작기술 검토-성분분석 및 미세조직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고문화』 8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13, 135~155쪽.

⁹⁰ 『大學衍義補』 권121, 治國平天下之要, 嚴武備, 器械之利(上).

⁹¹ 『宋史紀事本末』 권90, 蒙古取汴.

⁹² 『逐鹿記』, “又設襄陽礮, 著物無不糜碎, 礮風著人皆死, 城中震恐”.



〈그림 22〉『국조오례의서』 「병기도설」

(소장 :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은 건국이후 화약무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진정벌과 왜구소탕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자가 「병기도설」이다. 냉병기와 함께 본 그림과 같이 총통완구, 장군화통과 같은 화약무기의 제원, 사용법을 상세히 기록했다.

건의로 화약과 화약 무기 제조를 담당할 전문기구인 화통도감에서 설치되었다. 화통도감에서 제작한 화약무기는 대장군포 大將軍砲, 이장군포 二將軍砲, 삼장군포 三將軍砲, 육화석포 六花石砲, 화포 火砲, 신포 信砲, 화통 火桶, 화전 火箭, 철령전 鐵翎箭, 피령전 皮翎箭, 질러포 蒺藜砲, 철탄자 鐵彈子, 천산오룡전 穿山五龍箭, 유화 流火, 주화 走火, 촉천화 觸天火 등 18종이었다.⁹³

조선이 건국된 뒤 태종은 화약무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습득시키고자 했다. 세종은 사군육진 개척과 같은 여진정벌을 계기로 화약무기를 전면적으로 개주 改鑄하고, 화차 火車를 제조했다. 문

종은 세종대 화약 무기 개발을 계승하여 염초를 정액 납공 納貢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조대 이시애 李施愛가 화약무기를 활용하여 난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자 화약무기는 정체를 맞아야 했다.⁹⁴ 태조대 왜구제압에 화약이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세종대 여진이 화포와 궁노 弓弩를 보유한 명군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침입하지 못함을 들어 조선의 화포 보유 및 발전이 강조되었다.⁹⁵

⁹³ 허선도, 「麗末鮮初 火器의 傳來와 發達(上)」, 『역사학보』 24, 역사학회, 1964, 1~60쪽.

⁹⁴ 허선도, 「麗末鮮初 火器의 傳來와 發達(下)」, 『역사학보』 26, 역사학회, 1965, 141~165쪽.

⁹⁵ 『태조실록』 권7, 태조 4년 4월 20일(임오);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2월 10일(기해). 검교참찬문하부사 최무선의 종가에 여말선초 화약의 유입과정 및 왜구와의 전투에 화약과 화약무기가 사용된 사례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조선의 화약무기는 여말선초에 화통^{火桶}에서 시작되어 조선후기 불랑기 등 각종 화포에 이르기까지 시대상황과 연관되어 중요 무기체계로 정착되었다. 화통은 일명 총통^{銃筒}, 총^銃으로 불리며, 화약을 이용하여 화살이나 탄환을 발사하던 화약무기이다. 조선은 초기부터 화약무기 화통에 주목하여 화약 제조기술의 도입에 집중했다. 화통은 시대가 흐르며 총통, 화포, 총 등으로 구분되었다.

조선중기에 이르러 화약병기는 보다 발달했다. 1474년(성종 5)에서 1510년(중종 5) 삼포왜란^{三浦倭亂}까지 『화기도설^{火器圖說}』이 편찬된 이후 조선은 화약무기를 중점 발달시켰다.⁹⁶ 삼포왜란 이후 화약무기를 더욱 발달했는데, 조선은 1555년(명종 10)에 을묘왜변^{乙卯倭變}이 발발하자 화약무기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비책^{禁秘策}을 강화했다. 조선은 을묘왜변이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대형총통과 승자총통^{勝字銃筒}과 같은 비교적 큰 화포를 중심으



〈그림 23〉『화포식언해』 「제약식」

(소장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화포식언해』는 조선후기 군사들의 화약무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편찬된 언해서이며, 화약 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약제조 기술을 기재한 부분이다.

96 『國朝五禮序例』 권4. 軍禮, 兵器圖說. 『국조오례의서례』는 1474년(성종 5)에 신숙주·강희맹 등이 왕명에 의해 편찬한 5권 2책의 禮書로서 국조오례의의 의례를 시행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조오례의서례』는 1788년(정조 12)에 정조가 예조의 관서지로 국가전례에 관한 一統之書를 만들고자 柳義養에게 명하여 기존 국가전례서를 총 집대성한 『春官通考』에 수록되었다. 『국조오례서례』에 군례편에 포함된 「병기도설」은 조선이 보유한 주요 무기의 설계도와 운용법을 기록한 군사문헌이다. 군례에 관련된 점에서 냉병기가 주를 이루지만, 성종대 조선이 지향한 화약무기의 무기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이다. 「병기도설」에 干, 槍, 長劍, 劍, 弓, 矢, 弓袋, 水銀甲, 鐵子甲, 鏡幡甲, 頭釘甲, 黃銅頭釘甲, 頭頭味甲, 胄, 車輻, 矛, 戟, 鉞 등 냉병기 뿐만 아니라 銃筒碗口, 將軍火筒, 一銃筒, 二銃筒, 三銃筒, 八箭銃筒, 四箭銃筒, 四箭長銃筒, 細銃筒, 鐵信砲, 大發火筒, 地火筒, 大疾黎砲筒, 大神機箭發火筒, 大神機箭, 中神機箭, 火箭, 新製銃筒, 火車 등 화약무기도 수록되어 있다.

로 화약무기를 발달시켰다.⁹⁷ 이처럼 여말선초에서 조선중기까지 화약무기를 꾸준히 발전시킨 조선은 임진왜란기 일본군의 조총에 맞서 지상과 해전에서 화포를 중심으로 한 화약무기를 활용하여 전세를 역전시켰다. 신기전^{神機箭}과 주화^{走火} 등 화약무기는 로켓형 화약무기로 조선의 국방전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⁹⁸ 조선후기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전쟁경험은 조선의 화약무기 발달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이에 조선은 조총^{鳥銃}을 비롯하여 호준포^{虎蹲砲}, 불량기^{佛狼機}, 삼안총^{三眼鏡}, 백자총통^{百字銃筒} 등을 개발하였다.



〈그림 24〉 조선후기 제작된 불량기

(소장 : 국립중앙박물관)

불량기는 조선에 도입된 이후 조선의 주력 화포로 자리잡았다.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고 화약장전과정에 폭발의 위험도 적은 장점이 있었다.

조선후기 숙종은 조선군의 화포운용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군사를 위해 화포관련 서적을 언해하여 읽고 사용법을 익히도록 했다. 일례로 1685년(숙종 11) 이서^{李曙}가 당시 조선군이 사용하던 화약무기의 사용법과 화약 제조방법을 기술한 『화포식^{火砲式}』을 한글로 언해^{諺解}했다. 『화포식언해』의 간행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선진화기를 도입해 다양한 화약무기를 개발하고 제작한 과정을 보여주며, 당시까지 간행된 화약 교범서를 계승하는 17세기 중반 조선의 화약 발달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화포식언해』는 총통에 화약을 채워넣는 방법을 설명한 ‘장약^{藏藥}’, 각종 화약무기 사용법, 각종 폭탄과 약선의 제조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한 ‘재작식^{裁作式}’, 각종 화약의 배합 비율과 제작법을 설명한 ‘제약식^{劑藥式}’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화약은 정제된 염초에 유황과 재^灰를 적

⁹⁷ 허선도, 「이조중기 火器의 발달(상)」, 『역사학보』 30, 역사학회, 1966, 47~107쪽; 「이조중기 火器의 발달(하)」, 『역사학보』 31, 역사학회, 1966, 67~127쪽.

⁹⁸ 채연석, 「走火와 神機箭의 研究-韓國初期(1377~1600)의 로케트에 대하여」, 『역사학보』 70, 1976, 17쪽; 73~83쪽.

당한 비율로 배합해 만들었다. 부록으로 덧붙여진 『신전자취염초방언해』는 염초 제조법만 설명되어 있다.⁹⁹

한국사에서 화약병기 연구를 선구적으로 진행한 허선도는 화기火器를 “화약의 폭발력(화학적 작용)으로써 시전矢箭, 석환石丸, 철탄鐵彈 등을 발사하는 근세적 유통식화기有筒式火器”라 정의하여 기존 냉병기와 구별했다.¹⁰⁰ 화약무기란 화약의 폭발력을 기반으로 각종 발사물을 발사하는 무기이다. 화약무기의 제작, 보유, 발전은 화약이 전제되어야 한다. 조선은 고려말 원으로부터 화약 제조기술을 도입한 이후 화약무기체계를 이렇게 발전시켰다. 화약무기체계는 화약 제조기술과 화약무기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했다.

화약은 조선이 고유의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발전시키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적극적으로 한중군사관계를 통해 서구 등지에서 전래되어 선진적인 화약 제조기술을 보유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야 했다. 화약 제조기술은 명과 청에서 군국지사로 인식하여 엄격하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금지했다. 특히 조선 후기 청의 화약관련 조선으로 유출되는 것을 엄단했다.

조선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부터 일본이나 여진으로 화약무기가 유출되는 것을 금지했다. 을묘왜변이 발발한 시점까지 일본과 여진이 화약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점은 일본, 여진관계에서 군사충돌이 발발하면 화약무기를 보유한 조선의 군사적 우위를 전제하였다.¹⁰¹ 즉, 조선은 중국으로부터 금지된 화약 제조기술을 도입하며, 조선이 보유한 화약 제조기술이 일본이나 여진으로 유출되는 것은 금지하는 등 조선 중심의 무기체계를 갖추고자 했다.

99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K3-310). 현재 장서각에 소장된 『화포식언해』는 황해병영에서 중간한 본으로 「신전자취염초방언해(新傳煮取焰硝方諺解)」, 「신전자취염초방언해(新傳煮取焰硝方諺解)」 등이 합철되어 있다. 특이점은 1635년(인조 13). 崔鳴吉이 쓴 발문이 있어 병자호란 이전에 조선군의 화약무기를 무기체계로 적용하였음을 보여준다.

100 허선도, 「여말선초 火器의 전래와 발달(상)」, 『역사학보』 24, 역사학회, 1964, 1쪽.

101 허선도, 「朝鮮前期 火藥兵器의 發達과 그 禁秘策」, 『동양학』 14, 1984, 488쪽.



〈그림 25〉 조선 후기 지승화약통

(소장 : 인터넷 개인블로그)

조선후기 대청관계에서 화약무기는 청의 관심을 받았다. 청은 입관이후 남명정부 정벌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와중에 러시아의 남하라는 새로운 군사위기를 맞이했다. 화약무기로 무장한 러시아세력을 대응하기 위해 조선의 조총수를 강압적으로 출병하도록 했다. 나선정벌로 알려진 조선군의 출병은 조선의 화약무기체계 운용을 확인하는 역사사건이었다.¹⁰²

조선후기 천명^{天命}에 기반하여 통치체제를 갖추고 유교의 우주론적 시공간질서로 정립된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천명을 어기고 전쟁을 일으킨 국가세력을 정벌로 징계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군사행위였다. 화약무기는 매우 유용한 영토, 국방, 과학의 정당한 전쟁에 매우 유용했다.¹⁰³

조선후기 화약무기는 화포도 중요하지만, 개인화기가 중점적으로 보급되어 전투력을 높였다. 개인화기는 무엇보다 화약을 지참하고 훈련과 전투에서 신속하게 전투력을 발휘해야 했다. 조선후기 군사는 지승화약통^{紙繩火藥桶}이란 보관통을 통해 개인의 화약을 지참했다. 지승화약통은 두꺼게 옷칠을 하고 나무에 지승을 붙여서 만드는데, 강도가 매우 높아 돌처럼 단단했다. 둥근 물통처럼 생긴 지승화약통을 군사 개인이 지참하기 위해 삼베끈을 엮어놓아 몸에 차고 다닐 수 있었다. 화약콩 마개는 나무로 만

¹⁰² 김경록, 「17세기 중반 동북아 국제정세와 조선의 나선정벌」, 『열상고전연구』 65, 열상고전연구회, 2018.

¹⁰³ 정다함, 「조선 초기의 ‘征伐’: 천명, 시계, 달력, 그리고 화약무기」, 『역사와 문화』 21, 문화사학회, 2011, 67~70쪽.

들었다.

조선은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전쟁을 경험하고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군사기술을 도입하여 국방체제를 강화했다.¹⁰⁴ 조선은 양난을 경험한 뒤 17~18세기에 적극적으로 국방체제를 정비하며 청의 군사력을 분석했다. 강대국 청의 군사력을 조총, 불랑기, 홍이포 등 화약무기 중심으로 분석한 조선은 화약무기와 화약제조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선군에 반영하고, 청의 군사기술로 축성기술도 도입하여 축성사업 등 방어시설에 적용했다. 물론 이 과정에 조선이 경험한 전쟁경험이 철저히 적용되고 청의 군사기술 수용을 통해 군제를 개편하고, 화약무기체제에 적합한 군사운영체제를 갖추고자 노력했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화포는 불랑기였다. 불랑기(佛狼機砲: Frankish gun)는 16세기 유럽의 화포로 중국에 전래된 뒤 임진왜란기 조선에 유입되었다.¹⁰⁵ 불랑기는 자포(子砲)를 빠른 속도로 교체하여 발사속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화포였다. 불랑기는 임진왜란기 평양성전투에서 성능을 확인받아 조선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자체 제조화과정이 이어졌다. 조선후기 불랑기는 조선의 주력 화포로 자리잡았다. 조선은 국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7~18세기에 불랑기를 제조하여 각지에 배치했다.

이상과 같이 조선후기 화약무기는 보다 보편화되었다. 조선은 이미 16세기 이후 왜구가 침입하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기존의 총통 등 화약무기의

¹⁰⁴ 강석화, 「17, 18세기 조선의 청 군사 기술 수용」, 『조선헌대사학보』 67, 2013, 329~361쪽. 조선은 임진왜란을 통해 새로운 무기체계와 접촉하고 군사적 충돌을 경험했다. 전쟁경험을 통해 조선은 새로운 군사기술을 수용하여 화약무기를 중점적으로 강화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은 기습적인 기병전술과 홍이포와 같은 화포무기를 경험하며 급속하게 화포무기 중심으로 무기체계를 변화시켰다.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까지 조선은 국제정세 변화에 경계와 대비의 차원에서 국방정책을 변화시키며, 청의 군사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청의 전성기를 군사외교차원에서 직면한 조선은 18세기 중반 이후 청의 군사기술과 교류하며, 능동적으로 수용하였다.

¹⁰⁵ 노대환, 「조선후기 불랑기포의 제작과 배치」, 『군사』 131, 군사편찬연구소, 2024.

길이와 구경을 대형화하였다. 그 결과는 지자·현자총통 등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승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화승총인 조총을 받아들였다. 조선은 조총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명군과 항왜 등을 통해 조총의 제조, 사격, 전술을 익히고 실전화했다. 광해군 대 이후 조선은 조총수를 확대하고, 조총 제조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조총은 조선군의 주력 화약무기로 정착되었는데, 조선은 화승총의 한계였던 발사속도와 방어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속사격술을 체계화했다. 이는 『병학통(兵學通)』에 조총수를 증진(層陣)으로 운용하는 전술체계가 기재된 점에서 확인된다.

조선은 개인화기로 조총 이외에 불랑기포, 홍이포(紅夷砲), 남만포(南蠻砲) 등 서양의 화포를 적극 도입했다. 다양한 서양 화포가 도입되었지만, 조총과 불랑기와 달리 홍이포 등은 기술도입이 함께 진행되지 않아 조선의 자체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조선은 18세기 이후 화포보다 화차(火車), 병차 등 차전 분야를 발전시키고, 기존의 전통적인 조선식 대포를 대형화하여 서양 화포를 대체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이는 『용원필비』에 수록된 조선식 대포들을 통해 확인된다. 문제는 대포의 위력과 명중률이다. 대포의 무게가 늘어나고 포신이 길어지면 좀 더 멀리, 명중률 향상과 연관된다.¹⁰⁶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운송수단이다.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수체계는 운송수단이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수레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수레는 보편적이지 않았다. 조선은 실제 육로운송에 수레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지 않았다. 이는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이 대청사행하는 길에 관서지방의 감사와 수령에게 수레사용을 권장한 사례에서 살펴볼 수

¹⁰⁶ 김병륜, 「조선후기 화약무기의 발달과 운용」,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 2024, 89~175쪽.

있다.¹⁰⁷

남구만은 관서지방에 수레를 널리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¹⁰⁸ 지방수령들은 조선의 길이 험해서 수레사용에 제약이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약전은 대청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보다 길이 험한 요동의 동팔참에서 수레를 널리 사용하는 점을 들며, 조선의 관서지방은 평탄한 길이 많고, 유상운(柳尙運)이 감사로 있을 때에 일찍이 수레를 만들 것을 청하여 장산곶(長山串)에서 감영까지 재목운송에 활용했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즉, 수레는 각종 물품운송에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왕에게 평안도에서 수레사용을 권장하도록 권하기도 했다. 특히, 평안도는 조청관계에서 사행왕래가 많은 지방으로 평안도 백성들이 사행접반에 고충을 가졌다. 국왕의 재가를 받아 평안도에 수레 사용을 권장하며, 청 사신의 접반에 쇠마가(刷馬價)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조선후기 대청사행에 사역원 정정이었던 김지남(金指南)이 참여했다. 김지남은 개인의 돈을 들여 북경에서 염초(焰硝)를 굽는 방법을 전수받아 왔다. 이에 남구만은 군기시 도제조로 있으며 김지남으로 하여금 염초를 굽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김지남이 전수받은 염초굽는 방법은 재와 아교를 사용하여 1년 된 잡초를 태워서 만들었는데, 공력이 덜 들면서도 염초를 얻는 것은 몇 갑절이나 되었으며 품질 또한 정교하고 위력이 있었다. 김지남이 군기시(軍器寺)의 염초 제조를 감독하여 제조한 염초는 시험에서 큰 효과를 보였다.

107 『藥泉年譜』 권7,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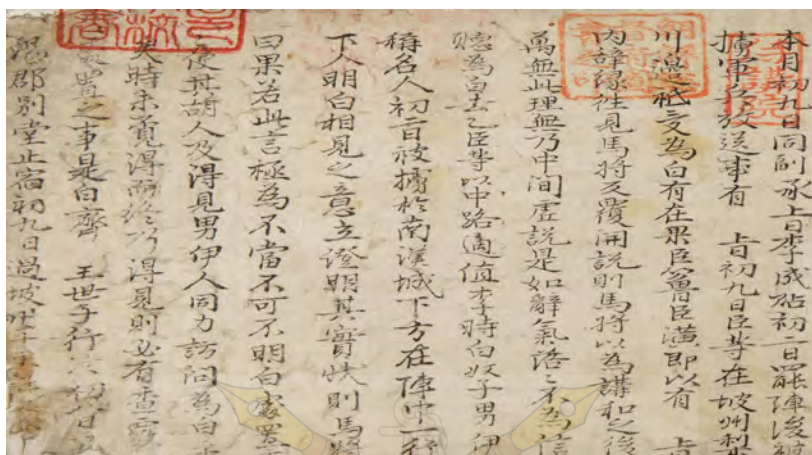
108 박정애, 「조선 후반기 關北名勝圖 연구-남구만題 계열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78, 한국미술사학회, 2013, 61~95쪽; 이규철, 「약전 남구만의 북변 상소와 폐사군 후주진 설치 논의」, 『한국인물사연구』 26, 한국인물사연구회, 2016, 159~184쪽; 김일환, 「전쟁 이후 세대의 남한산성 인식과 의미-남구만의 <약전집>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79, 한국언어문화학회, 2022, 31~60쪽. 신태영, 「약전 남구만의 국방론과 그 지향점」, 『한문학보』 43, 우리한문학회, 2020, 187~216쪽; 홍정원, 「남구만의 대일 강경 외교와 울릉도쟁계」, 『조선시대사학보』 101, 조선시대사학회, 2022, 223~259쪽.

김지남의 염초굽는 방법의 전래 이전까지 조선의 염초제조 기술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조선은 청과 일본에서 방법을 배우고자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무엇보다 청과 일본에서 군사기술에 관련되어 유출을 꺼려 잘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조선인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조선후기에 자연재해가 빈번하여 산림이 민둥산이 될 정도였으며, 이에 토목^{土木}이 더욱 귀해져 여러 군문^{軍門}에서 염초를 굽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임진왜란 이후 화약무기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인식을 공감하면서도 문제는 화약제조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화약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조선의 전국에 각 군영이 설치되었지만, 해당 지역에 토목이 없으면 염초는 구울 수가 없었다. 당시 김지남이 배워온 방법은 토목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질 좋은 염초를 생산하고 양도 많았다. 군문의 장교들이 활을 만들고 총을 만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군사기술의 도입이었다. 남구만은 국왕에게 김지남을 서북지방의 변장에 제수하여 염초굽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 군기사에서 책자로 간행하여 반포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왕은 김지남을 문성첨사^{文城僉使}에 제수하였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대간들이 역관의 변장^{邊將} 제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지남은 문성첨사에서 병조의 복주^{覆奏}에 의해 승진하였다. 조선후기 역관에 의한 화약관련 기술도입 노력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일례로 일본어역관 홍희남^{洪喜男}은 1659년(현종 즉위년)에 문위사^{問慰使}를 수행하여 일본에 가서 유향 만드는 법을 배우고 돌아와서 조선에 전포^{傳布}한 사례도 있다.¹⁰⁹

¹⁰⁹ 『통문관지』 권7, 인물, 洪喜男.

제 3 절 조선의 전쟁경험과 심양관의 군사외교



지성은 금석에 맹세하고(至誠矢諸金石)
 대의는 일월에 달았네(大義懸乎日月)
 하늘과 땅이 굽어 살피시니(天地鑑臨)
 귀신에게 질점할 수 있네(鬼神可質)
 고도에 합하기를 바랐더니(蕲以合乎古)
 금세에 도리어 어긋나
 버렸네(而反鑿於今)
 아! 백세 후에는(嗟百世之後)
 남이 내 마음을 알리(人知我心)

조선의 성리학자이자 노론영수였던 송시열(宋時烈)이 김상헌의 묘지에 적은 명(銘) 『송자대전』 권182, 묘지명(墓誌銘), 석실김선생묘지명(石室金先生墓誌銘)

심양관 개설과 소현세자의 역할

청군이 철수한 이후 조선은 전국의 영장^{營將}을 혁파하고, 정축년에 강요된 홍타이지의 조유에 근거하여 군사활동 및 군사정책에 제약을 받았다. 조청관계도 청의 숭덕^{崇德} 연호를 사용하고, 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를 비롯한 척화파 대신이 심양에서 살해되었다. 조선은 청의 이러한 강압적인 정책에 대한 반발하여 반청분위기가 팽배했다. 한편, 소현세자가 심양에 도착할 시점에 청군은 가도^{假島}의 명군을 격파하여 조선군 및 조선에 주둔한 명군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본격적인 입관 단계의 서정^{西征}을 시작했다.

정축약조에서 가장 조선의 입장에서 강압적인 항목이 세자의 인질이었다.¹¹⁰ 초기 심양관을 활용한 대조선정책은 단순한 내정간섭의 수준을 넘어 조선의 정국을 분열시켜 청의 정명전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¹¹¹ 실제 심양관은 분조^{分朝}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조청관계에서 현안으로 등장한 속환인 문제, 군사동원 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심양관의 존재는 외교적으로 이중성을 내포하는데, 청은 심양관을 통한 대조선 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인조를 비롯한 조선 정부를 압박할 수 있었다.¹¹²

심양관에 인질로 잡혀있던 소현세자는 청의 정명전쟁에 참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청의 강압에 의한 참전이었지만, 조선의 대명전쟁 참전이란 모습을 보여 조청관계의 개선을 도모했다. 소현세자가 청군과 말을 나란히 하여 종전하는 모습은 명에 치명적이었다. 인조반정의 명분이 명 중심 국제질서의 회복이었던 점에서 조선의 입장은 붕괴되었다. 일정한 부대가 참전하는 것과 왕세자가 참전하는 것은 전혀 군사관계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병자호란 뒤 조명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¹¹⁰ 전해중, 「청대한중관계의 일고찰」, 『동양학』 1,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1, 230-231쪽.

¹¹¹ 송미령, 「입관 전 청조의 심양관 통제양상」, 『명청사연구』 30, 명청사학회, 2008, 132~141쪽.

¹¹² 김용덕, 「소현세자 연구」, 『사학연구』 18, 1964, 449쪽.

이 발발하고, 1637년부터 조청관계가 형성되었다. 1644년 이자성의 난으로 북경이 함락되며 명은 멸망했다. 청군이 산해관을 넘어 중원으로 들어간 시점은 이자성의 난으로 명이 멸망한 뒤 산해관을 지키던 오삼계가 청에 투항한 뒤였다.

뒤이어 정명전쟁 구원, 가도공격 구원, 철병하는 청군의 호군 등은 당시 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였던 군사지원을 조선에 강요한 것이다. 정명전쟁 구원은 실제 병력의 차출도 있지만 군량의 지원과 운송이 중시되었다. 조선에서 청군에 지원되는 군량과 병력은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 지원되었다. 보다 신속하게 청군이 지원받는 방법이었다. 조선이 험준한 해로로 이어진 요동반도를 지나 군량 등을 운송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존재했다. 실제 조선의 군량 운송에서 많은 수량이 파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조청관계에서 군사지원은 외교절차가 정립되어야 가능했다. 외교절차를 강조한 조항이 후금에 사신 파견, 명과 동일한 의례준수 등이다. 조선을 압박할 수 있는 군사외교 절차를 조명관계의 절차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조선을 군사와 외교적으로 구속할 수 있었다. 이어서 속환·쇄환, 후금과 화혼^{和婚}, 올랑합^{兀良哈} 쇄환 등 조항이 설정되었다. 병자호란으로 잡혀간 조선인은 청의 군사력, 경제력, 노동력으로 청의 주요 자산이 되었다. 조선에서 이들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했다. 이는 청이 전쟁을 통해 인적 획득과 이들의 속환으로 경제적 이득을 함께 가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조선으로 도망하면 조선에서 이들을 쇄환하도록 함으로써 조선의 신분질서 및 사회질서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실제 포로로 잡은 이들을 쇄환하기 위해서는 도망인들을 찾는 작업에서 수색, 체포, 이송까지 막대한 병력과 인적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전적으로 조선의 책임과 의무로 전가함으로써 청은 만주족을 정명전쟁에 투입할 수 있었다.

〈표 11〉 병자호란~효종초 대청사행 현황

시기	사행
1638년 (인조16)	사은진주겸성절동지사: 박미 ^{朴湍} , 유심 ^{柳沁}
	정조사 : 김영조 ^{金榮祖} , 정태제 ^{鄭泰齊}
	문안사 : 윤훈 ^{尹暉}
1639년 (인조17)	주청사 : 윤훈, 오준 ^{吳琿} , 정치화 ^{鄭致和}
	진하사: 심열 ^{沈悅} , 임담 ^{林潭} , 성초객 ^{成楚客}
	사은사 : 신경진 ^{申景禎} , 허계 ^{許啓} , 조석윤 ^{趙錫胤}
	삼절연공사 : 권대임 ^{權大任} , 정지우 ^{鄭之雨} , 이원진 ^{李元鎭}
	사은정조사 : 최명길 ^{崔鳴吉} , 이경현 ^{李景憲} , 신익전 ^{申翊全}
1640년 (인조18)	사은진주사 : 이성구 ^{李聖求} , 정광경 ^{鄭廣敬} , 이래 ^{李稜}
	사은삼절연공사 : 이덕인 ^{李德仁} , 안응형 ^{安應亨} , 윤득열 ^{尹得悅}
	진주사은사 : 신경진, 한희일 ^{韓會一} , 이경상 ^{李慶相}
	진주사 : 이덕인, 이이존 ^{李以存}
1641년 (인조19)	삼절연공사 : 윤두표 ^{元斗杓} , 이경엄 ^{李景嚴}
	정조사 : 최래길 ^{崔來吉} , 이석 ^{李錫}
1642년 (인조20)	진하진주사 : 인평대군 이요 ^{李潯} , 변삼근 ^{卞三近} , 홍처량 ^{洪處亮}
	삼절연공사 : 남이웅 ^{南以雄} , 김기국 ^{金奎國} , 정창주 ^{鄭昌耆}
	정조사 : 윤이지 ^{尹履之} , 남명익 ^{南冥翼}
1643년 (인조21)	사은사 : 심기원 ^{沈器遠} , 김남중 ^{金南重} , 정언항 ^{丁彦瑬}
	진위진항사 : 인평대군 이요, 한인급 ^{韓人及} , 심동구 ^{沈東龜}
	삼절연공사 : 이찬 ^{李添} , 조문수 ^{曹文秀} , 김태기 ^{金泰基}
	정조사 : 정량필 ^{鄭良弼} , 이명전 ^{李明傳}
	진하사은사 : 김자점 ^{金自點} , 오준, 조중여 ^{趙重呂}
	성절사 : 서경우 ^{徐景雨} , 이후산 ^{李後山}
1644년 (인조22)	사은사 : 이경여 ^{李景輿} , 홍무적 ^{洪茂積} , 이여익 ^{李汝翊}
	사은진하진주사 : 김자점, 이필영 ^{李必榮} , 심노 ^{沈庠}
	삼절연공사 : 최혜길 ^{崔惠吉} , 김수현 ^{金守玄} , 이규노 ^{李奎老}
	정조사 : 정태제, 오빈 ^{吳飮}
	성절사 : 김소 ^{金素} , 홍찬서 ^{洪贊緒}
1645년 (인조23)	진하겸사은사 : 인평대군 이요, 정세규 ^{鄭世規} , 성이성 ^{成以性}
	사은겸주청사 : 김자점, 홍진도 ^{洪振道} , 조수익 ^{趙壽益}
	동지사 : 이기조 ^{李基祚} , 남선 ^{南銑} , 이응시 ^{李應時}
1646년 (인조24)	사은겸진주사 : 이경석 ^{李景奭} , 김육 ^{金瑬} , 유심
	사은사 : 유정량 ^{柳廷亮} , 이후원 ^{李厚原} , 박길응 ^{朴吉應}
	삼절연공사 : 여이재 ^{呂爾載} , 최유연 ^{崔有淵} , 곽홍지 ^{郭弘祉}
1647년 (인조25)	사은사 : 인평대군 이요, 박서 ^{朴道} , 김진 ^{金振}
	사은겸동지사 : 홍주원 ^{洪柱元} , 민성휘 ^{閔聖徽} , 이시만 ^{李時萬}

1648년 (인조26)	사은사 : 박행원 ^{李行遠} , 임담, 이척연 ^{李惕然}
	삼절연공사 : 오준, 김홀 ^{金窩} , 이성 ^{李埜}
1649년 (인조27)	진하겸사은사 : 정태화 ^{鄭太和} , 김여옥 ^{金汝鎬} , 육행선 ^{陸行善}
	고부청시청승습사 : 홍주원, 김련 ^{金鍊} , 홍진 ^{洪鎭}
	사은겸동지정조사 : 인흥군 ^{仁興君} , 이시방 ^{李時昉} , 강여재 ^{姜與載}
1650년 (효종01)	진위진향사 : 김육, 이찬, 이상일 ^{李尙逸}
	호행사 : 원두표, 신익전
	사은진하진주겸삼절연공사 : 인평대군 이요, 임담, 이홍연 ^{李弘淵}
	진주사 : 인평대군 이요, 이기조, 정지화 ^{鄭知和}
1651년 (효종02)	진위겸진향사 : 유정량 ^{柳廷亮} , 박서, 이일영 ^{李晩榮}
	진하겸사은사 : 한홍일, 오준, 조연 ^{趙衍}
	진하사은겸동지사 : 인평대군 이요, 황후 ^{黃后} , 권우 ^{權瑠}
1652년 (효종03)	진주관 : 이수창 ^{李壽昌}
	사은사 : 이시백 ^{李時白} , 신유 ^{申濡} , 권령 ^{權玲}

* 전거 : 『동문취고』 보편, 권7 사행록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조선은 승전국 청의 정축약조라는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청은 정축약조를 조선에 강제하는 전제조건으로 세자를 인질로 삼았다.¹¹³ 세자를 청의 인질로 삼아 심양관을 개설했다. 소현세자 일행이 청 수도 심양에 인질로 감금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조명관계를 단절하고, 조청관계를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사행을 통해 표현해야 했다. 정축약조로 강제된 병자호란 이후 조청관계는 효종초기까지 조선의 대청사행 양상을 통해 표현된다. 조선은 내부적으로 반청의식에 따라 반발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각종 절사^{節使}와 별사^{別使}를 포함한 대청사행을 대명사행과 동급으로 파견했다. 이는 조선이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병자호란 이후 효종 초반까지 청에 파견된 사신은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대부분 정승^{政丞}, 판서^{判書}였다. 청에 대한 외교적 예우를 최대한 높인 것으로 청의 강압적인 조선정책을 무마하고

¹¹³ 장정수, 「병자호란시 조선 근왕군의 남한산성 집결 시도와 활동」, 『한국사연구』 173, 한국사연구회, 2016, 161~211쪽.

조선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사행이었다.

조선은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자 다양한 외교현안을 직면했다. 핵심사안은 소현세자의 귀국, 제약된 국방정책의 복원이었다. 당시 심양관에 사실상 구금된 소현세자는 시강원^{侍講院}, 익위사^{翊衛司} 등 세자배종^{世子陪從} 관원으로 실질적인 분조로 역할했다. 세자라는 신분은 소현세자가 청 고위층과 여러 차례 접촉할 수 있는 기회였다. 소현세자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패전국 조선의 군사적 입장을 대변했다.¹¹⁴ 청의 서정군^{西征軍} 출정식에서 도르곤 등 청의 주요 세력과 친분을 맺어 향후 조청관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었다.¹¹⁵

청은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예를 들면, 조선에 귀화한 향화인과 조선의 피로인을 쇄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피로인의 속환에 대해 높은 금액을 강요했다. 또한, 조선 내부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반청의식을 고려하여 조정내 반청인사를 색출하여 탄압하였다. 특정 반청인사로 지목된 인물을 수시로 봉황성^{鳳凰城}에 불러 심문했다. 이때 청은 반드시 심양관을 통해 압박하여 조선 조정과 심양관의 불화를 유도했다. 이는 조선 국왕과 왕세자의 갈등을 유도한 것으로 조선의 입장에서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다.

구체적으로 병자호란시 적극적으로 반청 주장을 한 인물을 심양관에 잡아와 고문하고 죽였던 심옥^{審獄}사건을 2차례 벌여 조선 조정과 심양관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결국 조선 조정과 심양관의 관계는 청이 은근히 인조를 볼모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보이자 인조가 소현세자의 동환^{東還}에

114 『청태종실록』 권34. 승덕 2년 4월 갑술. 당시 심양관에 주재하였던 세자의 수행원은 南以雄(文幸), 朴簠(左副賓客), 朴漢(右副賓客), 李起築(武幸), 李命雄(講院), 閔應協(弼善), 李時楷(文學), 鄭雷卿(司書), 李禴(設書), 徐擇履(翊衛), 金漢一(司禦), 許櫓(司禦), 成遠(侍直), 姜文明(洗馬), 魏山寶(洗馬), 具鏊(洗馬), 鄭楠壽(醫官), 柳達(醫官) 등이다. 물론 체류한 8년간 수시로 인원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이들은 향후 조선의 정국에 유력 인사들이었다.

115 『심양장계』 정축년 6월 21일; 7월 6일; 7월 27일; 무인년 9월 8일.

불편한 심사를 보이는 사태로 더욱 악화되었다.¹¹⁶

청의 이러한 분열책은 큰 효과를 가져왔다. 청이 심양관을 통해 각종 경제적 요구를 조선에 전달하자 인조와 조선 대신들은 불만을 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의 국론은 분열되었다. 결국 조선의 청에 대한 불만은 심기원沈器遠사건으로 폭발했다.¹¹⁷ 인조는 심기원사건으로 표출된 조선 조정의 반청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 입관 이후 강경한 청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황에서 군사분야의 반발이 표출되었다. 청은 대명 정벌전쟁에 차출된 임경업林慶業이 소극적으로 전투에 임하자 조선을 질책하고 의심했다. 결국 임경업은 뒤에 명에 투항했다. 이는 조청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했다. 이를 무마한 것은 심양관이었다. 심양관은 청 황실과 대신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교섭을 시도하여 임경업 사건을 무마하고, 더불어 청에 바쳐야 하는 세공미歲貢米를 경감시켰다. 물론 이는 청이 입관 이후 중원을 통해 물품조달이 수월해진 점도 작용했지만, 초기 조청관계에서 심양관의 군사외교활동 성과라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조선을 대명전쟁 최일선에 세움으로써 조선의 반청분위기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청의 의도는 결국 세자가 직접 조선군을 지휘하여 선봉에 서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직접적인 전투에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병자호란 이후 청의 대조선 정책의 일단을 잘 보여준다.

심양관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청의 군사·외교정책은 역설적으로 조선의 독자적인 친명활동을 초래했다. 병자호란기 강화를 주장하였던 최명길崔鳴吉의 친명활동은 조청관계의 악재가 되었다. 그 결과로 발생한 1642년 2차 심옥에 대해 심양관은 관련 인물을 냉담한 태도로 대했다. 이런 조청관계의 변화는 청 태종의 죽음을 계기로 변화되었다. 홍타이지가 사망하자 청은 극심한 권력다툼이 발생했다. 심양관의 소현세자와 상

¹¹⁶ 김용덕, 「소현세자 연구」, 『사학연구』 18, 1964, 449쪽.

¹¹⁷ 지두환, 「인조대 후반 친청파와 반청파의 대립-심기원·임경업 옥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9, 2000, 108~114쪽.



〈그림 26〉 청의 외변

(출처 : 구범진,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까치, 2019)

병자호란에 청은 정규병력 22,000명과 외변몽골군 12,000명을 합쳐 34,000명을 동원했다. 이들 병력 이외에 정규군사가 아닌 인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현세자의 죽음, 강빈옥사(姜嬪獄事)는 조선의 정치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에 해당한다.¹¹⁸ 소현세자는 서학의 도입이란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인식되며¹¹⁹, 구체적인 심양관 생활은 다양한 기록으로 남아있다.¹²⁰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광해군대 이후 대명, 대청관계의 공존이라는 복잡한 환경에서 청을 중심국으로 하는 전환기의 중심에 존재하였던 심양관은 조선 후기 조청 군사관계의 변화의 성격과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좌표가 될 것이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과 청은 심양관을 사이에 두고 정명전쟁, 국제 정세 변화, 조선의 전후복구, 군사변화, 조청관계의 군사외교 등이 펼쳐졌다. 왕세자가 인질이란 신분으로 청의 군사요구를 인조를 대리하여 완화하고, 조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심양관 활동은 소현세자의 정치적 입장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 여파는 소현세자의 귀환이후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졌다. 소현세자는 심양관에서 청의 정세를 인조에게 상세히

대적으로 친분이 높았던 구왕이 권력을 장악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조선은 심양관의 활동을 강요했다.

병자호란은 조선인에게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다. 소현세자나 심양관은 병자호란의 가장 극적인 영역에 속한다. 심양관 생활 이후 조선에 귀국하여 왕위계승과 관련한 소

¹¹⁸ 김용덕, 「소현세자연구」, 『사학연구』 18, 한국사학회, 1964; 이영춘, 『조선후기 왕위계승의 정통성론쟁 연구』, 정문연한국학박사학위, 1994.

¹¹⁹ 山口正之, 「昭顯世子と湯若望」, 『靑丘學叢』 5, 1934.

¹²⁰ 田川孝三, 「瀋館考」, 『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集』, 1934; 최소자, 「청정에서의 소현세자(1637~1645)」, 『전해종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79.

보고하면서 문견한 서학을 귀국하며 조선에 전래시키는 영향을 미쳤다.

정묘호란과 달리 병자호란의 결과로 인질로 세자일행을 인질로 하게 된 전후 상황은 심양관의 조청관계에 중요한 위상을 가진다. 심양관은 조선이 국내에서 반청의 시대흐름이 주류를 이루지만, 원만한 조청관계를 가져야 했던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호란 이후 전개되는 대청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그 시초가 된다. 본 절은 이러한 이유로 심양관을 둘러싼 병자호란 이후 조청 군사관계를 살펴본다. 소현세자가 심양관에서 생활하였던 기간은 1637년(인조 15)에서 1645년(인조 23)이다.

심양관의 소현세자가 조청관계의 군사갈등을 최대한 해결하는 군사외교 활동을 전개한 시기 청은 심양에 수도를 두고 서북쪽의 몽골을 세력권에 포함하고, 요동의 다양한 제 종족을 복속시켰다. 조선의 왕세자를 인질로 심양에 감금시켰듯이 실질적으로 몽골의 여러 부족장 세력을 실제 인질 성격으로 묶어두고 있었다.

심양관은 소현세자가 병자호란의 결과로 아우 봉림대군 등과 함께 1637년 2월 8일 서울을 출발하여 4월 10일 심양성에 도착하면서 운영되었다. 소현세자의 일행을 맞이한 것은 도찰원都察院 승정承政 아시다르한阿什達爾漢과 호부 승정 잉골다이英俄爾岱(龍骨大) 등 고관들이었으며, 처음에는 조선사신의 접대처였던 동관東館에 머물렀다. 이후 5월 7일에 신관新館이 완성되어 통상 심양관瀋陽館라 칭하고 심양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심양관은 단순히 왕세자의 거처가 아니다. 인질생활이란 측면에서 심양관 활동에 비해 생활환경은 열악했다. 심양관 인원은 조선 출발시 192명, 심양관에 들어간 인원은 182명, 말 64필, 호송관 2명, 종인 350명과 그들의 말 303필이었다.¹²¹

¹²¹ 『청태종실록』 권34, 승덕 2년 4월 갑술.

주요 배종^{陪從} 인원은 시강원^{侍講院}과 익위사^{翼衛司}의 관원이었다. 문재^{文宰} 남이웅^{南以雄}, 좌부빈객^{左副賓客} 박노^{朴籟}, 우부빈객^{右副賓客} 박황^{朴潢}, 무재^{武宰} 이기축^{李起築}, 강원^{講院} 이명웅^{李命雄}, 필선^{弼善} 민응협^{閔應協}, 문학^{文學} 이시해^{李時楷}, 사서^{司書} 정뢰경^{鄭雷卿}, 설서^{設書} 이회^{李繪}, 익위^{翼衛} 서택리^{徐擇履}, 사어^{司禦} 김한일^{金漢一}, 허억^{許億}, 시직^{侍直} 성원^{成遠}, 세마^{洗馬} 강문명^{姜文明}, 위산보^{魏山寶}, 구오^{具鰲}, 의관^{鄭楠壽} 정남수^{鄭楠壽}, 유달^{柳達} 등이었다. 조선에 남은 시강원과 익위사는 형태만 유지했다.¹²² 인조는 심양으로 떠나는 소현세자에게 소무^{蘇武}가 겪었던 고난처럼 생활할 것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¹²³ 인조는 세자에게 처신을 신중하게 하며, 소무처럼 고난의 심양생활을 요구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이 소현세자를 인질로 잡은 이유는 조선의 명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청의 명청전쟁에 조선의 적극적인 동참을 담보하는 정치, 군사적 목적도 있었지만, 경제적 요구도 있었다. 즉, 심양관의 소현세자는 청과 조선으로부터 이중의 요구를 받아 자칫 양측으로부터 불만스러운 시선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인조의 소현세자에 대한 불만은 이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외교적 사안을 통하여 점차 불신으로 쌓여갔다.

심양관은 조선과 청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야 운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청은 설치 초기에 공식적인 운영비 명목으로 물품을 제공하였지만, 점차 공간을 제공하고 특정 하사품을 내려주는 수준에서 지원했다. 점차 심양관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지원은 조선에서 제공되어야 했다. 병자호란 이후 청의 각종 징발 성격의 경제적 착취로 고통받던 조선은 점차 심양관 운영에 대한 지원을 부담스럽게 여겼다.

심양관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식량은 설치 초기에 청에서 현물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청에서 은화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청의 물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된 은화로 각종

¹²²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2월 15일(을유).

¹²³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4월 18일(정해).

물품을 구매하였을 때 높은 물가로 인해 부족했다. 당시 심양을 중심으로 한 요동지역은 물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조선으로부터의 생활물품 유입을 위해 필수적인 식선^{朔膳}을 평안감영과 호조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호조에서 물품을 담당하였던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평안도에서 보내온 물품이 심양관의 운영에 절대적이었다. 거리상으로 평안도가 가깝다는 점도 있지만, 병자호란 이후 평안도는 군비강화가 금지되어 사신접대 등의 명목으로 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다.¹²⁴

심양관은 종인까지 합치면 5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생활하는 관청이었으며, 청의 황제와 제왕^{諸王}, 제장^{諸將}들이 요구하는 물품을 충당하고, 공속^{公賄}에 해당되는 물품을 중간에서 보증형식으로 담당했다. 그 결과 심양관이 존속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비용의 부족에 시달렸다.¹²⁵ 심양관은 재정이 어렵게 되자 세자 명의로 평안감사, 평안병사, 의주부사 등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필요한 물품을 보급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승정원에 보내는 장계를 통하여 인조에게 그 구체적인 수효를 보고하였다. 청의 조선정책에서 군사와 경제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심양관의 입지는 더욱 위축되었다. 심양관은 청이 조선에 요구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물품 요구도 점차 늘어났다.¹²⁶ 조선은 적극적으로 청을 무마하지 않고 청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심양관의 태도에 대해 불만이 점차 높아졌다.

심양관이 설치된 초기에 청의 심양관에 대한 감시와 제약이 심했다. 심양관 인원의 외부출입도 통제했다. 물론 외교적인 사안에 따라 조선에서 심양관으로 온 인원도 동관에서 머물렀다가 일정한 검사와 제재를 받은 후 심양관으로 출입하였다.¹²⁷ 청의 통제에 대해 심양관은 조선을 담당하

¹²⁴ 권내현, 「17세기후반-18세기 전반 평안도에서의 청사접대와 재정운영」, 『역사와 현실』 43, 2002.

¹²⁵ 『심양장계』 무인년 3월 18일.

¹²⁶ 『심양장계』 정축년 11월 2일.

¹²⁷ 『심양장계』 정축년 7월 27일. 1637년 7월 15일, 조선에서 內官 白大珪가 오자 일단 동관에 머무도록 하였다가 심양관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였다. 심양관에서 항의하자

는 청 관원들을 통하여 통제를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심양관의 소현세자가 주목하였던 청의 유력 인물은 9왕睿親王 도르곤多爾袞, 10왕睿通親王 多鐸, 잉골다이龍骨大, 마푸타馬夫大, 만다르한滿月介, 범문정范文程 등 청의 황실 인사와 한족 관원들이 있었으며, 조선 출신의 역관이었던 정명수鄭命壽, 김돌시金鋤屎 등도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구왕의 경우는 몽고를 실질적으로 정복하여 군공이 높았다는 점과 홍타이지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했다. 구왕과 같은 어머니 소생이었던 십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심양관에서 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경로는 소현세자가 참여하는 의식이나 연회 등이었으며, 대부분은 잉골다이와 마푸타를 통하였다.¹²⁸ 특히, 잉골다이는 심양관에 청의 요구조건이나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하였다.¹²⁹ 잉골다이와 마푸타가 봉황성을 수축하는 일로 심양을 떠난 동안에 청으로부터 심양관에 지급되는 찬물餼物이 줄어들고, 그마저 은으로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심양관에는 1638년 3월 이후 찬물이 지급되지 않아 심양관에서 직접 청 예부에 은화보다 실제 찬물을 지급해 달라고 사정을 전달하기도 했다.¹³⁰

잉골다이와 마푸타는 청의 산해관 공략에 참전한 인물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담당하였던 임무는 요동지역의 경략이었다. 봉황성을 수축하고, 이 지역을 통치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러기에 이들의 관심은 향화인向化人과 도망자의 쇄환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이 심양관의 소현세자 일행을 대상으로 조선을 전담한 것도 청이 조선을 어떻게 대우하고 처리할 것인가를 규정짓는 잣대였다. 무엇보다 이들은 조청관계에서 향화인과 도망자 쇄환을 담당했다. 향화인과 도망자의 쇄환은 당시 청의

세자를 위하고 풍속의 금기를 위한 것이라 함.

¹²⁸ 『심양장계』 정축년 7월 27일.

¹²⁹ 『심양장계』 정축년 6월 6일.

¹³⁰ 『심양장계』 무인년 3월 7일.

명청전쟁 수행에 매우 중요한 군사사안이었다.¹³¹ 청은 부족한 병력을 충당하고, 명청전쟁에 참여한 팔기에 제공하는 각종 급여성격의 물품과 재정을 향화인과 도망자를 쇠환하고 이들의 쇠환가를 통해 해결하였다.

이외에도 한인출신으로 황제의 칙서를 전달하거나 한림의 역할을 하였던 범문정의 경우는 심양관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¹³² 범문정은 후금시기 투항하여 적극적으로 충성을 바친 인물이다. 명에 대한 배신행위였던 투항과 후금에 대한 충성을 상쇄하는 방법은 청을 중심국으로 이끌어야 성공할 수 있었다. 만약 청이 명에 패배하여 쇠락한다면 자신의 투항도 영원히 배신으로 남을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이런 범문정이 여전히 명에 대한 인식을 가진 조선과 심양관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청보다 더 강압적인 태도로 심양관을 대했다. 이런 점에서 정책입안 등에 필요한 업무에 있어 범문정은 심양관이 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심양관의 외교활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청의 입관 및 북경점령이 있기 바로 전 해였던 1643년(인조 21) 청 관원이 심양관에 와서 소현세자에게 조선이 정축약조를 어겼다고 질책했다.¹³³ 청은 사전에 정보원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심양관을 찾았다. 심양관에서 소현세자를 배종하던 박황朴潢이 전라도 변산邊山에 성을 쌓고 곡식을 저장한 혐의가 있다고 질책했다. 청의 질책에 대해 소현세자는 변산에 성을 쌓은 일은 없으며 약간의 군량을 준비해 두었다. 이는 수군을 설치하여 일본의 침입에 대비한 것이라 답변하여 청의 질책을 무마시켰다.

실제 박황이 양전사量田使로 활약한 일은 있었다. 1635년(인조 13) 전라좌도 양전사로 파견되었던 박황은 전라좌도 25개 고을의 양전현황을 조사

¹³¹ 『심양장계』 무인년 7월 8일.

¹³² 『심양장계』 정축년 6월 6일. 인조가 잉굴다이와 마푸타에게 은을 선물로 전달하자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황제의 칙서.

¹³³ 『인조실록』 권44, 인조 21년 4월 15일(무인).

했다.¹³⁴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이전의 일이었지만, 박황이 좌부빈객으로 심양관에서 소현세자의 배종하였기 때문에 문제삼은 것이다.

이날 잉굴다이가 다시 심양관을 찾아와 최명길과 김상헌을 질책했다. 청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혐의로 잡혀 와 심양관에 구금되었던 최명길과 김상헌을 불러 홍타이지의 은덕으로 석방한다고 알리고 사죄하고 홍타이지에 사례하는 의식을 행할 것을 강요했다. 물론 이 자리에 소현세자는 반드시 함께 하도록 했다. 최명길은 사례하였지만, 김상헌은 거부했다. 잉굴다이가 김상헌을 질책하였다. 뒤이어 명에 투항한 임경업의 족속을 불러 홍타이지의 처분을 공표했다. 임경업이 명에 투항하여 그 동안 그 족속을 잡아와 심양관에 구금해 두었는데, 아내는 풀어주지 않고 나머지 족속은 너그럽게 풀어준다는 내용의 처분이었다. 잉굴다이는 이 날 다시 심양관으로 와서 최종적으로 박황·신득연(申得淵)·조한영(曹漢英)·채이항(蔡以恒) 등을 석방한다고 알려졌다.

병자호란 이후 청은 조선에 명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명에 관련된 모든 사실은 청에 보고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선은 명에 대한 정보 및 명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명에 유리하도록 처리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었다. 일례로 1642년(인조 20) 10월 16일, 소현세자는 평안감사 구봉서(具鳳瑞)와 의주부윤 허적(許積)으로부터 명의 선박이 조선의 선천에 나타났다가 쫓겨난 사실을 보고받는다. 문제가 발생했다. 소현세자에게 보고된 명 선박 출현사건이 청이 먼저 파악하였다. 조선출신 청의 역관이자 앞잡이였던 정명수(鄭命壽)가 소현세자를 협박하며 신속하게 청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질책했다. 소현세자는 잉굴다이에게 평안감사가 부임하여 얼마되지 않아 업무파악도 어려웠으며, 명 선박이 출현하였을 때 산간 고을을 순방하는 중이라 보고하는데 지체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소현세자는 조청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군사문제를 적극적으로 변무하고 해결

¹³⁴ 『인조실록』 권31, 인조 13년 3월 7일(정사).

하는 자세를 보였다.¹³⁵

심양관의 구성인원은 배종인원과 질자^{質子}로 크게 구분된다. 배종인원은 일정 기간이 정해져 순차적으로 바뀌었지만, 질자는 해당 조선 관원이 체직^{遞職}되면 새로 임명된 관원의 질자가 대신 들어오면서 바뀌었다. 조선에서 배종인원을 처음 구성할 때는 원래 임무였던 세자의 시종과 학업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사실 심양관에서 행해졌던 외교업무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조선의 관제에서 세자시강원의 구성원이 가지는 품계가 높지 않았던 문제가 있다. 즉, 조선에서 세자시강원은 매우 낮은 관품의 한정된 규모였다. 그러나 정작 인질로 잡혀와 심양관을 개설하고 조청관계의 분조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다보니 세자시강원의 관원으로 구성된 심양관 관원들의 체계가 고위직은 거의 없었다. 이는 청과 조선에서 실제 심양관에 요구하는 분조 역할에 비해 그 구성원은 말단 관원으로 능력과 권한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 소현세자의 조청관계에서 대외활동을 뒷받침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빈객이나 보덕은 수시로 조선 국왕에게 올리는 장계를 작성해야 했으며, 청을 대상으로 한 대외업무의 수행, 세자의 시종, 심양관의 제반업무 감독 등을 처리해야 했다. 기타 배종인원도 조선의 세자시강원 임무보다 많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구체적인 능력과 권한에 문제가 발생했다.¹³⁶

신병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심양관에서는 수시로 대체 인원의 파견을 요청하였지만, 원활하게 대체되지는 않았다. 특히, 역관의 경우, 처음 배종인원을 차정할 때 한어역관의 숫자를 잘못 계산했다. 조선은 처음 청에 끌려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주어를 전공으로 하는 청학역관을 많이 보냈다. 그러나 심양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데 만주족은 고위 관원을

¹³⁵ 『인조실록』 권43, 인조 20년 10월 20일(정사).

¹³⁶ 『심양장계』 정축년 9월 6일. 조선정부에서 차정한 인물이라도 현지사정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기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蒙學 申繼黯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비록 차정의 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에 사행에 참여하여 문제를 많이 발생시켰던 인물이므로 심양관에 머물면 폐단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차정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제외하고 오히려 한족이 더 많이 업무에 관련되었다. 이에 심양관은 조선에 역관의 숫자를 조정하여 청학역관은 줄이고 한학역관을 더 많이 차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¹³⁷

심양관은 청의 요구와 강압이 수시로 이어지자 조선에 장계를 올리거나 평안감사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문제는 국왕에게 올리는 장계, 평안감사에게 보내는 공문을 사환할 인원이 부족했다. 이는 심양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을 보여준다. 장계의 경우, 하급 아전을 보낼 수는 없었다. 장계배지^{狀啓陪持}하여 보내는 것은 선전관을 주로 활용하였는데, 소현세자가 처음 심양관에 들어간 1637년에 선전관으로 배정된 인원은 2명뿐이었다.¹³⁸

이러한 업무상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외국에서의 생활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문제가 질병이었다. 조선과 다른 지리적 공간성과 낮은 음식은 소현세자와 일행을 질병에 시달리게 했다. 심양관은 조선에 의원과 약재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¹³⁹ 소현세자 역시 심양관에서 생활하는 동안 수시로 병에 걸려 고생했다. 만주족의 풍속에 익숙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법령의 차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범죄 등은 수시로 발생하여 청으로부터 금령^{禁令}을 어겼다고 제재를 받기도 했다.¹⁴⁰

심양관의 주요 군사외교 활동

심양관의 활동은 소현세자이 직접 관련된 활동과 청의 조선정책에 대한 대응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현세자는 공식적으로 심양에서 제왕^{諸王}의 반열^{班列}로 대우받았다. 심양에서 소현세자의 공식적인 활동은 청이 주관하는 의례행사에 참여했다. 매월 5, 15, 25일에 각 친왕, 제왕, 제장 등이

¹³⁷ 『심양장계』 정축년 9월 6일.

¹³⁸ 『심양장계』 정축년 10월 5일.

¹³⁹ 『심양장계』 무인년 1월 26일.

¹⁴⁰ 『심양장계』 무인년 6월 8일. 行司果 柳後聖은 그 일행이 煙草의 禁令을 어겼다고 하여 서관에 20일 이상 拘置되었다가 심양관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황제에게 조회^{朝會}할 때, 조선국의 왕세자 자격으로 참여하였으며, 황제가 주관하거나 관부가 주관하는 각종 연회도 참석했다.

또한 소현세자는 수시로 열리는 시사^{試射}, 군대점열^{軍隊點閱}, 제사, 제 부족의 조공^{朝貢}, 명장의 투항에 의한 회합 등에 상참^{上參}하였다. 심양에서 열리는 이들 행사는 대부분 군사행사였다. 황제가 주관하는 활쏘기 행사는 청의 황실과 제 부족장을 소집하여 내부 단결의 의지를 확인하는 행사였으며, 군대사열은 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사였다. 특히 군대사열은 청의 막강한 군대를 황제에게 검열받는 의미가 있어 팔기가 총 동원된 무력 시위였다. 이런 청의 군대사열에 조선의 왕세자가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명청전쟁의 전황이 청군에 유리하게 진행되자 명 장수가 투항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청은 주요 명 장수가 투항하면 심양에서 대대적으로 투항의식을 청 황제 주관으로 열었다. 이는 명군에 대한 투항을 회유하는 의미도 있지만, 청 휘하에 포함된 여러 세력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었다. 오랫동안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군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여진과 싸웠던 조선의 왕세자가 이 행사에 참석하여 지켜보아야 했다. 투항의식에 소현세자가 참석하여 제왕의 반열에서 지켜보는 모습은 투항한 명 장수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았을 것이다. 청은 이처럼 복합적인 군사목적으로 심양에서 거행되는 군사행사에 소현세자의 참석을 강요했다.

위에 언급한 군사행사는 의례성격이 강한 행사였다. 청은 의례행사뿐만 아니라 실제 군사활동에 소현세자의 참여를 강요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냥이었다. 청의 도읍이었던 심양이란 공간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과 달리 한 차례 나가면 20일 정도 소요되는 사냥에 소현세자를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심양관에 큰 부담이었다. 소현세자의 안전문제도 중요했으며, 실제 소현세자를 수행할 무관마저 부족한데, 이들 무관이 빠지면 세자빈을 비롯한 심양관 경호는 무방비 상황이 된다. 심양

관은 조선을 대리한 공식적인 공간이므로 최소한의 경호력이 필요했다. 이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사냥은 큰 문제였다. 대체로 심양의 여러 황족과 제왕은 수시로 소현세자의 참여를 강제했다. 1643년 11월 1일부터 사냥을 시행하는데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모두 참여하라고 강제했다. 소현세자와 심양관에서 일제히 거부했지만, 청의 강요로 결국 사냥에 참여하기도 했다.¹⁴¹ 사냥의 경우는 총 5회 참여하였으며, 대략 1달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모두 청 홍타이지를 배종한 것으로 사냥은 심양의 북동, 남동쪽에서 실시되었다. 1638년 9월 20일, 1641년 10월 13일, 1642년 2월 4일, 1642년 12월 2일, 1643년 11월 1일 등이다.

병자호란 이후 조청관계에서 심양관의 군사활동 가운데 조선의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냥과 차원이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 홍타이지는 병자호란 이후 본격적으로 명청전쟁을 치르며 여러 전투의 출정에 소현세자가 종군하도록 지시했다. 종군은 심양에서 거행되는 군사행사에 참석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통적인 조명관계를 단절하는 것 역시 조선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청군이 명군을 대상으로 치르는 전투에 조선 왕세자가 직접 종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 군사적 파장을 가져올 것이었다. 심양관의 소현세자는 갖은 핑계를 대며 종군하지 못하는 사정을 청에 전달했다. 그러나 홍타이지의 입장은 단호했다. 소현세자는 조선에 피해를 주지 않고자 어쩔 수 없이 서정(西征)에 종군했다. 청에 있어 소현세자의 종군은 조청 연합군의 명분을 주었다.

소현세자가 종군한 횟수는 총 4회이며, 기간은 대략 1~2달 정도였다.

1638년(송덕 3) 10월 10일 : 서정(봉림대군이 대신 종군)

1639년(송덕 4) 2월 14일 : 금주, 송산 등지의 정벌(봉림대군이 대신 종군)

¹⁴¹ 『인조실록』 권44, 인조 21년 11월 12일(임인).

1641년(송덕 6) 8월 15일 : 금주, 송산 등지의 정벌(소현세자, 봉림대군 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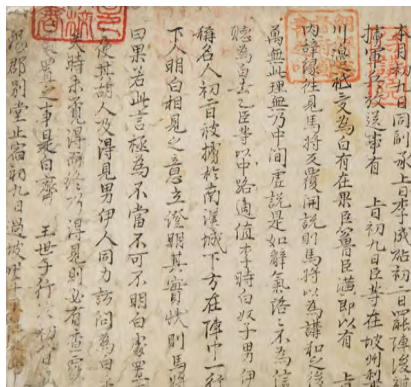
1644년(순치 1) 4월 9일 : 산해관, 북경 등지의 정벌(소현세자 종군)

조선과 심양관은 소현세자의 명청전쟁 종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를 청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종군해야 한다면 최대한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즉, 아우였던 봉림대군이 소현세자를 대신하여 종군하는 방안이었다. 1638년과 1639년에 있었던 전투에 봉림대군이 대신 종군했다. 그러나 산해관전투로 이어지는 1641년 전황에서 어쩔 수 없이 소현세자가 종군했다. 그리고 청이 입관하여 북경으로 진격할 때, 소현세자는 청의 명청전쟁에 종군하여 직접 북경까지 들어갔다. 소현세자는 조선을 대표하는 왕세자로 종군하여 명청 교체의 역사적 사건을 목격하였다.

이상과 같이 심양관의 소현세자는 청의 강압에 대응하여 군사적 요구를 무마하는 군사외교를 펼쳤다. 또한, 공식적인 행사를 통하여 심양관은 홍타이지, 구왕, 십왕 등의 황실과 친분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홍타이지의 사후 구왕에 의해 소현세자가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실제 인조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였던 당시의 상황에서 소현세자의 공식활동은 일정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심양관은 조선을 출발하면서 심양에서 다양한 대외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조선의 미온적인 대처와는 달리 청은 인질로 세자를 데려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심양관에 조선의 대리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청의 의도는 조청관련 문제의 모든 것을 심양관에 요구하였던 점에서 파악된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향화인교와 도망한 피로인 쇄환, 속환^{贖還} 및 공속^{公贖}, 화혼^{和婚}, 세폐^{歲幣}, 군병파견, 친명활동 금지, 조선조정 반청분위기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시녀문제, 무역, 질자^{質子} 문제 등이 있다.

명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주둔한 가도(槓島)를 정벌하고, 산해관 및 북경을 점령한 상황에서 조선은 더 이상 군사적 위협세력이 아니었다. 오히려 군사·경제문제인 향화인의 쇄환, 도망한 조선인의 쇄환, 속환가의 지불, 공속의 강요, 무리한 세례의 강요 등이 조선에 강요되는 사안이었다.



〈그림 27〉 『심양장계』

(소장 :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寶9918))

이러한 요구에 심양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실제 왕명의 대리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청의 강요를 나름 무마하고자 노력했다. 즉, 분조(分朝)의 명분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심양관은 최대한 청과 군사외교로 군대파견의 요구를 협상하여 5천 명으로 줄였다.¹⁴² 이는 청이 조선군 파견이 급하지 않더라도 병력 파견을 강요하여 심양관을 압박하였음을 보여준다.¹⁴³

『심양장계』는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배종신과 함께 1637년~1643년까지 청의 심양에 볼모로 있을 때 從行한 侍講院 관원 등을 통해 승정원에 보낸 8년간의 장계의 등록이다.

처음 약속하였던 병력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자, 청은 잉굴다이와 마푸타를 통하여 심양관에 관련문서를 제시하면서 압력을 행사하였다. 최명길이라는 사사로 왔다가 가져간 홍타이지의 칙서(勅書)와 이후 조선에서 보낸 진주자문(陳奏咨文)을 대조하면서, 칙서엔 황제가 군사징발을 면제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진주자문에는 징발면제의 구절이 있다며 연유를 따졌다. 이때 잉굴다이와 마푸타는 평소와 다르게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관원 등을 대동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¹⁴⁴

¹⁴² 『심양장계』 정축년 3월 15일.

¹⁴³ 『심양장계』 무인년 7월 10일.

¹⁴⁴ 『심양장계』 무인년 7월 10일.

잉골다이가 대동한 관원들은 범문정 范文程¹⁴⁵·피파박사 皮波博士·가리박사 加利博士·노시박사 盧時博士·호피박사 虎皮博士·보대평고 甫大平古 등으로 만주출신 학관들이었다.¹⁴⁶ 잉골다이는 남한산성에서 왕래한 문서에는 수만의 군사를 징발하기로 하였다가 황제가 5천 명으로 줄여주었는데, 이제 이를 면제하였다는 억지를 부린다며 심양관의 소현세자를 추궁했다. 소현세자는 세자의 직분을 들어 궁중에 문안하는 것 외에는 관여함이 없는 것인데, 군국의 일에 세자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¹⁴⁷ 여기서 심양관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잉골다이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언급한 내용이었지만, 세자로서 군국에 관련된 수많은 외교사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심양관은 비록 인질로 심양에 거주했지만, 다양한 대외활동으로 각종 군사정보 및 외교정보를 수집하여 국왕 인조에게 보고했다. 청의 정세변화와 대륙정세를 파악하여 조선에 수시로 보고하는 것은 『심양장계 瀋陽狀啓』의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황제의 거동과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 인사적인 측면 등이 포괄적으로 거론되었다. 요동출신 명나라 장수로 투항한 공유덕 孔有德, 경중명 耿仲明 등이 한화군 漢火軍과 화기를 이끌고 서정에 참여하는 상황,¹⁴⁸ 정묘전쟁의 전황¹⁴⁹ 등이 보고되었다.

¹⁴⁵ 『淸史稿』 권3, 본기3 태종2 승덕원년 5월 병오. “以希福為內弘文院大學士 范文程鮑承先俱為內秘書院大學士 剛林為內國史院大學士”

¹⁴⁶ 張我德, 楊若荷, 裴燕生 編著, 『清代文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4쪽. 청조에서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기관은 內三院이었다. 천총 10년(1636) 이전의 文館을 內國史院, 內秘書院, 內弘文院으로 확대하여 內三院이라 총칭하였다. 이들 기관의 임무는 명확히 구분되어, 內國史院은 起居注를 담당하고, 詔令文書와 御製文字를 모아두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內秘書院은 外國往來書狀, 勅諭, 祭文, 各衙門에서 上奏한 文書와 詞狀을 抄錄하는 임무를, 內弘文院은 古今政事의 得失을 註釋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¹⁴⁷ 『심양장계』 무인년 7월 10일.

¹⁴⁸ 『심양장계』 무인년 10월 1일. 청태종이 漢火軍을 教場에서 點閱하고 그 숫자가 5,000명이었음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¹⁴⁹ 『심양장계』 무인년 10월 15일.

청이 심양관에 알려오는 전쟁의 전황은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운^{初運}, 이운^{二運} 등으로 구분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전투가 벌어져 어느 정도 점령하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였다.¹⁵⁰ 청이 군사적인 상황을 심양관에 알려 준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명전쟁에서 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과시함으로써 조선이 대명관계를 청산하고 친청적인 분위기로 전환되기를 의도하였다. 특히, 영의정 최명길은 심양에 와 있는 동안에 수시로 전황을 알려 승전보를 전달하고 있다. 어찌보면, 현대적 의미의 영사관 업무를 이 시기에 대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이 반포하는 역서^{曆書}를 받아 조선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했다.¹⁵¹



¹⁵⁰ 『심양장계』 무인년 10월 15일.

¹⁵¹ 『심양장계』 무인년 10월 1일. 반포되는 曆書는 사신이 파견되어 받아왔으나 심양관이 존재하는 기간은 심양관의 세자를 불러 전달하였으며, 심양관에서는 조선사신이 들어왔으면 사신편에, 사신이 없으면 기타 인원이 조선으로 들어가는 편에 전달하였다.

韓中軍事



— 3 장 —

한충 군사관계 17세기 후반기 변화와 갈등의



제1절 청의 중국통일과 조선의 왜정외교

제2절 효종대 전후 인식과 나선정벌의 군사적 의미

제3절 숙종대 정세변화와 군사외교제도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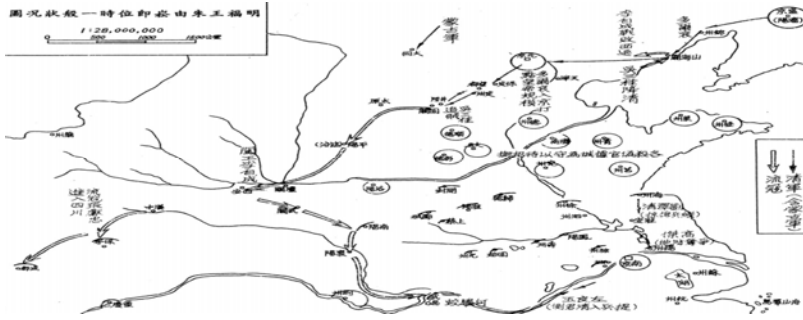
17세기 후반기 변화와 갈등의 한중 군사관계



“싸워서 지킬 계책도 결정하지 못하고 또 화를 완화시킬 책략도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오랑캐의 기병이 달려 들어오면 채찰사는 강화도로 들어가 지키고 원수元帥는 물러가서 정방正方(黃州山城)을 지키고, 백성들은 어육어肉이 되고 종묘와 사직은 파천할 뿐일 것이니, 이런 지경에 이르면 누가 장차 그 허물을 책임질 것입니까.”

남한산성에서 최명길¹이 인조에게 올린 차자² 劄子
『연려실기술』 권25, 인조조 고사본말, 병자노란과 정축 남한산성 출성

제 1 절 청의 중국통일과 조선의 왜정^{倭情}외교



“승덕^{崇德} 이후로는 옛 규례에 따라 왜의 정상^{情狀}이 의심스러우면 즉시 중국에 보고하고 통신사^{通信使}를 보낼 때에도 미리 중국에 보고하며, 강절^{江浙} : 강소^{江蘇}와 절강^{浙江}, 복건^{福建} 사람들이 왜와 교역^{交易}하는 것까지 정탐하여 보고하기를 옛날처럼 하였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적은 왜정고^{倭情考}의 서문
『다산시문집』 권15, 서^序, 왜정고서^{倭情考}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는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국제정세 변화와 청의 역사전개에 영향을 받는다. 본서의 연구대상 시기는 조선의 광해군 이후 개항기까지이다. 이에 해당하는 청은 후금의 누르하치시대, 승덕^{崇德}·순치^{順治}시대, 강희^{康熙}시대, 옹정^{雍正}·건륭^{乾隆}시대, 가경^{嘉慶}·도광^{道光}·합풍^{咸豐}·동치^{同治}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까지 후금의 누르하치 시대는 청 기반이 조성된 시대이며, 17세기 전반기 승덕제와 순치제의 시대는 후금의 정묘호란, 청의 병자호란, 명청전쟁, 입관, 북경 점령, 남명전쟁의 시대로 청 건국과 확장의 시대였다. 17세기 후반의 강희시대는 중국 대륙 통일의 시대이며, 18세기 옹정·건륭시대는 청의 전성기이며, 19세기는 청의 쇠퇴기이다.

청의 입관과 중국 통일전쟁의 서막

청 순치제(順治帝), 강희제(康熙帝)는 중국통일의 시대로 멸망한 명을 대신하여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재정립시켰다. 조선의 효종, 현종, 숙종은 병자호란의 굴욕과 청의 군사적 강압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방력을 재건하고 조청 군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명청 교체기 국제정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5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중심국에 의해 국제질서가 확립되었다. 명은 내부적으로 황제 중심 일원적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었다. 명 중심 국제질서는 홍무제가 전국을 통일한 뒤 원대(元代)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중화주의 국가를 지향하면서 시작되었다.¹ 명은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통치가 가능했지만, 홍무, 영락 등 일부 황제를 제외하고 정치에 태만한 황제가 승계하면서 정치는 혼란해졌다.

이의 정점은 만력 연간이었다. 명의 국고는 탕진되고 국력을 무시한 만력삼대정(萬曆三大征)(만력 연간 있었던 주요 세차례 전쟁)으로 중심국의 역량은 상실되었다. 이에 누르하치가 건주여진을 통합하고, 여진을 통일하여 후금을 건국했다. 후금은 명을 상대로 칠대한(七大限)을 천명하고 명청 교체의 서막을 열었다. 후금은 초기 전력의 열세를 효율적인 군사활동으로 만회하며 정명(征明)전쟁을 추진했다. 그 결과로 산해관까지 명을 압박하였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금은 여진 통합, 몽골 복속, 조선 굴복 등을 통해 전쟁수행에 필요한 물적, 인적자원을 확보했다. 청은 전략적 배후지 정리 차원에서 몽골을 통제하여 몽고팔기(蒙古八旗)를 편제하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을 굴복시키고, 명청전쟁에 참여시켰다.

비록 청을 건국했다고 하더라도 산해관을 점령하고 중원으로 진출하는

¹ 김경록,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 26, 2006; 「명초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과 大明律」, 『법사학연구』 53, 2016.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정세 특히 명의 정세가 급변했다.² 정치의 문란, 국고의 손실,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했던 만력제가 죽은 뒤 삼대안^三大案(梃擊案, 紅丸案, 移宮案)이 발생하여 명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환관과 동림당^{東林黨}의 대립, 국가재정 붕괴로 인한 민심 동요, 재변과 기아로 인한 농민반란 등이 겹쳐 일어났다. 명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반란에 의해 멸망했다.

명은 군기를 잃은 군대를 보유하여 전투력이 매우 낮았다.³ 반란을 진압하도록 투입된 관군이 오히려 반란군에 가담하는 사건이 빈번했다. 역졸출신으로 명군이 되었다가 세력을 이끌고 반란을 주도한 이자성^{李自成}과 반농반상 출신으로 명군에 근무하다 천시와 학대를 이유로 반란을 일으킨 장헌충^{張獻忠}에게 많은 관군이 투항했다. 이자성은 북경을 점령하고 명을 멸망시킨 뒤 산해관의 오삼계^{吳三桂}를 공격하자 오삼계가 청군에 투항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자성이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명은 청과의 전쟁에 전력을 집중했다. 이자성의 세력 확대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 태원^{太原}을 점령한 뒤 전열을 정비하고, 1644년 3월 대동^{大同}, 11일 선부^{宣府}, 15일 거용관^{居庸關}을 점령하고 17일 북경을 포위했다. 북경 방어는 명대 최대 군사력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력 연간을 경과하며 유명무실화되었다. 이자성 군대는 17일 북경을 포위한 뒤 18일 외성 점령, 19일 내성 점령 등 너무나 신속하게 북경을 장악했다. 명은 내부의 이탈과 전투의지의 부족으로 결국 멸망했다.⁴

북경함락의 소식을 들은 산해관의 오삼계는 새로운 선택을 한다. 4월, 오삼계는 반란군 진압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청의 도르곤^{多爾袞}과 연합하여

² 박민수, 「청의 입관과 기인의 북경 이주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7.

³ 김경록, 「만력 전반기 명의 정세와 임진전쟁 참전과정」, 『만주연구』 35, 2023, 165~200쪽.

⁴ 『中國軍事通史』15, 明代軍事史, 中國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1995, 958~1024쪽.

칼날을 내부로 향했다. 분명 오삼계는 청에 투항하는 자신의 선택이 역적의 길을 갈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청군은 투항한 한족 대학사 범문정(范文程)의 출정 건의를 받아들여 도르곤에게 전군 지휘를 맡겼다. 도르곤은 4월 7일, 출정의식을 거행하고 15일 입관하여 이자성군을 진압했다. 사전에 오삼계와 연합을 약속한 도르곤은 신속하게 북경으로 병력을 진격시켰다.

청군이 산해관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접한 이자성은 북경에 주둔한 20만 병력을 동원하여 먼저 산해관으로 진격했다. 4월 13일, 산해관에 도착한 이자성군은 오삼계의 투항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21일부터 오삼계·청 연합군과 산해관에서 싸웠다. 전투에서 패전한 이자성은 북경으로 철수했다가 다시 서안으로 철수했다.

산해관을 거쳐 북경으로 진격한 청군은 이자성이 불을 질러 황폐화된 북경에 5월 2일 무혈입성했다. 청군은 북경을 점령한 뒤 민심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노략질을 금지하고, 명 관민(官民)으로 하여금 불타 죽은 숭정제를 복상(服喪)하도록 했다.⁵ 이자성과 오삼계의 대립으로 난공불락의 군사요충지, 산해관을 무혈입성한 청은 북경을 점령하였지만, 내부적으로 권력 갈등의 위험이 있었다. 만력 연간 이후 전란이 지속되고 관원의 침탈로 고통받던 명나라 사람들은 청군의 출현을 오히려 환영했다.⁶

북경점령 이후 정세를 정리하면, 이자성은 패배하여 퇴각 중이었으며, 잔존한 명군은 혼란에 빠졌다. 당시 청의 가장 위협은 장헌충(張獻忠)이었다. 청은 장헌충의 세력 확장에 주목했다. 1644년 1월, 장헌충은 장사(長沙), 형

⁵ 『청세조실록』 권5, 순치 원년 5월 2일(을축).

⁶ 『청세조실록』 권5, 순치 원년 5월 1일(무자). 사료에 남아 있는 내용이 청에서 기록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일반인들이 청군의 진출에 대해 어느 정도 환영하였을 개연성은 높다. 攝政和碩睿親王 도르곤이 군대를 지휘하여 通州에 도착하자 知州가 일반 민을 거느리고 환영하였다는 기록 등이 참고된다.

주荊州, 기주蕪州를 점령하고 사천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다.⁷ 장헌충을 견제하고자 청은 이자성의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여러 지역의 명군이 청에 투항했다. 총병總兵 고제高第는 산해관에서, 부장副將 고중선高中選은 계진薊鎮에서, 도사都司 문성文盛, 진상례陳尚禮, 추관推官 원종진袁宗震 등은 준화遵化에서 투항했다. 청은 투항한 명군을 선봉으로 삼아 이자성의 군대를 추격했다.⁸

전체 전력에 열세였던 청에 이들 투항한 명군은 큰 도움이 되었다. 한정된 병력의 청군을 이자성 추격에 투입하면, 군사지리에 어두워 지역 단위 전투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순치제를 보좌하는 위치였지만 도르곤은 실제 순치제를 능가하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도르곤은 자신의 병력은 북경의 통제 및 방어에 주력하도록 하고, 다른 황실의 병력과 투항한 명군으로 이자성을 추격하도록 했다.

청의 이러한 군사상황은 명군과 군사충돌 하기보다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 민심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창평주昌平州의 반란을 구사어전固山額真 바얀巴顏, 석정주石廷柱로 하여금 진압한 것,⁹ 홍서구紅西口의 반란을 구사어전 이국한李國翰, 유지원劉之源으로 진압한 것 등이 있다.¹⁰ 이때 출정한 진압군은 비록 호칭은 청군이었지만, 실제 투항한 명군 지휘관이 지휘하는 명군이었다.

광대한 명 국토를 고려하면 청의 병력은 부족했다. 청은 잔존한 명 세력과 반란군을 진압하는 한편, 대대적인 병력 확충과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잔존한 명군의 투항과 민심을 잡기 위해 청은 반란진압이란 대의명분을 앞세웠다. 또한, 북경에 입성한 뒤, 민심 안정에 주력하여

7 『명승정실록』 부록, 순정 16년 정월 임자.

8 『청세조실록』 권5, 순치 원년 5월 5일(임진).

9 『청세조실록』 권5, 순치 원년 5월 6일(계사).

10 『청세조실록』 권5, 순치 원년 5월 10일(정유).

일체의 약탈행위를 금지하고, 혹여 이를 어기면 본보기로 처단했다. 정황기(正黃旗) 니아한(尼雅翰) 니루 휘하 병사 3명이 함부로 민가의 개를 도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개주인이 저항하자 청군이 활을 쏘아 개주인을 죽였다. 보고를 받은 도르곤은 활 쏜 자는 참형으로 처단하고, 함께 공모한 2명은 편(鞭) 100대를 때리고 코와 귀를 베었다. 도르곤은 자신의 조치를 널리 알리고, 거듭 민간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했다.¹¹

〈표 12〉 청의 대명정벌전 당시 전체 병력현황

부대구성	니르수	가용병력	출정병력
만주팔기	250	15,000명	10,000명
몽골팔기	110	6,600명	4,400명
한군팔기	160	24,050~32,000명	8,000~11,000명
삼순왕(三順王), 속순공(續順公)		9,000~10,000명	3,000~3,300명
외번몽골			12,700~14,000명
조선군			735명
총계			38,835~43,435명

* 전거 : 박민수, 『청의 입관과 기인의 북경 이주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7, 68쪽. 재인용

명청전쟁 당시 청이 투입한 전투병력은 4만여 명으로 보인다. 북경점령 이후 강남에 남명정부가 수립되자 청은 남명정부의 정벌을 시작했다. 이 때 동원된 청군은 대략 11만명~16만명이었다.¹² 실제 청은 10만 이상의 병력을 보유했지만, 남명정벌에 모든 전력을 투입할 수 없었다. 북경을 비롯한 주요 거점을 방어하고 점령지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필수 병력에 많이 부족했다. 후금 이후 정명전쟁, 청 건국 이후 명청전쟁, 입관 이후 남명정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병력동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덧붙여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권력쟁

¹¹ 『청세조실록』 권5, 순치 원년 5월 6일(계사).

¹² 임계순, 『청사』, 신서원, 2001, 69쪽. 1644년 시점에 청의 주요 전력은 563좌령이다. 그 가운데 278좌령의 만주팔기군, 120좌령의 몽골팔기군, 165좌령의 한군팔기군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1좌령마다 300명이라 하면, 전체 병력 168,900명이며, 200명이라 하면, 112,60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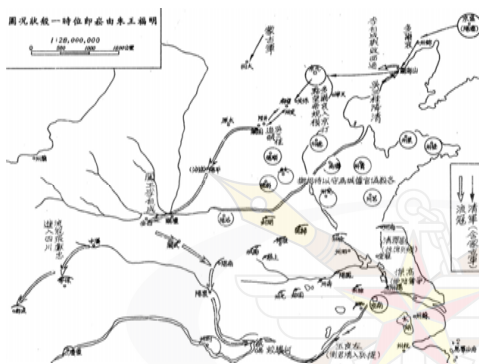
탈의 양상이 존재했다. 청 내부에서 아직 절대적인 권력서열이 확립되지 않았다. 어린 순치제는 도르곤이 섭정하는 상황이었으며, 도르곤 역시 다른 세력과 치열하게 갈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경에 주둔하는 병력이 어떤 병력인가는 매우 중요했다. 청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도르곤은 북경을 점령한 뒤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 이외에 일체의 군대가 북경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다. 산해관을 열고 청군과 연합한 오삼계의 한족군대, 주요 황실의 인물이었던 영친왕^{英親王} 아지거^{阿濟格}, 예친왕^{豫親王} 도도^{多鐸} 등의 군대도 북경에 주둔하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신속하게 병력을 지휘하여 각지에서 반란군 진압 및 남명정부 정벌의 전투에 종사하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당시 섭정왕으로 실권을 장악한 도르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의 부대를 이들 전투에 내보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다른 부대의 북경 진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자성군을 섬멸한 청군은 5월 12일, 북경으로 회군했다.

한편, 북경에서 후퇴한 이자성은 서안으로 퇴각하여 전력을 재정비하고, 관중^{關中}을 거점으로 청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자성과 달리 장헌충은 안전하게 병력을 호광^{湖廣}에서 사천^{四川}으로 진격시켜 중경, 성도^{成都}를 점령했다. 사천성의 대부분을 장악한 장헌충은 11월에 대순^{大順}을 세우고 황제를 칭했다. 명 정부세력은 북경에 청군이 들어오자 남하하여 1644년 5월에 남경에서 사가법^{史可法}이 복왕^{福王}을 홍광제^{弘光帝}로 추대하여 남명을 세웠다.

황제가 사망한 상황에서 각지에서 명의 부활을 명분으로 세력화가 추진되었다. 1645년 복주^{福州}의 정지룡^{鄭芝龍}은 당왕^{唐王}을 융무제^{隆武帝}로 추대하고, 1646년 광둥^{廣東} 조경^{肇慶}의 구식사^{瞿式耜}가 계왕^{桂王}을 영력제^{永曆帝}로 추대했다. 공식적으로 홍광제가 남명정권을 대표했지만, 분산적으로 여러 명잔존세력이 있었다.

청의 입장에서 남명의 군사력은 무시할 수 없을 수준이었다. 무한^{武漢}의 총병 좌량옥^{左良玉}과 아들 좌몽경^{左夢庚}은 2~30만의 병력을, 총병 유량좌^{劉良佐},

고걸高傑, 황득공黃得功 등은 3~40만의 병력을 보유하여 청군과 하북에서 산둥, 하남, 사천으로 이어지는 전선을 형성했다. 전체 100만을 넘는 병력을 보유했지만, 문제는 각 분파별로 이익관계가 충돌하여 남명정부의 이름으로 일괄적인 지휘는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남명은 청군이 본격적인 남진을 멈추고 북경 방어에 주력하자, 1644년 7월 5일, 병부시랑 좌무제左懋第, 좌도독 진홍범陳洪範, 태복시소경 마소유馬紹愉 등을 청에 파견하여 화의를 제안했다.¹³



〈그림 28〉 청 북경점령 직후 전황도

(출처 : 『중국역대전쟁사』15, 대만삼군대학편, 군사역문출판사, 1983)

북경을 점령한 청은 점령지역 안정화, 남명정권정벌, 이자성군 정벌 등 여러 군사현안으로 남서, 남동, 정남 방면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부담이 있었다.

당시 청은 비록 북경을 점령했지만, 본격적으로 중국 통일전쟁을 시행할 수는 없었다. 그보다는 대외적으로 명의 멸망을 천명하고, 점령 지역에 대한 안정이 시급했다. 입관, 북경점령 등이 모두 청군의 압도적인 병력과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삼계를 비롯한 한족 장수들의 투항이 결정적 이유였다. 투항한 한족 장수들은 자

신의 부대를 그대로 보유하였다. 전시상황이라 가능했지만, 한족 장수들이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다는 사실은 매우 위협적이었다. 또한, 광대한 영토에 수 많은 한족의 민심을 수습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 장헌충 등 군사 반란세력이 산서, 사천지방에 웅거한 것도 가볍게 청군의 주력을 남명에

¹³ 軍事科學院, 『中國軍事通史』16, 軍事科學出版社, 1998, 155쪽. 남명정부는 청군의 남진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화의를 제시하며, 역도세력인 이자성 등을 진압하자고 하였다. 청군은 현실적으로 바로 남명과 전투할 수 없는 상황과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 없어 화의의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입하지 못한 이유였다.

도르곤은 이러한 군사상황을 타개할 정책으로 기존 만주족의 편제와 관습을 적절히 활용했다. 먼저 기존 점령지에서 한족을 녹영군(綠營軍)으로 조발(調發)하고, 귀순한 한족 장수로 하여금 지휘하여 남명 및 반란군의 진압에 투입했다. 이때 이들의 부대깃발이 녹색이라 녹영군 내지 녹기군(綠旗軍)이라 불렀다. 북경을 점령하였을 때는 요동, 산해관 등지에서 귀순한 명군으로 녹영군을 구성하고, 이들이 남명정벌 선봉이 되었다. 반면에 팔기군은 전략적인 요충지에 분산 배치하고, 북경과 후방방어에 투입했다.

청은 현실적인 군사상황을 고려하여 남명 정벌군을 편성했다. 남명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강남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력이 더욱 공고해져 청의 통일전쟁이 난관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남명이 존재하면 각지에서 청에 대한 반향이 높아져 자칫 북경과 화북을 장악한 청이 위협받을 수 있었다. 또한, 청 내부에서 권력 갈등할 수 있는 여러 군사세력을 남명 정벌군에 편제하여 동원하면 청 황실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어 1644년 가을에 남명정벌은 추진되었다.¹⁴ 청의 남명정벌은 통일전쟁이었다.

1644년(송정 17) 10월, 정벌군은 화석영친왕(和碩英親王) 아지거(阿濟格)가 정원대장군(靖遠大將軍)으로 총지휘하여 출발했다.¹⁵ 남명군과 전투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645년(송정 18) 5월에 정벌군은 남경을 점령했다. 청군의 남경점령은 남명정권의 몰락을 의미하며, 추가로 명군 23만 명이 투항하여 녹영군으로 편제되었다. 청군은 이들 중 일부를 강남에 남기고, 많은 병력을 서쪽으로 돌려 1646년 이자성을 진압하고, 뒤이어 장헌충을 진압했다.

¹⁴ 『청세조실록』 권9, 순치 원년 10월상 을묘. 순치제는 북경에서 제위에 다시 즉위하며,天命에 의해 중국을 통일하겠다고 맹세했다.

¹⁵ 『청세조실록』 권10, 순치 원년 10월하 계유.

명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 청군은 주요 군사요충지를 확인하고, 팔기군을 주둔시켜 반청세력의 준동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 팔기군은 북방 요충지와 반청세력이 웅거한 지역에 배치됨으로써 주로 북중국에 집중되었다. 이는 한족에 대한 청의 통제에 효율적이었기 때문이었다.¹⁶

한편, 당시 남명정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잔존세력이 서남쪽으로 이동하며 반청활동을 지속했으며, 정성공이 해상세력을 모아 대만에서 반청활동을 주도했다. 1652년(순치 9), 남명의 이정국李定國이 묘족을 이끌고 사천과 광서성을 점령하고 정남왕 공유덕孔有德을 죽였다. 청은 본격적으로 귀순한 한족장수를 중심으로 정벌군을 편성하여 1644년(숭정 17)~1664년(강희 3)까지 중국대륙의 서남, 남쪽에서 치열한 정벌전쟁을 전개했다.

정벌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도르곤이 북경을 점령하여 독자적인 점령 정책을 시행했다. 흑룡강 방면을 정벌하고 심양으로 개선한 매륙장경梅勒章京 올로서천俄羅塞臣와 바둘리巴都里, 갑라장경甲喇章京 샤르후다沙爾虎達 등을 순치제가 대대적으로 위로한 것은 당시 권력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¹⁷ 특히 바둘리는 양남기鑲藍旗로 그 아버지剛格부터 누르하치를 도와 군공을 세웠으며, 자신은 병부참정兵部參政, 양남기 매륙장경으로 흑룡강 유역의 제 부족을 복속시켰다. 즉, 바둘리 등의 군사력은 청의 발원지를 방어하고 후방세력으로 존재했다. 이들을 순치제가 황제로서 위로한 것이다.

청 3대 황제 순치제는 1638년 ~ 1661년까지 청이 대청제국으로 나아가는 격동의 시대를 통치했던 황제이다. 홍타이지의 아홉 번째 아들이었던

¹⁶ 임계순, 『청사』, 신서원, 2001, 70쪽. 정벌과정에서 팔기군의 배치현황은 주로 북경방어를 위한 직예의 順德, 산동의 濟南, 德州, 臨淸 등이었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강소의 蘇州, 南京, 섬서의 西安, 산서의 潞安, 蒲州, 절강의 平陽 등지였다.

¹⁷ 『청세조실록』 권5, 순치 원년 5월 임진.

순치제는 즉위와 동시에 숙부 예친왕 도르곤과 종숙 지르갈랑에 의한 섭정을 경험했다. 청을 건국했지만, 여전히 산해관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순치제가 즉위했을 당시 유력한 친왕과 군왕들은 모두 7명이었다. 예친왕^{禮親王} 다이산^{代善}, 정친왕^{鄭親王} 지르하란^{濟爾哈朗}, 예친왕^{睿親王} 도르곤^{多爾袞}, 숙친왕^{肅親王} 호오거^{豪格}, 영군왕^{英郡王} 아지거^{阿濟格}, 예군왕^{豫郡王} 도도^{多鐸}, 영군왕^{穎郡王} 아달례^{阿達禮} 등으로 이들은 의정회의를 구성하여 다이산을 의장으로 하는 만장일치제 정국운영을 실시했다. 이전의 관습적인 통치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순치제는 남명정벌을 통해 황제로써 권위를 높이려 청 전력을 남방에 투입했다. 기타 지역은 지방 병력으로 방어와 치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순치제의 입장에서 남명정벌에 전념하면서도 내부 권력갈등에 대응해야 하는 바쁜 와중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록 수 백명 수준이지만 러시아군이 침입한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북 방면의 병력을 최대한 동원했다. 실제 청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주요 전력을 남명정벌에 투입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침입에 큰 병력을 동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친정 이후 명을 대신하여 통일국가 청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무엇보다 만주족과 한족으로 구분된 통치체제에서 한족에 대해 강경책과 유화책을 병행하며, 한족을 청 제국에 포함된 구성원으로 포섭하고자 했다. 한족의 문화를 존중하여 만한병용^{滿漢併用}의 제도를 시행하여 문서와 관제에 만주족과 한족을 고루 등용했다. 그러면서 만주족의 통치를 명확히 하고자 만주족의 변발을 강요하기도 했다. 순치 연간 청은 서양선교사를 통해 서양문화를 적극 도입하고자 했다. 이는 천문대와 화포 개발, 지도제작 등 군사과학측면에서 매우 요긴한 정책이었다. 군사사 측면에서 순치 연간 남명이 멸망한 것은 청의 중국통일이 1차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순치제가 재위 20년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하자 강희제가 등극했다. 강희 연간은 남명의 잔존 세력까지 토벌하고, 명칭 교체를 천하에 선포하고, 만한^{滿漢}체제를 갖추어 청 황제 중심의 강력한 정치, 행정, 군사권이 확립된 시대였다. 실질적인 화려한 청 제국의 시작점이었다. 청의 안정화가 지속되면서 조청관계에서 군사적 강압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정축약조 극복을 위한 조선의 왜정외교

1636년 겨울에서 1637년 2월에 삼전도의 치욕으로 점철된 병자호란은 17세기 조청 군사관계에 큰 변화와 갈등을 초래했다. 변화는 조선이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된 것이며, 병자호란의 패전으로 조선의 왕세자가 심양관에 인질로 붙잡혀 가서 청의 강요에 의해 분조 역할을 강요했다. 패전국 조선은 승전국 청의 요구가 반영된 정축약조의 군사관계를 맺었다. 강압적인 정축약조의 틀을 탈피하기 위한 조선의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 과정에 심양관과 국왕 인조의 갈등이 발생했으며,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조선과 이를 제압하려는 청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

조선은 명의 멸망과 남명 정권의 등장, 청의 남명정벌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여 청이 의심하지 않을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정축약조는 조선의 군사증강 관련 모든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의 자발적 군비강화가 아닌 청의 허락된 군비강화를 목표로 했다. 청이 인정하고 허락할 만한 명분이 필요했다. 이를 조선은 일본에서 찾았다.

정축약조의 군사제약은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극복해야 할 가장 어려운 난관이었다. 병자호란에서 패배하였던 조선은 전후 전쟁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정비하고 국방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했다. 그러나 정축약조에 의해 성에 벽돌 하나 올리는 것도 모두 청의 감시를 받았다. 조선은 주변 정세의 변화를 명분으로 조선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해야 했다.

조선은 일본 막부가 전달해 오는 왜정^{倭情}문서를 통해 일본 천주교인이 해상으로 탈출하며 자칫 조선으로 침입할 것을 경계했다. 조선은 일본의 정세불안이 조청 군사관계를 변화시킬 좋은 기회라 판단했다. 조선의 왜정외교는 매우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인조의 사망이란 국가의 큰 일을 청에 알리고, 애도를 표하는 분위기 속에 왜정관련 보고를 청에 하여 수월하게 군비강화의 허락을 받고자 했다.

병자호란의 결과로 청은 조선의 군사정책을 제약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자호란 이후 흥타이지는 강압적으로 정축약조를 체결하여 조선이 성곽을 수축하지 못하게 했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국방체제의 핵심을 산성체제에 두었으며, 북방에서 도성에 이르는 주요 군사축선에 여러 산성을 수축하여 방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산성에 돌 하나 올리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청의 군사 감시가 심하여 조선의 군비강화는 고려될 수 없었다. 이에 인조사망 이후 효종이 즉위하며 “왜정^{倭情}”이란 방안을 찾았다. 병자호란 이후 인조대에서 효종대까지 이어지는 조선의 대청 군사관계에서 군비강화를 위한 조선의 노력과 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본 절에서 살펴본다. 명·청교체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뿐만 아니라 조선의 대외관계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조선은 대청관계 뿐만 아니라 대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했다.

효종 즉위관련 사은사행에 조선이 전달한 왜정외교는 통상적인 왜정사안의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이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여 중심국에 전달하는 내용은 새로운 관백이 들어서면 일본이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구하는데 조선은 통신사 파견이 어렵다고 통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때 전달된 왜정내용은 일본의 천주교 탄압과 천주교도의 해상진출로 인한 변란 위험을 알리는 내용이었다.¹⁸

18 『동문회고』(규880). 조선이 인식한 왜정사안은 『동문회고』에 수록된 1644년(인조 22)~1763년(영조 39)까지 일본관련 정보를 청에 통보하는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문회고』 왜정사안은 10건의 세부안전에 56개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즉, 120년

왜정사안은 인조말년과 효종 즉위년에 집중적으로 천주교 탄압과 관련된 변방의 방비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1653년(효종 4) 이후 문서는 주로 일본의 새로운 관백(關白)이 들어서면 조선에서 통신사를 파견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인조대에서 효종 즉위년까지 내용은 매우 역동적이다. 일본 막부에서 탄압받은 천주교도 즉 야소종문(耶蘇宗門)이 해상으로 탈출하여 섬과 인근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분명 인조대에서 영조대까지 일본정세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조선에 입수되었을 것임에도 조선은 청에 왜정으로 통상적인 관백의 교체만을 포함하였다. 이는 조선에서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이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는 것도 청의 허락이 있어야 했다. 조선은 관백의 교체를 청에 통지하고 이를 근거로 통신사를 파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조 사망과 효종 즉위와 관련하여 조선에서 왜정외교로 정축약조의 규제를 극복하려고 한 내용을 살펴본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선은 가장 의례적인 국왕 사망을 통보하고 청의 예의에 입각한 사신이 올 것을 예상했다. 추가로 효종의 즉위를 통보하고 효종의 책봉을 받고자 했다. 그럼 당연히 청은 효종의 책봉을 허락하는 사신을 보내올 것이며, 조선은 감사의 의미로 사은사행을 파견할 때, 조선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군사외교를 펼치고자 했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1637년, 일본의 큐슈 시마바라(島原)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높은 세금징수와 천주교 금지에 불만을 가졌던 농민들이 16살의 아마쿠사 시로오(天草四郎) 주동으로 일으킨 반란이었다.¹⁹ 당시 3대 막부

간 10개의 안건으로 평균 5~6개 문서가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 조청 관계에서 외교문서는 통상 조선국왕이 청 예부에 보내는데, 왜정관련 문서는 수신처가 청 병부였다. 주로 군무에 관련되는 각종 군사정보, 외교정보가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동문회고』 왜정사안은 조선에서 병부에 보내는 자문, 병부의 회답자문, 기타 일본의 정세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수록한 자문 등이 수록되었다.

¹⁹ 김학유, 「일본의 초기 기독교 선교역사 연구(3)」, 『신학정론』 30-2, 2012, 721~750쪽.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는 막부의 전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쇼군의 허락없는 다이묘(大名) 사이의 결혼을 불허하고, 다이묘의 산킨코우타이(参勤交代) 제도를 실시했다. 또한, 막부의 재원조달을 위해 높은 세금을 징수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천주교금지령을 엄격히 실시했다. 이에미쓰는 시마바라의 농민반란을 강경 진압하고, 전국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계속했다. 이에미쓰는 다이묘의 자유로운 교역이 경제력 강화로 이어지고 그 연결 역할을 천주교가 한다고 판단하여 결국 1639년 쇄국령을 선포하여 포르투갈의 일본 왕래를 금지하고 나가사키의 데지마에 네덜란드인과 중국인의 제한된 교역만을 허락했다.

일본 막부의 천주교 탄압은 1637년부터 1644년까지 지속되었다. 천주교인들은 색출되면 수형, 수장, 열탕고문, 구멍 매달기 등 다양한 고문과 처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 이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경향이 발생했다. 일본 막부는 자신들의 천주교 정책을 조선에 알리고 천주교인이 나타나면 일본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의 서계를 접수한 조선은 인조 사망과 효종 즉위의 정세 속에서 일본 천주교인의 조선 침입과 소란을 예방하기 위해 군비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세웠다.

일본에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포르투갈 상인이 소총을 전국시대에 보급하며 시작되었다. 서구에서 기독교가 점차 확산되는 상황에서 천주교 선교사들은 적극적으로 선교활동을 펼쳤다.²⁰ 특히 규슈의 천주교 신도들은 임진왜란에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공격군에 편성되어 참전하기도 했다. 1593년 스페인 출신의 프란체스코 수도회 선교사들이 일본에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하면서 천주교 선교의 큰 전환점이 생겼다. 기존 예수회와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상호 경쟁적으로 선교활동을 펼치며 자증지란에 빠졌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경쟁관계를 활용하여 정치, 군사적 야심을 채웠다. 1596년 10월 19일, 시코쿠의 토사 해안에 스페인 무역선 산 펠리페

²⁰ 고노이 다카시 저, 이원순 역, 『일본 그리스도교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San Felipe호가 좌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법에 따라 좌초한 배의 모든 교역물자를 압수하도록 명령했다. 문제는 펠리페호의 선장이 스페인의 군사력을 빌려서 압수를 막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보고를 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주교 전반에 대한 탄압을 가했다. 1597년 2월 5일, 나가사키에서 첫 대규모 박해로 인해 26명의 순교자가 나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주교 선교사의 출국과 일본인 신자들의 배교背敎를 명령했다. 이후 막부가 교체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천주교 선교를 금지시켰다. 이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쿠가와 이에미쓰의 쇄국령까지 천주교 탄압이 이어졌다.²¹

정축약조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조선의 왜정외교는 인조 후반 1차례, 효종 즉위 초 1차례 시도되었다. 먼저 인조 후반 왜정외교를 살펴본다. 일본은 자국의 천주교도 탄압 및 이들의 해상 탈출을 파악하고, 조선에 천주교도의 해상 탈출 및 조선 해안으로 침입할 가능성을 알려왔다. 대마도에서 차왜差倭 원성장原城長을 조선에 파견하여 천주교도(예수종문)에 대한 일본의 서계를 전달해 왔다. 물론 일본은 조일관계를 우호적으로 진행하자는 의도였지만, 서계의 내용이 문제였다. 즉, 예수교 종문들이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인 이암포里菴浦에 거주하니 체포하여 일본에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조청은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일찍부터 범월을 엄금했지만, 불법적인 채삼활동이 여전히 많았다. 이 때문에 매우 민간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44년(인조 22) 7월, 일본배 세 척이 이 지역에 표류한 사건이 발생했다. 표류한 일본배를 여진이 유인하여 일본인을 죽이고 배를 소각했다. 조선은 국경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직접 당사자로 적극적으로 청인의 불법 잠채를 지적하고, 살해된 일본인의 물품을 함부로 심양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했다. 자칫 조선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될 수도 있지만,

²¹ 김남식, 「일본의 기독교 수용과정 연구」, 『신학지남』 74-1, 신학지남사, 2007, 269~313쪽.

무엇보다 조정 국경문제, 범월문제, 채삼문제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염려했다. 당시는 조선이 청의 감시를 받는 관계였기 때문이다.²²

한편, 이 시기 조선의 정세도 매우 불안했다. 심기원 반란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했으며, 국왕의 통치권위가 추락하고, 사대부의 반청의식도 고조되어 자칫 정치적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었다. 이에 조선은 소현세자의 귀국을 청에 요구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²³ 조선은 대일관계의 안정을 위해 1636년 병자통신사를 파견하여 임진왜란 이후 새로운 교린관계를 맺었다.²⁴

인조대 조일관계는 조선의 동래부사, 일본의 대마도 차왜(差倭)가 전담했다. ‘도주차왜(島主差倭)’의 의미가 있는 차왜는 일본에서 조선에 전달하는 각종 문서를 담당하거나, 통신사업무, 양국의 각종 상례(喪禮)를 담당했다. 즉, 막부가 시행하던 모든 교섭을 대마도주가 전담하고 그 실무 연락업무를 맡은 것이 차왜였다. 이들 차왜 또는 별차왜(別差倭)는²⁵ 조일 사이를 왕래하며 양국의 정세 및 정보를 탐색하고 제공하는 역할도 했다.²⁶

병자호란이 일어난 다음 해에 차왜 평성연(平成連)이 조선에 7조목의 별록(別錄)을 전달했다. 당시 조선과 일본의 교역이 감소한 것에 반발하는 내용이었다. 인조는 일본이 보내온 별록을 왜정으로 청에 통보했다.²⁷ 당시 이러한 왜정 전달은 일본의 정세가 긴박하여 조선의 방비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마련할 목적이었다. 즉, 병자호란 직후부터 조선은 정축약조에 의한 군사제약을 일본의 정세를 명분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조선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청은 일본의 내조를 요구했다. 직접 일본이

²²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5월 21일(무신); 7월 9일(갑오); 8월 8일(계해); 23일(무인).

²³ 『인조실록』 권44, 인조 21년 11월 3일(계사); 권45, 22년 6월 7일(계해).

²⁴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샘, 1994. 227쪽.

²⁵ 홍성덕, 「17세기 별차왜의 도래와 조일관계」, 『전북사학』 15, 1992. 109쪽.

²⁶ 손승철, 1994, 위 책. 199~206쪽.

²⁷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1월 26일(경인); 3월 21일(갑신).

청에 와서 사정을 보고하라는 의미였다. 이에 조선은 위기의식을 가졌다. 임진왜란의 침략국 일본, 병자호란의 침략국 청이 상호 직접 연결되는 것은 조선의 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상황이었다. 남북으로 조선을 위협할 수 있는 양국이 연결되는 것에 위기의식을 가진 조선은 일본에서 보내오는 예수종문 내용을 수시로 청에 통보하여 일본의 정세가 불안정하다고 강조했다.²⁸

이 시점에 주목되는 장면이 있다. 1640년(인조 18) 5월 9일, 집의 조경趙綱이 모친의 병으로 출사하지 않고 상소를 올려 시무時務를 건의했다. 요약하면 성신誠信으로 교린하여 나라의 세력을 키우자는 것으로 일본과 화친하여 청을 압박하자는 전략이었다.²⁹ 무엇보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잊지 말고, 반청하여 굴욕을 되갚자는 결의에 찬 상소였다.³⁰

인조는 수시로 조청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³¹ 청의 강압으로 조선의 군사정책은 모두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군사 분야에 대한 청의 감시는 매우 엄중했다.³² 1644년(인조 22) 청의 입관을 축하하는 사신을 파견하며, 심기원 반란사건을 통보했다. 이때 파견된 사신은 사은진하겸진주사謝恩進賀兼陳奏使 낙흥부원군洛興府院君 김자점金自點, 의정부 좌참찬 이필영李必榮 등이었다.³³ 조선의 친청세력을 대표하는 최고위직을 파견한 것이다. 이때 김자점의 사신명칭이 흥미롭다. 사은진하겸진주사謝恩進賀兼陳奏使이다. 세 가지 사행목적에 겹쳐져 파견된 것이다. 당연히 사은은 입관을 알리는 칙서를 보내온 것에 대한 하례이다. 진하는 입관과 순치제가 입관 이후 새로 즉위한 것에 대한 하례이다.³⁴ 그럼, 진주는 무엇인가? 진주라 함은 별도

²⁸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3월 13일(병자); 권43, 20년 2월 23일(계해).

²⁹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5월 9일(기축).

³⁰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5월 13일(을해).

³¹ 『청세조실록』 권5, 순치 원년 5월 1일(무자);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7월 4일(기축).

³²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6월 27일(계미); 7월 4일(기축); 『동문회고』 원편, 권7, 進賀1, 甲申 頒入燕勅.

³³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5월 21일(무신).

³⁴ 『동문회고』 원편, 권7, 進賀1, 甲申 頒吳三桂出降勅.

의 사항에 대해 아뢰고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즉, 심기원 반란사건을 진압하고 그 내용을 보고한다는 내용이다.³⁵

김자점이 지참한 외교문서는 「하입관표^{賀入關表}」, 「하입연경표^{賀入燕京表}」, 「겸하입관입연연유자^{兼賀入關入燕緣由咨}」, 「사강칙표^{謝降勅表}」, 「진토역주^{陳討逆奏}」, 「보도왜청수포종문적당자^{報島倭請搜捕宗文賊黨咨}」 등이었다. 사은, 진하, 진주에 관련된 문서는 확인이 되는데 정체불명의 문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왜 정관련 문서였다. 결론적으로 인조 후반 왜정외교는 별다른 소득없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청의 최대 군사성과였던 입관과 북경점령이란 소식을 접하고 조선의 군사외교를 시도한 점에서 조선의 대청 군사관계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도왜청수포종문적당자」는 넓은 의미에서 진주에 포함되지만,³⁶ 내용은 일본의 불안한 정세를 통보하는 군사문서이다. 즉, 조선은 청의 입관, 순치제의 즉위 등을 축하하며, 내부적으로 심기원의 반란사건과 같은 역모가 있고, 대외적으로 일본의 예수종문이 불법침략하여 해안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불안한 정세를 청에 알리고자 했다. 조선이 그 만큼 내외위란의 위기상황이므로 국방력을 키워 안정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때 사실 김자점은 별다른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다. 첫째 임무는 소현세자 일행의 귀국이였다.³⁷ 조선의 세자가 인질로 잡혀있는 것이 국가위신상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위신의 문제 이외에도 심양관의 소현세자가 청과 밀접하게 연관되면 조선의 인조와 지배층이 불안했기 때문이다.³⁸ 이외에도 세폐문제의 해결, 왜정의 전달이였다. 김자점이 전달한 왜정자문은 병부를 통해 순치제에게 보고되었으며, 순치제는 일본의 해양정세 변화에

35 『동문회고』 원편, 권33, 陳奏1, 甲申 請捕送逆黨咨.

36 김경록, 「조선초기 종계변무의 전개양상과 대명관계」, 『국사관논총』 2006. 156~159쪽.

37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7월 임자.

38 김경록, 「17세기 조청관계와 왜정의 군사·외교적 활용」, 『군사』 94, 2015.

주목하여 조선으로 하여금 해방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비록 구체적인 지시는 없어도 왜정에 대한 관심과 방비강화를 지시한 점에서 조선의 왜정을 활용한 군사외교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효종 즉위 초 왜정외교이다. 효종이 즉위한 무렵에 동래부사가 일본 차왜差倭가 요구한 사항과 예수종문耶蘇宗門의 체포 상황을 정리하여 국왕에게 보고했다. 이를 활용하여 효종은 청에 왜정외교를 펼치고자 했다. 인조 후반과 같이 청의 군사성공이 없었지만,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가장 의례적인 인조의 사망이란 역사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649년(인조 27)에 인조가 사망했다. 인조는 조선왕조에서 두 번밖에 없었던 반정反正으로 즉위한 군주, 반정공신 이괄李适의 반란으로 공주까지 피난했던 군주, 정묘호란으로 강화도에 피난했던 군주, 병자호란으로 남한 산성에서 내려와 삼전도에서 항복의식을 청 태종에게 올렸던 군주, 심양관의 소현세자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받았던 군주 등 파란만장하였던 삶과 정치역정을 경험한 군주였다. 조선은 인조의 사망을 청에 전달하고, 세자 봉림대군鳳林大君의 승습承襲을 요구했다. 조선은 매우 철저하게 인조의 사망, 효종의 즉위를 의례적인 국가관계로 접근하고자 했다. 동아시아 예적 질서에서 흉례凶禮와 상례喪禮는 다른 모든 의례에 앞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또한, 정축약조에서 청은 조선으로 하여금 명과 동일한 사행제도를 청에 적용할 것을 강제했었다.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당연한 주장이므로 조선도 공식적으로는 반대할 수 없었다. 이런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서 상례, 흉례는 그 애통함이 지극하여 다른 의례보다 앞서 행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청 역시 이런 점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조선시대 대중국관계에서 모든 외교행위는 사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사행은 반드시 한 가지 사안만을 다루어야 했다. 조선에서 국왕 인조가

사망하면 조선은 이를 청에 통보해야 하는데, 인조의 사망을 청에 알리는 고부사행(告訃使行), 국왕 부재의 상황에서 봉림대군을 국왕으로 책봉하도록 요구하는 청승습사행(請承襲使行)을 요구하는 사행이 별도로 파견되어야 했다. 이때 조선은 인조의 사망을 알리고 인조의 시호를 받는 것은 원만히 완수할 수 있지만, 봉림대군의 즉위에 대한 승인은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조선후기 가장 북벌론을 주장하였던 국왕 효종의 즉위 과정은 매우 민감한 문제가 조정 사이에 존재했다. 첫째, 병자호란 이후 청의 조선에 대한 불신이 많아 강력한 감시체제가 유지되었던 시대였다. 둘째, 심양관 생활을 하였던 소현세자가 청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았지만, 조선으로 귀국 이후 급사하고 봉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소현세자 사망과 봉림대군의 세자책봉의 정황에 대해 청은 조선의 의도된 반발이라고 의심했다. 셋째, 청의 남명정권 정벌전쟁, 명 잔존세력 정벌전쟁 등으로 청은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이런 정치, 군사적 상황 속에서 조선은 효종의 승습(承襲)을 인조의 사망에 대한 인정적인 애례(哀禮)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이에 조선은 홍주원(洪柱元)을 고부사(告訃使)로 파견하여 인조의 사망을 알리고 시호(諡號)를 청했다. 청은 인조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도의적인 측면에서 애도를 표하고 조선에서 요구한 시호를 전달했다. 청에서 「유제사시(諭祭賜諡)」의 외교문서를 보내오자 조선은 「사제시(謝祭諡)」의 문서를 청에 보냈다. 이는 인조의 죽음을 알리고, 청은 인조의 죽음에 대해 사시하는 외교행위를 한 것이다.³⁹

문제는 봉림대군의 국왕책봉 승인이었다. 조선은 고부사를 파견하면서 동시에 청책봉사(請冊封使)를 파견했다. 조선시대 모든 외교활동은 현대의 대

³⁹ 인조의 사망과 관련한 조청간 외교는 애례(哀禮)사안으로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중심국에 국왕사망을 통보하고, 황제국의 정식 인정을 받는 것이다.

사를 통한 활동과 달리 철저하게 국왕 명의를 외교문서를 전달하고, 황제 명의를 외교문서를 받음으로써 외교활동이 해결된다. 이에 조선은 봉림대군의 승습을 요구하는 외교문서인 「청세자사위주문(請世子嗣位奏文)」을 신중하게 작성했다. 국왕이 사망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왕의 책봉을 요구하는 문서는 왕대비, 왕비 등이 전달주체였다. 청으로부터 책봉받은 이는 인조, 왕비, 세자였기 때문이다.⁴⁰ 인조의 사망을 알리고 시호를 받는 사안은 청의 입장에서도 애례라는 인륜지사(人倫之事)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처리되었다. 하지만, 봉림대군의 국왕책봉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국왕책봉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조선의 국가경영에 필요한 별도의 요구, 즉 “진주(陳奏)사안”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었다.

왜정외교를 펼치면 조선은 외교문서 하나 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심양관과 조선에서 청에 외교활동으로 전개하는 모든 것이 청의 감시를 받았던 시대상황 때문이었다. 특히 청축약조 이후 조청 군사관계에서 문서의 작성자, 문서의 행이체계, 문서의 접수자, 문서의 종류와 수량 등이 언제든 군사외교 현안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조선은 청의 외교공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밀하게 군사외교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청에 전달했다.

처음 약방도제소(藥房都提調) 김자점(金自點)이 인조의 병세를 살폈지만, 1649년(인조 27) 5월 8일, 창덕궁(昌德宮) 대조전 동침(東寢)에서 인조가 승하하였다. 인조가 승하한지 5일 만에 효종은 즉위했다. 문제는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청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에 6월 12일, 김련(金鍊), 홍진(洪瑱)을 고부청시청(告訃請諡請承襲使)로, 승습관련 사행으로 영안위(永安尉) 홍주원을 청에 파견했다. 이들은 청에 인조의 부음을 전달하고, 시호(諡號)를 요청함과 동시에

⁴⁰ 『동문회고』 원편, 권1, 封典1, 己丑 請世子嗣位奏. 청에 전달된 외교문서는 인조비인 장열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 명의로 작성된 「조선국왕비첩조씨근주위승습사(朝鮮國王妃妾趙氏謹奏爲承襲事)」의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이때 국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외교문서는 국왕문서가 아닌 신문(申文)이 사용되었다.

대비 명의로 된 주본奏本을 전달하여 효종의 왕위 승계를 요청했다.⁴¹

조선은 인조의 죽음과 효종의 승습에 관련하여 부음을 전달하는 고부표告訃表를 작성하고 정축약조에 규정된 방물도 함께 보냈다. 원래 조선의 규정에 따르면, 사행에 필요한 방물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에 비록 배표拜表 이전이더라도 국왕의 부음이면, 의정부에서 임시로 역관을 고부사告訃使로 차송하고, 기타 왕비와 왕실의 부음이면, 의정부에서 별도로 전부관傳訃官을 차정하여 청의 봉황성에 전달했다. 조선의 부음을 전달받은 봉황성은 조선의 부음을 접수하고 바로 성경盛京에 보고하였다. 성경은 이를 북경의 예부에 보고하였다. 이처럼 국가의 흥례와 상례는 신속하게 알리고 중심국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황제 명의로 조의를 표해야 했다. 조선은 왜정외교를 이런 흥례와 상례에 섞어 펼치고자 했다.

이후 조선에서 정식으로 고부표, 방물 등을 준비하면 고부청시청승습사告訃請諭請承襲使를 차정하여 북경에 고부한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 정식으로 청에 국왕의 사망과 새로운 국왕의 승습을 알리면, 청은 필수적으로 이에 대한 봉전사행을 파견하여 봉전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조청관계에서 상호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였기 때문이다.⁴²

인조의 부음과 효종의 승습에 관련하여 조청관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병자호란 이후 정축약조가 제약하는 조청관계에서 첫 승습 사례이

41 『효종실록』 권1, 효종 즉위년 5월 14일(임신); 『승정원일기』 효종 즉위년 6월 경자.

42 김경록,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한중관계의 전개양상」, 『중국학보』 60, 2009. 조청관계는 청 중심 국제질서 하에서 상호간에 명확한 권리와 의무가 존재했다. 중삼국이 청은 조선의 조공사행을 받고, 조선에 필요한 공물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청은 조선의 왕위계승을 승인하여 고명을 하사해야 하며, 조선이 외부세력에 의해 침입을 받으면 군대를 파견하여 격퇴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안정시킬 의무가 있었다. 조선은 정해진 조공사행을 중심 국가에 파견하고, 청이 요구하는 공물을 바치고, 청의 군사적 요구에 응답하여 근왕할 의무가 있었다. 반면, 왕실의 권위를 부여받는 왕위계승을 청에 승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외부의 침입에 대해 청군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근대 개항기 이후 일본의 정치, 사회적 침입에 대해 조선은 청에 군대파견 및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도록 요구했다. 동학농민군에 대해 진압이 어려운 조선은 청군의 파견을 요구하여, 동북아시아 근대변화의 정점이 된 청일전쟁이 발발하기도 했다.

므로 청은 명대 승습체계를 준용했다.⁴³ 청 황제로부터 병자호란 이후 책봉을 받은 국왕 인조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부음은 왕비와 왕세자가 전달 주체가 되었다.

병자호란 이후 조청관계에서 이루어진 국왕 이외의 첫 고부는 소현세자의 사망에 대한 고부였다. 그럼, 심양관으로 유명한 소현세자의 고부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조청 군사관계에서 병자호란이란 극단적인 전쟁을 경험한 양국이 가장 예의를 갖추어야 했던 고부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당연히 소현세자의 고부는 전달 주체가 국왕인 인조였다. 고부표에 사용되는 인장도 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조선국왕지보 朝鮮國王之寶”를 찍었다. 반면에 인조의 부음은 왕비와 왕세자가 전달 주체가 되며, 부음을 알리는 외교문서에 사용되는 인장은 왕세자의 별도 인장이 아니라 국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리한다는 의미에서 “조선국권서국사 朝鮮國權署國事”를 사용했다.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왕세자 책봉은 국왕의 유고 내지 비상상황에서 임시로 국사를 대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중요하면서도 그만큼 정치적·권위적으로 취약한 존재이기도 했다. 만약 책봉된 왕세자가 방만하고 어리석고 질병으로 국정을 대리하여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되면 국왕이 폐위시키고 청의 허락을 얻기도 했다. 당시 인조의 부음은 청에서 별다른 논쟁없이 허락되었다. 병자호란 이후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된 국왕이었으며, 이미 청 홍타이지가 책봉하였던 국왕이었기 때문이다.

효종의 국왕 책봉도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봉림대군으로 심양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여 청의 관원과 교분이 두텁고, 소현세자 사망 이후 세자 책봉과정에 검증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조청간에 별다른 군사충돌이나 외교현안이 없었으며, 다만 미국교역과 국경교역 등 양국 사이에 상

⁴³ 김경록, 「중종반정 이후 승습외교와 조명관계」, 『한국문화』 40, 2007. 조선에서 작성한 외교문서는 「고인조대왕승하표(告仁祖大王昇遐表)」, 「고애주(告哀奏)」, 「청시표(請諡表)」, 「행장자(進行狀咨)」 등 부음관련 문서와, 「청세자사위주(請世子嗣位奏)」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3〉 효종 즉위년 청사의 대조선사행

시기	사행명	상사	부사	통관	문서	일정
1649년	조제사 弔祭使	오허烏許 예부 계심랑 營心郞	애십라고합봉곡 愛什喇庫哈峰谷	5명	사제인조대왕문 賜祭仁祖大王文 1도 제폐 祭幣 1도	패문 牌文: 8/15 복경도착: 9/5 발행 發行: 8/20 도강: 9/18 입경: 10/7 회정: 10/17 한도강: 11/4
	책봉사 冊封使	보대낙고 甫大樂古 호부 계심랑	하찰사대 察察斜大		책봉국왕고 冊封國王誥 1도 고명제폐찬 誥命彩幣勅 1도 사국왕외비조 賜國王王妃詔 2도	

* 출전 : 『동문회고』 보편 권7, 조직록 詔勅錄; 『청세조실록』

호 필요성이 있었던 사안뿐인 점도 효종의 승습외교가 원활히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조선의 부음을 전달받은 청은 예부에서 전례를 상고하여 조제사弔祭使와 책봉사冊封使를 파견했다.⁴⁴ 당시 청 사신은 인조의 사제문賜祭文과 제폐祭幣, 효종에게 고명誥命을 가져왔다. 새로운 국왕이 이미 혼인하여 세자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왕과 동일하게 왕비로 함께 책봉받는다. 한양에 도착한 청 사신은 이해 10월 9일에 영사전永思殿에서 인조의 조제弔祭를 행하고, 그 다음 날 명정전明政殿에서 조례弔禮를 효종과 행했다. 청 사신은 이러한 조제와 책봉의 사행목적을 수행하고 10월 17일 돌아갔다.

〈표 14〉 효종 즉위년 대청사행

연도	사행명	상사	부사	서장관	출발	비고
1649년	진하겸사은행	정태화 鄭太和 우의정	김여옥 金汝鉞 한성부 우윤	목행선 睦行善 사인 舍人	3/20	하추존황제사제사사물 賀追尊皇帝四世謝賜物
	고부겸주청행	홍주원 洪柱元 영안위 永安尉	김려 金鍊 공조참판	홍진 洪瑣 판교 判校	6/12	고인조대왕승하청시청 告仁祖大王昇遐請誼承襲 승습
	사시제주검삼절연공행	인흥군 仁興君 영택	이시방 李時昉 형조판서	강여재 姜與載 문학 文學	11/1	사사시제책봉주축성비 謝賜諡祭冊封奏築城備倭 왜
	응연행 鷹連行	김정립 金正立 중관	이분 李芬 사역원 정			

* 출전 : 『동문회고』 보편 권7, 사행록 使行錄.

⁴⁴ 『청세조실록』 권45, 순치 6년 8월 정미. 당시 청 사신이 지참한 문서는 인조에 부고에 대해 「賜祭仁祖大王文」과 祭幣이며, 효종에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誥命이라고 알고 있는

청 황제가 임명한 사신이 온다는 점은 조선의 입장에서 긴급한 외교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조선은 당시 주요 외교현안이었던 미곡교역을 해결하고자 했다. 비변사에서 치밀하게 준비하여 청 사신을 대상으로 외교활동을 펼쳤다. 일단 비변사는 다음 봄에 연례적으로 청이 요구하는 미곡교역을 대비하고자 했지만, 그 해에 평안도와 함경도에 흉년이 심해 곡식이 부족하니 청의 훈춘^{厚春}에 비축된 곡식을 교역하여 구호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⁴⁵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청의 비축미를 조선의 구호미로 교역하도록 요구한 점이다. 조선의 왕위 계승이란 외교관계에서 조선은 조선의 비축미를 흉년이란 이름으로 감추고, 청의 비축미를 요구하는 적극성을 보인 것이다.

비록 조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청에 조선의 곡식 수급상황이 흉년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리는 효과는 있었다. 전란으로 조선과 청은 모두 곡식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이런 시점에 상호 매년 미곡교역이 이루어지는데 조선은 미리 조선의 어려움을 청 사신을 통해 순치제에게 전달하여 다음 해 미곡교역에 우위를 점하고자 했던 것이다. 효종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청 사신을 영송하는 반송사와 평안감사가 청 사신이 돌아갈 때 전달하도록 하였다.⁴⁶

청 사신이 와서 효종의 승습을 마무리하자 조선은 효종대의 새로운 조청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효종은 오랜 심양관 생활에서 절감한 반청의식이 명확했던 군주이다. 효종대는 가장 강력한 북벌론이 추진된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외교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했다. 효종은 승습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사은사를 차

『冊封國王詔』, 『誥命彩幣勅』, 『賜國王王妃詔』 등이었다.

⁴⁵ 『효종실록』 권2, 효종 즉위년 10월 20일(을사). 당시 조선은 북방지역의 흉년이 심했다. 특히 육진이 심하여 백성들의 구휼도 어려웠지만, 더욱이 군량조달과 청에 곡식을 보내는 것도 어려웠다.

⁴⁶ 『효종실록』 권2, 효종 즉위년 10월 9일(갑오); 10일(을미); 20일(을사).

정하여 파견했다. 사은사는 영의정 이경석으로 정했다가 업무의 성격상 종친인 인흥군(仁興君) 이영(李瑛)과 이시방(李時昉)을 차정했다.⁴⁷ 청은 철저히 혈연을 중시하여 고위 관직보다 왕족을 우대하였던 점을 고려한 사신 파견이었다.

사은사행은 여러 가지 외교문서를 지참하고 청에 전달했다. 이들 문서는 승습과 시호를 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문서들이지만, 이영과 이시방은 이들 문서 이외에 별도의 문서를 함께 지참하여 청에 전달했다. 일본의 정세에 대한 보고서 성격의 왜정(倭情)에 관련한 주문(奏文)을 전달했다. 이는 별도의 군사목적(軍事目的)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가로 청에 매년 전달해야 하는 공포(貢布)의 삭감을 요구하는 문서도 전달했다. 즉, 조선은 국왕의 죽음과 새로운 국왕의 즉위라는 표면적인 안건 이외에 조선에서 필요로 하였던 군사안건을 함께 요구했다.

특히 일본의 정세가 불안하여 혹여 군사적 침공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 조선의 산성을 축조할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통상적인 의례 관련 외교현안에 군사현안을 접목한 조선의 적극적인 대청외교였다. 비록 이때 조선이 요구한 축성의 군사목적은 달성되지 못했지만, 청으로부터 「칙시제부사에단흠식왜정경주공포청완칙(飭諭祭附謝禮單欠式倭情徑奏貢布請緩勅)」을 받아 공포는 일정 수준으로 줄었다.⁴⁸

또한, 조선후기 조청관계에서 사행제도는 청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조선과 청이 주변국과 중심국으로 상호간 의무와 권리를 함께 가지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중심국은 조선의 봉전(封典)요구에 대해 반드시 책봉의 의무를 시행해야 했다. 주변국은 청에 봉전을 알리고 청의 책봉을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⁴⁷ 『효종실록』 권2, 효종 즉위년 10월 15일(경자). 이들이 지참한 문서는 「謝國王詔」, 「謝王妃詔」, 「謝誥幣冊封及賜祭賜諡表」였다.

⁴⁸ 『동문회고』 원편, 권41, 飭諭, 庚寅 飭諭祭附謝禮單欠式倭情徑奏貢布請緩勅.

조선후기의 동아시아 국제사회는 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가 작동한 시대였다. 조선은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외교제도를 준수함으로써 청과 정치, 군사적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대외적인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봉전을 통해 왕실의 통치근거를 마련하고 지배체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인조대에서 효종대까지 조청관계는 긴장의 연속이다. 병자호란의 경험과 기억이 조선과 청 양국에 모두 생생하게 남아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청의 냉혹한 감시를 이완시키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였으며, 조선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했다.

당시 일본은 천주교에 대한 탄압으로 일부 세력이 해외로 탈출하면서 이들이 조선으로 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들의 체포를 위해 군대 파견까지 언급했다. 이를 기회로 조선은 일본이 조선을 침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청에 통보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조선군의 군비강화를 주장했다. 조선의 정치·군사적 의도를 파악한 청은 대규모 사핵사절(査覈使節)을 파견하여 함부로 군사력 강화를 건의한 점을 질책하고 국왕 효종을 비롯한 조선 지배층을 더욱 압박했다. 내부 권력쟁탈, 반청흐름에 대한 진압, 통치체제 강화 등으로 군사적 민감성이 높았던 청은 조선의 반청분위기를 의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 조선이 정축약조를 위반하는 요구를 하자 강하게 질책하고 철저히 조사하였다.⁴⁹ 청은 우선 조선사신을 감금하고, 사신을 대상으로 조선의 의도를 조사하였다.⁵⁰

왜정을 통해 국방을 강화하고자 했던 의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의 고압적인 반응에 당황한 조선은 조사를 위해 오는 청 사신에 대해 영의정 이경석(李景奭)을 원접사(遠接使)로, 예조판서 오준(吳堧)을 별연위사(別宴慰使)로 삼아 사태를 무마하도록 했다.⁵¹ 청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소현세자의 사망

49 『정세조실록』 권47, 순치 7년 1월 11일(을축); 28일(임오).

50 『효종실록』 권3, 효종 1년 2월 8일(신묘). ‘척시제겸사예단흠식왜정경주공포청안칙(飭諭祭兼謝禮單欠式倭情徑奏貢布請緩勅)’, ‘섭정왕통혼칙(攝政王通婚勅)’ 등의 외교문서를 지참한 조사목적의 사신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51 『효종실록』 권3, 효종 1년 2월 28일(신해).

이후 대신하여 즉위한 효종은 친청세력의 득세와 함께 왜정자문사건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큰 위험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청의 파병요구에 효종은 매우 적극적으로 수락하고 파병군사를 선발하도록 비변사에 지시했다.

왜정자문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효종은 1651년 2월, 임진왜란 이후 수군 강화를 위해 통영統營에 설치하였던 첨방군添防軍을 민폐가 심하다는 사유로 혁파했다.⁵² 첨방군의 혁파는 이미 여러 신하들이 건의한 사항이었지만, 조선에서 역대로 해방을 위해 설치하였다는 점에서 윤택하지 않았지만 이때 혁파한 것이다. 반면에 점진적으로 변방의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중앙군의 강화에 집중하여 1652년 6월에는 어영군御營軍의 군액을 2만1천 명으로 증원하여 왕실호위를 강화했으며, 곧이어 금군禁軍 629명의 정원과 소속을 일제히 정비했다.⁵³

그런데 왜정사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청 입관 이후 일정시기까지 군사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다. 조선은 청 입관 이후 순치 원년의 「보도왜정수포종문적당자報島倭請搜捕宗文賊黨咨」, 순치 2년의 「보도왜채청심해방구지도자報島倭再請審海防求地圖咨」, 「보도왜소청삼사책유경귀자報島倭所請三事責諭徑歸咨」, 「전송표왜칙轉送漂倭勅」, 순치 3년의 「진전해표왜주陳轉解漂倭奏」, 「보도왜서계오칭달단자자報島倭書契誤稱韃靼字咨」, 순치 6년의 「진청축성비왜주陳請築城備倭奏」 등을 왜정에 수록되었다. 효종 이후 관백관련 내용으로 고정화되는 것과 차이를 보여준다. 명대도 그렇지만, 청대에도 조선의 대일관계에 관하여 관백과의 왕래는 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대마도주와의 왕래는 통보할 필요가 없었다. 효종대 이후 일본과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문위행問慰行이 정례화되면서 겸대兼帶로 이어졌다.⁵⁴

⁵² 『효종실록』 권6, 효종 2년 2월 23일(경오).

⁵³ 『효종실록』 권8, 효종 3년 6월 29일(기사); 권9, 8월 29일(무진).

⁵⁴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 샘, 1994. 199~228쪽.

왜정은 일본의 정세를 청에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하고, 청의 문서를 함께 수록한 것이다. 즉, 조선이 청을 대상으로 일본정세를 어떻게 수집하고 정리하여 전달했는가를 볼 수 있다. 『동문회고』 왜정사안에 수록된 순치 연간은 1644년 청이 북경점령을 통해 명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시기이다. 병자호란 이후 인조의 시대가 마감하고 효종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 사이에 조선에서 청에 제공한 일본정세가 어떠한 내용이며, 이후와 달리 매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다.

그럼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에서 조선은 왜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록했는가 정리한다. 그 해답은 부흥의 군주, 개혁의 군주, 군사에 능통한 군주 정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조는 조청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사건에 대비하여 각종 외교문서를 종합하고, 이를 외교사안별로 분류하여 조선후기 종합외교문서집으로 평가받는 『동문회고』⁵⁵ 同文彙考』을 편찬했다. 정조는 일본의 정세를 알려오는 일본문서를 부편 附編과 원편의 ‘왜정’ 항목에 인식했다.

동서고금의 모든 국가는 주변국과 때로는 치열하게 충돌하고, 때로는 타협과 동맹을 통해 안보와 발전을 도모해 왔다. 국가간에 발생하는 충돌과 타협의 과정을 외교라고 하며, 외교를 통한 공존이 실패하면 전쟁이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외교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외교정책의 형성과정은 지배자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참여자들의 의견이 집중되었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은 엄격하게 관련 문서를 남겨 외교정책의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했다.

조선시대 동아시아는 현대 국제사회의 성격 및 내용과 많은 차이를 가졌다.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자신을 하늘의 대리인이라는 의미에서 천

⁵⁵ 김경록, 「조선후기 동문회고의 편찬과정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2, 2005, 188~202쪽. 『동문회고』는 1788년(정조 12) 왕명으로 출판된 초편 60책과 속편 36책으로 구성된 거질의 외교문서집이다. 『동문회고』는 초편 60책인데, 이 가운데 원편은 37책, 별편은 2책, 보편은 5책, 부편은 16책이다.

자^{天子}라고 지칭하는 국가가 주변국에 대해 상하서열을 강조하는 형식의 국제관계를 강요했다. 이처럼 큰 국가(천자의 나라)와 작은 국가(제후의 나라)간의 관계를 ‘계서적^{階序的}’이라 표현할 수 있다.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계서적인 성격의 불평등한 관계였는데, 그 중심에 있는 국가에 따라 ‘명^明 중심 국제질서’, ‘청^淸 중심 국제질서’라 할 것이다.

조선시대이든 현대사회이든 외교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명분이다. 다만 조선시대 국제질서는 예의^{禮儀}라는 명분이 보다 설득력 있게 작용하는 시대였으며, 예의의 근본 속성이 계서적이었기 때문에 강대국은 천자국을 천명하고 주변 국가는 제후국을 인정하였다.

국제질서에서 국가관계의 예^禮는 상호성이 있다. 상호성은 상대성이라 할 수 있는데, 사대친소^{事大字少}라고 할 때, 소국은 대국을 공경해야 하고 대국은 소국을 자애^{慈愛}해야 하는 것이다. 대국이 대국으로서의 면모와 역할을 못하면 소국은 대국을 공경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예에 기반하여 명목적으로 설정된 조선시대의 국제질서에서 천자국과 제후국은 천자국과 제후국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건륭 연간에 조청 군사관계가 안정되는 경향 속에서 정조는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사건에 대비하여 효종이 실시하였던 왜정외교를 역사기록으로 상세히 남기고자 했다. 정축약조의 엄중한 군사관계를 개선하여 조선의 국방력 강화를 시도했던 왜정외교는 정조에 의해 외교문서집으로 편찬되었다.

제 2 절 효종대 전후 인식과 나선정벌의 군사적 의미



“신류^{申瀏}가 기록한 ‘차한^{車漢}은 나선^{羅鮮}이다.’라고 한 것은 나찰^{羅刺}을 가리킨 듯하고, 월개^{月介}, 개부락^{介夫落}, 팍개^{撲介} 부류는 색류^{索倫}과 타호이^{打虎衛}인 듯하다. 우리 효종 9년은 청나라 순치 15년이다. 생각건대 그 당시 나찰이 흑룡강 지역을 침범하여 괴롭히자 청의 요청으로 군대를 징발하여 토벌한 사건이 있었고, 강희 연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평정되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흑룡강까지 가서 악라사^{鄂羅斯}와 싸운 것 또한 초유의 일이었다.”

정조대 영재^{淸齋} 유득공^{柳得恭}의 나선정벌에 대해 의견
『고운당필기^{古雲堂筆記}』 권2, 차한^{車漢}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국제정세 인식

조선시대 조청 군사관계에서 요동은 지정학·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대표적인 외교사건이 발생한 공간이다. 명대 국제질서 건설에 최대 위협세력은 요동의 몽골이었으며, 명이 요동도사를 설치하고 적극 통제하고자 해도 늘 불안정했던 공간이다. 명의 요동통제는 공간적으로 요동팔참^{遼東八站}과 요동변장^{遼東邊牆}이었다.⁵⁶

요동의 중요성과 역사성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지식인 박지원의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요동이 넓은 평야로 방어에 힘들고, 방어하지 않으면 오랑캐가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역대로 마음편히 내놓지 못하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마땅히 국력을 집중하여 지킨 뒤에 중국이 편안하다고 했다.⁵⁷ 박지원이 볼 때, 요동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명·청뿐만 아니라 조선에 있어 매우 중요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는 적극적인 요동정책을 펼친 반면, 조선은 상대적으로 명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명을 통한 제어에 방점을 두었다. 이는 조선시대 명·청 중심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조선의 요동에 대한 진출보다 요동이 안정되면 조선의 대외관계가 안정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여진의 통합과 후금의 등장은 조선과 명의 여진에 대한 통제 약화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한편, 명청 교체기에 조선의 명, 후금정책은 이전과 큰 차이가 있었다. 원명 교체기에 고려는 원·명을 두고 이원적인 국제질서를 상정하고 국익 차원에서 다양한 외교정책을 전개했다.⁵⁸ 반면, 명은 여말선초 강압적인 고려·조선정책을 펼쳐 조선의 여진 통제를 제어하고자 했다.⁵⁹

56 楊暘, 『明代遼東都司』, 中州古籍出版社, 1988, 139~155쪽.

57 『熱河日記』, 『盛京雜識』, 4년 가을 7월 丙戌.

58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 64, 한국역사연구회, 2007, 197~231쪽.

59 김경록, 「여말선초 洪武帝의 고려·조선 인식과 외교관계」, 『명청사연구』 35, 명청사학회.

그러나 조선은 명청 교체에 대해 광해군의 명분과 실리를 고려한 제한된 실리외교를 전개하기도 하고, 인조대 명분에 중점을 두어 외교적 이점이 상실되는 친명정책으로 병자호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인조대 이러한 대명·대청인식과 정책은 반정의 명분, 서인정권의 정치지향 등의 이유도 있지만, 조선의 유교적 사유체계가 가지는 특징이었다. 조선을 이끌어가는 사대부는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유교정치의 원론에 충실한 대외정책을 지향했다.

조선초기를 경과하며 유학은 보다 심화되어 예학禮學과 중화의식이 내면화되었다. 명을 현실적인 국가로 비판하면서도 중화中華로 인식하는 외교정책을 계승했다. 화이론華夷論의 입장에서 요동과 만주를 중화와 구분되는 이적夷狄으로 인식하는 국제인식은 시제時制, 시속時俗과 다른 자원이었다. 요동을 이적의 공간으로, 중원을 중화의 공간으로 인식했다. 이는 명 황제의 현실적 폐단과 정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과감한 비평을 가하면서도 중화체제의 전형으로 명목적인 명을 상징하는 인식은 조명관계를 안정시켜 조선의 안보를 담보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표출된다.

이런 조선의 중화인식과 요동인식에 기폭제 역할을 한 사건이 임진왜란 발발과 명군의 참전이였다. 황제국으로 주변국에 대한 정토의무가 있었던 만력제의 의무 실천이었지만, 명군 참전은 험난한 군사상황 속에서 참전하여 국가위기를 초래하였다.⁶⁰ 황제국의 군대가 전세를 역전시키는 평양성전투를 승리로 이끌자 예조는 임진왜란 명군의 참전을 국가재조로 인식하였다.⁶¹

조선의 대명인식과 재조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명청 교체의 현실은 결코 전쟁이란 현실의 문제만은 아니라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관념

2011, 1~33쪽.

⁶⁰ 김경록, 「임진전쟁기 명의 참전과 전쟁전략」, 『지역과 역사』 50, 2022, 5~36쪽.

⁶¹ 『선조실록』 권34, 선조 26년 1월 10일(을축).

문제이기도 했다. 조선은 명청 교체기 후금과 연계하여 자국의 안위를 확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현재의 관점이다. 수 백년간 동아시아 최대 강국으로 방대한 영토와 수많은 인구를 가진 명에 대해 요동의 만주족이 세운 후금이 승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당시의 세계관과 정세관으로 불가능하다. 조선은 전통적인 친명정책을 천명하며 명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안보를 확보하고자 했다.

조선은 전통적인 중화의식과 청에 대한 문명적 우월의식으로 병자호란을 직면하여 도덕적 접근으로 주전론과 주화론의 논쟁을 경험했다. 병자호란의 치욕에 대해 군사적 패권으로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더라도 내부적으로 송시열^{宋時烈}, 윤휴^{尹鑴} 등이 주도하는 북벌론이 대청인식의 주류가 되었다.⁶² 오랑캐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전통적인 믿음은 삼변^{三藩}의 난이 9년 만에 평정되자 새로운 현실인식으로 전환되었다. 현실세계에서 중화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전통적인 존주론^{尊周論}의 바탕위에 조선이 스스로 중화를 계승하여 소중화가 된다는 인식이었다.⁶³

송시열은 재조론^{再造論}과 존주론을 연결시켜 조청관계를 정치·군사 측면에서 중화문명의 계승으로 파악했다. 송시열의 주장을 통해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경험과 기억을 확인할 수 있다. 송시열은 병자호란 이후 봉림대군의 스승으로 효종대 정계에 진출하여 대표적인 「기축봉사^{己丑封事}」를 통해 당시 시대상황과 자신의 정치사상을 제시했다.⁶⁴ 송시열은 기축봉사에서 다양한 주장을 제시하며 최종적으로 효종의 정사^{政事}와 외교정책을 제안했다.

송시열은 공자의 『춘추^{春秋}』를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춘추』를 통해 공자가 중화를 존숭^{尊崇}하고 이적^{夷狄}을 배척한 것처럼 인간은 지켜야 할 삼강오륜의 실현을 통해 군부^{君父}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시

⁶² 이영춘, 「우암 송시열의 존주사상」, 『청계사학』 6, 1985.

⁶³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계승의식의 전개와 북방고대사인식의 강화」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6.

⁶⁴ 『宋子大全』 권5, 기축봉사.

열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희^{朱熹}의 사상을 인용했다. 남송의 국난기에 주희가 금나라 토복^{討復}을 주장했듯이 지금 반청복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시대상황을 남송의 현실에 비유한 것으로 현실극복을 위한 화이론적 북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구체적으로 송시열은 국왕이 주자학적 정치사상에 따라 일심^{一心}으로 정치를 행하고, 극단적인 패도^{霸道}정치를 삼가고, 성인의 왕도^{王道}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청을 배척하기 위한 양민^{良民}, 양병^{良兵}의 북벌론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⁶⁵

조선후기 존주론과 대명의리론^{大明義理論}은 현실 정치와 괴리된 측면이 있지만, 조선후기의 정치, 사상에 있어 통치질서의 재정립과 사회통합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 국왕의 삼전도 치욕은 지고한 왕권의 권위를 추락시켰으며, 왕권과 함께 지배층의 권위마저도 추락시켰다. 이에 존주론과 대명의리론은 조선의 시민에게 충성심을 고취하고, 유교적 사회질서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조선후기 조선의 국왕과 지배층은 대외적으로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맺고, 내부적으로 반청의식이 소중화 의식을 키워 사회를 주도하는 사상흐름이 되었다.

병자호란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인물은 국왕 인조이다. 반정의 군주로 숭명배청^{崇明排淸}을 천명했지만, 병자호란으로 치욕적인 항복의 시간과 공간을 경험했다. 무엇보다 국왕으로 자신의 권위 원천이었던 반정의 명분을 뒤집는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외교관계를 맺어야 했다. 청의 폐위^{廢位} 위협을 받았던 인조는 척화파를 소외하고 친청파를 중용했다.⁶⁶ 효종대 본격적으로 군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북벌론을 추진했지만, 그 내용은 대외적인 북벌이 아니라 북방의 침입에 대비한 방어적인 군비강화론이었다. 특히 정축약조의 청 감시가 높은 상황에서 군비강화론

⁶⁵ 우경섭, 「송시열의 세도정치사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20~127쪽.

⁶⁶ 한명기, 「병자호란 패전의 정치적 파장」, 『동방학지』 119, 2003, 73~82쪽.

은 실효성을 얻기 힘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은 청 중심 국제질서를 준수하며 조청 군사관계를 변화시켜 최대한 군비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는 조선·청 사이에 공식적으로 왕래한 외교문서와 이를 전달하기 위한 사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⁶⁷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대청인식과 대청 정책은 구분해야 한다. 조선은 내부적으로 반청의식이 강하더라도 외교정책에 있어 반청의 입장을 취할 수 없었다. 만약 조선이 반청적인 외교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국제질서에서 고립되고, 다른 외교적 대안이 없이 청을 적대시할 수 없었다. 이런 사례는 내부적으로 북벌론을 추진하면서도 효종은 두 차례 나선정벌을 단행한 점에서 확인된다. 나선 정벌군 파병은 조선이 청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의 안보를 담보하는 대외 군사 정책이었다.⁶⁸

청 사신 한거원(韓巨源)이 조총수 파견을 요구하는 예부의 자문을 효종에게 전달했을 때, 효종은 별다른 반대없이 신속하게 함경북도 병마우후 변급(邊岾)을 영병장(領兵將)으로 삼아 정벌군을 구성하고 파병했다.⁶⁹ 당시 청은 북경을 점령한 뒤 동서남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남쪽으로 주력을 남명정벌에 투입했다. 북쪽으로 러시아의 남진에 지역 군사력으로 방어하고자 했다. 동쪽으로 대만의 정씨세력이 반청활동을 전개하자 해안방어에 주력했다. 서쪽으로 준가르가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자 순차적인 정벌군을 보냈다. 이런 군사상황에서 청은 정축약조에 근거하여 조선의 반발을 감시하였다. 청의 감시에 조선은 조청 군사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⁶⁷ 김경록, 「조선의 대청관계 인식과 외교체계-조선후기 외교문서의 정리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37, 이화사학연구소, 2008, 139~181쪽;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한중관계의 전개양상」, 『중국학보』 60, 한국중국학회, 2009, 287~316쪽.

⁶⁸ 『동문회고』 원편, 권76, 軍務. 禮部知會選鳥銃手征羅禪咨.

⁶⁹ 『효종실록』 권12, 효종 5년 2월 2일(계해).



〈그림 29〉 러시아 예르마크의 시베리아 진출과정에서 전투장면

(소장 : 국립러시아박물관)

『Yermak's Conquest of Siberia』란 제목으로 바실리 수리코프(Vasily Surikov)가 1895년 제작한 역사그림이다. 코사크군의 수장이었던 예르마크 티모이페예비치(Yermak Timoifeyevich)는 1581년에 수로를 이용하여 시베리아로 진출했다. 1582년 예르마크의 코사크군과 쿠쿰군이 서부 시베리아에서 벌인 전투장면이다. 16세기 후반 러시아세력의 시베리아 진출시 벌인 전투양상을 보여준다. 이후 조선의 나선정벌시 강에서 칼과 창 보다 화약무기를 중심으로 러시아군과 벌인 전투양상도 유사하게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효종대 조정의 군사관계는 통시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청이 제시하는 사행제도에 준행했다. 사행을 통해 최대한 조선의 국익을 도모하고, 청의 감시를 전환시키고자 했다. 청은 명대 사행제도를 준용하여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중심국으로 행세하고자 했다. 한족의 반란이었던 삼변의 난을 진압한 뒤에야 청 스스로 독자적인 사행제도를 정립하여 시행했다.⁷⁰ 1년에 정조, 성절, 동지로 구

⁷⁰ 『통문관지』 권3, 事大(上), 赴京使行; 전해종, 「청대 한중조공관계 종고」, 『진단학보』 29-30, 1966; 김경록, 「조선시대 조공체제와 대중국사행」, 『명청사연구』 30, 2008, 95~109쪽;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조명관계」, 『세계 속의 한국사』 문화로보는 한국사 5, 이태진교수정년기념논총, 2009, 5~9쪽. 조선후기 조청관계에서 사행제도 전반을 정리한 『통문관지』 사대, 부경사행조항에 의하면, 조선은 대명관계에서 절행으로 동지사(冬至使)·정조사(正朝使)·성절사(聖節使)·천추사(千秋使)를, 별행으로 사은사(謝恩使)·주청사(奏請使)·진하사(進賀使)·진위사(陳慰使)·진향사(進香使) 등을 파견했는데, 사신은 1~2명 차정했다. 이때 사신은 정사, 부사를 의미하며, 서장관은 사행간에 기록과 문서를 관리하는 관원으로 별도로 삼사로 지칭할 경우에만 사신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사신 이외에 나머지 사행원은 모두 종사관(從事官)으로 인식하여 명에 보내는 문서에 사행명단을 기재

성된 세 차례 사행을 동지사로 통합하여 1년 1사^使를 정착시키고, 사행이 전달하는 외교문서의 표전식^{表箋式}을 명대와 달리 수시로 하달하는 등 형식과 절차를 개정했다.⁷¹

동아시아 전통시대 유교문화권 속에서 각 국가는 책봉을 통해 중화질서의 중심국인 중화로부터 천명의 권위를 빌려 대내적으로 최고 지배권과 정통성의 근거로 삼았다. 주변국에서 중심국에 대해 봉전^{封典} 요구를 수시로 제기하는 것은 정치, 군사적 필요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통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중화질서의 중심으로 주변국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정을 통해 조선과 청의 군사관계를 개선하려는 조선의 노력은 실패했다. 그러나 조선은 러시아 남진이란 국제정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청의 강압적인 대조선 군사제재를 해제하고자 두 번째 노력을 경주했다. 북벌의 군주였던 효종이 적극적으로 청을 도와주는 정벌군에 조선군을 파병한 것이다. 그것도 두 차례나 파병했다. 본 절은 나선정벌을 통해 초청 군사관계 변화노력을 살펴본다.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러시아는 15세기 말 독립했다. 독립한 러시아는 유럽사회 보다 유라시아 대륙에 관심을 가지고 동진정책을 펼쳤다. 러시아는 모피와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시베리아에 주목했다.⁷² 수로를 활용한 러시아의 시베리아 동진은 흑룡강을 넘어 1644년 포야르코프^{Vassili Poyarkov}, 1649년 하바로프^{Yerofey Khabarov}까지 이어졌다. 러시아는

해야 했다. 이는 조선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법제화되어 정사(正使)·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종사관(從事官)·종인(從人)의 품마(品馬)·승마(乘馬)·태마(駄馬)만을 쓰고, 해당 숫자를 언급(言及)하지 않았다. 조명관계에서 이들 정관은 40여 명이었지만, 초청관계에서 절행와 세폐사행을 동지사행 하나로 통합하고, 정관의 숫자도 30명으로 한정했다. 이에 초청관계에서 조선은 군사외교를 포함한 모든 사행에 있어 사행인원을 30명으로 하여 파견했다.

⁷¹ 『동문휘고』 원편, 권35, 表箋式.

⁷² 계승범, 「17세기 중반 나선정벌의 추이와 그 동아시아적 의미」, 『사학연구』 110, 2013. 210~211쪽.

1632년 야쿠츠크(Yakutsk, 雅庫茨克)를 점령하고 전진기지로 삼아 흑룡강을 따라 남하했다. 코사크 세력을 고용한 러시아는 1643년 흑룡강 유역을 약탈하여 지역민의 반발이 있었지만, 우월한 무기체제로 진입했다. 이처럼 러시아가 흑룡강 유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에 청은 남명정벌에 전력을 집중하였다. 즉, 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약탈은 변경의 사소한 일이었다. 문제는 남진이었다. 러시아 남진하는 지역은 청의 발생지가 남쪽에 있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군사도발이었다. 1649년(순치 6) 러시아군에 의해 알바진(雅克薩)이 요새로 건설되자 청과 국경문제로 충돌했다.

러시아는 17세기 이미 흑룡강 유역까지 진출했다.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러시아는 흑룡강을 남하하며 청을 압박했다. 그 결과 1689년(강희 28) 네르친스크조약이, 1858년(함풍 8) 아이훈(璦琿)조약이, 1860년(함풍 10) 북경조약 등이 체결되어 청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이 획정되었다. 러시아는 직접적인 압박 이외에 중앙아시아에 영향을 미쳐 1727년(옹정 5) 까흐타(恰克圖)조약, 1881년(광서 7) 이리(伊犁)조약 등을 체결하여 청의 중앙아시아와 국경을 정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진출은 흑룡강 유역까지 이어져 지역과 원주민에 대한 영향을 두고 청과 충돌했다. 청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과정에 서구 열강의 군사적 침입을 처음 경험했다. 청은 남명 정벌과 삼번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 군사력을 별도로 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의 침입이 발발했다. 흑룡강에서 러시아와 군사충돌은 양국의 긴장관계로 이어졌으며, 결국 네르친스크조약(1689)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에도 청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대비하여 군사력을 보강하였다.⁷³

이 시기 조선은 명칭 교체의 국제질서 변화와 병자호란이란 치명적인 전쟁을 경험했다. 국왕 인조의 삼전도 치욕은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73 顧家寧,『《雅克薩之戰》教案』,『歷史教學問題』1983-4; 婁赫民,『小學歷史《雅克薩之戰》教案』,『寧夏教育』1984-3.

질서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반정의 명분을 상실하여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했다. 조선은 청의 압박으로 정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지배층을 중심으로 반청인식이 시대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조선은 청의 요구에 따라 나선정벌을 단행했다.

조선은 반청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나선정벌에 조선군을 파병했다. 기존 역사학에서 분석하는 조선의 나선정벌은 강희 연간 러시아에 대한 군사충돌, 조총을 중심으로 한 나선정벌, 신류申瀏의 『북정일기北征日記』를 통한 분석, 비변사의 나선정벌 관련성, 해외파병의 관점 등을 분석했다.⁷⁴ 본 절은 러시아의 진출상황, 청의 군사정세, 조선의 대청 군사관계 등을 종합하여 조선의 나선정벌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정리한다.

1차 나선정벌의 경과와 조선의 대응

명청 교체 이후 청의 남명정벌, 러시아와 군사충돌 등이 일어나며 국제정세는 격변했다. 이 시기 청의 군사상황은 효종대의 나선정벌, 북벌론, 국방정책, 현종대 청의 회귀론, 현종~숙종대 국방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의 배경이라는 점에서 청의 군사정세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조선의 나선정벌이 처음 제기된 시점은 순치 연간이었다. 청 순치제는

⁷⁴ 軍事科學院, 『中國軍事通史』 16, 軍事科學出版社, 1998; 강주진,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사적 고찰」, 『대구사학』 12·13집, 1977; 신기석,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탐구당, 1979; 이강칠, 「조선 효종조 나선정벌과 피아 조총에 대한 소고」, 『고문화』 20, 1982; 박태근 역, 『국역 북정일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반윤홍, 「비변사의 나선정벌 주획에 대하여 -효종조 영고답 파병절목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11, 고려사학회, 2001; 『조선시대 비변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3; 계승범, 「나선정벌과 申瀏의 『北征錄』」, 『군사사 연구총서』 5, 군사편찬연구소, 2008;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조선 지배계층의 중국 인식』, 푸른역사, 2009; 「17세기 중반 나선정벌의 추이와 그 동아시아적 의미」, 『사학연구』 110, 2013; 윤호량, 「효종의 북벌정책과 나선정벌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군사연구』 129, 2010; 김경록, 「17세기 중반 동북아 국제정세와 조선의 나선정벌」, 『열상고전연구』 65, 2018.

황제권 강화를 위해 황친^{皇親}을 견제했다. 1652년(순치 9) 4월, 순치제는 종인부^{宗人府}를 설치했다. 종인부를 설치하여 황친을 통제하고, 팔기군 통솔의 권한을 박탈했다. 원래 황친만이 팔기군을 지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상실되자 팔기군 전체에 대한 통솔권이 황제에게 집중되었다. 군사지휘권이 상실된 황친은 종인부에 소속되었다. 황제는 측근을 종인부에 배치하여 순수한 황친조직으로 성장하도록 했다. 이 조치를 통해 순치제는 황친의 위협을 제거했다.⁷⁵

청은 남쪽에서 남명정권 정벌을 단행하며 전국적인 지배체제 확립을 위해 인구정책을 시행했다. 인구정책은 호구조사를 전제로 하는데, 조세수입 증가, 부역확대 등 목적도 있지만, 군역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순치 연간 매년 인정호구^{人丁戶口}, 전지^{田地}, 세량^{稅糧}, 차^茶와 소금^鹽, 주전^{鑄錢}을 조사하고, 군둔^{軍屯}의 개간, 토지에 대한 권발^{圈撥}, 인정에 대한 편심^{編審}, 조량^{漕糧}의 절징^{折徵}, 부역^{賦役}의 축소, 해마다 징수하는 물건, 조운, 전법^{錢法}, 차와 소금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 이 과정을 통해 청은 전체 인구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청 입관 이후 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증가되는 인구보다 통치할 지역이 더 많이 확대되었다. 또한, 남명정벌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통치하면서 인구가 증가되었다. 당시 청군은 투항한 명군을 녹영군으로 편입시켜 병력 규모를 확대했다. 병력이 증가되었더라도 그만큼 방어해야 할 지역이 넓어져 실제 청군의 병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병력 부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청은 만주족의 팔기군을 복경방어 및 주요 군사전략지에 주둔시키고, 기타 지역은 녹영군이 주둔하여 방어하도록 했다. 결국 청은 통일된 전국을 담당할 병력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다.

⁷⁵ 『청세조실록』 권64, 순치 9년 4월 24일(을축); 권65, 6월 10일(경술); 권94, 12년 10월 25일(을해). 1655년 순치제는 종인부에서 종실과 각라의 世次를 일제히 정비하여 당안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청은 자신들의 근거지였던 만주와 동북방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입관 이전에 이미 잘란장긴 샤르후다(沙爾虎達)를 보내 쿠르카(庫爾喀) 부족을 정복하고 동북면의 통제권을 확보했다.⁷⁶ 샤르후다의 정복활동은 영고탑까지 복속시켜 청의 배후지를 확실하게 안정시키는 군사정책이었다. 문제는 청의 배후지를 러시아가 침입한 것이었다. 청의 러시아인식은 동북면의 일 부족 정도로 인식했지만, 초기 몇 차례 군사충돌에서 패배하자 가용한 모든 병력을 동원하고자 했다.



〈그림 30〉 청 초기 러시아의 남진과 충돌

(출처 : Peter C. Perdue, 『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p.168.)

러시아가 코사크군을 이용하여 시베리아에 진출하자 청은 남명정벌의 와중에 조선군을 포함한 군대를 파견하여 저지하고자 했다.

청은 러시아와 군사충돌 초기에 지방병력을 동원했다. 물론 당시 청의 군사상황에서 남명정벌 병력을 이동할 수는 없었다. 반청세력으로 기세를 올리던 정성공(鄭成功)이 복건지방을 중심으로 청군과 충돌했다. 정성공의 조주(潮州) 공략으로 청은 위기를 맞았지만 총병관 왕방준(王邦俊)이 격퇴시켰다.⁷⁷ 이처럼 청은 남명정권, 반청세력과 중국 대륙의 남부, 남동부, 남서부에 이르기까지 넓은 전선에서 전쟁 중이었다.

군사상황 이외에 정국의 혼란 역시 청의 러시아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1650년(순치 7) 12월, 순치제 집권 초기 최대 권력자 도르곤이 39세로 자란툰(喀喇)성에서 사망했다.⁷⁸ 누르하치의 14황자였던 도르곤은 정

⁷⁶ 『청세조실록』 권3, 순치 원년 1월 5일(갑오).

⁷⁷ 『청세조실록』 권50, 순치 7년 9월 3일(갑인).

⁷⁸ 『청세조실록』 권51, 순치 7년 12월 9일(무자).

백기(正白旗)를 장악하고 1636년에 화석예친왕(和碩睿親王)이 된 뒤 순치제가 즉위하면서 보정(輔政)으로 독재에 가까운 전횡을 행사했다. 도르곤은 청군의 산해관전투, 북경입성, 천도 등을 주도한 인물로 생전에 순치제를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했다.⁷⁹

도르곤 사망 이후 친정체제를 갖춘 순치제는 비로소 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순치제는 도르곤과 차별되는 자신의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남명정벌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순치제의 관심은 남명정벌에 집중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군사충돌은 동북면의 지방전력에 위임되었다. 1646년(순치 3) 청군의 남진으로 남명의 노왕(魯王)이 해상으로 축출되고, 당왕(唐王) 용무제(隆武帝)가 사로잡혀 처형되었다. 이에 남명정권은 계왕(桂王)을 운남에서 옹립하여 전열을 정비하고, 이정국(李定國), 손가망(孫可望)의 농민군과 연합하여 각지에서 청군과 일전일패를 거듭했다.

청군의 남명정벌은 오삼계(吳三桂), 경중명(耿仲明), 공유덕(孔有德), 상가희(尚可喜) 등 항복한 명나라 장수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감숙성, 섬서성, 산서성에서 사천까지 반청세력을 제압하고, 호남, 광서, 광둥까지 전역을 평정했다.⁸⁰ 순치제 친정 이후 청군의 공세에 밀린 남명정권은 서남 소수민족을 회유하여 저항하며 광서를 차지했다. 남명정권이 이처럼 세력을 정비하자 순치제는 1652년(순치 9) 7월, 화석경근친왕(和碩敬謹親王) 니칸(尼堪)을 정원대장군(定遠大將軍)하는 토벌군을 파견하여 호남(湖南), 귀주(貴州) 등지를 공략했다.⁸¹ 이는 정치·군사적으로 순치제의 운명이 걸린 결단이었다. 순치제의 남명정벌 시기 러시아가 수 백명 수준의 병력으로 흑룡강 유역을 따라 남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순치제가 그렇다고 러시아의 침입에 방관한 것은 아니다. 1651년(순치

⁷⁹ 박민수, 「청의 입관과 기인의 북경 이주 연구」, 서울대동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⁸⁰ 劉鳳雲, 『清代三藩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8. 95~100쪽.

⁸¹ 『청세조실록』 권66, 순치 9년 7월 15일(갑신); 20일(기축).

8) 10월 동북면에서 러시아의 남하하였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이듬해 2월에 주방닝구타장긴駐防寧古塔章京 하이서海色에게 우잘라烏扎拉를 공략하도록 했다. 하이서는 대포 6문으로 무장한 청군 600명과 지역민·여진을 규합한 1,025명 병력으로 200여 명이 지키는 러시아 요새를 기습 공격했다.⁸² 숫적 우세를 가진 청군은 러시아군의 전력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아 약 600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배했다.

비록 작은 패배지만 패전소식을 접한 순치제는 하이서를 참수하고, 포생익장捕牲翼長 히퍼希福를 닝구타에 주둔시켜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했다. 순치제는 러시아에 방어 조치를 취한 뒤, 남명정벌에 오진공吳進功을 도독동지로 임명하고, 평남왕平南王을 우익총병관右翼總兵官으로 충원한 정벌군을 출정시키며, 친히 태학太學에서 석존제釋尊祭를 올렸다. 남명정벌 전황에 집중한 순치제는 구사어전 출로卓羅를 정남장군征南將軍으로 임명하여 구사어전 람바이藍拜 등과 함께 광동을 진압하도록 했다.⁸³ 하이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순치제는 중앙의 통치체제 정비와 남명정벌에 집중했다.

순치제는 남명정벌에 집중하면서 동북면의 러시아 방어에 전투경험이 있었던 지휘관을 추가 투입시켰다. 1652년(순치 9) 7월, 순치제는 머이런장긴梅勒額眞 샤르후다, 잘란장긴甲喇章京 갈리噶禮 등을 닝구타에 주둔시켰다. 닝구타 이남의 만주에 군사지휘관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1653년(순치 10) 5월, 양남기鑲藍旗 머이런장긴 샤르후다를 암바장긴昂邦章京으로 임명하여 닝구타에 진수鎮守시켰다. 당시 샤르후다는 소완부蘇完部 출신으로 여진 통일 과정에 누르하치에게 투항한 인물로 홍타이지에게 큰 공을 세워 의정대신議政大臣 24명 가운데 한 명이였다.⁸⁴ 특히 샤르후다는 병자호란과 정명전쟁에 공을 세웠다. 닝구타에 배치되었을 때 55세였던 샤르후다는 러시아전

⁸² 軍事科學院, 『中國軍事通史』 권16, 軍事科學出版社, 1998, 413쪽.

⁸³ 『청세조실록』 권68, 순치 9년 9월 17일(병술): 22일(신묘): 권70, 11월 2일(경오).

⁸⁴ 『청세조실록』 권66, 순치 9년 7월 18일(정해): 권75, 10년 5월 9일(갑술): 『청태종실록』 권34, 승덕 2년 4월 28일(정유).

쟁에 지휘관으로 활약하다 1659년 사망했다.⁸⁵

순치제의 남명정벌 기간에 배후지 흑룡강 유역을 정벌한 공으로 구사어전(固山額真(都統))으로 승진한⁸⁶ 샤르후다는 러시아와 전투에 화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선에서 소총부대 참전을 순치제에게 건의했다. 즉, 우세한 병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보다 화력에 열세하였던 점을 간파한 것이다. 청군이 보유한 화력은 주로 한족부대로 구성된 녹영군이었는데, 남명정벌에 투입된 상황이었다. 1654년에 접어들며 남쪽의 전황이 다급해졌다. 해적세력과 남명정권이 연합하여 해안지대를 공략사실을 강남강서총독(江南江西總督) 마국주(馬國柱)가 긴급하게 보고했다.⁸⁷ 군사상황의 위기 뿐만 아니라 전국에 기근과 수해가 발생하여 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민심이 이반할 위험이 있자 청은 구휼정책을 적극 시행하였다. 청 통치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시점에 직예(直隸), 계주(薊州) 등 북경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재변이 발생하자 청은 각지에 대신을 파견하여 구휼을 관장하도록 했다. 민심이반과 사회불안은 청의 내부적 위기라 인식하여 치안유지를 위해 직예에 10년간 부역(賦役)을 면제하는 등 파격적 면세조치를 시행했다.⁸⁸

군사·사회적 위기상황이 초래되자 청은 러시아와 군사충돌에 조선군 투입을 결정했다. 청의 조선 조총수 파병요구는 조선군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동북방에 주둔한 청군에 조총부대 부재가 원인이었다. 군사외교적으로 청은 조선군이 청군과 함께 러시아와 전투하면 조명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런 복합적인 군사목적에서 청의 조선군 파병요구가 이루어졌다.

⁸⁵ 『清史稿校註』 8278~8279쪽; 『清代名人傳略』 上冊, 224쪽.

⁸⁶ 『清史稿校註』 10책 250권.

⁸⁷ 『청세조실록』 권80, 순치 11년 1월 22일(계축); 24일(을묘).

⁸⁸ 『청세조실록』 권80, 순치 11년 1월 26일(정사); 권81, 2월 27일(무자).

1654년(효종 5) 1월, 청 사신 한거원(韓巨源)이 조선에 도착하여 3월 10일 까지 조선군이 Ninguta에 도착하라는 순치제의 문서를 전달했다. 효종은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먼저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선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함경도 병마우사 변급을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명을 받은 변급은 조총군 150여 명을 파병군으로 구성하고, 3월 26일 두만강을 도강하여 4월 16일 청군 3천 명과 영고탑에서 합류했다. 이어 작전지역인 후통강(厚通江)에 도착했다.

당시 Ninguta의 청군 사령관 샤르후다는 원주민까지 징발하여 러시아와 전투를 준비했다. 1654년 4월 말, 샤르후다는 전체 병력을 300명 규모의 청군, 152명의 조선군, 원주민이었던 허저족(赫哲族) 300명, 송화강 유역의 원주민 370명 등을 규합했다. 결국 러시아와 전투하는 군대는 조청연합군이었다. 러시아군과 교전은 4월 28일 시작되었다. 러시아군은 전체 400여 명으로 대선 13척, 소선 26척을 이끌고 조청연합군과 전투했다. 호통(好通)에서 패배한 러시아군은 퇴각했다. 이에 조선군은 5월초 주위 5리 규모의 토성을 만들고, 5월 16일, 회군하여 6월 13일, Ninguta에 도착한 뒤 7월에 조선으로 귀국했다. 조선군의 제1차 나선정벌의 여정이다.

병자호란 이후 청의 군사압력에 시달리던 조선이 신속하게 나선정벌에 참전한 이유는 조선 후기 조청 군사관계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효종은 즉위와 함께 청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았다. 조선의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왜정(倭情)자문을 이용하였던 사건으로 효종은 청의 질책을 받았다.⁸⁹

나선정벌에 관련하여 행이(行移)된 외교문서는 『동문회고』 군무(軍務)편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조선과 청의 외교적인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효종은 파병에 대해 선택권 없이 결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파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멀리 북방까지 출병해야 하므로 군량을 강조하

⁸⁹ 김경록, 「17세기 조청관계와 “왜정”의 군사·외교적 활용」, 『군사』 94, 군사편찬연구소, 2015.

여 청과 협상하고, 조선군이 국경을 넘어 청의 영토에 들어가야 하므로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의 역관이 인도하도록 했다.

〈표 15〉 제1차 나선정벌관련 조청 왕래 외교문서 현황

순번	문서	발행일자	행이
1	예부지회선조창수정나선자 ^{禮部知會選烏鎗手征羅禪咨}	1654.01.16	청→조선
2	조발창수청판량미자 ^{調發鎗手請辦糧米咨}		
3	예부회자 ^{禮部回咨}	1654.04	청→조선
4	조창수분발연변각읍등대자 ^{烏鎗手分發沿邊各邑等待咨}	1654.03.15	조선→청
5	예부회자 ^{禮部回咨}	1654.04	청→조선
6	조창수월강전진자 ^{烏鎗手越江前進咨}	1654.04.07	조선→청
7	예부회자 ^{禮部回咨}	1654.05.20	청→조선
8	보첩음자 ^{報捷音咨}	1654.07	조선→청
9	예부회자 ^{禮部回咨}	1654.08	청→조선

* 출처 : 『동문회고』원편 권76, 군무.

1월 16일자 청 예부에서 나선정벌의 조총수를 요구하는 자문^{咨文}이 조선에 전달되자 효종은 조총수와 군량 준비를 청에 통보했다. 조선의 자문을 접수한 청은 조선 조총수의 군량관련 자문을 조선에 보내왔다. 효종은 각 변방에서 조총수 선발의 조치를 취한다는 자문을 거듭 청에 보냈다. 청은 효종의 외교문서에 대한 회답문서를 조선에 보냈다. 효종은 조선군이 청 국경에 들어가는 절차에 대해 외교문서를 청에 다시 보냈다. 이와 같이 청의 조총수 파견관련 외교문서는 조청 사이에 긴박하게 왕래하였다. 이는 효종의 적극적인 파병의지를 청에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나선정벌을 결정한 효종은 신속하게 군병선발 및 파병절차를 추진했다. 효종은 2월 비변사를 통해 선전관을 함경도에 파견하여 나선정벌에 참전할 군병을 선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목을 윤택했다. 「함경북도포수영고탑입송시절목^{咸鏡北道砲手寧古塔入送時節目}」은 포수·화병^{火兵} 선발기준 및 대우, 영장^{領將}·초관^{哨官} 및 수행원의 대우, 군량지급방안, 군병의 가족에 대한 대책, 선발 및 출병기한, 아역^{衙譯}의 인도로 국경을 넘을 것, 군병선발에 병사^{兵使}·감사의 구관^{句管} 등을 규정했다.⁹⁰

90 『비변사등록』 17책, 효종 5년 2월 2일. 咸鏡北道砲手寧古塔入送時節目.

효종은 군병의 선발뿐만 아니라 비변사를 통해 조총과 탄환 마련 방안도 준비했다. 선발된 군병이 개인 보유 조총이 정밀하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며, 실제 조선군은 정비된 조총을 보유하지 못했다. 이에 사적소유, 관청보유 여부를 따지지 말고 일제히 정비하여 정밀한 것을 지급하고, 탄환은 1명당 1백방^放씩 지급하고, 기타 군기^{軍器}는 관에서 다듬어서 지급하도록 했다.

1차 나선정벌에 임하는 조선은 매우 짧은 기간에 매우 세밀한 준비를 하였다. 정벌군을 파견하며 적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그러나 청의 파병을 강요를 최대한 충족시켜 향후 원만한 조청 군사관계를 맺고자 했다. 그러면서 필수적으로 파병되는 조선군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 이는 모병과정, 충기와 환약, 군마에 이르기까지 열악한 상황에서 최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북병사는 파병되는 군사들에게 개인이 소유한 말^{私馬}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파병기간 중 혹여 발생할 비상상황에서 활용할 것을 건의했다. 비변사는 개인소유 말로 인한 사건발생, 청인과 밀교역을 염려하여 허락하지는 않았다.⁹¹

효종은 조선군이 개선회자 1차 나선정벌의 승전보와 나선정벌군의 무사 귀환을 청에 정식으로 통보했다. 효종은 이미 황제에게 전황이 신속하게 보고되었지만, 파병 군주으로써 자문^{咨文}을 청에 보내도록 비변사를 재촉했다. 조선은 재자관^{齎咨官}을 파견하여 조선군의 파병과정과 전공, 귀환을 상세히 청에 전달했다. 효종의 이런 군사외교 활동은 조선군의 파병을 강조하여 조청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기대한 조치였다. 한편, 효종은 정벌과정에서 획득한 화약을 분석하여 조선의 화약무기 발전에 활용하고⁹² 나선정벌 성공 이후 지방군의 개선을 위해 경상도에서 속오군 급보법^{給保法}을 처음으로 시행하기도 했다.⁹³

91 『비변사등록』 17책, 효종 5년 2월 26일.

92 『비변사등록』 17책, 효종 5년 7월 7일.

93 『효종실록』 권13, 효종 5년 8월 병인.

나선정벌의 조청연합군과 러시아군의 전투상황에 대해 청의 기록이 거의 없다. 이는 당시 청의 기록체계가 완벽하게 구성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청군의 전투역할에 기여도가 낮았던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군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전투에서 크게 기여한 바가 없었기에 최종적으로 강희제에게 보고할 때는 자신들의 전공을 과대 포장하여 보고하겠지만, 구체적인 전투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2차 나선정벌과 정벌 이후 조청관계

1차 나선정벌 이후 청은 지속적으로 남명토벌에 군사력을 집중했다. 가장 강력한 세력 이정국李定國이 내부의 분열로 약화되자 한족 장군들을 독촉하여 영력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전쟁을 전개했다.⁹⁴ 이정국과 반목 하였던 손가망孫可望이 청군에 투항하여 청군의 선봉으로 이정국을 압박했다.⁹⁵ 청군의 입장에서 손가망의 투항과 이정국에 대한 공세는 그 동안

94 軍事科學院, 『中國軍事通史』16, 軍事科學出版社, 1998, 187~189쪽.

95 『明史』 권313, 열전201, 운남토사1. ① 張獻忠(1606~1646)의 字는 秉忠이고, 號는 敬軒이며, 1606년(만력 34)에 섬서성 延安縣 柳樹澗의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성년이 되어 군대에 들어가 延安府의 捕快, 延綏鎮 수비대 병사가 되었다. 죄를 지어 면직되었다. 1630년(송정 3)에 王嘉胤이 이끄는 米脂縣의 農民起義軍에 가담하여 八大王이라 칭하였다. 王自用의 연합군에 참가하여 36營의 하나를 지휘했다. 1633년(송정 6)에 왕자용이 전사하자 高迎祥을 闖王으로 세우고 闖將이 되어 농민군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1635년(송정 8)에는 滎陽大會에 참여하여 작전을 논의하고 高迎祥和 함께 東方을 공략했다. 이 자성과 분열하자 장헌충은 장강유역을 공략하고, 이자성은 황하유역을 공격했다. 1637년(송정 10)에 官軍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관군에 거짓 투항하고 谷城에 주둔했다. 1639년(송정 12)에 명에 반기를 들고, 四川 지역을 전진했다. 1641년(송정 14)에는 開縣 黃陵城에서 명군을 격파하고, 襄陽을 점령한 뒤 襄王 朱翊銘을 살해했다. 1643년(송정 16)에 장헌충은 武昌을 점거하고 大西王이라 칭했으며, 1644년(송정 17) 8월에 成都를 격파하고 帝位에 올라 국호를 大西, 元號를 大順이라 하고 成都를 西京이라 하였다. 청이 건국된 뒤 1646년(순치 3)에 장헌충은 川北의 西充縣과 鹽亭縣 接壤 지점에서 청 親王 豪格과 전투 중에 전사했다. ② 孫可望(?~1660): 陝西 米脂縣 사람(일설에는 陝西 延長 사람)으로, 本名은 孫可旺 혹은 孫朝宗라고도 불리는데, 字는 茂堂이고, 號는 蓮山이다. 張獻忠의 義子가 되었고 몸이 날쌔어서 ‘一堵牆’이라 칭해졌다. 大西政權이 세워져서 平東將軍에 봉해졌으며, 張獻忠이 죽은 후에도 李定國 등과 함께 남은 大西軍을 이끌고 南明세력과 연합하여 淸에 대항하였다. 사람됨이 난폭하고 투기를 좋아하여 順治 8년(永曆 5년, 1651)에 秦王을 冊封한다고 하고서 南明의 大學士 30명을 擊殺하였다. 이후 李

서남지방에서 청군의 토벌전쟁을 대응하였던 전세를 급변시킬 기회였다. 순치제는 오삼계를 비롯한 가용한 전 병력을 투입시켜 서남지방을 평정하고자 했다.

1658년(순치 15) 정월, 순치제는 서남지역의 내부 분열을 기회로 대규모 정벌군을 출병시켰다. 순치제는 신군왕^{信郡王} 도니^{多尼}를 안원정구대장군^{安遠靖寇大將軍}으로 삼고, 정벌군을 지휘하도록 했다. 순치제는 출정군에 내린 칙유^{敕諭}에서 운남, 귀주의 이정국, 손가망이 서로 분열하여 손가망이 투항하니 저항세력을 진압할 좋은 기회라 천명했다. 이미 정구대장군^{靖寇大將軍} 나탁^{羅託}으로 호남^{湖南}을 경유하여 진격하도록 하고, 평서대장군^{平西大將軍} 평서왕^{平西王} 오삼계^{吳三桂}로 하여금 사천^{四川}에서 진격하고, 정남장군^{征南將軍} 조포태^{趙布泰}로 하여금 광서^{廣西}에서 진격하도록 하였다. 이에 거듭 팔기군을 동원하여 기존의 정벌군을 후원하여 전쟁을 치루고자 했다.⁹⁶ 만한연합군을 총동원하여 이정국을 압박한 것이다.

순치제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의 남명정벌에 대한 열정에 이정국은 선전했지만 결국 1659년 1월 퇴각하여 미안마지역으로 후퇴했다. 오삼계가

定國과 불화하여 順治 14년(1657)에 貴州에서 군대를 이끌고 雲南으로 들어가 李定國을 공격하였다. 그런데 部將에게 오히려 공격을 당해 곤경에 빠져 결국 淸에 투항하였으며. 淸兵을 이끌고 滇黔에 들어와 漢軍 正白旗에 소속되었다. 이후 順治 17년(1660)에 병으로 죽었는데, 일설에는 사냥 중에 淸軍에게 射殺되었다고도 한다. ③ 李定國(1621~1662)은 字는 鴻遠, 寧宇이며, 陝西 延安사람이다. 張獻忠의 義子가 되어 安西將軍에 봉해졌다. 1646년(隆武 2)에 張獻忠이 죽자 孫可望 등과 함께 남명세력과 연합하여 청에 대항했다. 1652년(영력 6)에 광서에 들어와 계림을 함락하고 복상하여 연이어 永州와 衡陽을 함락시킴으로 청으로 하여금 서남 7개 성을 방기하도록 했다. 그런데 손가망의 시기와 질투로 광서로 되돌아왔으며, 다시 운남에 주둔했다. 1656년(영력 10)에 비밀리에 永曆帝를 맞아 滇에 들어갔고, 僞王에 봉해졌다. 이후 손가망이 청에 투항하여 西南防務의 기밀이 모두 새어 나가게 되었고, 청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다. 전세가 불리해진 그는 緬甸으로 들어갔으며, 1662년(영력 16)에 永曆帝가 피살되자 병을 얻어 사망했다. 張獻忠이 사망하자 그의 部將 孫可望이 잔존 무리를 이끌고 遵義를 거쳐 黔지방에 들어가 세력을 확대했다. 손가망은 曲靖, 交水, 陸涼, 宜良을 경유하여 운남으로 이동했다. 李定國은 동쪽의 여러 府를 초무했다. 이정국이 臨安을 초무할 때, 사정주의 부장 李阿楚가 저항하자 화약무기를 활용하여 격파했다. 저항에 대한 처벌로 7만 8천여 명을 참살했다.

⁹⁶ 『청세조실록』 권114, 순치 15년 정월 병오.

추격하여 미안마로 피신한 영력제는 결국 체포되어 운남으로 끌려와 1662년 6월에 교살되었다. 이 과정에 정성공은 반청투쟁을 지속하여 동남지역의 해안에서 청군과 교전했다. 용무정권을 지원하였던 정지룡이 용무제 체포를 기회로 청에 투항하자 정성공은 잔여세력을 수습하여 반청투쟁을 보다 강화했다.

정지룡에서 정성공으로 이어진 해상세력의 반청투쟁은 경제적 이익과 연관되어 청의 남명정벌에 많은 장애를 발생시켰다. 정성공은 청이 회유하자 기만적으로 활용하며 연해지역을 침범하여 세력을 확장했다. 특히 1655년 12월에는 온주溫州의 주산舟山을 점령하여 강남지역을 위협했다.⁹⁷ 순치 연간에 복건과 일본을 왕래하는 상선의 횡수는 급격하게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대부분 정성공의 세력범위를 통과해서 왕래한 상선이었다.⁹⁸ 즉, 정성공은 순치 연간 지속적으로 해상세력으로 세력을 확장 내지 유지하여 청군의 남명정벌에 저항하였다.

청은 1646년 이후 남명정권의 본거지이자 해상세력의 반청투쟁 무대였던 복건을 안정화 위주로 통치했다. 통치조직을 재편하고 지역민에 각종 혜택을 실시하여 민심을 청에 우호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정성공에 공세를 강화하자 강력한 초무 및 정벌전쟁을 실시했다. 1650년대 반청세력은 “천하의 민생이 불안한 이유는 운남·귀주의 손가망이 있고 해상에 정성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성공은 순치제의 입장에서 가장 난제였다.⁹⁹

순치제는 정성공을 견제하기 위해 1657년에 해금령을 반포했다. 그러나 지역민의 정성공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순치제가 서남지역에서 남명정벌을 치르는 동안 정성공은 대규모 병력으

⁹⁷ 원정식, 「청초 복건사회와 천계령 실시」, 『동양사학연구』81, 2003. 50쪽.

⁹⁸ 이화승, 「명말청초 동남연해에서 정지룡일가의 상업활동 연구」, 『동양사학연구』 133, 2015. 382~384쪽.

⁹⁹ 『청세조실록』 권100, 순치 13년 4월 23일(신미).

로 남정근교까지 점령하여 청의 배후를 위협했다. 순치제는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1660년부터 여러 차례 천계령(邊界令)을 실시하였다.¹⁰⁰

이처럼 순치제의 남명정벌이 진행 중에 1차 나선정벌 이후 러시아군과 군사충돌이 빈발했다. 이는 1차 나선정벌의 승리가 결정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청군은 동북부의 닝구타에 주둔한 병력을 동원했다. 1655년 도통 밍안달리(明安達理)가 지휘하는 대군이 러시아군에 대패했지만, 샤르후다가 러시아군과 전투에서 승리하자 1657년(순치 14) 2월, 순치제는 샤르후다에게 망의(蟒衣), 초모(貂帽), 안마(鞍馬), 요도(腰刀), 단포(緞布) 등을 하사하여 치하했다.¹⁰¹

순치제는 남명정벌을 지휘하면서도 동북 러시아군에 대한 대규모 토벌전을 계획했다. 조선에 1차 나선정벌과 동일하게 조총수로 구성된 파병을 강요했다. 1658년(효종 9) 2월 19일에 청이 2차 구원병을 요청하자 효종은 병마우후 신류(申瀏)로 하여금 정예군 200여 명과 초관(哨官)·기고수(旗鼓手)·화정(火丁) 60명을 지휘하여 3개월의 군량을 가지고 5월 초에 영고탑으로 출정하도록 했다.¹⁰² 이미 1차 나선정벌을 통해 병력의 손실이 미약한 상황에서 청에 대해 참전 및 승전의 명분과 내실을 거둔 효종은 2차 나선정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청 사신 이일선(李一善)이 파병을 요구하는 칙서를 가지고 조선에 도착하자 효종이 교영(郊迎)하여 희정당(熙政堂)에서 접견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일선은 청의 나선토벌 사실과 군량부족을 언급하며 조선에 군병과 다섯 달 치의 군량보급을 요구하였다. 효종은 나선의 형세를 물었고, 일선은 적병이 비록 1,000여 명이지만 북로에 비축된 군량이 없어 내지의 곡물을 수송

¹⁰⁰ 원정식, 「청초 복건사회와 천계령 실시」, 『동양사학연구』 81, 2003, 55~58쪽.

¹⁰¹ 『청세조실록』 권107, 순치 14년 2월 30일(계묘).

¹⁰² 신류의 유고집으로 그의 6대 손인 1869년(고종 6)에 신호응이 간행한 『統相申公實記』(古4655-35), 『統相申公實記』에 수록된 「北征錄」과 동일한 내용으로 증손 신륵이 1760년에 다시 필사한 『統相公戊戌日記』(古4254-13) 등이 있어 조선의 나선정벌 과정을 상세히 서술해 두었다.

한다고 답했다. 이에 효종은 청의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

조선은 1차 나선정벌과 동일하게 청이 조선의 반청의식과 복수감정을 의심한다고 판단했다. 조선에 대한 청의 불신임은 인조 및 효종대까지 지속적으로 조청관계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를 군사외교로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효종은 나선정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표 16〉 2차 나선정벌관련 조청간 왕래한 외교문서

순번	문서	발행일자
1	재발조창수송영고탑칙 ^{再發烏鎗手送寧古塔勅}	1658.2.19(순치15/효종9)
2	예부지회예비군항자 ^{禮部知會預備軍餉咨}	1658.2.19(순치15/효종9)
3	회예비군항자 ^{回預備軍餉咨}	1658.3.7(순치15/효종9)
4	창수급군항대후경상자 ^{鎗手及軍餉待候境上咨}	1658.3.12(순치15/효종9)
5	예부지회육속속량자 ^{禮部知會陸續續糧咨}	1658.4.16(순치15/효종9)
6	회자 ^{回咨}	1658.5.12(순치15/효종9)
7	조창수월강전진자 ^{烏鎗手越江前進咨}	
8	계운조창수양항자 ^{繼運烏鎗手糧餉咨}	1658.7.24(순치15/효종9)
9	예부지회의출상망병정발회유둔병정자 ^{禮部知會議恤傷亡兵丁發回留屯兵丁咨}	1658.10.22(순치15/효종9)
10	회자 ^{回咨}	1658.11.(순치15/효종9)
11	예부지회상망병정상급자 ^{禮部知會傷亡兵丁賞給咨}	1659.1.20(순치16/효종10)
12	회자 ^{回咨}	1659.윤3.17(순치16/효종10)
13	사상상망병정표 ^{謝賞賞亡兵丁表}	1659.윤3.17(순치16/효종10)

* 출처 : 『동문회고』 원편 권76, 軍務.

1차와 달리 2차 정벌은 보다 많은 파병관련 외교문서가 왕래했다. 이는 조선과 청의 나선정벌에 대한 준비와 관심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청은 2차 파병을 요구하며 1차 파병시 문제가 되었던 군량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조선에 군량조달을 요구했다. 조선은 군량조달의 어려움을 통보하고 청 영역에서 실시되는 군사작전임을 강조했다. 또한 조선군의 청 국경진입이 가지는 어려움을 통보하여 조선군이 원활하게 작전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청의 선도를 요구했다. 군량문제는 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는 2차 파병시 조선의 군사외교적 위상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31〉 조선군의 나선정벌 여정

(출처 : 이승수, 「1658년 나선정벌 관련 기록의 서사지리」, 『고전문학연구』 45, 2014, 188쪽)

나선정벌의 과정을 기록한 『북정록』에 의하면 115일에 걸친 조선군은 정벌여정을 겪었다. 열악한 지리와 군량을 극복하고 조선군은 흑룡강까지 이동하여 러시아군과 교전하여 큰 승리를 거둔 뒤 복귀했다.

형성에 조선이 기여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청은 파병군의 전사자 및 피해에 대해 공식적인 상급을 하사하고 조선의 군사적 역할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나선정벌을 통해 조선이 의도했던 가장 큰 군사외교 성과로 평가될 것이다.

조선군의 나선정벌 여정은 원거리의 이동과 군량지원, 무기조달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¹⁰³ 그럼에도 조선군은 조청 군사관계의 전환이란 목적에서 정벌에 참여했다. 조선군은 6월 5일에 승선하여 송화강의 본류로 나아가 6월 10일에는 멀리 헤이룽 강 합류점까지 이르러 러시아의 지휘관 스테파노프Stepanov 선대와 만나 격전을 치렀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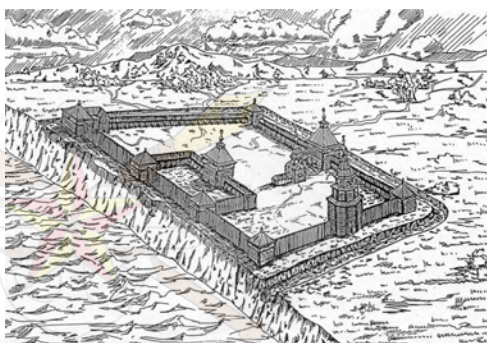
조선은 조선군이 국경을 넘어 작전지역으로 이동할 때, 외교문서를 청에 보내어 외교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나선정벌의 작전결과 조선군의 전사자 및 피해가 발생하자 조선은 청에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요구했다. 이처럼 나선정벌은 긴박한 국제정세와 파병절차 및 관련 군사지원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조청 사이에 협의되었다.

조선은 2차례 나선정벌을 통해 조청 군사관계에 비밀스러운 군수, 군사지리 등에 대해 상호 외교문서를 교환하고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형성했다. 조선군이 나선정벌의 승리에 기여하고, 조선군의 전사 및 피해는 청 중심 국제질서

¹⁰³ 이승수, 「1658년 나선정벌 관련 기록의 서사지리」, 『고전문학연구』 45, 한국고전문학회, 2014, 165~206쪽.

의 전사자와 25명의 부상자가 났으나, 조총수의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스테파노프를 비롯한 러시아선박 10척을 불태우고 적군 270명을 사살하는 등 대부분을 섬멸시켰다. 전투직후 청의 요청에 따라 송화강 방면에 머무르다가, 그해 11월 18일 영고탑을 떠나서 12월 12일에 회령에 귀환했다. 이것이 제2차 나선정벌이다. 당시 효종은 병자호란 때 당한 치욕을 씻을 생각으로 북벌계획을 추진중에 있었는데, 2차례의 나선정벌은 조선의 군사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비록 파견된 군사의 수는 많지 않았으나, 조선군의 사기와 사격술이 뛰어났음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2차례의 나선정벌 후에도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조선군이 청군보다 무공이 거두자 효종은 나선정벌을 요청 군사관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1차 정벌군을 이끌었던 변급, 2차 정벌군의 신류 등은 청군과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하며 청군의 지휘를 받아 전투에 투입되었다. 외국의 익숙하지 않은 지형, 청군의 전투방해, 군량과 무기의 원활하지 못한 지원 등을 극복하고 크게 승리했다.



〈그림 32〉 알바진요새 스케치

(출처 : Library of Congress(control number : 2018685404))

알바진요새는 러시아가 1651년 아무르강에 세운 첫 번째 군사요새이며, 러시아는 이후 아무르강 유역에 여러 요새를 건설했다. 1686년 알바진요새에서 청군과 러시아 코사크군의 전투가 벌어졌다. 특히, 신류는 1차 정벌과 달리 대규모 전투를 치렀다. 청군의 강압적인 지휘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러시아군으로부터 획득한 무기를 조선에 도입하여 조선의 참전효과를 최대화하였다.¹⁰⁴

청군과 러시아군의 군사충돌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강희제는 1671년

¹⁰⁴ 『북정록』 행중기사.

(강희 10), 알바진雅克薩에 주둔하도록 했다.¹⁰⁵ 1682년(강희 21) 강희제는 청러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청군이 사로잡은 러시아 포로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림으로써 황제로서 위상을 천하에 표시하고자 했다.¹⁰⁶

청의 만주 동북지역에 대한 군사정책을 살펴보면, 입관을 전후하여 닝구타 중심의 방어 및 군사지배체계를 갖추었다. 순치 연간에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여 닝구타 지역 군사지휘관을 머이런장긴에서 룬바장긴으로 승격시켜 권한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추세는 1662년(강희 원년) 진수영고탑등처장군鎭守寧古塔等處將軍으로, 1676년(강희15) 군사-통치 중심지를 닝구타에서 교통이 보다 편리한 길림의 우라성烏拉城으로 옮겼다. 1757년(건륭22)에 군사지휘관을 길림장군吉林將軍으로 개칭하고, 청조의 동북지역 통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였다.

청은 대외적으로 군사충돌 및 군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황실의 통치를 군사측면에서 널리 알리고, 역사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주로 “방략方略”, “기략紀略”이란 이름으로 정리되었는데, 그 시작은 삼번의 난을 평정하고 그 정당성을 밝히고자 1682년(강희 21)에 편찬한 『평정삼역방략平定三逆方略』이다. 강희 연간에 『평정차하르방략平定察哈爾方略』, 『평정삼역방략平定三逆方略』, 『평정해구방략平定海寇方略』, 『친정평정삭막방략親征平定朔漠方略』, 『평정나찰방략平定羅剎方略』을, 건륭 연간에 『개국방략開國方略』, 『평정금천방략平定金川方略』, 『평정양금천방략平定兩金川方略』, 『평정준가르방략平定准噶爾方略』, 『초포임청역비기략剿捕臨淸逆匪紀略』, 『흙정난주기략欽定蘭州紀略』, 『석봉보기략石峰堡紀略』, 『흙정평정대만기략欽定平定台灣紀略』, 『흙정안남기략欽定安南紀略』, 『흙정파룩포기략欽定巴勒布紀略』, 『곽니객기략廓爾喀紀略』을, 가경 연간에 『평묘기략平苗紀略』, 『흙정평정교비기략欽定平定教匪紀略』, 『초평삼성사비방략剿平三省邪匪方略』을, 도광 연간에 『평정회강초금역예방략平定回疆剿擒逆裔方略』,

¹⁰⁵ 『청성조실록』 권36, 강희 10년 9월 28일(병자).

¹⁰⁶ 『청성조실록』 권21, 강희 21년 8월 15일(경인).

『흠정신강식략欽定新疆識略』을, 동치 연간에 『흠정초평오비방략欽定剿平粵匪方略』, 『흠정초평넝비방략欽定剿平捻匪方略』을, 광서 연간에 『흠정평정섬감신강회비방략欽定平定陝甘新疆回匪方略』, 『흠정평정운남회비방략欽定平定雲南回匪方略』, 『흠정평정귀주묘비방략欽定平定貴州苗匪方略』을 편찬했다.

이들 방략 가운데 나선정벌에 관련된 러시아군의 침입을 다룬 방략은 『평정나찰방략』이며, 그 내용에 나선정벌 당시의 군사충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 1682년부터 시작되어 알바진雅克薩 전투를 주로 다루고 네르친스크尼布楚 조약까지 서술하고 있다.

청은 러시아의 남하에 따른 흑룡강 주변의 국경문제 및 군사문제는 강희 연간에 본격화되었다. 이는 『청회전사례淸會典事例』에서 ‘흑룡강등처주방黑龍江等處駐防’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여 정리한 점에서 확인된다.¹⁰⁷ ‘흑룡강등처주방’은 장군 1인, 부도통 4인 등 관련 관제를 서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1674년(강희13)부터 들었다. 강희 13년에 길림으로부터 수군을 분리하여 흑룡강지방에 주둔시키고, 수사영水師營을 설치하여 총관總管이 관장하게 하였다. 1683년(강희22) 영고탑부도통寧古塔副都統 싸부쑤薩布素로 하여금 러시아군을 정벌토록 하고 진수흑룡강등처장군鎮守黑龍江等處將軍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부도통副都統 2명, 협령協領 4명, 좌령佐領·효기교驍騎校를 각 24명 등 대규모로 관제를 정비하여 러시아에 대응하는 청의 흑룡강 군사편제가 완성됐다.

조선은 나선정벌을 통해 청의 대조선 군사억제를 완화시키고, 중앙군 중심으로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일례로 1655년(효종 6) 금군을 1천 명으로 확대하고, 다음 해에 금위장사禁衛將士의 군복을 전투에 적합하도록 고쳤다. 1656년(효종 6) 7월에 표류한 네덜란드인으로부터 조총기술을 배워 훈련도감에서 조총을 개량하도록 했다. 또한, 1657년에 훈련도감의 병력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신유의 나선정벌군이 출병한 상황에서 어영청

¹⁰⁷ 『淸會典事例』 권544, 兵部3 官制, 黑龍江等處駐防.

에 기병부대인 별마대를 설치하는 등 무기개량과 병력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효종의 이러한 군사력 강화는 실제 나선정벌이 없었다면 조선에서 용납되기 어려웠다. 나선정벌을 통해 조선은 효종즉위와 동시에 급격하게 악화된 조청관계를 원만하게 우호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의 군사력 강화의 대외적인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조선의 나선정벌은 17세기 중반 동북아 국제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은 전쟁이며, 향후 국제질서에 영향을 주었다. 청은 부족한 병력으로 중국 대륙에 진입하여 저항세력을 제압하고 투항한 군대에 대한 통제 및 반란세력의 진압을 위해 주요 병력을 중요 지점에 배치했다. 그러면서 청은 러시아군의 침입을 계기로 동북방에 대해 높은 관심을 제고하여, 군사통치제도를 정비했으며, 남쪽의 해군세력을 동북방에 배치하기도 했다. 조선은 나선정벌을 통해 미묘한 갈등관계였던 조청관계를 원활한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이후 조선은 어느 정도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청과 러시아의 전투에서 조선 조총수를 포함시킨 점은 화약무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의 화약무기는 유통(有筒)에 화승식(火繩式) 조총이었다. 불을 붙이는 과정에 바람이 불면 발사 자체가 안되고, 습기에 취약했다. 이 때문에 조선군은 나선정벌 전투시 날씨에 민감하였다. 또한, 조총은 휴대에 불편하여 행군과 야영에 불편했다. 반면, 조선군이 노획한 러시아군의 무기는 수석식(燧石式) 소총(小銃)이었다. 조총처럼 화승을 통해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와 부싯돌로써 불이 붙어 발사하는 수석식 소총은 조총 2발을 발사할 때 4~5발을 발사할 수 있는 소총이었다. 조선후기 주력 개인 화약무기는 조총이었으며, 고종대 후장식(後裝式) 소총이 도입되었다. 나선정벌은 조선의 화약무기체계에 영향을 주었던 파병이었다.¹⁰⁸

¹⁰⁸ 이강철, 「조선효종조 나선정벌과 피아 조총에 대한 소고」, 『고문화』 2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2, 15~28쪽.

『북정록北征錄』은 신유申酉가 제2차 나선Russian정벌의 조선군 군사지휘관으로 참전했을 때인 1658년 4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115일간 기록한 원정일기이다. 조선시대 최초이자 최후의 명실상부한 대외정벌의 군사활동을 기록한 군사문헌이다. 병자호란 이후 조정 군사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조선의 군사외교와 조선의 우수한 조총부대를 러시아 남하에 투입하고자 하였던 청의 조선관계가 국제질서와 맞물려 시행된 것이 나선정벌이다.

『북정일기』와 유사한 『북정록』의 책명은 여러 종류가 있다. 조선초기 세조대 조석문, 노사신이 1460년 동북방 육진의 여진을 정벌하고 남긴 전쟁기록 『북정록』(1468년, 세조 14)이 있고, 조선후기 역관 김지남이 조선과 청 사이에 백두산 정계의 조사임무에 참여하여 작성한 보고서 『북정록』(1712, 숙종 38)이 있다. 또한, 『북정록』이란 서명에 연도를 붙여 『갑진북정록』(1715년, 숙종 41년)이란 책이 있는데, 조선 숙종대 영의정을 지낸 김수항이 함경도 지방을 여행하며 지은 한시 76수가 수록된 시첩으로 만아들 김창집이 편찬하였다. 즉, 한국 군사역사에서 『북정록』은 여진이나 북방민족에 대한 군사활동 및 북방지역에 대한 보고서와 시첩 등을 포괄하는 문헌을 지칭하는 이름이었다.

『북정록』의 기록을 통해 전투과정을 살펴보면, 청군은 조선의 나선정벌군이 보다 앞에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여 낮은 전투의지를 가졌다. 나선정벌군은 이런 청군의 행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전투가 벌어지면 용감하게 싸워 러시아군의 패배를 가져왔다. 전쟁터가 조선에서 너무 먼 지역이란 점에서 나선정벌군은 실질적인 전투보다 조선의 함경도에서 송화강과 흑룡강의 전쟁터까지 이동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다. 이동거리가 멀다는 점은 군량과 군수품 운반도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대의 비행기, 차량 등이 없이 도보로 해당 지역까지 이동하여 군사정황을 파악하고, 군수 및 군량체계를 정비하고, 청군과의 군사지휘체계를 조율해야 하며, 무엇보다 러시아군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다. 모든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나선정벌군은 조선의 국익을 위해 탁월한 훈련과 전투력으로 최고의 승리를 거두었다.

조선의 최대 대외정벌전쟁 승전기록이었던 『북정록』은 2차 정벌군의 지휘관이었던 신류가 적었다. 신류는 평산 신씨로 자는 경숙(景淑)이며, 시조(始祖)는 장절공(壯節公) 신승겸(崇謙)이다. 즉 조선의 대표적인 가문출신으로 인동부(仁同府) 약목리(若木里)에서 태어났으며, 문장이 뛰어났던 인물이었다. 여러차례 향시(鄕試)에 낙방하자, “장부(丈夫)의 사업(事業)은 여기에 있지 않다.”하며 무예를 익혀 1645년(인조 23)에 무과에 합격했다. 이후 선전관, 비변사 낭관을 거쳐 도총부(都總府) 도사, 경력(經歷), 훈련원 부정(副正)을 거쳐 절충장군으로 해산첨사(海山僉使)가 되었다가 영북 병마우후(嶺北兵馬虞候)가 되었다. 1658년 2차 나선정벌군이 구성되자 이를 지휘하여 흑룡강에서 러시아군과 전투하여 200여 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신류는 러시아군이 큰 전선으로 공격해오자 불화살로 배를 불사르고, 조총으로 사살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개선한 뒤 가선대부에 승진하였으며, 선천부사, 김해부사, 영남동도수군절도사, 호남좌도수군절도사, 영남동도병마절도사, 황해도절도사, 삼도 통제사 등 주요 군사지휘관을 역임하고, 1680년(숙종 6) 1월 향년 62세로 사망했다.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군사와 지방관으로 모범적인 행적을 보여 변방에서 명성이 높았던 무인이다. 신류의 묘비에 “문무를 겸비하고, 임금을 보좌했으니, 지방을 다스릴 때에는, 폐해를 제거하고 이익을 일으켰다. 삼남(三南)의 군대를 통솔하니, 천리의 간성이었고, 북방에서 승리를 아뢰니, 그 공적 더욱 우뚝하였다”라고 했다.

『북정록』의 저자 신류는 시가와 산문을 남겼는데, 1869년(고종 6)에 6대손 호응(顥應)이 편집하여 『봉하유고(鳳下遺稿)』라는 2권 1책의 시문집으로 간행했다. 시(6수), 서(書)(2편), 잡저 1편, 교서(敎書)·사제문 각 1편, 만사 61수, 행장·묘비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나선정벌을 위해 행군하는 도중 함경도 단천을 지나며 주변 경관을 완상하며 향수를 읊은 「단천도중(端川途中)」이

란 시를 남기기도 했으며, 「마천령^{摩天嶺}」은 마천령 정상에서 장부의 기개를 읊은 시이며, 「북정주개야술회^{北征奏凱夜述懷}」이란 제목의 수 2편은 아라사에 승전한 뒤 밤에 객선^{客船}에 올라 귀향의 감회를 읊은 시이다. 『봉하유고』의 1권에 포함된 잡저의 「북정일기^{北征日記}」가 『북정록』이다. 1658년(효종 9) 4월 6일부터 같은 해 8월 27일까지 141일간의 일기체 출병일지로서, 군대의 모집을 비롯하여 행군의 경로, 청군과의 연락사항, 전투내역 및 전과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였다.

조선후기 최고의 해외파병 군사문헌으로 외교와 군사연구의 중요한 문헌일 뿐만 아니라, 출정의 전말, 각지에서 차출된 명단, 날짜별 날씨·행군·야영·러시아군과 벌인 전투상황 및 부하의 상태 등을 기록한 점에서 국방과 관련된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조선의 북방인식과 군사지리 확대

조선후기 조청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백두산을 잇는 지역이다. 백두산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발원하는 곳이자 조선과 청의 거주민 생활공간으로 분쟁이 늘 존재한 공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이 양국의 분쟁공간은 아니었다. 물론 국경사건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다. 조청은 분쟁을 넘어 치열하게 국경을 상호 획정하는 군사외교를 시행했다.

조선이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국경에 대해 새로운 국경의식을 가지게 된 시점은 1712년(숙종 38, 강희 51) 이후이다. 조청에 압록강과 두만강의 발원지로 백두산 주변을 지형조사하고 명확하게 국경선을 정하려는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이후이다.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에서 핵심사항 중 하나는 국경획정이었으며, 또 하나는 상호 군사상황이 정확하게 표기된 군사지도를 제작하여 국방정책에 반영하는 문제였다. 조선의 입장에서 군사상황을 군사지도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피아간에 존재하는 군사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실제 역사기록에서 조청 군사정보를 별도로 구분하여 정리한 사료는 거의 없다. 조선은 사행 등을 통해 파악한 군사정보를 상세히 포함시켜 표기한 군사지도를 정리하고 대청인식 및 국방정책에 활용했다.



〈그림 33〉『천하여지도天下輿地圖』

(소장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등록번호:32))

조선이 인식한 북방은 언제나 국경개념과 연관된다.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어선 지역에 대한 관념은 세계관이며, 이는 조선이 제작한 세계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세계지도는 더욱 다양한 『천하여지도天下輿地圖』 형태로 제작되어 일반적으로 보급되었다.¹⁰⁹ 이를 지식인들은 늘 곁에 두고 조선의 지리와 조선에서 인식한 동아시아 세계를 눈에 익혔다.

¹⁰⁹ 『天下輿地圖』(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등록번호:32).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천하여지도』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영향을 받은 세계지도이다. 제작연대는 1747년(영조 23)이며, 목판인쇄본으로서 청과 조선을 대상으로 한 세계지도이다. 지도 상단에 지명과 거리를 표시하였는데, 거리표준은 청의 北京과 南京이었다. 조선은 朝鮮國으로 표기하고 북경에서 3500리(至北京三千五百里), 남경에서 4000리(至南京四千里)로 거리가 명시되어 있다.

고국의 산과 물 눈앞에 분명하여故國山河了眼前
 아무 언덕이라며 흰 구름 끝 멀리 가리키네某邱遙指白雲邊
 하늘에 이어진 푸른 바다 넓고 넓은 물결인데連天碧海滄波闊
 어떻게 하면 용공의 조각배 하나 얻을 수 있을까安得龍公一葉船
 천하의 봉강이 싸움 판국에 들어갔으니天下封疆入戰國
 백성들은 삶을 즐길 방도가 없네蒼生無計樂樵蘇
 칠산 바다 물결 넓어 마음이 찢어지고七山波闊心肝裂
 삼각산 봉우리 멀어 울다 지켰네三角峯遙淚眼枯
 동해 한편에 탄자와 흑자 같은 땅이요東海半邊彈黑地
 천리 북경은 중국의 서울이네北燕千里帝王都
 아득한 천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던가茫茫宇宙人何許
 괴상해라 일찍이 장부 한 사람 없었네怪殺曾無一丈夫¹¹⁰

전쟁으로 조선에 왔던 일본군이 가져간 『천하여지도』를 본 조선의 사대부는 위와 같이 한탄하였다. 그 만큼 조선의 지식인은 세계지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세계지도를 소장하였다. 이는 조선이 군사, 정치, 외교적 목적의 군국지사^{軍國之事}로 방대한 군사지리 정보를 수집하여 군사대응의 일환으로 국제질서를 파악하려고 하였던가를 잘 보여준다.



〈그림 34〉 『동국여지도』 「천하도」
 (소장 :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이 인식한 세계, 즉 천하를 표현한 『천하도』가 있다. 전통적인 유교의 세계관을 지도로 표현한 천하도는 중국대륙을 중심에 두고 조선을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한 세계지도이다. 조선에서 제작한 세계지도는 조선이

110 『海上錄』 권1, 3월 13일; 권2, 詩, 七言律詩, 家政家見天下輿地圖. 조선시대 士人 鄭希得은 정유재란 때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3년 뒤 귀국했다. 이때 일본에서 한 家政의 집 벽 위에 있는 『天下輿地圖』를 보았다. 임진년에 조선에서 얻은 것이라 설명을 듣고, 조선의 칠산바다, 삼각봉 등을 보고 고향을 떠올리는 정감이 잘 표현된 시이다. 정희득은 『천하여지도』를 보며, “이렇게 넓은 우주에 어찌 한 사람의 丈夫가 없어, 이 섬 중의 조그만 오랑캐로 하여금 이웃을 치고 이처럼 중국을 엿보게 하였던가?”라 탄식했다.

인식한 세계와 조선의 위치 및 위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방대한 지리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조선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했다. 이는 조선에서 제작한 세계지도, 천하도 모두에 반영된 것으로 조선이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조선의 위상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림 35〉『요계관방지도』

(소장 :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1706년에 이이명이 조선의 서북 경계인 청 요동과 제주 인근의 관방 형세를 그린 지도인 『요계관방지도』는 조청의 주요 관방을 상세히 기록하여 조선 후기 대내외 군사지리에 대한 관심과 관방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

중국 대륙의 통일과제를 마무리한 강희제는 명말 사회혼란을 안정시키고, 제도개혁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대청제국의 완성을 위해 다양한 군사활동을 전개했다. 이후 옹정제의 조화의 정치, 건륭제의 문화정책을 통해 청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1680년대에서 1770년대까지 약 100여 년의 청 전성기를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강건성세(康乾盛世)’라 한다.¹¹¹

조선후기 조청간 국경인식을 살펴볼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시기가 강희 연간이다. 청 전성기를 열었던 강희제는 영토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져 남쪽으로 삼변의 난을 진압하고, 동남쪽으로 대만을 병합하고, 북쪽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 서쪽으로 준가르를 정벌하였다.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여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명분적 가치가 필요했다. 이에 강희제의 유지가 주목된다.

¹¹¹ 趙雲田 主編, 『中國社會通史』清前期卷, 山西教育出版社, 1996, 3쪽.

조선후기 군사지도의 결정판은 『요계관방지도 遼薊關防地圖』와 『서북피아양 계만리지도 西北彼我兩界萬里之圖』이다. 『요계관방지도』는 1706년(숙종 32)에 대청사행갔던 이이명李爾命이 돌아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조선의 서북 경계인 청 요동과 제주 인근의 관방 형세를 그린 군사지도이다. 이이명은 명대 직방랑職方郎 선극근仙克謹이 지은 지도책인 『주승필람 籌勝必覽』¹¹²과 조선의 대중국 해로사행 길을 그린 『공로도 貢路圖』, 조선에 그린 서북방면 강해江海의 경계, 청대 심양지리지인 『성경통지 盛京通志』에 수록된 오라지방도烏喇地方圖와 같은 지도 등을 종합하여 『요계관방지도』를 편찬했다.¹¹³ 『요계관방지도』는 이후 조선에서 제작한 『해동지도 海東地圖』, 『광여도 廣輿圖』, 『여지도 輿地圖』 등 다양한 지도에 부분적으로 인용되었다.

『요계관방지도』는 10폭 병풍으로 제작되었다. 이이명은 『요계관방지도』를 제작하여 국왕 숙종에게 올리며 제작의도와 내용을 차자劄子에서 밝혔다.¹¹⁴ 명에서 군사지리 관련 저작著作을 입수하여 귀국한 이이명은 조선에서 군사지리를 파악할 때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서북쪽으로 요동과 계구薊丘로 통하고, 북쪽은 야인과 가까우며 서쪽으로는 발해渤海에 이어져 필수적으로 국방정책 차원에서 요계관방遼薊關防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이명은 당송 이후로 북방민족과 중국인이 어지럽게 섞여 군사충돌한 공간이 중국의 동북이며, 유주幽州·연주燕州은 수시로 북방민족에 의해 점령된다고 판단했다. 명대 장성을 쌓아 북방으로부터 군사침입을 방지하려고

¹¹² 선극근의 저작 『주승필람』이란 서명에 대해 이이명이 숙종에 올린 차자에 제시된 서명이지만, 선극근의 주요 저작에 등장하는 서명은 『주변필람』으로 등장한다. 향후 선극근의 저작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¹¹³ 『명희종실록』 권58, 천계 5년 4월 19일(병신). 1625년 原任兵部郎中 仙克謹은 山西西路兵備按察司副使로 임명되었다. 仙克謹은 字가 仲恒, 號는 偃如이며, 1607년(만력 35) 진사로 입사한 인물이다. 병부 직방사 낭중을 거쳐 주로 산서병비부사, 산서부도어사 등을 역임하며 군사지휘관으로 국방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다. 주요 저작은 『三晉奏議』, 『籌邊必覽』, 『中邊圖制考』 등 군사지리에 관련한 책자이다.

¹¹⁴ 『숙종실록』 권43, 숙종 32년 1월 12일(신미).

한 점도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인식했다. 만주족이 흥기하여 명칭 교체의 역사공간도 이 지역이었다. 청이 강력하게 군사정책을 펼치며 주요 군사력을 설치하여 관방을 조성한 공간도 이 지역이었다. 조선 역시 국토는 작지만, 변방의 경계는 넓고 먼 데다 서북 변방 지역은 강 하나로 경계를 짓고 있고, 산동과도 매우 가까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이명은 대청사행을 하며 청이 성채(城砦)는 수축하지 않고 다만 심양(瀋陽)과 영고탑(寧古塔)에 성을 증축하며 재물을 저축한다고 정보를 수집했다. 이에 이이명은 조선이 국력을 집중하여 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방을 강화하는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림 36〉 『요계관방지도』 북경과 서북지역 부분

(소장 :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의 관방체계에서 북경과 서북쪽은 핵심 군사요충지이다. 이를 반영하여 만리장성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관방시설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계관방지도』는 조선의 압록강에서 심양, 북경까지 주요 관방을 10쪽에 나누어 주기하였다. 남으로 여순구(旅順口), 동북으로 오라(烏喇)와 영고탑(寧古塔), 흑룡강 해구(海口)까지 거리를 리(里) 단위로 표기하였다. 북경에서 거용관(居庸關)까지, 북경에서 선부(宣府)까지, 선부에서 개평위(開平衛)까지, 북경에서 등주(登州)까지 거리를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요계관방지도』는 17세기 후반 새로 입수한 『성경통지』의 지리 정보를 잘 반영하였다. 조

선은 관북 및 관서 지역만 그렸으며, 두만강의 남류 사실이 좀 더 분명하게 묘사되었고, 선춘령 바로 아래 온성부 근처에서 두만강으로 합류되는 물줄기가 지도에서는 백두산에서 발원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지리지인 『성경통지』를 토대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육로는 통과 지점만을 표시한 것에 비하여 조선에서 산동의 등주나 영원성寧遠城 각화도覺華島, 산해관에 이르는 해로를 뚜렷하게 그렸다. 개별 요새의 수비 상태를 지도 안에 특별히 기록해두고 있으며, 성의 망루에는 적색 깃발이 날리고 진鎭·관關·보堡 등은 적색으로 표시하였다. 『요계관방지도』의 원본이 『성경통지』 등 청의 자료에 기초한 이유로 백두산과 주변 물줄기, 토문강 등 중국 동북 지방에 대한 인식은 다분히 청의 인식이 여과없이 수록되었다. 1712년(숙종 38)에 정계비를 설치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숙종대 국제정세와 청의 관방제도에 대한 관심은 『요계관방지도』로 정리되었다면, 영조대 조청 군사관계에서 군사지리에 대한 관심은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로 정리되었다. 1746년(영조 22) 청은 변경 울타리를 남쪽으로 변경하고 만주지역의 경작지를 확대시키고자 했다. 청의 변경정책 변화에 조선은 신속하게 청에 경작지 확대를 위한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구했다.¹¹⁵ 조선의 군사외교에 따라 청은 병부상서를 파견하여 조선에서 요구한 상황을 파악했다.¹¹⁶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에서 범월사건은 강역문제로 장기 지속적이었다. 범월, 강역은 경계boundary, 변경frontier, 국경지대borderland, 국경border 등의 개념적 검토가 필요하다. 후금시기 조·후금 군사관계에서 핵심 사건으로 등장한 범월사건은 결국 강희 연간에 백두산 정계비의 설치로 이어졌다. 이후 청 제국의 발전기였던 옹정·건륭 연간에 망우초사건이 발생하여 청 중심 국제질서를 주재하는 황제의 모습으로 조선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초기와 중기 조명관계에서 양국의 접경지역은 결코 압록

¹¹⁵ 『영조실록』 권63, 영조 22년 4월 19일(갑신).

¹¹⁶ 최소자, 「淸朝의 對朝鮮政策-乾隆年間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91, 동양사학회, 2005, 105~145쪽.

강 일대가 아니었다. 요동까지 강역으로 인식한 명의 입장에서 압록강 일대는 오히려 조선과 여진의 접경지역으로 인식했다. 이는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조청관계에서 여진이 만주족으로 청인으로 전환되자 양국은 압록강 일대를 접경지역으로 인식하고 국경문제로 범월사건, 강계사건의 공간이라 인식했다.



〈그림 37〉 『요계관방지도』의 조청 국경지대

(소장 :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과 청은 두만강·압록강을 경계로 국경지대를 형성하고 상호 치열한 국경문제로 충돌했다. 점차 양국 사이에 국경지대라는 개념에서 국경선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쳤다.

접경지역으로 압록강 일대는 여진이 조선에 종속되는 관계를 가졌다가 점차 동등관계로, 조선후기에는 청을 사대하는 조선의 관계로 변화되자 조청관계의 사대공간이 되었다. 조명관계에서 조선과 여진은 압록강 일대 접경을 중간적^{between-ness} 혹은 초변경적^{transfrontier-ness} 성격으로 공유했다. 조선과 여진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지리경계로 접경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명을 매개로 공유하며 혼거하였다. 그러나 후금이 등장하고 명이란 매개가 존재하지 못하자 조선과 후금은 배타적인 영역설정이 필요했다. 자연스러운 접경의 공유는 불가능했다. 누르하치시대에는 정치·사회·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가 모호한 공간으로 변경^{frontier}개념이었다면, 청 건국이후

홍타이지시대에는 영토적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경^{border}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조청관계에서 조선인의 범월은 국경을 침범한 군사문제로 새롭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근대적 국경선의 설정은 조청관계에서 불가능했다. 19세기 말까지 조선과 청은 접경지역이 변경도 국경도 아닌, 일종의 중간적인 성격인 국경지대로 압록강 일대를 인식했다. 국경지대는 변경처럼 두 집단이 모호한 경계를 둘러싸고 빈번하게 접촉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인접하는 두 국가가 서로의 세력을 인정하고 타협하는 지점이다.¹¹⁷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에서 국경지대의 모호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망우초사건이다. 조청관계에서 조선인의 범월사건은 누르하치시대부터 건륭 연간까지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청의 대응은 조선의 요구를 받아주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청 중심 국제질서의 황제로서 주변국 조선에 관대한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다. 망우초사건은 조청관계의 변화과정에서 범월방지, 국경방어, 압록강 지대 개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발생하였다. 압록강 지대가 조선과 후금 사이에 공유하던 중간성격의 접경지역에서 국경지대로 전환되자 범월에 대한 대응은 보다 강력해 졌으며, 제국으로 발전한 청은 조선에 우호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망우초사건을 통해 범월에서 강계로, 접경지역에서 국경지대로 전환되는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를 살펴본다. 청의 대조선 국경사건에 대한 위기의식은 병자호란 이전에 이미 높았다. 1628년(인조 6) 누르하치를 이어 후금의 칸으로 등극한 홍타이지는 조선인의 후금 침입을 문제 제기했다. 후금은 양국의 인민이 월경하여 수렵하는 것을 엄금하여 사단을 방지할 것을 강요했다. 범월, 채삼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경의 관리까지 처벌하라고 강요했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불법채삼자는 압록강변에서 호시하고, 관원은 혁직하거나 유배시키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¹¹⁸ 월경, 범월에

¹¹⁷ 김선미, 「雍正·乾隆年間 莽牛哨 事件과 淸·朝鮮 國境地帶」, 『중국사연구』 71, 2011, 69~97쪽.

¹¹⁸ 김선민, 「인삼과 강역: 후금-청의 강역인식과 대외관계의 변화」, 『명청사연구』 30,

대한 청의 압박은 1686년(숙종 12) 불법채삼하던 조선인이 청 관리를 조총으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조선국왕 숙종에게 벌은 부과했다.¹¹⁹ 이 사건을 계기로 청은 압록강과 두만강 수원을 조사하도록 하여 결국 1712년(숙종 38)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¹²⁰



〈그림 38〉『서북피아양계만리일립지도』 백두산 부분

(소장 : 서울역사박물관-서울역사013125)

조선 후기 조청 군사관계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범월사건은 점차 강계사건으로 전환되어 국경지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그 결과 백두산 정계비 설립으로 나타났다.

조청관계에서 월경, 범월, 강계사건은 만주족이 후금을 넘어 청 제국으로 팽창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조선·여진관계에서 조선·후금관계를 경과하여 사대관계로 조청관계로 변화됨을 보여준다. 1707년(숙종 33)에 청인

이 월경하여 채삼하며 조선의 파수줄을 붙잡고 어염(魚鹽)을 요구하는 사건, 1711년(숙종 37)

에 청인이 갑산 고운룡(古雲籠) 일대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사건, 1714년(숙종 40)에 청인 수렵꾼들이 평안도 이산(梨山)의 강변에 침입하여 파수꾼을 납치하고 식량과 소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¹²¹

강희말엽에 강희제는 월경자와 지방관을 엄척하도록 지시하고, 범월한 청인에 대해 조선에서 체포할 권한을 부여했다. 1712년(강희 51) 강희제는 청인이 조선의 변경과 근해에서 불법 사냥과 어업을 범하면 성경장군(盛京將軍)이 단속하여 조청관계에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강희

2008, 227~257쪽.

¹¹⁹ 『숙종실록』 권17, 숙종 12년 3월 7일(신유).

¹²⁰ 조광, 「조선 후기의 변경의식」, 『백산학보』 16, 1974; 강석화, 『조선 후기 함경도와 북방 영토의식』, 경세원, 2000; 이화자, 『朝淸國境問題研究』, 집문당, 2008.

¹²¹ 『숙종실록』 권45, 숙종 33년 6월 20일(신축); 권50, 37년 7월 30일(정사); 권55, 40년 9월 16일(갑인).

제는 조선으로 하여금 청인의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체포하고 처형하라고 명령했다.¹²²

청조가 조선 경내에 침입한 청인 범월자의 체포와 처리를 조선에 위임한 후에도 청인들의 국경지대 출몰은 계속되었다. 1714년(숙종 40) 경원 인근에 청인이 강변에 집을 짓고 어업 및 경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고탑 청인이 이주할 계획을 세운 점을 확인한 조선은 청군이 경원 건너편 훈춘에 군대를 배치하고 주둔지로 개발을 추진하였음을 거듭 확인하고 군사경계를 강화했다.¹²³ 함경도관찰사 이광좌(李光佐)와 절도사 조상주(趙相周), 경원부사 조세망(趙世望) 등이 경원 건너편에 청인이 초막(草幕)을 짓고 경작하는 정황을 숙종에게 보고했다.¹²⁴ 조선은 전통적으로 두만강 강변 건너편에 청이 공백지로 두던 점과 달리 청인이 초막을 짓고 경작하는 상황을 국경 문제로 인식했다. 문제는 조선의 영역이 아니라 직접적인 군사적 조치가 불가능했지만, 청인의 동정과 기미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다.¹²⁵ 위기의식이 높아지자 조선은 전통적으로 접경지역을 개발하지 않음을 근거로 청에 두만강 일대 개간을 금지하도록 사행을 파견했다.¹²⁶

당시 조청관계에서 접경지역을 비워두어야 범월을 방지할 수 있고, 개발이 진행되면 사람이 모이고 관련하여 다양한 국경문제가 발생한다고 조선과 청은 공동적으로 인식했다. 1715년(강희 54) 강희제는 봉천장군, 봉천부윤, 영고탑장군으로 하여금 두만강 국경지대의 개간을 조사하도록 했다.¹²⁷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강희제는 경작금지를 명령하고, 재발방지를 조선에 통보했다.¹²⁸ 이는 성경장군이 조선의 국경지대로 진출하여 장악하

¹²² 『동문회고』 원편 권61, 犯越.

¹²³ 『숙종실록』 권55, 숙종 40년 9월 13일(신해).

¹²⁴ 『동문회고』 원편 권48, 강계, 請撤毀訓戎鎮越邊房屋咨.

¹²⁵ 『비변사등록』 ㉔책, 숙종 40년 6월 7일.

¹²⁶ 『동문회고』 원편 권48, 강계, 請撤毀訓戎鎮越邊房屋咨.

¹²⁷ 『동문회고』 권48, 강계, 禮部知會令該管查明後再議咨.

¹²⁸ 『동문회고』 권48, 강계, 禮部知會撤毀咨.

려는 의도가 좌절된 것을 의미하며, 19세기 말 조선유민이 월경 개간할 때 대응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¹²⁹ 그러나 조선후기 조정 군사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양국의 국경지대 관리가 근대처럼 명확한 경계인식이 아니라 경계의 모호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청은 19세기 말, 통치질서가 이완되고 국경 통제력이 약화되어 희박한 인구율 때문에 이곳에 이주민이 집중한 점에서 조선 유민의 이주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1727년(옹정 5) 수백 명의 청인이 월경하여 채삼하며 조선군과 충돌한 곽연진(郭連進)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은 강력하게 범월을 항의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옹정제는 범월인과 범월을 단속하지 못한 관원과 병사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조선에 통보했다. 추가로 범월한 청인을 조선에서 단속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¹³⁰ 옹정제의 지시를 받은 성경장군 나수투(那蘇圖)는 1731년(옹정 9) 압록강 입구 망우초(莽牛哨)에 수로초소를 설치하여 불법 범월을 방지하자는 제안을 건의했다. 망우초는 유조변(柳條邊) 안에서 발원한 초하(草河)와 애하(愛河)가 합류하여 압록강의 중강(中江)으로 흘러들어가는 요충지였다. 중강 가운데 모래섬 강심타(江心沓)는 범월인들이 강을 건너는 길목이었다. 모래섬을 기준으로 동쪽은 조선이 관할하고, 서쪽은 청이 관할했다. 성경장군은 조선과 경계가 접해있어 범월인을 청군이 체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¹ 구체적으로 망우초에 소선 4척과 삼판선 2척을 설치하고, 호이산(虎耳山)에 주둔한 관승(官升) 2명이 지휘하는 군사 32명을 두고자 했다.

청의 망우초 수로초소 설치에 대해 조선은 청이 국경지대를 개척하려고 한다고 판단했다. 좌의정 조문명(趙文命)의 주장처럼 청은 순치 연간부터 책문(柵門) 밖 1백여 리의 땅을 공한지로 두었는데, 조선에 최근접한 망우초에

¹²⁹ 이화자, 『조청국경문제연구』, 집문당, 2008, 187쪽.

¹³⁰ 김선민, 「옹정제의 성경지역 통치」, 『명청사연구』 34, 143~145쪽.

¹³¹ 『동문회고』 원편 권48, 강계, 禮部知會詢問設迅便否上諭咨.

군대를 주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보았다.¹³² 영고탐장군이 두만강 일대의 영원 건너편에 진출하려고 하였던 것을 반대했다.¹³³

옹정제는 조청 군사관계에서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고자 조선의 요구를 수용했다. 망우초에 초소를 설치하면 범월방지보다 국경지대에 군대주둔 및 인구유입으로 범월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¹³⁴ 조청 군사관계에서 상호 충돌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국경지대를 공한지로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망우초사건을 통해 조청은 상호 인정하는 경계를 선보다 공간으로 설정하여 충돌과 사건을 방지하고자 했다. 불법 범월과 채삼이 지속되자 건륭 연간 성경장군 달당가^{達爾當阿}은 망우초 초소설치를 다시 제기했다.¹³⁵ 1746년(건륭 11) 달당가는 건륭제에게 국경지대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를 올렸다. 망우초 일대에 황실재산인 인삼 생산이 있어 불법채삼을 방지할 초소가 필요하다는 논지였다. 달당가는 인삼 채삼을 단속하기 위해 수군작전에 익숙한 남금주^{南金州}의 한군^{漢軍} 가운데 좌령^{佐領} 1인, 효기교^{驍騎校} 1인, 영최^{領催} 2인, 병사 100명의 망우초 주둔과 주둔을 위한 개간을 제안했다. 특히 달당가는 망우초 초소설치는 조선의 범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¹³⁶

청 예부의 찬성을 받은 망우초 초소설치 제안은 건륭제의 판단에 따라 조선의 의견을 듣게 되었다. 조선은 초소설치가 다시 논의된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망우초와 연관된 각종 군사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조선은

망우초 초소가 단초가 되어 청이 국경지대로 점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 판단했다.¹³⁷ 조선은 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중강의 청군 동향

¹³² 『영조실록』 권29, 영조 7년 6월 20일(신해).

¹³³ 『동문회고』 원편 권48, 강계, 請寢莽牛哨設迅咨.

¹³⁴ 『동문회고』 원편 권48, 강계, 禮部知會不設防迅上諭咨.

¹³⁵ 『동문회고』 원편 권48, 강계, 粘單.

¹³⁶ 『동문회고』 원편 권48, 강계, 禮部知會莽牛哨添駐官兵防守咨.

¹³⁷ 『영조실록』 권63, 영조 22년 3월 28일(갑오).

을 파악했다.¹³⁸ 영조는 건륭제에게 망우초 초소설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¹³⁹



〈그림 39〉『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소장 :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후기 초정 군사관계에서 범월, 강계사건으로 국경지대에 대한 조선의 높은 관심으로 제작된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는 망우초사건이후 영조의 왕명으로 편찬되었다.

영조는 강희제와 옹정제가 국경지대에 개간, 주둔을 허락하지 않은 깊은 뜻을 언급하며, 조청관계의 돈독함을 강조했다. 건륭제는 내부적으로 성경장군의 건의를 윤택한 입장이었다. 이는 건륭제의 정치적 결단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의미했다.¹⁴⁰ 그러나 건륭제의 최종 결정은 대외적으로 조선과 국경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¹⁴¹ 건륭제의 결

¹³⁸ 『동문회고』 원편 권48, 강계, 請寢添兵屯田奏; 『영조실록』 권63, 영조 22년 윤3월 5일 (신축); 15일(신해); 21일(정사); 4월 19일(갑신).

¹³⁹ 『동문회고』 원편 권48, 강계, 請寢添兵屯田奏.

¹⁴⁰ 『청고종실록』 권270, 건륭 11년 7월 己酉.

¹⁴¹ 『청고종실록』 권271, 건륭 11년 7월 甲寅; 『동문회고』 원편 권48, 강계, 禮部抄錄更察

정으로 성경장군이 추진하려던 국경지대 방비강화는 차질이 불가피했다. 실제 달당가는 망우초를 통해 토지개간 및 개발을 추진하여 조선과의 국경지대에 대한 성경의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했다.¹⁴²

국경지대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초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청 관리들의 주장과 국경지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조선의 주장 사이에서 건륭제는 결국 부친 옹정제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손을 들어주었다.¹⁴³ 범월과 채삼을 단속한다는 합리적 명분에 불구하고 조청 군사관계에서 국경지대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망우초사건은 최종 종결되었다. 조선은 건륭제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국경지대에서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것에 대해 염려했다.¹⁴⁴

영조는 강희 연간의 전례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 수입된 수정본 『성경지』를 찾았다. 영조는 조선과 관련이 깊은 토문강, 성경, 영고탑 등지의 지도를 자세히 그려 올리도록 했다.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는 이렇게 탄생했다. 지도의 왼편 위쪽 여백에는 영고탑의 유래, 청의 건국과정과 군사편제, 몽고에 관한 정보가 있다.

“영고탑은 옛 숙신씨의 땅이다. 한나라 당나라 이전에는 동북쪽에 강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쪽의 땅을 오로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 때문에 수나라나 당나라는 매번 조선을 공격하는 것을 정동대역(征東大役)으로 여겼다. 그 때에는 요동과 요서의 땅 중 태반이 우리 땅이었으며 백두산 안팎의 여러 종족들도 대부분 우리에게 복속되어 있었다. 여진이 경박호 지역에서 일어나서 급격히 강성해 지더니, 급기야 송나라를 대신해 중원의 주인이 되었다. 이것이 금나라이다. 금나라가 원나라 사람들에게 쫓겨 동쪽으로 돌아간 즉 그 나머지 무리들이 두만강과 압록강의 서북쪽에 살았는데 혹은 야인이라 하고 혹은 변호라 하 면서 빈번하게 조선의 서북지방을 침략해 오니, 북쪽의 이탕계, 서쪽의 이만주가 대표적인 자들이었다. 이때 이후로 우리나라의 변방이 편안하지 않았다. 대저 여진 중

設訖許停展柵上諭及兵部原題咨: 『영조실록』 권64, 영조 22년 10월 29일.

¹⁴² 『동문회고』 원편 권48, 강계, 粘單.

¹⁴³ 『동문회고』 원편 권48, 강계, 禮部知會奉旨寢退柵添迅咨.

¹⁴⁴ 『영조실록』 권66, 영조 23년 11월 25일.

죽은 숙여진과 생여진으로 구별되는데 명나라 만력 연간에 이르러서는 생여진 동산의 일파가 건주위에서 갑자기 커지더니 모린위의 좌위 우위 등의 부락을 통속시키니, 그곳과 가까운 폐사군 지역이 가장 피해가 심했다. 이것 때문에 사군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태종(홍타이지) 이후로는 병력이 날로 강성해졌다. 그들은 북상하여 개원현으로부터 심양을 평정하고, 동쪽으로 내려가 요양을 점령한 뒤, 심양은 홍경, 요양은 동경, 건주는 홍경이라고 칭하니, 영고탑 서쪽지방을 모두 차지한 것이다. 드디어 대릉하 소릉하 사이에서 수많은 싸움을 벌이다가 승정 연간 말에 북경으로 들어갔다. 건주는 능묘가 있는 곳이며 노성은 종족이 살았던 곳인 고로 그 제치한 바가 성경과 다름이 없이 했던 것이다. 요동지방에 3명의 장군을 두었다. 하나는 봉천부 등을 진수하는 장군으로 요양에 주재했다. 또 하나는 영고탑 등을 진수하는 장군으로 선창에 주재 했으며, 나머지 하나는 흑룡강 등을 진수하는 장군으로 애호성 艾湖城에 주재했다. 모두 1품의 직급으로 각각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관원을 4사람씩 거느렸다.”

위 인용문은 영조가 관방지도를 제작하며 영고탑이 초미의 관심사였음을 보여준다. 조청 군사관계사에서 망우초사건과 같이 국경지대가 군사외교의 핵심사건으로 등장한 점에서 영고탑이 주목을 받았다. 도면에는 각 화도·구가보 舊家堡·신요동성 新遼東城·심양 瀋陽·우라 烏喇 등지에 대해 설명했다. 해로사행에 중요했던 각화도, 후금을 방어하기 위해 명이 연대를 쌓았던 구가보, 후금의 수도였던 심양, 영고탑·성경·백두산 등지의 중심지였던 우라 등을 설명하여 반청의식을 표현했다.

한편,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는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분계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계 이전에 작성된 『요계관방도』와 차이가 있다. 백두산에서 두 갈래의 물줄기가 흘러내리는데, 하나는 두만강의 본류이며, 다른 하나는 두만강 위쪽을 흐르다가 온성부 근처에서 두만강에 합류한다. 전자는 ‘토문강원 土門江源’, 후자는 ‘분계강 分界江’이라고 명명되어 있으며, 그 발원처 역시 ‘분계강원 分界江源’으로 표기되어 있다. 정계 후 설치한 목책은 ‘토문강원’에서 ‘분계강원’까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토문강을 두만강의 상류로 보면서도, 분계강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¹⁴⁵

조선후기 지식인이 인식한 북방은 어떤 의미였는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

¹⁴⁵ 오상학, 「조선후기의 지도」, 『한국 지도학 발달사』,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09.

하다. 조선후기에 북방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갔다. 흔히 북관^{北關}이라 불린 조선의 최북방은 함경북도로 당시 주거지와 농경지가 확대되며 인구가 증가하여 상업도 발달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북방지역의 안정을 통해 군사적으로 대비를 강화하고자 하였던 국방정책의 결과였다.



〈그림 40〉 『북관지도北關地圖』

(소장 :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후기 군사지리에 대한 관심은 청의 관방시설에 대한 군사정보 수집을 통한 대비도 있었지만, 국내의 북방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평안도와 달리 함경도는 조선의 입장에서 청의 입관 이후 상대적으로 여진족이 이동하여 이들에 의한 침입위험이 감소하였다. 조청관계에서 핵심적인 군사관계였던 국경문제가 18세기 초 백두산정계^{白頭山定界}로 일정하게 정립되고, 조선은 백두산 일대와 폐사군^{廢四郡}지역을 영유할 수 있었다. 또한, 청의 통치체제가 안정화되면서 청의 군사적 침입위험도 불식되었다. 당시 조선에서 북학^{北學}연구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역사적 강역인 북방의 옛 영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조선의 북방관심은 함경도를 넘어 백두산, 두만강의 북쪽 등 이전의 강토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조

선후기 단순히 변경의 지리정보에 대한 수준을 넘어 국토의식, 역사의식, 민족의식, 중화의식 등이 반영된 결과로 조선에 대한 국가정체성 인식으로 이어졌다.



제 3 절 속종대 정세변화와 군사외교제도



“오라총관 烏喇總管 목극등 穆克登이 황지 皇旨를 받들어 변계 邊界를 조사하고 이곳
에 이르러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므로, 분수령 상에
돌에 새겨 명기한다. 강희 51년 5월 15일”

『백두산 정계비문』

군사외교 실무자 역관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는 전쟁과 평화의 두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전쟁은 군대를 동원한 참전과 전투로 이루지는 군사충돌이다. 전쟁은 상호 군사충돌과 군사협력으로 세분화된다. 군사충돌은 정묘호란, 병자호란과 같은 상호 전쟁이며, 군사협력은 소현세자의 중군, 나선정벌 등과 같은 조선과 청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군사활동이다. 반면 평화는 전쟁 이외의 군사갈등과 군사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평화는 반드시 외교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조선후기 외교형식은 사행과 사신접대가 있다.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에서 군사사건이 발생하면 조선과 청은 사행과 사신접대의 방식을 통해 군사충돌을 피하고, 군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외교를 펼쳤다. 군사외교는 통상적인 조선시대 외교절차를 적용하면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조선후기 조선과 청 사이에 군사사건이 발생하면 조선은 ① 군사사건이 어떤 외교사안에 해당하는가 식별하고, 조선의 국익에 부합하는 군사외교 사행목적 설정한다. ② 청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군사외교 사행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 수 있는 직위와 능력을 갖춘 사신, 서장관, 역관 등을 구성한다. 이때 국왕은 신중하게 사신을 선발하고 사역원의 선발절차에 따라 역관이 차정된다. ③ 조선은 사행목적 달성을 위해 청에 조선의 입장과 요구를 효과적으로 담은 국왕 명의를 외교문서를 작성한다. ④ 국내외 정세, 사행경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표拜表 및 출행出行한다. ⑤ 조선사행이 의주를 출발하며 표문票文을 발부받고, 도강하여 청 영역으로 진입한다. 이때 조선사행에 관련된 내용을 봉황성에 통보하여 성경으로 보고되도록 하였다.

⑥ 조선사행은 요동팔참-성경-산해관을 거쳐 북경으로 들어간다. ⑦ 조선사행은 북경에 도착하면 회동관會同館에 입관한다. ⑧ 조선사행은 예부를 통해 행사일정을 통보받는다. ⑨ 국왕 명의를 외교문서를 예부를 통해

제출한다. ⑩ 북경에서 황제와 관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한다. ⑪ 외교 사행을 수행한 것에 대한 상사^{賞賜}를 지급받는다. ⑫ 회동관의 개시^{開市}를 열어 조선에서 부여받은 물품을 교역한다. ⑬ 긴급한 군사정보, 외교정보를 수집하면 선래통사^{先來通事}를 파견하여 국왕에게 보고한다. ⑭ 북경을 출발하여 귀국한다.

군사외교 사행 및 사신접대의 가장 핵심공간은 한양과 북경이다. 한양의 경우, 왕궁이 조선 국왕과 비변사 등의 대신들이 수집된 군사정보를 분석하여 군사외교 목적을 설정하고 군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군사정책 결정의 공간이다. 청의 경우, 황궁이 황제와 군국기무처 대신들이 동일하게 청의 군사정책 결정의 공간이 된다. 현대 사회와 같이 통신,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한 조선후기에 사행은 전권대사의 권한보다 조선 국왕 명의의 문서를 전달하고, 황제문서를 접수하여 보고하는 권한만 존재할 뿐이다. 그렇다면 군사사건의 해결을 위한 군사외교 사행은 어떻게 소통하고 이동했는가? 조선후기 절사는 동지사행 뿐이지만, 사은사행, 진주사행 등 다양한 사행이 수시로 조청을 왕래하며 사행활동을 펼쳤다. 북경에 위치한 조선사행이 국왕에게 보고할 것이 있거나 훈령을 받을 것이 있다면 이들 사행을 이용했다. 아니면 선래통사를 파견하여 국왕에게 보고하고 훈령을 받아 대응했다.¹⁴⁶

조선사행이 사행노정에서 문견한 바는 중요한 군사정보이자 외교정보이다. 사행은 수행 중에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여 국왕에게 보고했다.¹⁴⁷ 조선은 청 영역에서는 통사를 파견하여 정보를 보고했지만, 의주에 도착하면 조선의 역로와 파발체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국왕에게 보고했다. 이를 위해 조선은 일찍부터 서북면에 관승^{館丞} 및 부천호^{副千戶}의 직제를 두었다. 서북면의 관승체계는 생양관^{生陽館}에서 대동관^{大同館}까지, 안정관^{安定館}

¹⁴⁶ 김경록, 「조선과 중국(명·청)의 사행외교」, 『한일관계사연구』 55, 2016.

¹⁴⁷ 김경록,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와 외교정보의 수집-보존체계」, 『동북아역사논총』 25, 2009.

에서 안흥관^{安興館}까지, 가평관^{嘉平館}에서 임반관^{林畔館}까지, 양책관^{良策館}에서 의순관^{義順館}까지를 구분하여 각각 관승 1명을 두고, 각 익^翼의 좌·우·중소에 각각 부천호 1명을 두었다.¹⁴⁸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의 군사외교는 무관이 아닌 사역원^{司譯院} 역관이 담당했다. 역관은 대청사행에 참여하여 언어적 능력을 통해 북경과 심양 등지에서 실무 외교활동을 펼쳤다.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에 활약하였던 대표적인 역관으로 김지남^{金指南}이 있다. 김지남은 본관이 우봉^{牛峰}이며, 자는 계명^{季明}이며, 호는 광천^{廣川}이다. 역관집안으로 유명한 중인신분의 역관이었다. 김지남은 여러 차례 대청사행에 참여하고 사신접대에 참여하여 군사외교를 펼쳤다. 1671년(현종 12) 18세에 역관에 급제한 김지남은 1682년(숙종 8) 윤지완^{尹趾完}을 수행하여 일본사행에 참여하고 귀국하여 『동사일록^{東槎日錄}』을 남겼다. 일본사행을 통해 조선 역관의 인품과 학문을 일본에 인식을 강하게 남겼다.

조선은 초기부터 화약무기에 대한 발전을 거듭했는데, 문제는 화약을 만드는 기술이 좋지 않았다. 좋은 임진왜란 우리나라에는 화약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 없어서 공력을 많이 들이고도 얻는 것은 적었다. 기술이 부족하여 화약을 청에서 구매하는 상황에서 화약제조법에 대한 조선의 관심은 높았다. 조선시대 화약제조법을 자초법^{煮硝法}이라 한다. 자초법은 흙을 달여 화약의 주요 원료인 염초를 굽는 방법이었다.

1692년(숙종 18)에 민취도^{閔就道}를 수행하여 대청사행하였던 김지남은 요양에서 화약제조법을 배우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지남은 다음 해 진하사행^{進賀使行}에 참여하여 어렵게 『자초신방^{煮硝新方}』을 구입하여 귀국했다. 김지남은 귀국 후 화약제조 실험을 거듭했다. 별다른 성취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1698년 병기창고 도제조 남구만^{南九萬}에게 건의하여 군

¹⁴⁸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1월 18일(신유).

기시에서 자초법에 따라 염초를 구웠는데 성공하고 그 결과도 우수했다. 김지남은 화약제도 방법을 정리하여 『신전자초방^{新傳煮硝方}』을 편찬했다. 군기시에서 간행하여 여러 군진에 반포하여 화약제조의 지침서로 활용했다. 숙종은 김지남의 화약제조 공로를 인정하여 관직을 제수하려 하였지만, 중인신분의 역관이란 점에서 반대여론이 많았다. 숙종은 반대에 불구하고 문성첨사^{文城僉使}에 임명했지만, 사간원에서 상소하여 결국 취소되었다.

1710년(숙종 36) 정재륜^{鄭載崙}을 수행하여 대청사행한 김지남은 심양^{瀋陽}의 장수 송주^{松柱}와 담론하며 조선이 제후의 법도를 잘 지킨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지남과 담론하였던 송주가 고위 관원이 되자 조선에 부과된 공물^{貢物}을 삭감하는데 힘을 실었다. 1712년(숙종 38년) 강희제가 오라총관^{烏喇總管} 목극등^{穆克登}을 시켜 조정 국경을 획정하도록 했다. 강희제는 목극등이 압록강에서 토문강^{土門江}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까지를 조사하여 변방의 경계를 밝히게 하였다.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인식했다. 청의 목극등이 획정을 위해 대표로 오자 조선은 판서 박권^{朴權}을 접반사^{接伴使}로 삼았다. 이에 박권이 김지남을 대동하여 변론하도록 했다. 김지남은 목극등에게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은 것은 역사가 오래되고, 두 강은 백두산의 호수에서 나오는데, 호수의 북쪽은 청 지경이고, 남쪽은 조선의 지경이라 주장했다. 정계비를 세울 때, 박권은 백두산에 오르지도 못하여 목극등과 김지남이 비석을 세워 경계로 삼았다. 이때 산 형세와 강역을 그린 지도를 두 본 만들어 청과 조선이 하나씩 가져 증표로 삼았다. 정계 이후 하산하다 무산^{茂山}에 도착했을 때, 조선인이 경계를 넘어가 나무를 베어 그 산 수십 리가 험뻗었다. 목극등이 처벌하려고 하자 김지남이 무마시켰다.

김지남의 외교활동은 이에 멈추지 않았다. 1713년(숙종 39), 강희제의 60세를 경축하는 황제문서를 반사하러 청 사신으로 목극등이 왔다. 조선은 목극등과 백두산 정계를 함께 한 김지남을 영접도감 차비관으로 임명

하여 의주에서 맞이했다. 당시 비변사에서 목극등을 대상으로 교섭활동을 하도록 김지남에게 임무를 주었다. 청 사신이 한양까지 올 때, 가산(嘉山)·정주(定州) 사이가 멀지도 않는데 납청정(納淸亭)을 거쳐 가는 폐단이 있었다. 비변사는 목극등에게 향후 청 사신이 납청정을 거쳐 가지 않도록 협의하고자 했다. 김지남이 납청정을 제외하는 것으로 제안하자 목극등이 폐지하도록 지시하여 폐단을 해소했다.

1714년 사역원 제조 최석정(崔錫鼎)의 지시로 『통문관지(通文館志)』를 편찬했다. 조선은 조청 군사관계를 원활히 전개시키기 위해 사역원의 역관을 교육, 선발, 양성하여 실무 외교관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문제는 역학의 어려움과 천시여김으로 시대가 흐를수록 지원자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조청 군사관계는 보다 긴박하게 전개되고 범위도 확대되었다. 조선은 사행에 참여하였던 역관이 보고들은 사실들을 참고로 하여 사대와 교린의 외교에 관한 연혁·역사·행사·제도 등을 체계화한 『통문관지』를 아들 김경문(金慶門)과 함께 편찬하였다. 『통문관지』는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에 발생하는 각종 군사사건을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정책결정할 때 필수적으로 참조하였던 편람(便覽) 및 사서(辭書)의 구실을 한 관서지이다. 벼슬은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먼저 사역원의 관서지 『통문관지』가 조선후기 숙종 연간에 편찬되었는가? 숙종 연간은 청의 삼번의 난 진압, 영고탑회귀론 등으로 조선이 군사적 위협을 인지하고 군사대응을 마련했던 시기이다. 또한, 조청 군사관계에서 처음으로 국경의 획정이라 할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조선은 왜 조청관계에 절대적으로 중요 역할을 수행했던 사역원의 관서지를 편찬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통문관지』의 서문을 살펴봐야 한다. 유력한 한학 역관 김경문(金慶門)이 작성한 서문은 편찬목적과 과정을 잘 보여준다.¹⁴⁹ 김

¹⁴⁹ 『통문관지』 서문.

경문은 조선의 지리성을 먼저 언급했다. 중국의 요·연과, 남으로 일본과, 북으로 여진족과 경계하는 지리성은 중화가 아닌 대국 청, 섬나라 일본과 인접한 특징을 언급했다. 이때 주목되는 점은 청을 중화가 아닌 대국으로 인식하여 조선후기 대청인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조선은 기자(箕子) 이래로 신라, 고려의 역사를 가지며, 국가로 존재하기 위해 대외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대로 대외관계를 전담할 국가기관으로 고려는 통문관(通文館), 조선은 사역원을 설치하여 역관을 양성하여 대외활동을 전개하도록 했음을 강조했다. 비록 청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중화는 아니더라도 대국으로 청을 식별하고, 대청관계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사행 전담기관으로 사역원이 존재한다고 했다.¹⁵⁰

『통문관지』 편찬을 주관한 인물은 당시 사역원 제거(提舉)였던 최석정(崔錫鼎)이다. 『통문관지』 필요성을 절감한 최석정은 사역원 업무에 능통한 역관으로 하여금 고사를 수집하여 관서지를 만들도록 했다.¹⁵¹ 조선은 일반적으로 관아의 연혁, 직제, 직장, 규례, 고실(故實) 등을 집대성하여 관아 운영에 지침서로 삼았다.¹⁵² 이러한 점에서 관서지 편찬에 있어 편찬주체는 중요하다.

관서지는 해당 관아의 자발적 편찬과 왕명에 의한 편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시대 주요 관서지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확인되듯이 조선시대 관서지는 내부편찬과 왕명에 의한 편찬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왕명에 의한 편찬은 영·정조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은 대부분 내부편찬에 의해 편찬되었다.

150 이영춘, 「통문관지의 편찬과 조선후기 한중관계의 성격」, 『역사와 실학』 33, 2007; 김경록, 「조선의 <통문관지> 편찬과 대청관계」, 『진단학보』 134, 2020.

151 『度支志』, 凡例.

152 홍순민, 「조선 후기 법전 편찬의 추이와 정치운영의 변동」, 『한국문화』 21, 1998. 172~202쪽.

〈표 17〉 조선시대 주요 관서지의 편찬 현황

해당관아	표제	편찬연도	편찬자
해민서	해민지 惠局志	1719년(숙종45)	강위봉 姜渭聘
사역원	통문관지 通文館志	1720년(숙종46)	김지남 金指南 , 김경문 金慶門
		1778년(정조2)	이담 李潭
		1888년(고종25)	사역원
예조	춘관지 春官志	1744년(영조20)	이맹휴 李孟休
		1781년(정조5)	이가환 李家煥
		순조~고종	미상
봉상시	태상지 太常誌	1766년(영조42)	홍계근 洪啓謹 , 남옥 南玉 , 성대중 成大中
		1873년(고종3)	이근명 李根命
선행청	혜국지 惠局志	1778(정조2)	강위봉 姜渭聘 , 변태항 卞泰恒
규장각	규장각지 奎章閣志	1784년(정조8)	규장각
관상감	서운관지 書雲觀志	1818년(순조18)	성주해 成周德
기로소	기사지 耑社志	1849년(현종15)	홍경모 洪敬謨
성균관	대학지 太學志	1785년(정조9)	민종현 閔鍾顯
세자시강원	시강원지 侍講院志	1784년(정조8)	유의양 柳義養
한성부	경조부지 京兆府誌	현종 연간	이승경 李承敬
형조	추관지 秋官志	1791년(정조15)	박일원 朴一源
호조	탁지지 度支志	1788년(정조12)	박일원
홍문관	홍문관지 弘文館志	1744년(영조20)	최창대 崔昌大 , 이종성 李宗城
		1784년(정조8)	이노춘 李魯春
		고종 연간	왕명으로 편찬

* 출처 : 김진옥, 「조선후기 관서지에 대한 고찰 -관서지의 정의, 범주, 편찬 특징을 중심으로」, 『고전번역연구』 7, 2016, 재편집.

『통문관지』는 조선시대 관서지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에 편찬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중간되었다. 『통문관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조선후기 조청 군사관계에서 실무 외교관 역할을 수행한 역관들의 관서 사역원의 관서지이기 때문이다. 사역원은 도제조 최석정, 김창집金昌集이 등 시대별로 유력인 물이 총괄하였던 중요 기관이다. 숙종대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던 대표적인 소론 정치가였던 최석정은¹⁵³, 사역원 등 관아의 관서지 필요성을 인지하였던 인물이었다. 사역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감되었다. 인조 즉위년의 이원익李元翼으로부터 숙종 30년의 민진후閔鎭厚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사역원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무

¹⁵³ 김용흥, 「소론 정승이 장희빈을 살리려 한 이유는? : 명국 최석정의 정치 노선과 탕평론」, 『내일을 여는 역사』66, 2017.

외교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통사^{通事}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편제개편과 제도개혁을 시행하였다. 제조를 맡았던 정승들의 이러한 사역원관련 정책 및 관심은 조청 군사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격변하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한편, 1715년(숙종 41) 윤증이 사망하자 최석정이 제문을 지었다. 제문에서 송시열이 ‘복수설치의리^{復讐雪恥義理}’가 성과없다고 비판하자 탄핵을 비롯한 정치적 분쟁이 있어 결국 정계를 물러났다. 이후 최석정이 사망하자 사역원 도제조는 김창집으로 이어졌다. 최석정을 이어 사역원을 감독하였던 김창집은 김지남의 아들로 역관이었던 김경문에게 지속적으로 『통문관지』를 편찬하여 역관 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사역원을 관장하던 최석정, 김창집의 편찬 독려가 『통문관지』 편찬에 큰 힘이 되었다.¹⁵⁴

사역원의 책임자 제조로 재직했던 최석정, 김창집 등 인물들이 관료제를 혁신하고, 업무편람 성격의 전적을 구비하고자 했다.¹⁵⁵ 사역원의 경우, 대청관계의 실무를 전담한 관아로 업무수행과정에 사행의 절차문제, 외교 문서의 문제, 밀교역의 문제 등 다양한 외교문제가 대두하였다. 사역원을 관장하여 감독하는 입장에서 이들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업무절차, 규정, 사역원 역관들의 부경사행 규정 등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최석정, 김창집 등 제조들은 사역원의 역할과 성과를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사역원에 소속된 역관들의 실무측면에서 사역원의 관직과 정원은 시대가 지나면서 매우 한정되었기 때문에 체아직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에 사역원 운영을 보다 규정화함으로써 수많은 역관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규정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

154 『통문관지』 서문: 『承政院日記』 영조 2년 1월 22일.

155 김진옥, 「조선후기 관서지에 대한 고찰 -관서지의 정의, 범주, 편찬 특징을 중심으로」, 『고전번역연구』7, 2016. 196~197쪽.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 최석정을 비롯한 관료들과 사역원의 역관들은 왜 이 시기에 『통문관지』 편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는가? 인조대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조선으로 하여금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이탈하여 청 중심 국제질서로 편입되도록 강제하였으며, 삼전도의 수치와 많은 전쟁피해는 조선의 왕실과 지식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조선의 대청관계 및 대청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 조선의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진 대명의리와 대명사대를 절대적 가치로 하는 인식체계는 현실적으로 청에 대한 적대감도 있었지만, 명을 현실적 국가로 인식하면서도 보편 문명인 중화로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¹⁵⁶ 이러한 경향은 이미 조명관계에서 조선이 명을 현실국가와 문명국가로 구분하여 인식하였던 점에서 존재했으며, 병자호란 이후 더욱 부각되었던 것이다.¹⁵⁷

대명의리와 반청의식은 현종~숙종 전반기까지 현실 조청관계와 달리 조선의 지배층에게 면면하게 존재하였다. 즉,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된 이후 조선의 현실 외교정책은 실질적으로 반청의 면모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국제질서의 중심국가로 세력을 확대하는 청을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어려웠으며, 조선의 국가안위를 보장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조선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결정이었다. 이러한 측면은 가장 청에 대한 적대감이 많았던 군주 효종이 나선정벌에 적극적이었던 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⁵⁸

또한,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지배층에게 지속적으로 화두로 제기된 북벌이란 점은 정치적 담화로서 의미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실 정책으로 제시되는 군사상황은 다분히 국내 정치적 의미가 더욱 부각된다고 할 것

156 허태구, 『병자호란과 禮, 그리고 中華』, 소명출판, 2019.

157 김경록,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조명관계」, 『이태진교수정년기념논총』, 2009.

158 박지배, 「17세기 중반 러시아의 동북아진출과 '나선정벌'의 의미」, 『역사학보』 240, 2018; 김경록, 「17세기 중반 동북아 국제정세와 조선의 나선정벌」, 『열상고전연구』 65, 2018.

이다. 그나마 북벌이란 정치적 화두는 현종대를 경과하면서 점차 줄어들었으며, 1681년 삼변의 난이 진압되자 조선은 대청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즉 숙종대는 청을 대체할 조선의 선택으로 현실적인 중국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청의 강희제가 점진적으로 조선에 대한 외교적 공세를 완화하기 시작한 점도 조선의 대청관계 및 대청인식에 새로운 전환을 필요로 하였다.

숙종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은 기존에 정치-외교적 압박으로 청에 사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내부적으로 대명의리와 대명사대를 강조하였지만, 점차 현실적인 강국이자 명실상부하게 중국으로 자리잡아가는 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대청관계에 반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후에도 조선의 지식인들이 청을 대국으로 인식하면서 상국으로 받들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지만, 숙종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은 현실 외교정책과 대외인식 사이에 존재하였던 간극을 어느 정도 좁히는 경향이 존재하였다.¹⁵⁹ 대중국관계에서 조선이 필연적으로 접근해야 했던 봉전封典과 같은 외교사안에 있어 조선에게 있어 청은 명과 마찬가지로 책봉의 주체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할 대상이었다.¹⁶⁰

분명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면서 청이 제시하는 외교제도를 준수하여 사행파견 및 사신접대를 수행함으로써 조청관계를 형성했다. 물론 병자호란 이후 조명관계에서 시행되던 외교관행을 그대로 조청관계에 시행하도록 강요받음으로써 시작되었지만, 현실 조청관계와 이념적 조청관계의 간극이 점차 좁혀지고, 병자호란 이후 100여 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숙종 후반기 17세기는 조청관계에 대한 적대감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조청관계의 외교사건 및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적극적인 대응이란 조청관계에

¹⁵⁹ 김경록, 「조선시대 국제질서와 한중관계의 전개양상」, 『중국학보』60, 2009.

¹⁶⁰ 김경록, 「조선시대 封典을 위한 印章과 誥命의 역사적 의미」, 『명청사연구』 52, 2019.

서 준행되던 외교제도로 인한 외교적 사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별 외교 사건에 조선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교 실무관아의 관료와 실무 역관은 구체적인 외교제도 및 절차 그리고 전례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숙종 후반기에 『통문관지』의 편찬이 도제조와 역관에 의해 적극 시행된 점은 이를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통문관지』의 출간에 비용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역관들이 비용을 충당하고 출간하였던 점은 사역원 역관들이 출간을 더 필요로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후 국가입장에서 『통문관지』와 같은 외교제도와 절차, 전례를 정리한 관서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왕명에 의해 적극적으로 중간작업을 가지게 되었다.

사역원은 역관들의 관청으로 한학·몽학·왜학·청학의 4학이 있으며, 13개 청을 속사로 두고 관원이 모두 600여 명이었다. 규모와 역할, 역사에도 불구하고 관서지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에 참조할 문헌이 없었다. 각종 업무를 고증^{考證}할 수가 없고, 규례^{規例}가 복잡하여 사전^{史典}에 기록된 것과 제가^{諸家}의 전기^{傳記}를 채록^{採錄}하고, 편자^{筆者}들의 문견한 바를 참조하여 『통문관지』를 편찬하게 되었다.

관제^{官制}의 연혁, 규식^{規式}을 살펴, 회통^{會通}하도록 구성했으며, 전임자 가운데 공로가 있는 자를 포함시켰다. 조선시대의 관서지는 ‘건치^{建置}’라고 하여 해당 관서의 연혁을 포함하고, ‘직제^{職制}’라고 하여 소속된 관원들의 편제와 충원을 제시하고, ‘직장^{職掌}’이라 하여 임무와 역할을 포함하며, ‘원규^{院規}’라고 하여 구체적인 소속원의 업무지침이 규정되어야 하며, ‘고실^{故實}’이라 하여 역대 관련된 고사와 사례가 존재해야 관서지의 요건을 갖추었다.¹⁶¹ 『통문관지』를 비롯한 조선시대 관서지는 해당 관아의 활동 및 해당 시기의 정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통문관

¹⁶¹ 김진옥, 「조선후기 관서지에 대한 고찰 -관서지의 정의, 범주, 편찬 특징을 중심으로」, 『고전번역연구』 7, 2016. 177~178쪽.

지』의 간행시기별 구분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8〉 조선후기 『통문관지』 출판 및 소장현황

간사년	편찬	판종	책수
1720년(숙종 46)	김지남, 김경문	활자본	8권3책
1778년(정조 2)	이담	목판본	10권4책
1888년(고종 25)	미상	목판본	12권6책

『통문관지』는 1720년(숙종 46)에 초판이 간행된 이후 1778년(정조 2) 중간되었다. 이때 중간본은 초판본에 비하여 8권3책에서 10권4책으로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기년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늘어난 점은 인정되지만, 연혁과 권장을 분리한 점이 주목된다.

또한, 『통문관지』의 구성과 내용항목은 그 편제도 중요하지만, 구성의 편명 내지 권 제목도 중요하다. 조선은 대명(大命)에 입각한 부정적인 대청인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통문관지』를 편찬하는 시점에는 조청관계를 ‘사대(事大)’로, 조일관계를 ‘교린(交隣)’으로 편명을 명시하는 인식을 보였다. 관서지에 조선의 대청관계를 사대로 명시함으로써 외교제도와 절차 전반에 걸쳐 변화된 외교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구체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조선후기 『통문관지』는 외교현안에 대한 기록물로 전례를 살펴볼 수 있는 지침서였다. 일례로 1737년(영조 13), 일본 관백(關伯)이 사신을 보내 손자를 얻었음을 아뢰자 영조가 접대여부를 논의하게 했다. 이에 영의정 이광좌가 『통문관지』를 참고하여 시행할 것을 아뢰었다.

“조선에 문헌이 부족하여 널리 상고할 수 없으나, 『통문관지』로 상고해 보니 왜국이 경사를 아뢰는 경우는 관백이 아들을 낳거나 후계자를 세울 때만 하였다고 합니다.”¹⁶²

162 『영조실록』 권46, 영조 13년 10월 4일(무자).

이광좌는 인조대 사례를 들어 관백의 손자연음을 아뢴 전례가 없어 접대하지 말 것과 이를 제어하지 못한 동래부의 훈도^{訓導}·별차^{別差}를 나문^{拿問}하고 동래부사를 추고할 것을 주장했다. 영조는 교린의 도리로 접대하도록 했다. 이광좌의 태도와 영조의 처분과 상관없이 당시 조선의 대외관계에 『통문관지』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사한 사례로 1748년(영조 24)에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통신사의 출발을 세 갈래로 나누어 보낼 것을 『통문관지』를 근거로 주장하기도 했다.¹⁶³

조선은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매년 청으로부터 역법^{曆法}을 받아와야 하는데, 명대와 달리 청대에 대청사행이 동지사행으로 일원화되자 역법을 수령하는 정원이 문제가 되었다. 1720년(숙종 46) 이전에 절행이 경사에 갈 때는 대청사행의 역관 명목은 당상관, 당하관을 합쳐 모두 20명이 정원이었다. 이때 역관은 사역원 소속의 역관뿐만 아니라 역관의 정원을 화원, 천문학과 등 조선에서 사행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충족했다. 그런데, 대청관계가 중요하게 정착되면서 청학과 몽학을 하는 역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민^{聰敏} 및 역과에 3등으로 급제한 역관을 특별히 선발하여 정해진 숫자 이외에 5~6명을 더 보냈다. 문제는 청학과 몽학을 위해 대청사행에 5~6명을 보내다보니 20명 역관 정원 가운데 다른 정원을 동일한 숫자만큼 줄여 보내야 했다. 문제는 청에서 역법을 자주 바꾸자 이를 수령하기 위한 천문학을 담당하여 역법을 수령하는 역관을 파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었다. 1763년(영조 39) 영의정 신만^{申晩}이 이런 어려움을 거론하며 수시로 바뀌는 역법을 수령하기 위해 천문학과 화원을 함께 1년을 사이하여 차송할 것을 건의하자 영조는 3년에 한번 차송하도록 결정했다.¹⁶⁴ 이러한 조청관계에서 사행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조선은 전례를 근거로 해결책을 마련했다.

¹⁶³ 『영조실록』 권67, 영조 24년 6월 20일(계유)

¹⁶⁴ 『영조실록』 권102, 영조 39년 6월 19일(을사).

즉, 조선은 이처럼 대청사행에서 역관 정원으로 수행하던 다양한 사행 업무를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역관 몫으로 배정된 정원에서 청학 등을 배양하면서도 역법을 수령하는 천문학을 파견하기도 해야 했다.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은 한정된 사행의 정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정하여 대청관계와 사행목적 달성을 함께 성취하고자 했다.

영조의 대청인식에서 조선의 역사를 왜곡한 서적을 조선사행이 구매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자를 대대적으로 처벌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 역관으로 관련자가 많아 대청관계의 실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영조는 『통문관지』를 침전에 들여오도록 하여 읽고 대대적인 사면을 시행했다. 이처럼 『통문관지』는 역관의 역할과 활동을 알려주는 역할도 수행했다.¹⁶⁵

조선시대 사역원의 역관이 대중국, 대일본 관계에서 경험한 실무적인 업무를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외교의 실질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역관들이 경험한 사실을 매우 조심스럽게 기록하였다는 평가도 있다. 외교사건의 정치적 배경과 구체적인 외교행위가 가지는 정치적, 법적 의미를 면밀하게 기술하지는 못하였다는 평가이다.¹⁶⁶

『통문관지』는 숙종대의 시대분위기에서 편찬되었으며, 외교담당 사역원 차원에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외교정책을 반영하기 보다는 외교제도와 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었다. 『통문관지』에 반영된 외교현안은 연대기별로 정리되어 기재되었는데, 이를 현안별로 정리하면 정조대 편찬된 『동문회고』가 된다. 물론 연도별로 내용을 요점 중심으로 정리한 『통문관지』와 달리 『동문회고』는 외교현안별 외교문서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간략함과 번잡함의 차이점이 있지만, 실제 외교현안은 동일하다.

¹⁶⁵ 『영조실록』 권116, 영조 47년 6월 27일(병신).

¹⁶⁶ 이성덕, 「『통문관지』에 나타난 조선과 청간의 대외관계(1636-1888) -근대 국제법적 시각에서-, 『중앙법학』 15-3, 2013, 266쪽.

조선후기 조청간 군사관계에서 『통문관지』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통문관지』를 통해 보는 조선의 대청인식은 편찬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문관지』는 조선의 대청관계가 인식과 정책이 완전하게 접합점을 가지는 시점에 편찬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이탈하여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하여 기존 명과의 외교제도 및 절차를 규범으로 청과 외교관계를 가졌다.

1683년(숙종 9, 강희 22), 청은 삼번의 난을 진압하고 대만을 복속시켜 통일을 종결하고 조선에 청 중심 국제질서의 완성을 과시했다. 이는 무엇보다 기존의 대조선정책에서 강압적인 성격을 완화한 점에서 확인되며, 건륭 연간에 이르기까지 청은 외환^{外患}을 제거하고 청 중심 국제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즉, 청은 국제질서에 방해되는 세력을 제거하여 현실적인 청 세력권을 보호하는 한편,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황제국으로서 지위와 위엄을 과시함으로써 국제질서의 중심으로 존재하고자 하였다.¹⁶⁷

점진적으로 대조선정책을 온건화시킨 청은 대조선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의 요소가 되는 요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 당시 만주지역은 후금 이후 잦은 전쟁과 청의 입관으로 대규모 인구가 유출되어 공백지였다. 이에 ‘용흥지지^{龍興之地}’를 내세워 봉금^{封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월경, 채삼 등의 외교사건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대응하였으며, 유랑민의 유입을 엄금했다.¹⁶⁸ 청의 봉금정책은 몽골의 남하를 저지할 목적에서 기인했지만,¹⁶⁹ 조선인의 범월문제와 연관되어 수시로 조청간에 외교사건으로 비화되었다. 공백지에 청의 인구를 정착시키고자 대대적 개간을 시행하여 1653년 ‘요동초민심향수관조례^{遼東招民尋荒授官條例}’를 반포하였으며,¹⁷⁰ 심양^{瀋陽}을 성경^{盛京}으로 격상하고 팔기주방^{八旗駐防}을 강화하여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

167 楊岩, 『清代前期外交研究』, 遼寧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2, 4쪽.

168 劉智文, 「清代東北封禁政策芻議」, 『學習與探索』 2003-6, 133쪽.

169 黃松筠, 「論清代東北封禁與流人文化」, 『中國邊疆史地研究』 12-4, 2002, 99~101쪽.

170 『盛京通志』 권23, 戶口.

하고자 했다.¹⁷¹ 이러한 청의 정책은 조청간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조선은 이의 주요한 사례 및 전례를 수집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비록 간략하지만, 이와 관련한 상당한 내용이 『통문관지』에 수록되어 있다.

범월과 같은 문제는 국경문제로 조명관계에서는 철령위 설치문제 등 몇몇 사건을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로 조청관계에서는 매우 빈번하고도 중요하게 제기된 외교사건이었다.¹⁷² 『통문관지』에 범월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기년에 많은 사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통문관지』의 편명으로 대청관계를 사대로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외교사건에 있어서는 청 중심 국제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조선의 입장에서 불명확한 국경을 근거로 전례를 들어가며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서술했다.

범월을 포함한 국경문제는 『통문관지』의 인물편에 역관 김지남의 활약상으로 기재함으로써 조청관계에서 처음으로 국경획정의 과정을 밝혀두었다.¹⁷³ 범월의 기준이 되는 조청간의 국경은 “대저 두 강으로 경계 삼는 것은 예전부터 이미 정하여졌고, 두 강의 근원은 백두산 꼭대기의 호수에서 나오는데, 호수의 북쪽은 중국 지경이고 그 남쪽은 우리 땅이다.”라고 하여 김지남과 목극등의 백두산 정계비 설정과정을 설명했다. 인물조항의 설명보다 구체적으로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1712년(숙종 38) 황제의 명을 수행하는 목극등의 일방적인 조사 및 국경획정과정은 기년편에 상세히 서술되었다. 즉, 청의 입장을 파악하지 못한 조선은 목극등의 주도에 의해 정계비가 세워지고,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계역도(界域圖) 2본 가운데 한 부를 전달받았다.¹⁷⁴ 이는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청간 국경문제가 청의 일방

171 杜家驥, 「清改瀋陽爲盛京考述」, 『滿族研究』 1997-4, 36쪽.

172 김경록, 「조선의 대청관계 인식과 외교체계 -조선 후기 외교문서의 정리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37, 2008, 163~169쪽.

173 『통문관지』 권7, 인물.

174 『통문관지』 권9, 기년, 숙종 38년 임진.

적인 입장관철로 이루어졌음을 기재한 것으로 치열하였던 조청간 국경문제를 보여준다. 이러한 국경문제는 고종 연간에 청에 의해 주도된 토문강 유역 황무지 개간과정에서도 분란으로 발생했다.¹⁷⁵ 숙종대 시작된 국경문제는 1885년(고종 22)에 감계담판으로 이어졌으며,¹⁷⁶ 1886년(고종 23)에 변경획정의 외교문서가 조청간에 교환되었다.¹⁷⁷ 조선은 숙종대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는 시점에는 청 중심 국제질서를 현실적으로 인정하여 청의 주도를 묵인하였지만, 고종 연간에 발생한 국경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경획정에 조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국경을 접한 조청간의 이러한 경향성으로 단순히 경계를 넘는 월경^{越境} 행위로 인식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범법의 의미가 강화된 범월^{犯越}로 점차 인식되게 되었다.¹⁷⁸ 월경인은 범법자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이를 조선에 인계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초기부터 조선과 중국 사이에는 명확한 국경선의 개념이 미약하고, 국가간에는 일정한 무인지대가 묵시적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월경이나 범월의 개념마저 미약하였다.¹⁷⁹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청간의 국경지역 개발과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경을 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다. 특히, 양국간에 채삼^{採參}과 경제적이해관계가 고조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시행되었는데, 양국간의 제재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조선은 조선인의 청 지역으로 범월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반면에 청은 보다 철저히 청국인의 조선지역으로 범월과 조선인의 범월을 제재하였다. 『통문관지』 역시 지속적인 조선인의 범월사례를 제시하고, 청의 강력한 요구에 비하여 조선의 적극적인 제재노력은 시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청에서 봉금지대를 개발하거나 책문과 압

¹⁷⁵ 『통문관지』 권11, 기년속, 고종 18년 신사.

¹⁷⁶ 『통문관지』 권12, 기년속, 고종 22년 을유.

¹⁷⁷ 『통문관지』 권12, 기년속, 고종 23년 병술.

¹⁷⁸ 정혜중, 「청대 조선인과 청국인 범월의 특징」, 『명청사연구』 26, 2006, 73~79쪽.

¹⁷⁹ 김혜자, 「조선후기 북변월경문제 연구」, 『이대사원』 18·19, 1982, 58~59쪽.

록강 사이를 경작하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저지하였다.¹⁸⁰

이 과정에서 조선은 점차 월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법률적인 범월로 인식하여 이를 조선인과 중국인의 사례를 세분하고, 기존에 미약하였던 국경개념을 강화하여 강계의 관점에서 조청관계를 인식하였다. 조청관계에서 강계 문제는 현종말엽부터 존재하며, 내용에 있어 범월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조선이 인식한 조청간의 강계는 채삼을 중심으로 한 범월이 빈번하였던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범월에 대한 적극적 제재를 강조하던 청의 요구로 백두산 정계가 실시되기에 이른다. 『통문관지』에 토문강, 백두산(백산), 망우초(莽牛哨) 등은 모두 범월의 주 대상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선이 범월과 강계를 밀접하게 연관시켜 인식하고, 청을 현실적인 국경의 관점에서 외교적 충돌과 교섭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던 반증일 것이다.

국경문제 이외에 피로인 쇄환에 관한 내용이 병자호란 이후 당분간 지속되었으며, 이를 『통문관지』에 상세히 기재했다. 물론 피로인 쇄환문제는 병자호란 이후 일정시기에 존재하였던 외교사건이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서술되어 있다.¹⁸¹ 반면에 범금(犯禁)에 대한 내용은 수시로 조청간에 발생하였으며, 조선은 적극적으로 청에 어로행위의 단속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¹⁸² 범금과 관련되어 범월자에 대한 처리를 조선과 청은 상호간에 철저하게 요구하는 양상을 보였다.¹⁸³ 범월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간에 통순회소(統巡會哨)하여 월경자를 체포하기도 했다.¹⁸⁴

월경자와 달리 표류자에 대해서 조선은 조명관계와 동일하게 조청관계에서 시종일관하게 표류자를 송환하는 외교입장을 취했다.¹⁸⁵ 또한, 일본

¹⁸⁰ 강석화, 「1712년의 조청 정계와 18세기 조선의 북방경략」, 『진단학보』 79, 1995. 153쪽.

¹⁸¹ 『통문관지』 권9, 기년, 인조 16년 무인.

¹⁸² 『통문관지』 권9, 기년, 숙종 38년 임진.

¹⁸³ 『통문관지』 권11, 기년속, 고종 13년 병인.

¹⁸⁴ 『통문관지』 권11, 기년속, 현종 13년 정미.

¹⁸⁵ 『통문관지』 권10, 기년속, 영종 39년 계미.

의 정세 및 교류에 대해서는 청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였다.¹⁸⁶ 조선은 조청 관계 초기에는 청의 정세 통보를 정치외교적으로 활용하여 조청관계를 개선하고 조선의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청의 관점으로 실패하기도 했다.¹⁸⁷ 이처럼 『통문관지』의 기년 및 기년속에 기재된 다양한 외교사건은 조선의 대청관계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 외교환경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반영한다. 인조대부터 숙종대까지는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청의 주도적인 관계형성으로 진행되었던 반면에 이후 고종 전반기까지는 외교사안별로 적극적으로 조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한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고종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청 중심 국제질서가 서구열강의 진출로 인하여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여 조선도 청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조선의 요구를 주장하였다.

숙종초반 이후 조청관계는 보다 경제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국가차원에서 중요하였던 것은 공식적인 세폐^{歲幣}와 국경무역이었다. 먼저 세폐의 경우는 조공국 조선에서 천자국 청에 전달하는 것으로 황제, 황후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물과는 차이가 있었다. 조청 관계에서 세폐는 병자호란 이후 전쟁배상금의 성격으로 과중하게 조선에 부과되었다. 세폐는 인조 15년에 정해진 이후 영조 4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내지 면제되었지만, 일부는 다른 물품으로 대체되거나 감소되지 않고 남았다. 조선은 세폐관련 외교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경제여건과 관련되어 민심의 향배를 결정짓고 통치의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은 적극적으로 과다한 세폐의 부당성을 제기함으로써 세폐를 절감하고자 하였다.

방물과 세폐에 관련한 외교문제를 조선은 절사^{節使}, 견폐^{謁弊}, 청구^{請求}, 석재^{錫賫} 등의 외교사안으로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¹⁸⁶ 『통문관지』 권9, 기년, 인조 21년 계미.

¹⁸⁷ 김경록, 「17세기 조청관계와 “왜정”의 군사·외교적 활용」, 『군사』 94, 2015.

시행하고자 했다. 종합적으로 병자호란 직후에서 현종대까지 점진적으로 완화된 것이지만, 청의 대조선 강압적인 외교정책은 숙종 연간에 더욱 완화된 것이다.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면서 국내의 반청의식에도 불구하고 현실 외교관계에서 반청적인 측면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삼변의 난이 실패하고, 강국으로서 청의 위상이 확인되면서 조청관계에서 발생하는 벌은, 범월, 강계 등의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문관지』의 편찬이 필요하였다. 세세한 대청관계 및 대청사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조선이 외교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청을 대외관계의 대상으로 『통문관지』 편찬은 조선의 대청관계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사례가 1882년(고종 19)에 조청간에 체결된 상민수륙무역장정이었다.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과 청이 무역장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계서적인 측면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조선과 청은 그 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사무역을 허용하여 사행무역, 국경무역의 틀을 해체했다. 조선은 서구열강과의 교역도 사무역으로 인식하여 금지하였으며, 이는 조선의 대서구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가 교역을 요구하면 조선은 청을 제외한 나라와 사사로이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교역을 거부했다.

조선은 대청관계의 변화에 집중했다. 조선은 대명관계 및 대청관계에 큰 차이점을 두었다. 조선은 명을 중화의 계승자로 인식하여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명의 권위에서 조선의 통치권위를 찾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현실에 있어 명 황제의 정치적 무관심 및 무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명 관원들의 탐학에 대해 강도있게 비판했다. 이와 달리, 조선은 청 중심 국제질서에 강압적으로 편입되면서 대명관계에 준하는 대청관계를 강요받았다. 조선은 현실적으로 대청관계에서 외교정책으로 청에 반발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외교제도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조청관계

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반면에 국내의 지배층과 지식층은 대명의 리론과 반청의식에 입각하여 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현실 조청관계에서 청의 대조선정책 변화에 호응하고, 조청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외교사건에 보다 긴밀하게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런 경향은 숙종대를 전후하여 조청관계의 실상을 보여주는 “고사^{故事}”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숙종 이전에는 청의 강압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에 이후에는 조청간에 다양하게 발생하는 외교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시대 종합 외교문서집인 『동문회고』와의 연관성에 주목해야 한다. 조선후기 대청관계와 조선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핵심분야였기 때문에 조선은 원만한 대청관계의 전개를 위해 국가의 역량을 집중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숙종대 사역원의 차원에서 편찬된 것이 『통문관지』라는 관서지였으며, 정조대 종합 외교문서집으로 왕명으로 편찬된 것이 『동문회고』였다. 『통문관지』와 『동문회고』는 그 구성체계와 내용의 차이에 따라 『통문관지』는 전형적인 관서지로 필요 사항을 편찬한 것인데 비하여 『동문회고』는 조선과 청 사이에 행이^{行移}된 외교문서를 등록형식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이 두 문헌은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반면에 조선의 대청관계 전개에 따라 지속적인 속찬, 중간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¹⁸⁸

1799(정조 23)에 정조는 청 사신이 늦게 조선에 오자 사행문서인 지패^{紙牌}, 목패^{木牌}의 사례를 상고하여 『동문회고』와 『통문관지』에서 추려 한 질의 책을 고검하기 편하게 하여 대응하도록 했다. 정조는 대청관계의 사행문제가 발생하자 『통문관지』는 년차로 엮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지 않아 상고하기에 어렵고, 『동문회고』는 외교문서를 방대하게 수집·정리하였기 때문에 번잡하여 상고하기에 어렵다고 인식했다. 『통문관지』는 너무 간략하고, 『동문회고』는 너무 번잡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대청 외교사건에 적당하지 않았던 단점이 있었다. 이에 『동문회고』와 『통문관지』를 장점만을

¹⁸⁸ 김경록, 「조선후기 동문회고의 편찬과정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2, 2005.

모아 새로운 책자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사대고례^{事大考例}』의 편찬으로 나타났다.¹⁸⁹

『통문관지』를 통한 대청관계 인식은 『통문관지』 편찬 이후 속찬 내지 중간의 시기별 대외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통문관지』의 편찬 및 중간은 조선의 대청관계 및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병자호란 이후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면서 조명관계에 준하는 외교제도와 절차를 준행하였던 조청관계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절대 강국으로 청을 무시하고 외교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조선은 내부적으로 대명의리에 입각한 반청의식이 존재하였지만, 현실 외교에 있어 대청관계를 사대로 하는 관계를 맺었다. 병자호란 이후 100여 년이 경과하면서 삼변의 난을 진압하고 황제국으로 위상을 정립한 청이 대조선 정책에서 유화적인 변모를 보이면서 조청관계는 형식의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외교사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조선은 외교제도와 절차를 준행하며 외교적 요구를 관철시킬 필요성에서 1720년(숙종46) 『통문관지』를 편찬하였다. 물론 외교관아의 필요성이 더욱 있었기 때문에 사역원 도제조의 기획과 추진, 실무역관의 편찬실무에 의해 편찬되었다.

영·정조대 관서지 편찬의 분위기는 지속되어 『통문관지』도 1778년(정조 2) 중간되었으며, 구성과 내용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숙종대와 달리 이미 조청관계를 조선의 대중국관계로 인식하는 분위기에서 중간된 것이다. 또한 정조대 대청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 외교문서집인 『동문휘고』를 편찬하였던 필요성도 『통문관지』의 중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¹⁹⁰ 정조대 편찬된 『동문휘고』는 원편 편찬 이후 지속적으로 속편을 편찬하여 이후 행이되는 각종 외교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통문관지』 역시 기년을 증보하는 과정을 수시로 진행하였다. 조

189 『與猶堂全書』文集15, 敍, 事大考例題敍.

190 김경록, 「조선후기 동문휘고의 편찬과정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2, 2005.

선이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이탈하여 개항 이후 서구열강과 일본에 대응하여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외교활동을 전개하면서 『동문회고』의 속편 편찬작업을 종료했는데, 이 시점이 『통문관지』의 마지막 중간시점과 유사하다. 이는 조선이 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에서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로 전환되는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시행한 외교문서집 및 사역원 관서지의 편찬 종료였던 것이다. 『동문회고』는 1882년에 최종 속찬된 것으로 보이며, 『통문관지』는 1888년(고종25)에 마지막으로 중간되었다. 『동문회고』에 비하여 『통문관지』가 늦게 종료된 것은 『통문관지』가 외교문서집이 아닌 외교사건을 기념형식으로 중간하였기 때문에 1882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외교사건을 기록하였던 이유이다.

병자호란으로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된 조선은 현실 외교제도 및 절차에 있어 조명관계에 준하는 사대정책을 시행했다. 외교적인 측면과 달리 조선 후기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대명의리에 입각한 반청의식이 존재하여 현실 외교와 이념적 대청인식이 괴리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삼변의 난을 진압하고 명실공히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한 청은 황제국으로서 조선에 대한 강압적 정책을 점진적으로 유화적으로 변화시켰다.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100여 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전히 반청의식을 가졌지만, 현실적으로 절대 강국으로 군림하는 청과 구체적인 외교사건이 다양하게 발생하자 보다 능동적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

조선시대 국제질서는 엄격한 계서적인 측면이 존재했으며, 이는 단순히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에 기인한 것은 아니며, 예적 질서에 바탕하여 황제국과 주변국의 상호관련성이 있었다. 조청관계의 예적 측면은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예제禮制를 바탕으로 한 외교제도와 절차에 있었다. 예제를 바탕으로 제정된 외교제도와 절차를 준행하는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기타 외교사건과 달리 조선과 청의 외교관계에 큰 문제였다. 조선은 사행과 사신접대라는 외교방식에서 예제에 기반한 외교제도와 절차를 준행함

으로써 수시로 발생하는 조선의 외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에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조선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행과 사신접대를 전담하여 외교제도와 절차를 시행하였던 사역원의 관서지가 부재하여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에 숙종 후반기에 편찬된 관서지가 『통문관지』이며, 이후 정조대를 경과하며 중간을 거둬하였다가 고종 후반기에 새로운 국제질서에 직면하여 중간을 종료했다.

조선후기 대청 사신접대의 의미와 임시 군사외교기관 영접도감^{迎接都監}

조선후기 조청관계에서 외교형태는 대청사행과 청사접대였다.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대외활동은 사대와 자소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자국의 입장을 상대국가에 전달하고, 외교적 이익을 추구하였던 성격은 다양한 대외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신접대는 사신의 과도한 물품청구로 인하여 조선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교대상이 직접 조선에 출래하여 외교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청사접대와 대청사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확하게 청사접대가 적게 소요된다.

청사접대는 청사가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조선은 먼저 영접도감을 설치한다. 도감은 임시기구로 특정 사안에 대한 업무완료와 함께 그 기록을 정리하여 의궤로 남겨 놓았다. 의궤^{儀軌}란 왕실이나 국가에 특정 사안의 행사가 있을 때 뒤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일의 전말, 소요경비, 참가인원, 의식절차, 행사 후의 논상^{論賞} 등을 기록한 것이다.¹⁹¹

이에 본 절에서는 조선후기 군사외교를 포함한 조청관계의 청사접대를 살펴본다. 대청사행은 조선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며, 정치·군사·경제·문화적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

¹⁹¹ 『규장각소장 의궤종합목록』 2002 규장각.

용하였다.

대청사행은 정기적인 절행^{節行}과 특별한 외교적 사안이 있을 때 파견하는 별행^{別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 북경까지 가지 않고, 심양의 성경^{盛京}까지 가는 요동사행이 있다.¹⁹² 대청사행은 그 구성과 빈도수에 있어 청사접대에 비하여 많다.¹⁹³

조선후기 대청사행은 사행의 목적에 따라 동지사, 정조사, 성절사, 천추사, 사은사, 주청사, 진하사, 진위사, 진향사, 변무사, 문안사, 참핵사, 진현사, 관압사, 고부사, 하대행황제존시사, 흠문기거사, 고부청시사, 청승습사, 재자관, 재진관, 주문사, 진주사, 절일사, 진표사, 진전사 등이 확인된다.¹⁹⁴ 이 가운데 절행^{節行}에 해당되는 동지, 정조, 성절, 천추사를 제외하면 조선의 외교적 목적성이 강한 사행들이다.

출래하는 청사는 목적에 따라 사행명이 정해지고, 사행명은 주로 사신이 지니고 오는 문서의 종류에 의해 구분된다. 황제의 명의로 발행되는 문서는 제^制, 조^詔, 고^誥, 칙^勅 등이 있다. 제^制는 만조백관^{滿朝百官}을 대상으로 선시^{宣示}하는 것으로 일정한 문서형식이 없이 통칭 제사^{制詞}라 한다. 조^詔는 천하에 포고하는 것으로 대부분 황제가 사망하거나^{遺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 경우, 또는 황제가 친정^{親政}하며 다스림의 대강^{大綱}과 강령^{綱領}을 밝힌 문서이다. 조는 황후나 귀비 등을 책립하거나 존호를 올리는 경우에도 사용된다^{頒詔}. 고^誥는 오품이상 관원에게 작위를 내려주거나 임명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고의 일반적인 문서형식이 고명^{誥命}이다. 칙^勅은 칙유^{勅諭}, 칙명^{勅命}, 칙서^{勅書}로 구분되는데 황제가 특정한 문제에 대해 특정 지역의 인민에게 내려주는 유시^{諭示}를 칙유^{勅諭}라 하고, 육품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사용되는 문서가 칙명^{勅命}이며, 중요 관원의 직책, 권한, 규정 등을 밝힌 것

¹⁹² 요동사행에 관련해서는 김경록, 위 논문 참조.

¹⁹³ 전해중, 「조공관계연구」, 『한중관계사 연구』, 일조각, 1970.

¹⁹⁴ 『同文彙考』(奎 880).

을 칙서(勅書)라고 한다.¹⁹⁵ 청사는 어느 문서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사행명을 불러야 하지만, 대체적으로 명대에는 천사(天使), 명사(明使) 등으로 불린 반면에 청대에는 칙사(勅使), 淸使(淸사) 등으로 호칭하였다. 조사나, 칙사나, 자문만을 가지고 오는 사신이냐에 따라 조선의 접대과정에 차이가 있었다.

조선후기 청사출래를 살펴보면 1636년부터 1880년까지 245년 동안 총 169회였다. 『동문회고』 조칙록(詔勅錄)을 근거로 산출한 수치에서 숙종대 이후 청사출래의 빈도가 급속하게 낮아지고, 영조 후반기에는 청사출래가 아주 드물게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사출래의 감소는 순부(順付)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청대의 사신출래 감소경향은 강희제의 통치기 반 확립과정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며, 조선에 대한 세폐의 견감 경향성과도 일치한다. 청의 입장에서는 조선에 대한 의례적인 조공체제의 확립이 일차적인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남명정권이 존재하였던 시기에는 조선의 대명사대를 경계하면서 조선을 압박하였지만, 통치기반이 확립되면서 강희 연간 이후 대조선관계에서 의례적인 관계의 정립으로 나타났다.

〈표 19〉 조선 후기 청의 대조선사행

시기	청사출래	순부	합계
1636~1644	18	22	40
1645~1661	37	3	40
1662~1692	39	0	39
1693~1722	15	0	15
1723~1735	15	0	15
1736~1765	14	2	16
1766~1795	4	2	6
1796~1820	8	7	15
1821~1850	10	18	28
1851~1874	5	17	22
1875~1880	4	7	11
합계	169	78	247

* 전해중, 「청대 한중조공관계고」, 『한중관계사 연구』, 일조각, 1970, 75쪽 재편집

¹⁹⁵ 張我德, 楊若荷, 裴燕生 編著, 『清代文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6, 1~3쪽.

대청사행과 청사접대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면 첫째, 대청사행은 외교사안의 시작을 의미한다. 군사문제를 포함한 외교사건이 발생하면 조선은 통상적인 절행까지 외교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겸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겸행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청사, 변무사, 주문사 등 다양한 명목의 사행을 파견하였다. 이에 비하여 청사접대는 외교사안의 해결을 의미한다. 의례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왕세자의 책봉을 명으로부터 받지 못하던 광해군 입장에서는 정치사적 의미가 있다.¹⁹⁶ 대체적으로 대청사행은 외교사안의 발생으로 인한 외교적 활동의 시작이며, 청사접대는 그 동안 외교적 활동의 성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대청사행은 한 가지 사안의 시작단계에서 진행단계에 해당한다면, 청사접대는 해당 사안의 해결과 함께 조선의 입장에서는 부수사안의 추가해결을 의도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인조대 청이 입관하면서 군량이 부족하자 조선에 군량 20만석을 요구했다. 이때 조선은 조제(弔祭)사신으로 와 있던 공부상서 흥능(興能), 섭정왕일등근시(攝政王一等近侍) 석대리(石大理), 계심랑(啓心郎) 오흑(郇黑), 정명수(鄭命壽)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군사외교 교섭을 펼쳐 군량 10만석으로 견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¹⁹⁷ 조선에서 청사접대를 통한 외교활동은 이들이 청에 돌아간 뒤 조선의 입장을 관철하여 3만 6천 석만 청에 운반하고, 운송과정의 고역 등을 이유로 잔여분의 운송을 면제받기도 했다.¹⁹⁸ 당시 인조 23년에 조선에 출래한 청의 사신들은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한 조제(弔祭)를 목적으로 한 사신으로 군량과 관련없었다. 그러나 조선은 이전에 황제의 명령으로 전달된 군량운송은 당면과제였다. 이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은 운송과정의 고충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군량운송의 감면과 면제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조선에 출래하는 사신은 청 중앙정계에서 일정한 권력층에 속하는 인물이 대부분이었다. 환관정치 특징이 있었던 명대에 사례감(司禮監) 태

¹⁹⁶ 『영접도감도청의궤』(奎 14545).

¹⁹⁷ 『동문회고』 원편, 청구, 請求因勅使傳諭更輸米糧咨.

¹⁹⁸ 『동문회고』 원편, 청구, 請免補運咨.

감^{太監}의 직책을 지냈던 인물이 조선에 출래한다는 것은 황제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라고 파악할 수 있으며, 청대의 팔기중심으로 파견되었던 사신의 경우도 권력의 핵심인물이었다. 인조 23년의 청사처럼 육부의 상서와 낭중 등 정계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조선에 출래하였다. 이들에 대한 대접을 통하여 조선의 사정을 설득하여 외교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청사접대였다.

넷째, 대청사행은 조선의 입장을 전달하기엔 제도적인 한계가 많았다. 명의 제도를 계승한 청대의 행정체제도 내각제도를 모방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옹정제 이후 군기처의 설치는 황제권력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였다. 조선은 많은 한계를 극복하고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의 복잡한 단계의 행정체계를 통과하여 조선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비하여 청사접대는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 조선의 입장과 요구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외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청사행은 청사접대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물론 중국사신의 접대과정에서 과도한 물품이나 은을 요구하여 조선의 경제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성이 존재하였지만¹⁹⁹, 이후 점차 줄어들었다. 정조 즉위년부터 순조 연간까지 칙사에게 제공되었던 은화와 돈을 정리하면 최대 도절가로 10만냥을 넘어서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록』자료에 수시로 보이는 칙사의 인정비 수납금지 내용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 중국관계에서 명사^{明使}와 청사^{淸使}의 접대에 요구되는 물품은 청사의 경우가 많이 적었다. 명사가 개인적으로 물품을 청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명청교체기 명사가 요구한 은은 대체적으로 10만냥을 상회하였다. 이를 도절가로 환산하면 대략 3~4배로 계산되니 대략 30~40만냥에 이른다. 이에 비하여 청사접대 비용은 청의 통치체제가 안정되며

¹⁹⁹ 한명기, 「17세기초 銀의 유통과 그 영향」, 『규장각』 15, 1992.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등이 청사의 물품요구를 금지하는 조치 때문에 공식적인 비용이외에 별다른 비용이 없었다.²⁰⁰

또한, 사신의 출신성분을 살펴보면, 명대 사신이 내각이나 행정관료가 오기보다 환관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청사는 대부분 내각과 행정관료였다.²⁰¹ 청의 대중국 지배체제가 확립되기 전에 많은 세폐(歲幣)를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사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공체제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다.

대청사행과 청사접대의 경제적 비교는 사행시 소요되는 비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청사행시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진헌물품비, 각종 인정비, 노정비, 물품구입비 등이다. 진헌물품은 황세저포(黃細苧布), 백세저포(白細苧布), 흑마포(黑麻布), 황세면주(黃細綿紬), 백세면주(白細綿紬) 등 포목류와 용문염석(龍紋簾席), 황화석(黃花席), 만화석(滿花席), 만화방석(滿花方席), 잡채화석(雜彩花席) 등 화석류, 표피(豹皮) 등 가죽류, 백면지(白綿紙) 등 종이류, 인삼, 잡색마 등으로 종류와 수량에 있어 매우 다양하다.

이중 진헌물품은 다시 세폐와 사행별 진헌방물로 구분되는데, 1637년(인조 15) 처음 정해진 세폐의 경우는 인조 연간에 대폭적인 감면이 있었으며, 사행별 진헌방물의 경우도 숙종 연간에 크게 감하되어 부담이 감소되었다. 반면에 각종 인정비와 노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노정비용의 경우는 압록강을 넘어가면 청에서 부담하였지만, 그 수량이 부족하여 조선사신이 부족분을 부담하였다.

명대와 동일하게 청대에 사행과정에 청 관료들이 조선사신에게 요구하는 각종 인정비는 사신의 가장 큰 부담으로 『실록』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²⁰² 이러한 인정비는 관(關)을 통과할 때 지불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사

200 최소자, 「청조의 대조선정책 -강희연간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5, 명청사학회, 1996.

201 『동문회고』 보편, 詔勅錄.

202 『숙종실록』 권13, 숙종 8년 11월 24일(정묘).

행과정에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각종 문서의 작성 및 제출과정에 소용되는 것이 많았다. 일례로 숙종 29년 주청사로 부정하였던 임양군^{臨陽君} 이환^{李桓}, 부사 이돈^{李墩}, 서장관 황일하^{黃一夏} 등이 숙종에게 보고한 내용에서 확인된다.²⁰³

각종 문서의 작성 및 제출에 다양한 인정비 즉 뇌물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환 등은 숙종에게 뜻밖에 역경을 만나 뇌물을 많이 허비하고 일을 마치게 된 사실을 보고했다. 사행비용이 많이 소요되자 조선은 예단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예단을 준비하였다. 조선에서 책정한 인정비^{禮單}의 지분은 책문^{柵門}-봉황성^{鳳凰城}-요동^{遼東}-심양^{瀋陽}-광녕^{廣寧}-錦州衛-산해관^{山海關} 등의 사행로 전반에 존재했으며, 예부낭중^{禮部郎中}-필첩식^{筆貼式}-외랑^{外郎}-청·한족장군^{淸·漢人將軍}-장경^{章京}-호행장^{護行將}-고감관^{庫監官}-색리^{色吏}-발십고^{撥什庫}-갑군^{甲軍}-아역^{衙譯}-대자^{代子}-영송관^{迎送官}-박씨^{博氏}-창고지기^{庫直}-종인^{從人} 등 고위직에서 하급직까지 다양했다. 인정비는 청에 갈 때와 복귀할 때 이중으로 지급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대청사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청 교체기의 특정시기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청사접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용되었다.

1644년(인조 22) 청 순치제가 조선에 칙유를 보내왔다. 청의 입관, 북경점령을 통보하는 칙유이다. 청은 수시로 군사정벌, 토벌의 승리, 반란세력의 투항, 황제의 친정 등 주요 군사정보를 조선에 통보하는 칙유를 보내왔다. 이는 조청 군사관계에서 중심국으로 위상을 과시하는 효과를 위한 군사외교였다.²⁰⁴

203 『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 4월 11일(병술). “初桓等於先來狀啓略曰 禮部序班王哥 持示禮部議奏草本二稿 一則援辛酉例 一則援己巳甲戌例 且問欲從何年例 臣等願據辛酉例 仍許以賂五十金 居數日 大通官金四傑 自懷中出示議奏草本 臣等不勝驚駭 使首譯等傳言 議奏辭意 殊極無謂 豈可不問使臣 而直以此議奏耶 四傑言 淸堂上三人之意如此 既已定稿 勢難容力 臣等意謂 此非渠白地撰出 必有所藉之處 再三開諭 以求善處之道 則乃曰 禮部堂郎 用賂處多 非三千金則難諧 其間情狀 有難測度 而百爾思量 不如姑從其言 遂約給二千八百金 翌日四傑來言 往見諸堂上懇乞 則今始準許云”.

204 『통문관지』 권9, 기년(인조). 청이 보내온 칙유는 대부분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는 하

조선후기 조선에 오는 청 사신은 황제 명의의 문서를 지참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황제 명의의 문서가 가지는 외교적 위상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사신이 대부분 청의 중요 직책을 수행하는 관원이라는 점이다. 조선후기 청이 조선에 파견하는 대표적인 사신이 책봉사冊封使이다. 황제문서를 지참하여 조선에 와서 조선 국왕의 책봉의식을 주재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청은 조선에 파견하는 책봉사를 기인旗人인 만주족으로 차정했다. 이는 조선을 대청제국체제에 편입된 국가로 인식하였음을 반영한다.²⁰⁵

청의 사신 차정도 청의 세계제국 경영 차원에서 세밀하게 검토되어 선정된다. 당연히 조선 역시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사신으로 오는 청 사신을 규정과 의례에 부합되게 접대했다. 조선의 청 사신 접대는 영접도감迎接都監에서 담당하였다. 영접도감의 책임자는 조선초기에 영접도감사迎接都監使였으나, 조선후기에는 관반館伴이었다. 영접도감은 정식 상설아문과 달리 임시기구로 제반 설치과정 및 각종 규례規例와 사목事目 등을 별도의 기록되었다.²⁰⁶

조선후기 사신접대는 현대적 의미의 접대라기 보다 사신보다 사신이 지참하고 오는 황제 명의의 문서에 대한 예우로 접대, 영접 등 용어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조선의 요구를 수용하는 황제의 문서를 가져오는 사신이므로 조선은 황제에 대한 예우를 적용했다. 이런 점에서 조선의 국가 경영에 최우선 과제였던 국가안보에 연관된 사행과 사신접대는 국가 차원의 사업이었다.

늘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모든 우리 신민이 다 기뻐서 경축하니, 왕은 藩封에 있어 마음을 같이할 것이므로 이를 알린다.”라 하여 군사정보의 통지 목적을 밝혀 두었다.

²⁰⁵ 구범진, 「청조의 조선사행 인선과 대청제국체제」, 『인문논총』 59, 2008.

²⁰⁶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7월 15일(임자). “憲司啓曰 近者姦兇之徒 依托使臣 作弊中外 宜考迎接都監所錄 一一痛懲 從之”

〈표 20〉 조선후기 영접도감의궤 목록

서명	등록번호	연대
영접도감사제청의궤	규 14556, 14557	1610
영접도감도청의궤	규 14545, 14546	1610
영접도감미면색의궤	규 14551	1610
영접도감반선색의궤	규 14573, 14574, 14575	1626
영접도감도청의궤	규 14559, 14560	1634
영접도감응판색의궤	규 14561, 14562	1634
영접도감반선색의궤	규 14563, 14564	1634
영접도감군색의궤	규 14565, 14566	1634
영접도감연향색의궤	규 14567, 14568	1634
영접도감미면색의궤	규 14569, 14570	1634
영접도감잡물색의궤	규 14571, 14572	1634
영접도감군색의궤	규 14577	1637
영접도감반선색의궤	규 14576	1643
영접도감응판색의궤	규 14578	1643
영접도감연향색의궤	규 14579	1643
영접도감잡물색의궤	규 14580	1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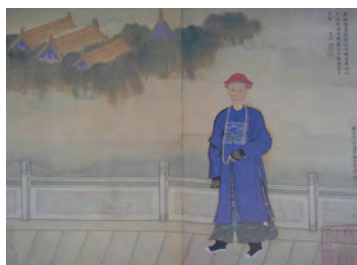
조선후기 조선은 황제 명의 문서를 전달하러 오는 청 사신의 접대관련 사항을 의궤로 종합 정리하였다. 이는 차후에 동일한 조청 군사관계 사신 접대가 있으면 참고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 중인 조선 후기 영접도감의궤는 16종 27책이다. 대부분이 광해군대에서 인조대에 작성된 것으로 영접도감의궤는 1610년에서 1643년으로 더 이상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조는 사신접대의 기록을 외교문서로 일괄 정리하였다.²⁰⁷

영접도감 구성은 조선초기에 사^使, 판관^{判官} 등의 관직이 있었지만,²⁰⁸ 점차 제조제^{提調制}가 정착되어 조선후기 제조^{提調}, 관반^{館伴}체제로 정착되었다. 영접도감의 구체적인 기구를 살펴보면 정승^{正卿}으로 관반을 삼고, 호조판서가 예겸^{例兼}하는 제조가 각각 1명씩 있어 영접도감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했다. 기구로는 도청^{都廳}, 군색^{軍色}, 응판색^{應辦色}, 연향색^{宴享色}, 미면색^{米麵色}, 반선색

²⁰⁷ 『정조실록』 권18, 정조 8년 10월 9일(신묘).

²⁰⁸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10월 15일(무신); 권34, 17년 8월 3일(병술).

飯膳色, 잡물색雜物色 등 1청廳 6색色으로 구성되었으며, 별공작別工作, 난례색儼禮色, 분공조分工曹, 분내자시分內資寺, 분내섬시分內膳寺, 분예빈시分禮賓寺, 수리소(修理所), 전설사典設司, 사옹원司饔院, 장흥고長興庫, 제용감濟用監, 상의원尙衣院, 태평관太平館 등 분사分公司가 있었다. 도청을 제외한 6색과²⁰⁹ 분사는 실무부서로 도청의 통제를 받아 운영되었다.²¹⁰



〈그림 41〉 청 사신 아극돈

(소장 : 숭실대박물관)

17세기 조선에 4차례 청사로 왔던 아극돈은 조선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여 각종 외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한양에서 개설되는 영접도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욱 사신과 함께 의주에서 한양까지, 한양에서 의주까지 동행하며 각종 정보를 교류하고 실질적인 외교교섭을 벌이는 인물은 원접사遠接使와 역관이었다. 조선은 사신접대 절차에 따라 영접했다. 이들 사신에 대한 접대절차는 ① 평안감사의 청 사행 출래보고, ② 보고접수, ③ 영접도감 설치, ④ 관반 선정, ⑤ 원접사 차출, ⑥ 문례관과 차비관 선정, ⑦ 각지 통과지점 영위사 선정, ⑧ 요동도사 수행시 도사선위사 차출, ⑨ 어전통사 선정, ⑩ 연소종친부마의 사옹원제조 체임, ⑪ 인정잡물 예비, ⑫ 사신의 서울도착, ⑬ 태평관에서의 영접, ⑭ 궁궐에서의 행례, ⑮ 태평관에서의 하마연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²¹¹. 이처럼 영접과 관련하여 차정되는 인원은 약 63명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²¹², 대개가 사신출래의 보고가 도착하는 당일에 ①~⑩의 과정이 이루어졌다.

조선후기 조선에 온 청 사신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아극돈阿克敦이

209 『迎接都監都廳儀軌』(奎14559); 『迎接都監軍色儀軌』(奎14577); 『迎接都監應辦色儀軌』(奎14578); 『迎接都監宴享色儀軌』(奎14579); 『迎接都監宴享色儀軌』(奎14567); 『迎接都監米麵色儀軌』(奎14569); 『迎接都監盤膳色儀軌』(奎14563).

210 『만기요람』 財用編 5, 支勅, 延接都監分掌; 『통문관지』 事大(下), 都監堂上以下各務差備官.

211 이현중, 「明使接待考」, 『향토서술』 12호, 1961, 91~92쪽.

212 『眉巖日記草』 2책, 무진 4월 11일.

다. 장가씨(章佳氏)로 만주 정람기(正藍旗) 출신인 아극돈은 과거에 급제한 이후 시강학사(侍講學士)가 되었다. 내각학사, 한림원(翰林院) 장원학사(掌院學士), 예부시랑, 국자감(國子監) 제주(祭酒), 협변대학사(協辦大學士)를 거쳐 태자태보(太子太保)를 역임한 아극돈은 신강의 준가르 정벌에 참전하기도 했다.



〈그림 42〉 모화관에서 청 사행을 맞이하는 조선국왕

(소장 : 송실대박물관)

청 고위관원 가운데 조선에 4차례 사신으로 왕래한 아극돈은 조청관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²¹³ 1725년(영조 1) 경종

조선은 원활한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사접대에 국왕을 중심으로 일원적인 활동을 펼쳤다. 출래했던 청사는 청에 돌아간 뒤 조선에 우호적인 정책입안 및 결정과정에 참여했다.

의 사망에 대한 조문과 영조의 왕위계승을 책봉하는 사신으로 왔을 때, 아극돈은 자신의 사행간 듣고 본 것을 화원을 통해 그림으로 남겼다.²¹⁴ 아극돈의 『봉사도(奉使圖)』를 통해 조선후기 조청관계에서 조선의 원활한 외교활동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① 조선의 최북단 국경지역인 의주에서 청의 사행 파견관련 문서를 접수하여 평안감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취합한 평안감사가 조선국왕에게 청사행의 출래를 보고한다. ② 평안감사의 보고를 승정원에서 접수하여 국왕에게 보고한다.²¹⁵ ③ 이에 국왕은 영접도감을 설치했다. ④ 영접도감을 관장할 관반을 선정하고, ⑤ 의주에서 직사를 맞이할 원접사를 차출했다. ⑥ 뒤이어 국왕은 문례관과 차비관을 선정했다. 문관 가운데 당하관으로 문례관(問禮官)을 선정했다. ⑦ 문례관이 선정되면, 뒤이어 각지 영

²¹³ 『영조실록』 권4, 영조 1년 3월 17일(음묘).

²¹⁴ 정은주, 「아극돈 <봉사도> 연구」, 『미술사학연구』 246-247, 2005; 박종훈, 「청 사신 아극돈의 조선 인식-〈봉사도〉와 연관하여」, 『온지논총』 31, 2012.

²¹⁵ 『경국대전』 禮典, 朝儀條. “迎詔勅及正至聖節誕日賀禮 百官先期習儀”.

위사를 선정했다.²¹⁶ ⑧ 만약 요동도사에서 직사를 수행하면 도사선위사를 차출했다. ⑨ 국왕의 직사접견에 대비하여 어전통사를 선정하고, ⑩ 연소한 종친부마를 사옹원제조로 체임했다. ⑪ 뒤이어 직사에게 제공할 인정잡물을 예비하고, ⑫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면 홍제원별문안사^{弘濟院別問安使}를 파견하여 접대하였다.²¹⁷ 뒤이어 모화관에서 영조의^{迎詔儀}, 영칙의^{迎勅儀}를 행한다.²¹⁸ ⑬ 의례가 마치면 태평관에서의 영접이 이어졌다. ⑭ 궁궐에서의 행례절차는 사행의 임무에 따라 책봉의^{冊封儀}, 조제의^{弔祭儀}, 전부의^{傳訃儀}, 사사의^{查使儀} 등의 의식이 행해졌다. ⑮ 태평관에서의 하마연이 이어졌다.²¹⁹

조선후기에는 이들 연회가 많이 줄어 3차례^{仁政殿請宴, 館所宴, 郊外餞宴}만 행하였다. 이러한 연향이 만약 재일^{齋日}과 겹치면 다례로 대행하였다. 연회의 명칭과 차수는 매양 임시하여 가감하고 진퇴하는 예가 많아 일정하지는 않았다.²²⁰ 중요 연향과 별도로 중간에 별차담^{別茶啖}, 별병^{別餅} 및 반배^{盤排}가 행해졌는데 이는 조선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예부에서 부경사행에 대해 베푸는 연회와는 달리 청사에게 베풀어지는 연회는 외교교섭의 장이었다.

사신이 돌아가는 경우, 출경^{出京} 전날에 태평관에서 앞으로의 여정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상마연을 베풀고, 출경 당일에 모화관^{慕華館}에서 전연^{餞宴}을 베풀 뒤 백관이 모화관 문밖 길 왼쪽에 품계에 따라 두 줄로 순서대로 늘어 서서, 사신이 열의 선두에 이르면 백관이 일시에 재배례^{再拜禮}를 행하고 전송^{餞送}하였다.²²¹

216 『萬機要覽』財用編5, 支勅, 問安使次數. 舊例에는 馬轉坂에 와서 宿泊하였는데, 숙종 원년(1675)부터 이곳으로 옮겨서 숙박하였다. 平安道觀察使는 중국 사신을 安州에서 迎送하였는데, 인종 원년(1545) 이후 義州의 義順館에서 迎送하였다.

217 『통문관지』권4, 事大, 郊迎儀.

218 『세종실록』권39 世宗 10年 3月 辛丑, 卷48 世宗 12年 4月 丙戌

219 『통문관지』권4, 事大, 冊封儀; 弔祭儀; 傳訃儀; 查使儀; 仁政殿接見儀; 見官禮儀, 入京宴享儀.

220 『만기요람』財用編 5, 支勅, 宴享式.

221 『경국대전』禮典, 待使客; 朝儀.



〈그림 43〉 전통적인 서울의 외교공간

조선후기 조청관계에서 서울의 외교공간은 왕궁과 관청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공간, 왕궁과 태평관을 중심으로 한 외교의례공간, 외교활동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절차에서 주목되는 것은 극진한 접대과정을 행하면서도 조선의 중요한 정보가 사신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사신이 지나는 지역에서 법령문서(法令文書)를 숨기고, 표류한 청인을 다른 고을로 옮겼으며, 일본사신을 포구에 머물게 하였다. 또한, 사신접대에 있어 영접도감의 2/3에 해당하는 숫자로 차정되었던 통사는 사신일행에 대한 행동의 제한과 기타 조선에서의 의례절차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단순한 통역의 임무이외에 실질적인 사신접대와 사신관(使臣館) 무역을 주도하였다.²²²

이와같이 조선후기 청사접대는 군사외교를 포함한 포괄적인 외교활동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19세기에 접어들며, 서울의 외교공간도 변화하였다. 조선후기 서울을 중심으로 외교공간은 외교정책공

²²² 김경록, 「조선평기 조선평기 대명외교와 외교절차」, 『한국사론』 44, 2000.

간, 외교의례공간, 외교활동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교정책공간은 왕궁을 중심으로 조선 국왕과 관부에서 외교정책을 구상하고 결정하는 공간이다. 반면 외교의례공간은 성밖의 모화관, 왕궁 등 주요 외교의례가 설행되는 공간이다. 반면에 외교활동공간은 주로 청사가 머무는 공간으로 태평관, 한강 등이 해당된다. 이 공간에서 조선의 관원과 청사는 각종 외교활동을 펼쳐 자국의 외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19세기에 서구 열강이 서울에 외교공관을 마련하면서 서울의 외교공간은 급변한다. 전통적인 외교공간 개념에 변화가 생겨 주로 외교공관이 밀집한 대사관 지역에서 주로 외교활동, 외교정책, 외교의례가 이루어졌다.



집 필

김경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감 수

강석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김강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조선후기 한중군사관계사 | 상권 |

발 행 일 2024년 12월 31일

발 행 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디자인 · 인쇄 국방출판지원단 M24120649



조선후기
한중군사관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9 791155 981221
ISBN 979-11-5598-122-1(93390)

발간등록번호 11-1290472-000239-01